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7 호

평 양 근로자사 1972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7 호(364)

차 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빛나는 승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을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휩싸이게 하였으며 전세계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성명에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며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며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를 하지말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원칙이 밝혀져있다.

여기에는 또한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끊어졌던 민족적련계를 회복하고 서로 리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고 다방면적인 교류를 실시하며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협조하는 등 중요한 문제들이 지적되여있다. 이밖에도 합의사항을 추진시키고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해결하며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남북대표들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할데 대하여서와 합의사항을 성실히 리행할데 대한 문제들이 언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의 빛나는 승리로 되며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커다란 돌파구를 열어놓은 중대한 사변으로 된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통일할 수 있는 초보적인 기초가 마련되였다. 오래동안 지속되어온 남북간의 동결상태는 마침내 풀리기 시작하고 한민족안에 뿌리깊이 박힌 오해와 불신임의 분위기는 가셔지기 시작하였으며 대화와 접촉의 길이 마련됨으로써 민족의 숙원인 통일위업실현에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실로 우리는 거족적인 평화통일운동의 새로운 력사적시기에 들어서게 되였다.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의 이 빛나는 성과는 오직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제시하신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방침이 있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이룩될수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문제를 전체 인민의 념원과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침과 방도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정확하게 이끌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언제나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할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또한 남북간의 제도상 차이는 있지만 호상 신뢰하고 호상 존중하는 조건에서 전민족적단합을 이룩할것을 주장합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한 담화》, 14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국토가 량단된 첫시기부터 나라와 민족의 분렬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원칙에서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을 시종일관 견지하여오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통일된 조선을 가장 훌륭한 선물로 안겨주시려는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최대의 민족적과업으로 규정하시고 자주, 민족적대단결, 평화통일의 원칙에 따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민족분렬의 비극을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위업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로 하여금 무려 130여차에 걸쳐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내놓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시기에만도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 8개항목의 구국방안을 내놓도록 하시였으며 특히 지난해 8월 6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는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주동적으로 천명하시였다.

남북간의 접촉을 통하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할데 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방침에 의하여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회담이 마련되였으며 그것은 지금 자기 사업을 성과있게 계속하고있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올해 신년사와 일본 《요미우리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친 외국기자들과의 담화를 통하여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구국방안들을 거듭 제시하시였으며 이번 공동성명의 기본내용으로 되는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내놓으시였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만일 남조선위정자들이 이제라도 외세의존과 민족반역의 길을 버리고 참다운 조선사람의 립장으로 돌아선다면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을것이며 그들과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이라는 주동적이며 아량있는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이 방침에는 애국적량심을 가진 사람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원하고 그를 위해 나서는 사람이라면 모두다 묶어세워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시려는 가장 숭고한 동포애적념원이 깃들어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성된 정세에 맞게 가장 현실적이고 공명정대한 새 방안들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확하게 령도하심으로하여 지금까지 문을 닫아매고 남북협상에 응하지 않던 남조선당국자들도 마침내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게 되였으며 남북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력사적인 마당에까지 이르게 되였다.

참으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조국통일의 대문이 열리기 시작한 이 감격적인 시각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다시금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며 영명한 수령님을 모시고있는 끝없는 영예와 민족적자부심을 더욱 높이 간직하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시고 이번 남북회담에서 채택된 자주, 민족적대단결, 평화통일의 3대원칙은 우리 조국의 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초석으로 된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가운데서도 핵을 이루는것은 외세를 배격하고 조선사람자신의 손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자주성의 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도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여야 하며 또 결코 달리는 될수 없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00페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성의 원칙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도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근본지침으로 된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미제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분렬을 끝장내고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이룩하려는 남북조선인민의 사활적인 요구로 된다.

조선의 통일은 그 어떤 외부세력도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해결할수도 없는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은 자주성의 원칙에 따라 조국통일문제를 자신의 손에 튼튼히 틀어쥐여야만 통일위업을 실현할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서는 도대체 그 해결을 기대할수 없다.

외세에 의거하여 통일을 실현하려는 것은 망상이며 그것은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예속을 가져올뿐이다.

오늘 미제국주의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나 그 침략적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았으며 또 변할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영구히 분렬시켜 남조선을 놈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망상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재침야욕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우리 인민은 결코 1910년의 수치스러운 민족의 력사를 되풀이할수 없으며 민족분렬의 비극을 이 이상 더 참을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여야 하며 나라의 완전독립을 쟁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직 자주통일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만약 외세에 의존하고 그 간섭을 허용하면서 《통일》할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바로 미일침략자들이 원하는대로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는 길이며 식민지노예화의 화근을 영원히 남겨두는 것으로 된다.

우리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리익과 념원에 맞게 그리고 되도록 빨리 해결하자면 무엇보다도 조선사람자신이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이 되여야 하며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막아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교활하게도 우리 나라에 대한 제놈들의 침략야망을 가리우기 위하여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왔으며 오늘도 판문점에서 유엔의 기발을 들고 우리와 맞서있다.

8. 15후 27년이 되도록 조국이 통일되지 못하고 우리가 민족분렬의 고통과 재난을 겪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엔의 간판밑에 우리 나라의 통일위업을 파탄시켜왔기때문이며 미제를 하느님같이 믿는 어리석은 반동세력이 상전의 옷자락에 매여달려왔기때문이다.

이번 남북회담과 공동성명을 통하여 일체 외세에 대한 의존과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원칙에 쌍방이 합의를 보게 된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승리이며 민족자주의식의 승리이다.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원칙은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원칙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는것은 자주적 조국통일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리익과 념원에 맞게 해결하자면 우선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외세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단결은 힘의 원천이다. 온 민족이 단합하여야만 조국통일문제해결의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민족의 리익에 맞게 통일을 실현할수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민족안에는 남북의 분렬로 말미암아 랭랭한 감정과 일련의 문제들에서 오해와 불신임이 조성되여있으며 사상, 리념과 제도상 차이가 있다.

우리는 격페된 감정과 오해와 불신임을 풀어야만 합작도 할수 있고 단결도 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조선사람들끼리 마주앉으면 서로 불신임하고 오해하고있는 점들을 제거하고 공통점을 찾으며 이에 기초하여 민족적단합을 이룩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미국 〈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한 담화》, 12페지)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사람자신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안에서 생긴 불신임과 오해를 풀어줄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협상하고 래왕하며 모든 방면에서 교류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남북조선이 민족적단합을 이룩함에 있어서 제도의 차이, 사상과 리념의 차이가 장애로 될수 없으며 또 장애로 되여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남조선인민들을 제국주의노예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며 남북간의 인공적인 장벽을 허물고 민족분렬의 불행과 고통을 없애며 나라의 자주독립을 완성하는것보다 더 중대하고 절박한 문제는 없다.

이 절박한 민족 최대의 과업앞에서 우리는 응당 사상과 리념의 차이,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전민족의 근본리익의 견지에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립장에 선다면 제도의 차이, 사상과 리념의 차이를 초월하지 못할 리유가 없다. 이러한 차이는 우선 단결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도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는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는 남조선에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강요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남조선에 어떤 사회정치제도를 세울것인가 하는것은 결국 남조선인민대중이 결정할 문제이다. 한 나라안에서도 다른 정치제도나 사회제도가 있을수 있고 각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수 있는것이다.

나라의 통일위업은 우리 민족의 첫째가는 공동의 임무인만큼 그 누구든지 정치적견해와 사상의 차이, 사회제도의 차이를 구실로 민족대단결에 외면할수 없다. 우리가 만일 정견과 제도의 차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단결하지 못한다면 남북간의 차이는 더욱더 커질것이며 나라의 통일은 이룩되지 못할것이다.

남북간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단합을 이룩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반공》사상의 독소를 없애는것이다. 《반공》은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사회주의제도와 공산주의자들을 비방중상하며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들고나온 반동적인 구호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반공》의 구실밑에 우리 나라를 남북으로 분렬시키고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신임을 조성시켜왔다. 반동들은 《반공》의 이름밑에 인민대중을 탄압하고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으나 결코 인민들을 기만할수는 없다. 누구든지 제국주의자들이 꾸며내는 《반공》소동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리용당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론하기 전에 먼저 민족의 리익, 인민대중의 리익을 생각해야 한다.

남북조선사람들이 서로 믿고 존중하면서 접촉과 교류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굳게 단결한다면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힘은 몇배로 강대해질것이며 그 힘은 능히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도 막아낼수 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시종일관 견지하시는 조국통일의 근본방침의 하나는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것이다.

남북간에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조국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원칙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절절한 념원

을 반영하고있으며 인민의 리익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시는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구현하고있다.

전쟁의 근원은 어느때나 착취자, 침략자들에 있으며 전쟁에서 재난과 참화를 당하는것은 인민대중이다. 인민들은 오직 침략자, 착취자들이 폭력을 사용할 때에 이에 맞서서 무장을 들고 투쟁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전쟁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사회적세력이 없으며 인민들에게는 남을 침략하거나 굴복시키려는 의사가 있을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시종일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진할 의도가 없으며 무력으로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03페지)

우리 인민, 우리 민족의 리익에 끝없이 충실하신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당과 정부는 그 어느때나 《남침》의 의사가 없다는것을 거듭 선포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은 오직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야망에 기인한다. 남북조선인민들은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전쟁으로 하여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겪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며 《조선사람끼리 싸우게》 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만약 남조선위정자들이 미일침략자들을 등에 업고 《북진》할 의도가 없다면 우리가 동족끼리 싸워야 할 근거는 없는것이다. 우리가 동족끼리 싸운다는것은 바로 우리 나라를 침략하며 우리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외래침략자들이 바라고있는바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평화적조국통일방침에 따라 우리 당과 정부는 일찍부터 남북이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데 대한 협정을 맺으며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남북의 군대를 대폭 축소할것을 제의하여왔다.

이번 남조선당국이 조국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할데 대한 원칙에 동의한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조국통일방침이 가져온 귀중한 열매이며 우리 인민이 달성한 하나의 커다란 승리로 된다.

남북회담에서 합의를 보고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는 3대원칙에 따라 남북조선사람들이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통일문제를 조선사람자신의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나간다면 조국의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룩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이와 같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리익과 념원에 완전히 부합되게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공명정대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조국의 통일을 열망하는 전체 조선인민들은 물론 전세계 선량한 인민들은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 그것을 열렬히 지지환영하면서 그 내용들이 하루빨리 실현되여 훌륭한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은 겉으로는 조선의 평화와 평화적통일을 지지하는척 하지만 속으로는 그것을 달가와하지 않으며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계속 악랄하게 책동할것이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의연히 일련의 난관들이 조성될수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한미호상방위조약의 변함없는 준수》요, 《한국군현대화계획의 계속추진》이요 하면서 《궁극적으로 조선반도의 통일은 유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망발을 늘여놓고있다. 여기에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끼여들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부추김을 받아 국내반동들, 친미파, 친일파, 극단분자들 역시 나라의 평화와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하여나서고있다.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이 제

아무리 날뛰여도 놈들의 음흉한 책동은 대세의 흐름을 막을수 없으며 수치스러운 파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는 통일을 방해하며 민족분렬의 영구화를 꾀하는 미일침략자들과 국내반동들에 대하여 혁명적경각성을 높이고 그들의 음모책동을 철저히 폭로하며 반드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조선의 분렬을 이 이상 지속시키지 말아야 하며 우리는 반드시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력사적전환기에 처해있는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사상적준비와 물질적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할것이다.

사상적준비를 갖추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사상만이 북반부혁명기지를 강화하고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선을 통일하며 조선혁명을 완성하자는 가장 정당하며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혁명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불멸의 홰불이며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우리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혁명앞에 부닥친 모든 준엄한 시련과 난관들을 이겨내고 그때마다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나아감으로써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그것을 자기의 확고한 세계관으로 만들며 수령님을 유일중심으로 한 전당과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한층 강화하여야 할것이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계속 혁명적앙양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당면하여 우리는 올해 생산계획을 10월 10일전으로 앞당겨 끝내며 년말까지는 6개년계획의 1973년도말 생산수준을 돌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자면 남북간에 접촉과 교류를 확대하며 쌍무적인 회담을 다무적인 회담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조선사람들끼리 마주앉는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불신임하며 오해하고있는 점들을 더빨리 제거하고 공통점을 찾으며 이에 기초하여 민족적단합과 평화적통일을 이룩할수 있을것이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 민족적대단결, 평화통일의 기치밑에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이 힘을 합쳐 싸워나아간다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얼마전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4차전원회의에서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한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새로운 의무교육을 올해부터 시작하여 가까운 몇해안에 전면적으로 실시할데 대하여 결정을 채택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가 교육부문앞에 제기한 강령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우리의 인민교육제도를 더욱 완성하고 인민교육사업을 한계단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교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요구와 사회주의교육발전의 합법칙성, 나라의 현실적조건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10년동안의 학교의무교육과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입학나이를 한살 앞당겨 학교에 받아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줄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0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시험을 전국적으로 포치하시고 몸소 지도하시였으며 그 경험을 교육학적으로 심오히 종합분석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의 지적발전수준과 사물현상에 대한 인식능력, 신체발육상태로 보아 만 6살이 되면 능히 체계적으로 학교교육을 줄수 있으며 10년동안의 의무교육기간에 중등교육을 완성할수 있다는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시였다.

10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입학나이를 아래로 한살 앞당기는것은 나라의 로력사정을 긴장시키지 않고 의무교육년한을 늘이게 함으로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과학문화발전을 다같이 다그치는 가장 합리적인 조치이다. 의무교육년한을 아래로 앞당기게 하는것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의무교육을 마치는 나이에 있어서는 9년제의무교육의 경우와 같으면서 그 수준에 있어서는 지금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받고 2년동안 교육을 더 받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주며 중등교육을 완성시켜주는 우월한 의무교육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10년제고중의무교육은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성과에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을 한계단 높이 발전시킨 선진적인 교육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 지금까지 실시한 9년제기술의무교육은 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선진적인 교육제도로서 사회주의공업화시기의 요구에 상응하게 로력자대렬을 끊임없이 보충하며 사회주의공업화에 필요한 기술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에서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이룩한 승리에 그 기초를 두고있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은 후대교양에 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의 빛나는 구현이며 우리 나라 인민교육제도의 가일층의 완성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유치원의 높은반에서 학교전교육을 1년동안 의무적으로 줄데 대한 새로운 방침은 입학나이를 앞당기는 조건에서 유치원단계의 교육을 강화하여 초등교육을 순조롭게 주며 학교전 교육과 초등교육간,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간의

련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 앞으로 이 방침이 실현되면 우리의 모든 자라나는 새세대들은 유치원단계에서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과 10년동안의 의무교육을 받게 되며 이리하여 사실상 11년동안의 무료의무교육을 받는것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10년제고중의무교육은 학교교육의 수준을 한계단 높여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을 튼튼히 세워줌으로써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다그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것은 우리가 틀어쥐고나아가야 할 교육사업의 기본방침입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504페지)

오늘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치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지고있는 환경에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고있다.

우리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혁명의 과녁도 변하지 않았으나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여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도 모르고 혁명투쟁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과 특히 새세대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그들을 어떤 역경속에서도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는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울것을 절실하게 요구한다.

특히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대사변을 맞이하게 된 오늘 우리들앞에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속에서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며 자본주의제도와 부르죠아적생활양식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않도록 철저히 교양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을 계속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사활적문제이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은 의무교육단계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새세대들에게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을 튼튼히 세워줌으로써 우리 혁명앞에 나서고있는 이러한 요구들을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은 소위 《순수교육》을 주장하면서 기술과 지식일반에 치우치는 부르죠아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장 혁명적인 교육제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은 사상혁명의 수행에서뿐아니라 한계단 높은 기술혁명을 감당해나갈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를 육성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데서도 큰 의의를 가지게 된다.

10년제고중의무교육은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한계단 높이며 기술혁명의 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의무교육단계에서 학생들은 현대과학기술의 기초지식을 폭넓게 습득하게 되며 따라서 그들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술혁명의 과업을 능숙히 수행할수 있는 쓸모있는 일군으로 준비되게 된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통하여 모든 새세대들이 완성된 중등교육을 다 받게 됨으로써 로력자대렬은 기술문화수준이 높은 새세대들로 끊임없이 보충되여 근로자들의 문화수준이 현저히 높아지게 될것이며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보다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로 그 위력을 더욱 떨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4.6학제(인민학교 4년, 중학교 6년)는 의무교육의 내용을 개선하고 그 수준을 높여 교육을 우리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정확히 진행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학제이다. 또한 이 새로운 학제는 중등교육을 분화하는 학제와는 달리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

계에로 이르는 중등교육의 전과정을 단일한 학제에 의하여 완성함으로써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높은 단계까지의 중등교육을 누구나 다 같은 내용으로 중단함이 없이 받게 되는 새로운 형의 발전된 학제이다.

이것은 새로운 학제가 소수 특권계층 자녀들만 선발하여 중등일반교육을 완성시키고 절대다수의 근로자들의 자녀들에게는 어려서부터 기형적인 《직업교육》만을 강요하는 부르죠아학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장 평등하고 인민적인 학제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무르익히신 후대교육에 관한 원대한 구상과 친히 작성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여오신 혁명적교육강령에 그 력사적뿌리를 두고있으며 반세기에 걸치는 오랜기간 후대교육사업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과 위대한 성과에 기초하고있다.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간고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오로지 민족의 번영과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짧은 기간내에 초등의무교육으로부터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마련하심으로써 지난날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선진적인 교육의 나라로 전변시키시였다.

후대교육사업을 중요한 혁명사업으로 제기하시고 언제나 이에 깊은 관심과 끊임없는 배려를 돌리고계시는 수령님께서는 최근시기만 하여도 여러차례에 걸쳐 10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대책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반적10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학교교육의 수준을 더한층 높이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오게 될것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20페지)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은 우리 나라 교육발전에서 또하나의 위대한 전변이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관철하게 하며 현대과학기술의 기초지식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라나는 후대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훌륭히 담당수행할수 있는 믿음직한 새 사회 건설의 역군으로 키울수 있게 한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에는 주체적교육사상과 교육사업을 심화발전하는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따라세우고 앞세우시는 그이의 천재적예지가 구현되여있으며 우리의 새세대들을 훌륭히 키워 우리 나라를 보다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로 되게 하시려는 수령님의 위대한 뜻이 깃들어 있다.

실로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은 후대교육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높은 뜻을 구현하여나가는 영예로운 사업이며 혁명의 휘황한 앞날과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사업이다.

당조직들과 정권 및 경제기관일군들, 교육부문일군들은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의 하나는 의무교육의 내용을 옳게 편성하는것이다. 교육의 내용을 옳게 편성하여야만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전반적 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내용을 정확히 편성함으로써 의무교육기간에 청소년학

생들에게 반드시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을 확고히 세워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기간에 사상정치과목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청소년학생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을 옹호보위하고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키워야 한다.

사상정치과목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과 함께 의무교육기간에 청소년학생들을 현대과학기술의 기초지식을 깊이있게 체득하도록 교육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교원양성규모를 늘이고 교원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그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더한층 높이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교원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양성하는 문제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성과적실시를 위한 관건적문제이다.

무엇보다먼저 급격히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교원을 더 많이 양성하는것이 중요하다.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의 규모를 늘여 교원들을 더 많이 양성하며 교원들을 고착시킴으로써 늘어나는 교원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교원들을 많이 양성하는 사업과 함께 그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교원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은 교육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무엇보다 먼저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것이 중요합니다. 교원들의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교수교양사업의 질을 높일수 없으며 우리가 요구하는 우수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낼수 없습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234페지)

교원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학교교육의 수준을 높일수 없으며 특히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줄것을 예견하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할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교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붉은 공산주의교육자로 되게 하며 그들의 수준을 가까운 몇해동안에 한계단 더 높여야 한다. 교육일군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수령님의 교시의 진수와 전반사상, 그 수행방도에 이르기까지 심오히 체득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자질을 일층 높이며 교수교양사업의 당정책화수준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교원들에 대한 재교육체계를 더욱 정연하게 세우고 재교육의 질을 높이며 현실에 대한 그들의 안목을 넓히게 하는것이다. 모든 교원들이 매년 한번씩 재교양체계에 망라되여 학습하도록 하며 공장, 기업소, 혁명전적지와 명승지들에 대한 참관과 견학사업에 적극 참가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며 현실에 대한 안목을 넓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원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는것과 함께 유치원교양원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자질을 높이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어린이들이 유치원과정을 통하여 학령전의무교육을 1년간 받게 되는 조건에서 유치원에서 교양을 잘하는것은 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유치원교양원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건설을 다그치며 교육조건을 원

단히 보장하는것은 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성과적실현을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기 지방의 모든 원천과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필요한 교실을 빨리 지으며 교구비품과 각종 실험기자재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고 많은 교과서들을 집필편찬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더 많은 교실을 짓고 교구비품과 교과서를 마련하는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후대들에게 돌려주시는 육친적배려가 그들에게 가닿도록 하는 영예로운 사업이다.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에서는 이 사업이 가지는 커다란 정치적의의를 당원들과 대중 속에 해설침투하여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하고 지방의 내부예비와 자재, 로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전인민적운동으로 학교와 유치원을 건설하며 교구비품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늘어나는 각급 학교의 교과서와 참고서들을 출판하여 그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과서와 참고서편집출판에서 사상성과 과학성을 보장하는데 심중한 당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이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사업을 개선하는데서도 기본열쇠는 이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입니다. 당의 령도와 지도를 떠나서는 그 어떤 사업에서도 성과를 바랄수 없습니다.》

혁명과 건설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적고리는 이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특히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은 처음으로 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인것만큼 이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당조직들이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실시를 위한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함으로써만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할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는데로 모든 일군들과 교육자들, 전체 근로자들을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거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다.

또한 각급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과 사로청조직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인민정권기관들로 하여금 당의 교육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며 사로청조직들로 하여금 학교내 사로청사업과 소년단사업을 잘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은 사회교양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학교사업과 학생교양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인민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할데 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후대들을 참말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믿음직하게 키워나가야 한다.

열관리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전국열관리원대회가 진행되였다.

세계 어느 나라 력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열관리일군들의 이러한 전국적인 대회는 오직 그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공장의 보배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생산의 첫공정이며 현대산업의 심장인 열동력전선을 맡겨주신 열관리일군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마련되였다.

온 나라가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펼쳐주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올해계획을 10월 10일전으로, 6개년계획의 1973년말 생산수준을 년말까지 달성하려는 장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는 환경속에서 열린 이 대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열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교시관철을 위한 열관리원들의 투쟁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열과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입니다. 동력이 없이는 공업과 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움직일수 없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76페지)

열이 없이는 인민경제의 어느 부문도 움직일수 없으며 열의 생산과 리용문제를 옳게 풀지 않고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은 더 많은 열을 생산하여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열관리문제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관건적문제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그 성과적인 해결을 위한 사업을 정확히 조직령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열관리사업이 경제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첫째가는 과업으로 된다는 탁월한 사상을 내놓으시였으며 사회주의열관리리론의 초석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열관리사업의 위치와 내용, 그 수행방도에 대한 수령님의 과학적인 해명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본질적요구를 열관리분야에 철저히 구현한 빛나는 모범으로서 연료와 열의 생산공급과 리용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정확하게 밝힌 사회주의열관리의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열관리사업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심오히 해명하시였을뿐아니라 혁명발전의 매 시기 연료와 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절약할데 대한 사업을 현명하게 지도하여주시였다.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 수령님께서는 열설비들을 우선적으로 복구하며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열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열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으며 열관리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으시였다.

이 밖에도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와 전원회의를 비롯한 중요회의들에서 열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당적 및 국가적 조치를 취하여주시였으며 현지지도의 바쁘신 나날에도 열관리공들의 일터를 몸소 찾으시여 그들의 사업과 생활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친어버이사랑으로 보살펴주시였다.

참으로 우리 연관리공들이 일하고있는 그 어디에나 경애하는 수령님의 육친의 사랑과 자애로운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란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연관리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오늘 우리는 공업생산을 빨리 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연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현대적이며 자립적인 자체의 연료생산기지를 가지고있다.

연설비관리사업에서 현저한 개선이 이룩된 결과 있는 설비들에서 적은 연료를 가지고 더 많은 연을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보이라들의 구조와 장치를 개조하고 선진적인 운전법을 널리 받아들임으로써 연효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였으며 배관망보온과 물처리방법 등을 개선하여 연손실을 없애고 연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되였다.

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연설비들이 우리나라의 연료조건에 맞게 개조되여 국내탄과 지방연료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게 되였다. 연료가공공업과 연공급의 집중화에서도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

오늘 우리 나라의 연료 및 동력 관리는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며 선진과학기술과 연관리지식을 소유한 연관리공들과 기술자들의 대부대에 의하여 자체로 훌륭히 운영되고있다. 수령님의 육친적인 사랑과 세심한 보살피심에 끝없이 고무되고있는 우리 연관리공들은 연설비들을 극력 아끼고 사랑하며 더 많은 연을 생산하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자기의 온갖 정력과 창발성을 다하고 있다.

연관리분야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는 사회주의연관리에 대한 독창적인 리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우리 열동력전사들을 항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수 있었다.

오늘 연관리일군들과 전체 근로자들 앞에는 이번 대회에서 주신 수령님의 력사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연관리부문에 파묻혀있는 많은 예비와 생산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함으로써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과업을 앞당겨 완수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적은 연료를 가지고 더많은 연을 생산하며 생산된 연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우리 당 연관리사업의 기본요구를 관철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이 부문 일군들속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울데 대한 당의 일관한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는 사람들, 로동계급에 의해서 창조된다. 기술도 사람에 의하여 발전되며 기계도 사람이 만들며 그것을 움직이는것도 사람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도 결국 근로자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어떻게 발양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으며 이것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공업생산의 첫공정을 이루고있는 연관리부문에서도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연관리일군들의 열성과 책임성을 높이 발양시킬 때 모든 문제들이 훌륭히 해결될수 있다. 오직 이렇게 할 때라야만 있는 연설비들을 잘 관리하여 더 많은 연을 생산하는 문제도,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새 기술을 창조하는 문제도, 생산된 연과 연료를 적극 절약하는 문제도 모두다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는 연관리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의 책임성과 열성을 높이고 연관리사업을 개선하게 함으로써 연료와 열을 보다 많이 절약하며 연동력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

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열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또한 3대기술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열관리분야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 이것은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을 고되고 힘겨운 로동에서 해방하여 일은 헐하게 하면서 더 많은 재부를 생산할수 있게 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넉넉하고 문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혁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544페지)

열관리분야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열관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그 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며 이 부문의 로동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성스러운 혁명과업이다.

열관리분야에서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은 열설비들을 우리 나라의 연료조건에 맞게 기술적으로 개조하는것이다.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열설비들을 개조하여야만 연료를 절약하고 열생산능력을 높일수 있을뿐아니라 전반적인민경제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연소장치를 받아들이며 화실구조와 연소장치를 우리 나라의 연료조건 특히 지방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특성에 맞게 현대화, 규격화하여야 한다. 한편 열설비들의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면서 대형보이라생산의 발전을 빨리 다그쳐야 한다.

또한 열공급을 집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개별난방을 점차 없애고 지역단위, 구획단위, 생산단위로 중앙난방화를 널리 실현하여야 한다.

또한 석탄과 증기를 많이 쓰는 화학공업과 금속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원료의 예비처리를 개선하고 선진기술공정과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여러가지 능률적인 기계설비들을 창안제작하여 석탄을 저탄장으로부터 보이라에까지 운반하는 작업, 석탄퍼넣기, 재처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을 기계화하며 점차 반자동화, 자동화에로 넘어가야 한다.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열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과학연구사업에서는 특히 있는 설비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더 많은 연을 생산하며 열설비들을 현대화, 규격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열관리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있는 설비들을 잘관리하는것이다.

열관리부문에서는 있는 설비들에 대한 계획적예방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설비들을 제때에 보수하며 각종 보온재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열설비에 대한 보온을 잘하여야 하며 보이라에서 물처리를 잘하여 물때를 적극 없애야 한다.

석탄의 연소효률을 높이며 페열을 모조리 회수리용하는것은 기술혁신운동을 어떻게 심화발전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열관리분야에서는 석탄을 태우는 효률을 높이며 페열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제반기술적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기술혁명이 추진됨에 따라 로력관리를 개선하여 로력을 적극 절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료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석탄을 적극 절약하는것은 열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석탄을 한톤 캐고 전력을 한키로와트시 생산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귀중한 석탄과 전력을 되는대

로 써서 엄청나게 랑비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77페지)

석탄은 열의 기본원천이며 따라서 연료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은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하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연료관리사업을 잘하여 더 많은 석탄을 절약하기 위하여서는 열관리원들속에서 마치 가정의 주부가 집안과 부엌을 알뜰히 거두듯이 자기 맡은 초소를 알뜰히 꾸리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석탄을 절약하기 위하여서는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저탄장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꾸리며 석탄을 품위별, 규격별로 보관하고 용도에 맞게 공급하는 엄격한 제도를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보이라와 공업로 및 연료의 예비처리공정들에서 합리적인 제진장치와 침전장치들을 받아들여 그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는 동시에 회수리용체계를 세워 재탄과 침전탄을 모조리 리용하도록 해야 한다.

열관리분야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이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개선하는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포괄하고있으며 생산력발전과 기술적진보 그리고 인민생활향상과 직접 관련되여있는 열관리사업은 오직 이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함으로써만 혁명적전환이 일어날수 있다.

열관리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기본은 열관리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끊임없이 혁명화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동무들이 당의 정책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어떻게 하면 당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애를 쓰고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달라붙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섰다고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먼저 열관리부문의 지도일군들과 열관리공들 속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특히 열관리부문에 주신 교시를 깊이 침투시켜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게 하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혁명전통교양과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인민경제의 열동력전선을 튼튼히 지켜선 열관리초병으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열관리 기술자와 기능자 양성사업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당적주의를 돌려야 한다.

특히 열관리공들을 자동차운전수와 같이 양성할데 대하여 주신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그들이 열설비들을 능숙하게 다루도록 하며 기사, 기수 및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 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열관리공들과 열관리일군들은 지난시기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오게 될 6개년계획시기에도 수령님께서 열관리분야앞에 주신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더 빨리 다그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 놓은 위대한 혁명전쟁

한 익 수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며 가장 흉악한 제국주의이며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때로부터 연아홉돐이 된다.

미제침략자들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반대한 조선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계급투쟁이였으며 치렬한 반제반미투쟁이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지켜냈을뿐아니라 세계평화와 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을 수호하고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다.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입은 상처를 아물리지 못한채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에 의하여 련속적인 타격을 받아 멸망의 구렁텅이로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제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미투쟁전략을 높이 받들고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감으로써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제국주의의 종국적멸망을 촉진시키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그쳐 나아가려는 굳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 *

제2차세계대전에서 막대한 리윤을 얻어 살찐 미제국주의자들은 전후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등장하여 세계를 제패하려고 미쳐날뛰였다. 놈들은 이 흉악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 및 중국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는 제3차세계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결정적걸음이였다.》

(《김일성선집》, 제4권, 1954년판, 174페지)

미제는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하면서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정복하고 전조선을 강점하며 그것을 발판으로 새 세계대전을 일으켜 중국과 쏘련을 침공할뿐아니라 온 세계를 제놈들의 예속밑에 넣으려고 망상하였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3년동안의 전쟁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에게 있어서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다. 미제국주의는 세계 《최강》을 떠들면서 백수십차례의 침략전쟁에서 《상승》을 자랑하던 가장 흉악한 침략자였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최신군사기술로 장비한 제놈들의 침략무력의 기본부분과 15개 추종국가군대 및 남조선군을 동원하였으며 일찌기 전쟁력사에서 그 류례를 볼수 없었던 가장 야만적인 전쟁 방법과 수단까지 다 썼다. 당시 우리 공화국은 아직 청소하였으며 인민군대는 정규무력으로 창건된지 불과 두해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추호도 동요하지 않았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최후승리를 확신하고 원쑤를 무찌르는 성전에 결연히 일떠섰으며 전쟁첫날부터 침략자들을 호되게 족쳤다.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자위사상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조국방위전쟁에 관한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군사리론을 창시하시고 우리 당과 인민과 인민군대를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당을 강화하시고 당주위에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를 철통같이 묶어세우시였으며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당, 국가, 경제기관들의 사업을 짧은 시일에 전시체제로 개편하시고 온 나라를 하나의 전투진영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인민군대를 량적, 질적으로 확대강화하기 위한 현명한 방침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의 위력은 그처럼 어려운 전쟁행정에서도 끊임없이 강화되였으며 인민군대는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재적인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조성된 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 적들의 기도와 약점을 명철하게 꿰뚫어보시고 전쟁의 매 시기, 매 개단마다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내놓으시였으며 몸소 진두에 서시여 그의 실현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명확한 전략전술들을 현대전의 조건에 맞게 더욱 발전완성시키시여 산악전과 야간전, 대부대작전과 소부대작전의 능숙한 결합, 정규전과 유격전의 옳은 배합, 적의 불의의 공격에 대처한 즉시적이며 결정적인 반공격전과 련속적인 타격전, 적후에서의 제2전선의 형성, 갱도전, 산악전의 조건에서 포화력의 집중적인 리용과 유동포화동, 여러가지 사냥군조운동과 저격수운동 등 탁월한 전략전술과 전법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능숙하게 적용하시였다. 그리하여 수적, 기술적으로 우세한 미제침략자들을 우리의 정치사상적우세와 전략전술적우세로써 타승할수 있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탁월한 전략전술적지도로 인민군대를 승리에로 이끄시였을뿐아니라 몸소 전선에 나가시여 작전을 지휘하시였으며 싸우는 전사들을 찾으시여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돌봐주시고 그들을 영웅적위훈에로 고무하시였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힘을 전쟁승리를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조직동원하는 현명한 령도력, 위대한 군사사상과 천재적인 지략, 탁월한 령군술, 어떠한 시련앞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인민과 군대를 확고한 승리에로 이끄시는 불굴의 의지와 혁명적진개력으로 전쟁의 어려운 국면들을 타개하시고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반동의 련합세력을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빛나는 승리는 바로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자위적군사사상과 탁월한 군사예술이 가져온 위대한 열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여 미제침략자들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가하심으로써 놈들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고 그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렸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147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미제의 내리막길의 서초를 열어놓은 위대한 혁명전쟁이였다.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미제에게 력사상 처음으로 참혹한 패배를 주고 놈들을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었으며 전세계적범위에서 반제반미투쟁이 앙양되고 승리하는 새로운 력사적시대를 열어놓음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안팎으로부터 련속 호된 타격을 받고 멸망의 길로 줄달음치게 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은 무엇보다먼저 제2차세계대전이후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최대의 식민주의자로 등장하여 《영원한 번영》을 떠벌이던 미제에게 호된 타격을 주고 놈들을 심각한 군사, 정치, 경제적 위기에 몰아넣었다.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39만 7,500여명의 미제침략군을 포함하여 109만 3,800여명의 병력을 잃었으며 1만 2,200여대의 비행기와 250여척의 각종 함선을 비롯한 막대한 전투기술기재를 손실당하였다. 놈들이 3년동안의 조선전쟁에서 입은 병력과 군수기재의 손실은 제2차세계대전시기 4년동안의 태평양전쟁에서 입은 손실의 거의 2.3배에 달한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의 100여년에 걸친 침략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본 일이 없는 가장 커다란 손실이였다.

또한 조선전쟁에서 미제의 악명높은 《명장》도 《상승사단》도 맥을 추지 못하고 녹아났고 놈들의 기술적우세는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세와 전략전술적우세앞에서 무력하다는것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놈들의 반동적군사예술은 전면적으로 파산당하였다. 미제침략군안에는 염전사상이 휩쓸고 특히 혁명적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은 무모하며 거기에서 차례질것이란 오직 패배와 죽음뿐이라는 공포감이 깊이 뿌리박히게 되였다. 이것은 미제침략군안에서 조선전쟁에 참가하는것을 거부한 탈주병의 수가 1953년 1월초까지 륙군에서만 하여도 4만 6,000명에 달하였으며 조선전쟁마당에 끌려왔던 병사들의 거의모두가 복무기한이 끝나기 바쁘게 군대에 남아있는것을 거부하여나선 사실들이 잘 말하여준다.

이 모든것은 미제의 군사적취약성, 미제침략군이 와해의 길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며 놈들의 군사력의 전면적위기를 보여주는것이다.

조국해방전쟁은 미제의 경제적위기를 더욱 첨예화시켰다.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200억딸라이상의 군사비와 태평양전쟁에서 소모한것의 11배에 달하는 7,300만톤이상의 방대한 군수물자를 탕진하였다.

미제는 조선전쟁을 도발함으로써 1948～1949년에 걸쳐 미국경제를 휩쓴 공황에서 벗어날것을 꿈꾸었었다. 그러나 미제는 조선전쟁을 통하여 보다 파국적인 공황을 준비하였을뿐이다.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패전한 뒤를 이어 새로운 심각한 경제공황을 겪게 되였다. 1953～1954년의 경제공황으로 미국의 공업생산은 10.2%나 감소되였으며 그후 미제의 경제위기는 더욱 만성적인것으로 되였다.

조선전쟁은 미제국주의의 정치적위기도 한층 심화시켰다.

조선전쟁과 경제의 군사화는 근로자들에게 죽음과 무서운 빈궁을 가져다줌으로써 미국안에서 계급적모순을 가일층 첨예화시켰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은 조선에 대한 침략전쟁과 독점재벌들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에 떨쳐나섰다. 1945～1949년사이에 미국에서 로동자들의 파업건수가 해마다 평균 4,091건이였다면 그것이 1952년에는 전시조건에서 파쑈적탄압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된 환경에서도 5,117건으로 장성하였다.

한편 조선전쟁에서의 참혹한 패배는 미제의 지배층안에서 미국력사상 일찌기 볼수 없었던 심각한 분렬과 충돌을 낳게 하였다.

미제국주의는 조선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위기에 빠진채 거기에서 헤여나오지 못하고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의 승리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고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전면적붕괴를 촉진시킴으로써 미제로 하여금 내리막길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는 제국주의반동세력에 대한 혁명적인민의 승리였으며 제국주의의 침략적무력에 대한 혁명군대의 승리였습니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유와 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일떠선 인민은 어떠한 제국주의침략세력에 의해서도 정복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미제국주의의 취약성과 부패성을 폭로하였으며 세계피압박민족들에게 미제가 결코 불패의 적이 아니며 그와 능히 싸워이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89페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한 전선에서의 승리는 다른 전선에서의 투쟁을 고무하며 그의 승리를 촉진시킨다. 더우기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진행된 혁명전쟁으로서 그의 승리는 식민지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에 종지부를 찍고 세계인민들속에서 숭미, 공미 사상을 허물어버렸으며 피압박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결사적으로 싸운다면 어떤 원쑤도 능히 때려부실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조국해방전쟁의 영향하에 식민지 및 예속국가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위협과 악랄한 무력적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일떠섰으며 반제민족해방투쟁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대륙을 휩쓸고 세차게 벌어졌다.

조국해방전쟁은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무한히 고무하였을뿐아니라 제국주의식민지체계전반을 뒤흔들어놓고 미제로 하여금 식민지 및 예속국가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는데 힘을 돌릴수 없게 함으로써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또한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피압박인민들의 혁명전쟁에서 확고한 승리를 위한 귀중한 경험을 마련해놓았다.

조국해방전쟁은 무엇보다먼저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이 혁명전쟁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통일단결, 이것은 혁명투쟁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더우기 전쟁의 엄혹한 환경은 수령의 두리에 전국, 전민, 전군이 철석같이 뭉쳐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일것을 보다 절실히 요구한다.

우리 당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림으로써 그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이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웠으며 그들속에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명령지시라면 목숨바쳐 끝까지 관철하는 확고한 혁명적기풍을 세웠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세계반동의 련합세력과 당안에 기여든 미제의 고용간첩,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 종파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안팎에서 싸워야 하였던 어려운 조건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이 보여준 가장 고귀한 경험이다.

조국해방전쟁은 또한 주체사상이 혁명전쟁의 승리를 위한 가장 옳바른 지

도사상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소집되였던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누가 어떻게 도와주든지간에 우리 문제는 자신의 손으로써 해결하여야 합니다. 주인은 우리 조선인민입니다. 주인이 더 많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선집》, 제3권, 1954년판, 172페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매개 나라의 혁명전쟁은 국제혁명력량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매개 나라 혁명전쟁의 승리는 그 나라 당과 인민들의 투쟁여하에 달리게 된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자주적립장, 제힘으로 일떠서는 혁명적원칙을 튼튼히 지킴으로써 자체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할수 있었으며 형제나라들의 원조도 옳게 리용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기 머리로 사고하여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세우고 전쟁행정에서 나서는 모든 정치, 경제, 군사적 문제들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실로 조국해방전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고 승리한 위대한 혁명전쟁이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이미 실증된 주체사상의 불패의 생활력을 다시 한번 확증한 영광스러운 혁명전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조국해방전쟁행정에서는 혁명군대를 불패의것으로 강화한 경험, 수적, 기술적으로 우세한 제국주의침략군대를 정치사상적우세와 전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한 경험, 혁명전쟁의 탁월한 군사전략전술과 전법을 비롯하여 혁명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나서는 모든 군사, 정치, 경제적 문제들을 옳바르게 풀어나간 풍부한 경험들이 이룩되였다.

이처럼 조선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은 피압박인민들에게 강력한 고무를 주고 그들에게 투쟁의 위력한 무기를 안겨줌으로써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일대 앙양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붕괴를 급속히 촉진시켰다.

조선전쟁이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속에서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지배를 뒤집어엎기 위한 투쟁이 더욱 세차게 벌어졌다. 이 투쟁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저주로운 식민지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자들은 국제무대에서 더욱 고립되게 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의 승리는 국제적으로 제국주의와 반동세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사회주의와 혁명력량의 우세를 보장하게 함으로써 미제를 심각한 궁지에 빠지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당은 국제로동운동의 〈돌격대〉의 일원으로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진영을 강화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 거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395~396페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사회주의의 동방초소를 지켜서있는 강력한 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정복하려는 미제의 책동을 분쇄하고 우리 나라의 위력과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게 하였으며 세계 사회주의력량을 보다 튼튼하게 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은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영예롭게 지켜냈을뿐아니라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 인민과 인민군대는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타승함으로써 놈들의 새 세계대전도발음모를 분쇄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였으며 그 나라들이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자기의 위력을 강화발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이것은 조국해방전쟁이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 발전에 기여한 커다란 공적으로 된다.

조국해방전쟁은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거대한 우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함으로써 세계의 보다 광범한 인민들이 사회주의를 더욱 동경하고 지지하여나서게 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전행정은 또한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하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숭고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영웅적투쟁은 각국의 공산주의자들과 전세계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각국의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일치한 보조로 미제를 규탄하였으며 모든 힘을 다하여 조선인민의 정의로운 반미투쟁을 지원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을 지원하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형제당들의 강력한 반미공동행동, 모든 혁명적인민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의 행동통일이 굳게 이루어지게 되였다.

조국해방전쟁을 통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거기에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이 거대한 규모로 확대됨으로써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매장할 세계혁명력량은 비상히 장성하게 되였다.

한편 조국해방전쟁을 통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세계인민들, 지어는 제국주의동료들로부터도 고립되고 놈들의 국제적지위는 심히 약화되였다.

조선에서 감행한 미제의 야만적인 전쟁수법과 만행은 놈들이 부르짖는 이른바 《민주주의》와 《인도주의》, 《평화》와 《박애》의 허울을 벗겨버리고 미제야말로 가장 횡포한 야만이며 20세기의 두발가진 승냥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어느 한 시기에 엥겔스는 영국군대를 가장 야수적인 군대라고 불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에 독일파쑈군대는 그의 야수성에 있어 영국군대를 릉가하였다. 사람의 두뇌를 가지고서는 그 당시 히틀러악당들이 감행한 만행보다 더 악독하고 더 무서운 만행을 상상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조선에서 양키들은 히틀러도배들을 더 훨씬 릉가하였다.》(《김일성선집》, 제4권, 1954년판, 170페지)

조선전쟁은 미제의 야수성과 잔인성, 그 강도적본성을 폭로하는 심판정이였다. 조선에서의 미제국주의자들의 만행은 전세계인민들의 분노와 격분을 자아냈으며 그들속에서 미제에 대한 증오와 항의를 더욱 강하게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조선전쟁을 확대하기 위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미제와 그의 제국주의동료들사이의 리해관계에서의 충돌을 일으켰으며 전쟁에서의 참패는 추종국가들속에서 미제의 《권위》를 심히 저락시켰다.

조선전쟁에서의 미제국주의자들의 패배와 미제가 처한 심각한 위기는 다른 제국주의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여 자본주의전반적위기를 한층더 첨예화시켰다.

이처럼 조국해방전쟁을 계기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혁명력량과 반혁명세력간의 력량대비는 사회주의와 혁명의 편에 보다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이렇듯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한 혁명전쟁이며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음으로써 세계혁명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위대한 혁명전쟁이다.

*　　*

조선전쟁에서 참혹한 패배를 당하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미제는 그후 계속 멸망의 길로 줄달음쳐 오늘 그 어느때보다도 엄중한 위기에 처하여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집요하게 매여달려온 핵공갈과 《힘》의 정책은 여지없이 파탄되고 놈들의 아세아침략정책은 전면적인 파산에 직면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혁명적인민들에 의하여 련이어 얻어맞고 녹아나고있다.

미국안에서 미제의 인도지나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앙양되고 지배층내부의 모순은 그 어느때보다도 심해지고있으며 경제는 절름발이가 되고 금고는 바닥이 드러나 미제는 미국력사상 최대의 딸라위기를 겪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오늘과 같이 심각한 궁지에 빠져들어간 때는 일찌기 없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이 처한 심각한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비록 그 힘이 약화되여도 결코 변하지 않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옛진지에서 스스로 물러가려 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궁지에 빠질수록 한손에는 감람나무가지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칼을 쥐고 휘두르는 〈량면전술〉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며 〈평화〉의 간판밑에 침략과 전쟁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는 법입니다.》(《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12페지)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평화》와 《국제긴장상태의 완화》를 요란스럽게 떠벌이면서 보다 음흉하고 악랄하게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비롯한 아세아의 수많은 지역들을 계속 강점하고있으며 거기에서 식민지적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악하고있다. 특히 미제는 일본군국주의자들과 제놈들의 앞잡이들을 동원하여 아세아에 대한 침략적야망을 기어이 이루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침략정책의 충실한 《돌격대》로 복무하면서 공공연히 재침의 길을 걷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옛 식민지지배를 회복하려고 음흉하게 책동하고 있으며 미제가 곤경에 빠지고있는 기회를 리용하여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3대원칙에 기초하여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우리 나라의 정세가 조국통일위업에 매우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는 오늘의 이 엄연한 현실앞에서까지도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제놈들의 흉악한 침략야망을 버리려 하지 않고있다. 놈들은 비록 남북조선사이에 평화적통일에 관한 회담이 진행된다고 해도 《미국은 남조선군을 현대화하는 계획을 계속 촉진시킬것》이라느니,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을 더이상 축감할 계획이 없다.》느니 하면서 《힘의 립장》을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다. 이것은 미제가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남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계속 틀어쥐려는 제놈들의 검은 속심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만일 미일반동들이 력사의 교훈,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지 않고 시대의 추세에 역행하여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끝끝내 반대하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 정책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에 의하여 지난날보다 더 호된 징벌을 당할것이며 종국적멸망을 면치 못할것이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친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침략과 전쟁 정책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대중전취사업

김 복 현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대중전취사업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지도리론을 창조하시고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이룩하시였다.

이것은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무한히 귀중한 재부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대중전취사업의 빛나는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전체 당원들과 간부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대중전취사업의 고귀한 경험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그것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철석같이 묶어세워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고 남조선혁명을 완수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대중전취사업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반제민족해방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광범한 대중이 그에 참가하여야만 승리할수 있다. 그러므로 대중을 전취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고 그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는것은 혁명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이 지켜야 할 근본원칙으로 된다.》(《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24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은 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대중자신의 사업이다.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은 소수 공산주의자들의 힘만으로써는 안된다. 이 사업은 광범한 대중이 조직동원되여야만 승리할수 있다.

그러므로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양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대중전취사업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포악무도한 일제침략자들은 우리 나라를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인민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강화하였다.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강화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놈들은 대륙침략전쟁의 확대를 서두르면서 각종 파쑈적악법을 조작해내고 폭압기구들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조선인민의 민족적인 모든것을 말살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이리하여 조선은 일제의 파쑈적폭압망으로 뒤덮인 하나의 감옥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아무런 정치적권리와 자유도 가지지 못하고 중세기적인

압혹과 기아 속에서 신음하게 되였다.

중소자산계급들도 일제의 독점자본가들과 예속자본가들에 억눌리어 날로 몰락쇠퇴하였다. 극소수의 친일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친일관료배들만이 일제의 비호를 받으면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가혹하게 억압착취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인민과 일본제국주의자들과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은 가일층 첨예화되였으며 조선인민의 반일기세는 날로 높아지게 되였다.

조성된 사회경제형편과 계급적관계는 혁명의 주되는 대상인 일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철저히 고립약화시키고 모든 반일군중을 최대한으로 혁명의 편에 전취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이것은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그 어떤 외부의 원조도 없이 혁명투쟁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당시의 조건에서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항일혁명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사활적의의를 가지였던 대중전취에 관한 문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시게 됨으로써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대중과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광범한 대중을 혁명의 편에 전취할데 대한 독창적인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에 참가할수 있는 모든 계급과 계층에 대한 원칙적이며 아량있는 태도를 견지하고 그들을 포섭하고 조직결속하여 전체 반일력량을 반제민족해방투쟁에 총동원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책, 14~15페지)

수령님께서는 일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독립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혁명의 편에 묶어세워 반혁명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그에 대한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를 보장함으로써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당시 조성된 혁명정세와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형편과 계급들의 호상관계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한것으로서 쟁취할수 있는 모든 군중을 전취하여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

또한 그것은 일제와 그 주구들을 최대한으로 고립약화시킴으로써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며 놈들의 멸망을 촉진시킬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을 전취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밀접히 결합시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본군중으로써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기초우에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군중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우며 일제침략자들과 그와 결탁한 극소수의 계급적원쑤들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였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본군중으로써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대중을 전취하는 사업에서 선결조건으로 된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본군중들이 혁명에 대한 옳은 인식과 관점을 가지고 목적의식적으로 투쟁함으로써 광범한 대중을 혁명의 편에 더 많이 묶어세울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본군중으로써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것과 함께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대담하게 포섭하고 인내성있게 교양하시여 반일혁명투쟁에 나서도록 하시였다.

각계각층 군중을 전취하는 사업은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

의를 가진다.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워야만 반혁명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그에 대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할수 있다.

각계각층의 군중을 혁명의 편에 전취하는 사업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및 계급적 처지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하여 매우 신중성을 요한다.

수령님께서는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새것에 민감한 우리 나라의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의 민족적량심과 혁명적각오를 귀중히 여기시고 조국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나서도록 그들을 적극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의 청년학생들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청년학생운동에 커다란 힘을 돌리시였다.

그것은 식민지나라 청년학생들이 민족적 억압과 멸시를 당하고있는 조건에서 그 대부분이 혁명성을 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 시대의 움직임에 민감하고 민족적각성이 빠르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본군중에게 혁명의 씨앗을 뿌려 그들을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며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광범한 청년학생들속에 맑스-레닌주의를 보급하시는 한편 그들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시여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민족주의자들을 대함에 있어서는 그 상층부와 하층군중을 엄격히 갈라보는 립장을 가지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갈수 있는 사람들과는 의식적으로 가까이 접촉하면서 인내성있게 교양하여 혁명의 길에 나서도록 하시였다. 종교인들과의 사업에서도 일반신자들의 애국사상을 평가해주시면서 민족적자존심을 불러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반일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각계각층 군중들은…**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식량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고 기능과 힘이 있는 사람은 힘과 기능을 바치여 2천 3백만 민중이 한데 뭉쳐 행동으로 반일 조국광복전선에 참가한다면 조국의 독립, 해방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다.**…라고 하신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반일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대중전취사업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과 원칙들은 광범한 대중을 일제의 영향에서 떼여내였을뿐아니라 항일무장대오를 비롯한 혁명조직에 결속시켜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전취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과 원칙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광범한 대중을 혁명의 편에 튼튼히 묶어세우시여 항일무장투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전취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그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대중을 각성시켜 높은 계급의식과 반일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도록 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면서 몸소 그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혁명은 대중을 각성시키는 사업으로부터 시작된다. 인민대중을 각성시키지 않고서는 그들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울수 없고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할수도 없다. 대중이 혁명사업을 자신의 사업으로 깊이 인식하고 혁명투쟁에 떨쳐나설 때 그 어떤 강한 적도 능히 타승할수 있으며 혁명의 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그러므로 대중을 혁명의 편에 전취하는데서 가장 선차적으로 나서는 사업은 인민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것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 대중을 전취하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의 기본은 그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

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였다.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조선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장 정확하게 이끄는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이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에는 혁명의 원쑤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정신,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정신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 관통되여있으며 혁명투쟁의 전략전술이 집대성되여있다.

대중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야만 그들을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을 끝없이 증오하고 그를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며 높은 혁명의식을 가지고 조국광복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우는 참된 혁명가로 키울수 있었다.

이와 같이 광범한 대중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였기때문에 그들은 혁명의 편에 확고히 서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자기 나라 혁명은 자기 힘으로 하여야 한다는 혁명적각오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였으며 오직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항일무장투쟁의 한길을 따라 모든것을 다 바쳐 끝까지 투쟁할수 있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대중전취사업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그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높이는것이였다.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높이는것은 대중들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워 그들을 혁명투쟁에 나서도록 하는 출발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반적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대중속에 들어가시여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지리, 찬란한 민족문화에 대하여,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선조들에 대하여 감명깊게 해설하여주시였으며 이러한 우리 나라가 일제놈들에게 강점당하고있다는것, 일제는 천추에 용서못할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쑤라는것을 폭로하시면서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대중들은 자기들이 겪고있는 고통이 일제놈들때문이라는것을 깨닫고 더는 일제놈들의 노예가 될수 없으며 목숨을 걸고 일제와 싸워이겨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반일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섰다.

수령님께서는 대중들에게 민족적각성과 함께 그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이도록 하시였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의 계급적의식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것은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적본성과 략탈성을 철저히 인식시키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계급적으로 각성되지 못한 로동자, 농민들속에 들어가시여 지주, 자본가들의 계급적본성과 반동성을 그들이 체험한 생동한 자료와 결부시켜 해설하여주시였으며 놈들의 매국배족행위를 신랄히 폭로규탄하시였을뿐아니라 조선인민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 다름아닌 일제와 그 주구들에게 있다는것을 명백히 인식시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로동자, 농민들속에서 《계급이란 무엇이며 계급투쟁은 왜 일어나는가?》, 《혁명이란 무엇인가》 등을 비롯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조선혁명승리의 필연성에 대하여 설득력있게 해설하여주시였다.

이러한 교양사업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대중들로 하여금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들을 끝없이 증오하게 하였으며 단결하여 싸우면 반드시 일제를 쳐물리칠수 있다는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굳게 하였다. 동시에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일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싸우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그들의 전투행동을 백방으로 보장하는것을 가장 영예로운 일로 생각하게 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대중전취를 위한 교양사업은 당시의 환경과 군중의 준비정도에 맞게 각이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수령님께서는 군중교양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시기 위하여 독서발표회, 웅변대회, 토론회, 강연회, 연예공연, 노래보급, 이야기모임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적용하심으로써 더많은 군중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우시였다.

그리하여 항일혁명투쟁의 어려운 나날에도 광범한 대중들은 수령님만을 믿고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믿으시는 하나의 대오, 사나운 풍랑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불패의 혁명대오로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대중전취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대중을 혁명의식으로 무장시킬뿐아니라 대중단체를 조직하고 모든 군중을 그에 튼튼히 결속하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일본놈들을 때려부시고 나라의 독립을 찾자면 우선 나라를 사랑하는 군중들을 묶어세워야 한다.…모든 사람이 다 힘을 합쳐 혁명투쟁에 일떠서자. …청년들은 청년조직에, 소년들은 소년조직에, 부녀자들은 부녀조직에 다 망라되여 일제와 계급적원수들을 반대하여 더 견결히 싸워야 한다.…

대중전취의 목적은 혁명위업을 완수하자는데 있다. 대중속에 혁명의식을 주입시킬뿐아니라 그들을 조직된 력량으로 묶어세워야만 그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의 매 계급과 계층들의 처지와 혁명투쟁에서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계급, 계층들과 그들의 직업별로 되는 대중단체들을 광범히 조직하시고 이에 광범한 군중을 결속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벌써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수많은 대중단체들을 창건하시고 모든 반일대중을 혁명조직성원으로 받아들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청년들속에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을 비롯한 청년조직을, 고농, 빈농을 중심으로 농민협회를, 과거 독립군이나 민족주의운동에 참가하였던 사람들속에서 민족의식이 강한 사람들로 반제동맹을, 공산주의자들을 호의적으로 대하면서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과 혁명의 동정자들, 로인들로 혁명호제회를, 부녀들로 부녀회를, 어린이들로 공산주의아동단을 조직하시고 모든 반일군중을 이에 망라시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각종 혁명적대중단체들을 직접 조직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그 사업을 친히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그 바쁘신 나날에도 대중단체들의 사업정형을 료해하시고 혁명조직들의 사명과 임무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개별적인 조직성원들에 대하여서도 자주 만나시여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대상이 알아들을수 있게 하나하나 깨우쳐주시고 조직생활을 잘하여 훌륭한 혁명가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의 구체적인 가르치심과 따뜻한 배려에 고무된 광범한 대중들은 혁명조직에 들어오게 된것을 더없는 영예로 간직하고 자기 조직을 끝없이 사랑하고 조직생활을 통하여 조직성과 규률성을 키우며 자신의 정치사상의식수준을 급속히 높이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을 조직화하는데서 또한 통일전선운동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혁명투쟁의 첫시기부터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으며 1936년 5월 5일 우리 나라에서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일전선사상은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기초우에서 단결할수 있는 모든 혁명력량을 묶어세울수 있는 원칙과 방도를 밝히신 사상이다.

이는 혁명수행에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결속하여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하는 새로운 창조적사상이다.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조국광복회는 계급, 성별, 직업, 년령,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공통된 민족적리해관계를 가지는 가장 광범한 반일력량을 혁명의 편에 끌어들여 조선인민의 전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된 혁명적조직이다.

실로 조국광복회에는 로동자, 농민은 물론 청년학생, 도시소시민, 중소상공업자들과 지어는 적기관에 복무하는 량심적인 사람들까지 교양하여 광범히 망라시켰다.

수령님께서는 대중들과의 사업에서 항상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도록 하시였으며 손수 그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수령님의 정확한 방침과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광복회는 창건된후 불과 수개월동안에 자기산하에 수십만의 군중을 묶어세울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을 전취함에 있어서 한사람이 열사람을, 열사람이 백사람을 교양하여 광범한 군중을 혁명의 편에 튼튼히 묶어세우도록 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고 보조력량을 확고히 마련할수 있었으며 확고한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조선혁명을 줄기차게 전개하여 마침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대중전취사업의 빛나는 전통은 해방후 그이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였다.

우리 당은 이 귀중한 경험에 의거하여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함으로써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에게 우리 당의 통일전선로선과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일전선사업에서 우리가 쌓아온 풍부한 경험에 대하여서도 널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으며 앞으로 조국이 통일된 다음에 남조선에 나가서 각계각층 군중을 쟁취하는 사업도 잘할수 있을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광범한 군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며 우리 혁명대오를 반석같이 다질것을 요구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간부들은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광범한 대중을 혁명의 편에 쟁취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모든 군중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과 당정책학습

리 재 일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보고를 비롯한 일련의 고전적로작들과 교시들에서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사업의 중심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감에 있어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기본으로 되는 당정책학습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게 하며 그것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고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준비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사상과 리론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원칙을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결정적으로 담보하는 탁월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의 조직, 사상, 리론적 기초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로동계급의 선봉대로서의 역할과 그의 조직된 부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하도록 하는것으로서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원칙이며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와 공산주의건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존망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며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수령, 당, 계급, 대중의 호상관계, 맑스-레닌주의당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당과 계급, 대중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이며 심장이다. 수령이 없는 당은 지휘관이 없는 군대와 마찬가지로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지도적력량으로 될수 없다.

또한 로동계급의 당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령과 사상을 같이하는 혁명투사들로 뭉쳐진 전투적조직체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인것만큼 하나의 무기에다 이런 포탄, 저런 포탄을 마구 쓸수 없듯이 로동계급의 당안에도 오직 하나의 사상, 하나의 로선, 하나의 정책만이 있을뿐이다. 당안에 그 당을 창건한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딴사상이 조금이라도 허용된다면 그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다. 수령의 혁명사

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통일단결되지 못한 당에는 언제나 분파가 생기는 법이며 따라서 이러한 당은 대중을 자기 두리에 묶어세울수 없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령도를 보장할수 없다.

오직 당의 창건자인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 때에만 로동계급의 당은 영원히 그 당을 창건한 수령의 당으로 될수 있으며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될수 있고 한마음한뜻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불패의 전투적대오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 가장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기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오늘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나라의 절반땅을 해방하고 여기에서 새생활을 건설하고있으나 아직도 절반땅은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에 의하여 강점당하고있으며 민족해방혁명을 전국적으로 완성하지 못하였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95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직 민족해방혁명의 과업을 전국적으로 완성하지 못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남반부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가 이 방대한 혁명과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간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있는 조건하에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이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정책학습을 잘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당원들속에 당정책을 깊이 침투시켜 모든 당원들이 당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도록 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정책학습을 잘하는것입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당정책학습이 중요한 문제로 되는것은 그것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때문이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리론은 그이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과 교시들,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집대성되여있다. 그러므로 수령님의 로작들과 교시들, 그 구현인 당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것으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만 어떠한 풍파속에서도 오직 수령님께 충실하며 그이의 혁명사상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선 혁명가로 될수 있다.

당정책학습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가적기풍을 가지게 한다.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수령님

의 혁명사상의 본질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심오히 체득하고 그것을 실천활동의 유일한 자로 삼으며 사업과 생활에서 철저히 구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해내는 혁명가적기풍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공산주의적혁명가의 가장 주되는 표징을 이루며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주는 근본척도로 된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키는것은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혁명의 매 단계에서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문제들이 리론적으로 해명되여있을뿐만아니라 그 구체적인 실천방도까지 다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만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옳게 포착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또한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만 어떠한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당의 립장을 굳건히 지킬수 있으며 온갖 기회주의사상, 사대주의, 교조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 종파주의, 지방주의 등을 제때에 가려내고 철저히 극복할수 있으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갈수 있다.

이와 같이 당정책학습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가로 키우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정책학습을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제시하시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학습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진행하도록 끊임없는 지도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의 직접적인 보살핌속에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는 학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학습망이 조직되여 누구나 다 일정한 교양망에 망라되여있으며 수령님의 독창적인 발기와 배려에 의하여 모든 일군들이 매일 2시간학습과 토요학습 그리고 해마다 자기의 본신임무에서 떨어져 한달씩 각급 정치학교들에서 강습을 받는 혜택을 누리면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이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있다.

우리는 지난 기간 학습에서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당정책학습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도 전당, 전군, 전민, 전국이 학습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자기의 혁명초소를 믿음직하게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72년 1월 1일, 13페지)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한 학습을 진행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이며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리론,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더욱 깊이있게 학습하는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반세기에 걸치는 혁명활동의 전기간에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하신 보고와 연설, 론문 등 불후의 천재적로작들과 교시들을 체계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학습하여야 하며 특히 그이의 혁명사상

과 리론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되여있는 《혁명과 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대한 학습을 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특히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학습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제국주의착취제도를 극도로 증오하고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게 하며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그이를 수령으로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당정책학습에서 중요한것은 형식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실속있게 학습하도록 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정책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수박겉핥는 식으로 제목이나 훑어본다든가 재담에서 나오는것처럼 밤낮 책의 제1장이나 보아서는 안됩니다. 또 현실과 떨어져서 문구나 외우는 식으로 당정책을 공부하여서는 아무것도 얻을것이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써는 당의 의도를 깊이 깨달을수 없고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찾아낼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62~263페지)

당정책학습에서 형식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는것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그를 지침으로 삼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선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첫공정으로 되는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의 매 구절, 매 문장을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깊이있게 반복학습함으로써 그 로작과 교시가 나오게 된 력사적환경과 그에 담겨진 진수와 전반사상, 수행방도와 리론실천적의의를 깊이 파악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정책학습을 거충다짐으로 외우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특히 수령님의 현지교시중에서 집행한것과 집행중인것, 집행하지 못한것을 가려내며 집행하지 못한것은 그 원인을 찾아내고 대책을 철저히 세워 어김없이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당정책학습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반당적 및 반혁명적인 사상요소들을 반대하는 원칙적인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 당정책학습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실속있는 학습으로 된다.

수령님께서는 당정책학습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학습규률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조직들에서 학습규률을 강화하고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일군들을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28페지)

학습규률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선결조건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학습규률을 철저히 세워야만 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학습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나 학습을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여기고 수령님의 교시집중학습을 비롯하여 모든 집체학습에 빠짐없이 참가하며 매일 두시간이상씩 의무적으로 학습을 진행하여야 한다.

당정책학습에서 간부들이 이신작칙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간부는 당의 기본핵심력량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대중을 직접 조직동원하는 우리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그러므로 간부들은 혁명과 건설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습에서도 솔선 모범을 보여야 한다. 간부들은 모든 짬시간을 다 리용하여 부지런히 책을 읽고 공부를 하여야 하며 제정된 학습날자와 두시간학습시간에 무질서하게 모임을 조직하거나 아래일군들을 불러서 자신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학습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당정책학습을 더욱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당정책학습에 대한 당조직들의 조직지도사업을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선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사업에 대한 당조직들의 조직지도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23페지)

각급 당조직들은 우선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당정책학습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야 하며 당정책학습이 당면한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도록 적극 지도방조하여야 한다.

특히 각급 당조직들은 사상사업의 중요한 거점인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과 《김일성동지교시연구실》을 통하여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력사와 우리나라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도록 조직지도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편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당정책학습에 대한 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간부들을 비롯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집체학습조직과 참가정형, 개별학습정형을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누구를 막론하고 학습하지 않는 경향에 대하여서는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 제때에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각급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이 구체적인 학습계획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학습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학습조건을 보장하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와 같이 각급 당조직들은 당정책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일차적임무로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간부들과 당원 및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　　　*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와 일련의 교시들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동시에 올해계획을 당창건기념일까지 빛나게 완수하고 년말까지는 6개년계획의 1973년말 생산수준을 돌파하여야 하며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여야 할 보람찬 전투과업이 나서고있다.

이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학습을 강화하여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킬것을 절실하게 요구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학습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오직 수령님의 혁명사상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확고한 립장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을 강화하는 기본담보

전 태 판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와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고지를 점령하며 조국을 통일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힘찬 로력투쟁을 벌리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와 그들의 창의창발성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일층 높여야 한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높임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이다.

당세포를 강화하여야만 전당을 강화할수 있고 당의 전투력을 높일수 있다.

그러므로 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은 전당을 강화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 *

당을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당세포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세포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과 관련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세포는 대중속에서 당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전투단위이며 모든 당원들이 소속되여 당생활을 하는 우리 당의 말단조직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16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세포는 모든 당원들이 소속되여 당생활을 하는 우리 당의 말단조직이다.

모든 당원들은 당에 들어오는 첫날부터 당세포에 소속되여 당생활을 하게 되며 당조직에서 주는 임무를 실행하게 된다.

당생활이란 바로 당원들이 당규약상 의무를 일상 사업과 생활에 구현하는것을 말한다.

당원들은 당생활을 통하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고 자신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며 당성을 단련하게 된다.

당원들의 당성이 단련되고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이 높아지면 당의 전투력이 높아지고 당은 더욱더 강화된다.

또한 당원들은 당생활을 통하여 당의 유일사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될뿐 아니라 당의 유일적인 조직원칙에 의하여 결속된다.

당원들이 당의 조직원칙에 따라 움직이는것, 이것은 당의 사상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고 강유력한 불패의 조직으로 되게 하는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당원들이 당생활을 당규약상 요구에 따라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세포를 강화하는 관건적고리로 된다.

당원들이 당세포생활에 적극 참가하고 당조직에서 주는 임무를 잘 수행할때 당세포의 역할이 높아지며 나아가서 전당을 강화할수 있다.

당세포는 또한 군중을 당주위에 묶어세우며 광범한 군중과의 긴밀한 련계를 보장하는 기본단위이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위력의 원천은 광범한 인

민대중과의 혈연적인 련계에 있으며 이것을 강화하여야만 우리 당을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발전시킬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384～385페지)

우리 당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선봉적조직적부대로서 항상 군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며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투쟁을 진행한다.

혁명사업은 광범한 군중을 결속하고 조직동원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당의 모든 활동은 군중을 결속하며 광범한 군중을 혁명사업에 인입시키는데 돌려져야 한다. 더우기 오늘 광범한 근로대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결속시키는 사업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우리 당이 군중을 쟁취하기 위한 사업은 당세포를 통하여 진행되고있다.

당세포는 광범한 근로대중이 일하며 생활하고있는 모든곳에 조직되여 그들과 직접 련계를 맺고 활동한다.

그러므로 당세포는 광범한 군중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같이 호흡하며 군중의 정치사상적동향을 제때에 포착하고 그들을 교양하며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결속시켜야 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있다.

당세포가 대중과의 사업을 성과있게 진행하고 그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교양하여 광범한 군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면 우리 당은 더욱 강화될것이다.

또한 당세포는 대중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직접 침투하고 집행하며 옹호관철하는 우리 당의 전투단위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모든 정책의 관철여부는 그것을 군중속에 침투시키며 직접 실천하는 세포들의 사업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세포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우리 당을 강화할수 없으며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383페지)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 당의 모든 정책은 기층조직인 당세포를 통하여 대중속에 침투되며 관철된다.

그러므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성과적으로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매개 당세포들의 조직정치사업여하에 크게 달려있다.

공업부문의 당세포들이 잘 움직이면 로동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생산의욕이 높아지고 당의 공업정책이 잘 관철될것이며 농업부문의 당세포들이 잘 움직이면 농장원들의 열성이 높아지고 당의 농업정책은 철저히 관철될것이다.

이와 같이 당세포는 당원들이 소속되여 생활하는 당의 말단조직이며 군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결속시키는 기본초소이며 대중속에 당정책을 해설하고 그 집행을 직접 조직하는 전투단위이다.

이렇듯 당세포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로부터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을 강화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보고와 일련의 교시들에서 당세포를 강화하는 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당세포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독창적인 방침과 방도를 제시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당세포를 강화하며 그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당세포의 핵심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일층 높이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00만당원을 단번에 똑같이 공산주의 의식으로 무장시키기는 곤난합니다. 반드시 먼저 핵심을 길러내고 점차 전체 당원의 의식수준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방침은 핵심을 통하여 당원들을 교양하자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77페지)

당세포핵심을 키우며 그 역할을 높임에 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킨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사상이다.

당세포핵심을 육성하고 그 대렬을 부단히 확대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를 강화하는 기본방도의 하나이다.

당원은 대중속에서 선발된 사람이기는 하지만 당원들의 구성성분으로 보나 정치사상적수준과 준비정도로 보나 그 구성이 똑같지 않다.

그렇기때문에 모든 당원들을 단번에 공산주의자로, 열렬한 혁명가로 키울수는 없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보다 사상의식수준이 높고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당원들로 하여금 당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핵심적, 지도적 역할을 놀게 하는것은 당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당세포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임에 있어서 당세포핵심을 길러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당핵심은 당원들과 비당원군중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부단히 교양하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이끌어나가는데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비할바없이 늘어나고 그 련계가 복잡하여진 오늘의 조건에 맞게 세포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단위, 모든 초소들에 당핵심이 골고루 배치되도록 하며 당핵심을 체계적으로 교양육성하고 그 대렬을 확대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당핵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역할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세포가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혁명과업을 능동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전투적인 산조직으로 될수 있다.

당조직들은 핵심들을 키우며 그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당원들과 군중을 교양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당조직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며 광범한 군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핵심들의 역할을 높여 당원들과 광범한 군중을 힘있게 이끌고나갈 때 그 조직은 하나가 열을 움직이고 열이 백을, 백이 천을, 천이 만을 움직이는 강력한 조직으로 될수 있다.

당조직들이 핵심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당사업에 적극 인입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당핵심들로 하여금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모든 사업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자로 하여 그와 어긋나는 현상과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핵심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있어서 그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솔선 루신하며 항상 당원들과 군중들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하도록 함으로써 군중속에서 신망있고 모든 사업을 힘있게 이끌고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세포핵심을 잘 길러 그들을 실천활동을 통하여 단련시키며 모든 사업에서 핵심적역할을 놀도록 일상적인 지도와 방조를 줌으로써 그들의 역할을 일층 높여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당조직들은 당대렬을 끊임없이 늘이고 그 질적구성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것과 함께 당대렬을 끊임없이 늘이고 그 질적구성을 계속 개선하여나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16페지)

당장성사업은 당건설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당장성사업을 잘하여 당대렬을 끊임없이 늘이고 그 질적구성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당을 강화할수 있으며 그 전투력을 높일수 있다.

우리 나라 청년들은 해방후 당에 의하여 교양되여 나라의 믿음직한 주인으로 되였으며 오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당조직들은 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로동청년들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선 사람들을 당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하여 당대렬의 질적구성을 더욱 개선하고 당의 핵심대렬을 끊임없이 늘여 모든 부문에 당의 혈맥이 골고루 통하도록 하며 우리 당이 언제나 혁명적기백이 왕성한 당으로 발전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당세포를 강화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의 사업을 잘하며 특히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당은 당원대중이 뭉친 정치적조직입니다. 당이 힘있고 생기있는 전투적조직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을 이루고있는 모든 당원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건전해야 하며 당원들이 다 당의 조직원칙에 따라 잘 움직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생활은 당원들의 조직생활, 정치생활이며 당원들이 당규약상 의무를 수행하는 활동입니다.》(우와 같은 책, 515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은 당원대중이 뭉친 정치적조직이다.

그러므로 당이 위력있고 생기발랄한 전투적인 조직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그를 이루고있는 매개 당원들이 사상정치적으로 건전하여야 하며 그들이 다 당의 조직원칙에 따라 활발히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원들이 사상정치적으로 건전하고 당의 조직원칙에 따라 활발히 움직이게 하자면 그들의 당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의 전투력과 혁명성을 규정짓는 원칙적인 문제이다.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혁명성은 그 구성성원인 당원들의 당성정도에 달려있다. 당원들이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투지를 가진 혁명가로,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됨으로써만 당조직들의 전투력은 강화된다.

이것은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부단히 수양되고 단련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당조직생활은 바로 당원들의 당성, 혁명성을 배양하는 학교이며 용광로이다.

당원들은 당규약상 의무와 당생활규범의 요구를 지키고 유일한 규률생활에 의해서 활동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부단히 당성을 단련하게 된다.

따라서 당세포가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자면 세포내 당원들이 다 당성이 강하고 당규약상 요구에 따라 하나같이 움직여야 한다.

이로부터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당을 생기발랄한 전투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기본방도이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당성을 단련함에 있어서 당적분공을 정확히 조직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매개 당원들이 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 항상 사고하고 움직일수 있도록 분공을 주며 그 수행에 대한 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그에 대한 총화사업을 제때에 진행하여야 한다.

당적분공은 당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혁명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입하여 그들을 일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며 당원들의 온갖 지혜와 창발성을 높이는 기본조건으로 된다.

또한 당적분공은 모든 당원들을 당정책의 선전자로 되게 하며 뒤떨어진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대중교양자로 되게 할뿐아니라 당정책관철을 위한 어렵고 중요한 부문을 담당하고 앞장에 서서 대중을 이끌고나가는 선구자로 되게 한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은 당원들에게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한 분공을 정상적으로 주며 그들의 정치생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당정책을 자로 하여 혁명과업수행정형을 통제하며 부족점을 제때에 고쳐주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며 당규약상 요구에 따라 적극 움직여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일층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함에 있어서 당회의를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조직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당회의는 당생활의 기본형식의 하나이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당회의는 당원들을 교양훈련하는 정치적학교이며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당회의를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진행하여야 당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수 있으며 당의 전투력을 높일수 있다.

당원들은 당회의에서 서로 교양하고 비판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은 적극 조장하고 부정적현상들을 없애버리는 부단한 사상단련의 과정을 거쳐 당성을 강화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될수 있다.

또한 원칙적인 비판과 자기비판을 통하여 자신을 수양함으로써 실천투쟁의 앞장에 서서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으며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당회의의 정치사상적수준을 높여 당원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며 당생활을 강화하고 당성을 단련하며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일층 높여야 한다.

당세포를 강화하며 그 역할을 높이는데서 또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군당위원회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초급당조직들과 직접 련결되여 활동하는 우리 당의 말단지도기관으로서 우리 당의 기층조직을 강화하며 그 역할을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군당위원회의 이러한 위치로부터 당조직들에 대한 지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의 기층조직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며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 문제는 군당위원회의 활동과 지도여하에 크게 달려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적역할을 높여야만 기층조직인 당세포를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높일수 있다.

이로부터 당세포를 강화하며 전투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군당위원회의 역할을 일층 높여야 한다.

그러므로 늘 아래에 내려가 당조직들의 활동정형을 알아보고 도와주는것은 군당위원회앞에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들을 튼튼히 꾸리고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가도록 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화혁명에 관한 위대한 사상과 그 빛나는 승리

리 강 진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문화혁명에 관한 위대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우리 나라 현실에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화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과학적공산주의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문화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서 불멸의 공헌으로 된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과 혁명투쟁의 실천적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문화혁명을 하나의 독자적인 혁명으로 제기하시고 문화혁명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문화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로동계급의 새 문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건설의 강령으로 된다.

수령님께서 문화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가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으며 세기적으로 내려오던 문화적락후성이 청산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문화혁명의 찬란한 성과와 업적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화혁명에 관한 위대한 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1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문화혁명의 필연성과 내용, 그 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방도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명을 주심으로써 문화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문화혁명에 관한 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문화혁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구성부분으로, 계속혁명의 중심과업의 하나로 제기하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요구할뿐아니라 근로자들의 높은 문화수준을 요구합니다.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57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고도로 발전된 생산력뿐아니라 새로운 높은 문화를 요구한다. 이 문화는 인류가 창조한 문화의 모든 진보적인것을 집대성하고있으며 그것을 가장 높은 단계로 발전시킨 새형의 문화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모든 문화적재부는 비로소 그것의 창조자인 근로대중의것으로 되고 그들의 리익과 행복을 위해 리용된다.

문화혁명은 착취사회의 낡고 반동적인 문화를 없애고 새로운 로동계급적, 사회주의적 문화를 건설하는 문화령역에서의 심각한 변혁과정이다.

착취사회의 낡은 문화는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수단으로 복무하는 반인민적문화이다. 착취사회에서 문화적재부는 소수 특권계급들의 소유물로, 그들의 향락과 치부의 수단으로 되고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소수 특권계급의 독점물로 된 착취사회의 반동문화를 없애고 모든 문화적재부를 광범한 인민대중의 소유물로 만들며 새 사회 건설의 수단으로 될수 있는 참다운 로동계급의 새 문화를 건설하여야 한다.

문화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도 사상혁명, 기술혁명과 함께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 중심과업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제도의 확립은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되지만 그것으로써 혁명이 끝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도 맑스-레닌주의당은 기술혁명과 함께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문화혁명은 기술혁명, 사상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문화혁명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일수 없으며 사상혁명과 기술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그러므로 기술혁명, 사상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성과적실현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문화혁명을 계속혁명의 중심과업의 하나로 힘있게 밀고나갈 때라야만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길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문화혁명에 관한 사상에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문화건설의 중요 내용과 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히신것이다.

문화혁명의 내용과 과업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사회주의문화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의 일반지식과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며 나라의 인테리대군을 육성하며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며 과학과 문학예술, 언어와 체육 등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적 생산문화와 생활문화, 공중문화를 확립하는 문제들을 문화혁명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이며 과업으로 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문화혁명의 중요 내용과 과업을 천명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객관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반영한 가장 정당한 사회주의문화건설사상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무장한 근로대중의 자각적이며 의식적인 로력투쟁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된다. 따라서 광범한 근로대중의 일반지식과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현대적인 과학과 기술지식으로 무장한 인테리대군을 양성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르는 사업을 공산주의시책의 하나로, 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업으로 인정하고 그의 성과적실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나라의 주체적인 과학과 혁명적문학예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나라의 과학을 끊임없이 발전시킴으로써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큰 역할을 논다.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은 근로자들을 투쟁에로 고무추동하며 공산주의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은 과학과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사회주의적민

족문화발전의 중요수단으로 되는 민족어를 발전시키며 부강한 사회건설의 기초로 되는 체력을 가지도록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널리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거리와 마을을 깨끗이 거두며 생활을 문화적으로 꾸리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세워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은 이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만 문화를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인 문화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는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문화로 건설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방도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체적원칙을 견지하는것이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나서는 근본원칙이라고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대주의를 철저히 반대하며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고 우리의 과학을 주체성있게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428페지)

국경이 있고 민족국가를 단위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조건에서 문화혁명도 주체적립장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매개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며 매개 민족들의 기술문화수준과 생활감정, 풍습과 생활양식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문화혁명을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수행하는것은 합법칙적이다.

문화혁명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야만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쓸모있는 인재를 키워낼수 있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에 옳은 해답을 줄수 있으며 자기 나라 인민의 구미에 맞는 문학과 예술도 발전시킬수 있다. 또한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문화를 건설하여야 그 문화가 참말로 자기 나라 혁명위업수행에 충실히 복무할수 있다.

이로부터 문화혁명수행에서의 주체성의 원칙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문화혁명수행에서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모든 문화는 해당 사회제도의 성격과 일정한 계급의 정치생활을 반영하며 어느 한 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한다.

로동계급의 새 문화는 착취사회의 낡고 반동적인 문화와 근본적으로 대립되며 따라서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로동계급의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은 사회주의문화를 참말로 당적이고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문화로 되게 하는데서 원칙적의의를 가진다.

특히 현시기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설하는데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를 반대하여야 할 사정은 문화혁명수행에서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할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문화건설분야에서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아내고 복고주의적경향을 극복함으로써 교육, 과학,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더욱 빨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59페지)

착취사회의 낡은 문화와 자본주의적 반동문화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더우기 오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들에 부르조아반동문화를 퍼뜨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온갖 반동적문화조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매우 절박한 과업으로 나선다.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고 그것을 철저히 막아내지 않고서는 사회

주의적민족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킬수 없으며 사회주의전취물을 튼튼히 지켜낼수 없다.

이와 함께 복고주의적경향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한다. 문화건설분야에서 복고주의가 허용되면 지난날의 온갖 불건전한 문화가 머리를 쳐들게 되며 인민들의 의식속에는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낡은 사상이 자라나게 된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아내고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는것은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설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문화혁명수행에서 계급적원칙을 견지하는것과 함께 군중로선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은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이며 우리 사회에서 문학예술은 근로대중이 널리 참가하여야만 빨리 발전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62페지)

문화혁명수행에서 군중로선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은 사회주의문화의 인민적성격과 그것이 광범한 근로대중에 의하여 창조되고 개화발전되는 사정과 관련된다.

인민대중은 사회의 물질문화 및 정신문화의 창조자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문화는 근로대중이 널리 참가하여야만 더 훌륭히 발전할수 있다.

그러므로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이 인민대중에게 철저히 복무하는 참다운 당적이고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계급로선과 함께 군중로선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를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문화혁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으며 사회주의문화건설의 성과를 바랄수 없다.

문화혁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하는것은 사회주의문화의 로동계급적성격을 거세하려는 반맑스주의적립장이다. 당의 령도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만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그 성과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문화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인 문화혁명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연적요구와 혁명의 원리에 전적으로 맞게 문화혁명을 정확히 수행할수 있는 유일하게 옳은 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문화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비롯한 창조적인 문화건설리론을 창시하시였으며 로동계급의 새 문화 건설의 빛나는 전통과 고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 전통과 업적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로동계급의 새 문화 건설의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관철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당은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다른 사업에 앞세웠으며 젊은 세대들을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며 기술혁명의 빠른 속도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들을 많이 길러내기 위한 일련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427페지)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은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앞에 나서는 매우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이 사업을 다른 사업에 앞세워야만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은 지난날의 경제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교육과 과학, 문학과 예술을 비롯한 문화의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켜 자기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구상에 기초하시여 일제식민지통치에 복무하던 낡은 교육제도를 철폐하시고 새로운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세워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새세대들은 새 조국 건설에 들어선 첫날부터 선진적인 교육제도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말과 글을 마음껏 배울수 있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조국해방전쟁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후대교육사업을 중단함이 없이 진행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시였으며 모든것이 파괴되고 재더미로 되였던 정전직후에도 맨 먼저 학교부터 세워주시였다. 특히 전후에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하는데 많은 자금을 돌려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56년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뒤이어 1958년부터는 동방에서 처음으로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또한 수령님께서는 1959년부터 각급 학교들에서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폐지하시여 교육부문에서 완전한 무료교육이 실시되도록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교육사상의 빛나는 구현으로서 우리 당 교육정책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나라 문화혁명수행에서 결정적전진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교육사상이 우리 나라에서 빛나게 구현되여 이룩된 가장 큰 승리는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한것이다. 9년제기술의무교육은 맑스-레닌주의교육리론을 철저히 구현한것으로서 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가장 선진적인 교육제도이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위대한 교육강령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의 인민교육을 더욱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은 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성과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서 수령님의 위대한 교육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며 우리 인민교육제도의 가일층의 완성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교육강령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우리의 모든 새세대들은 완성된 중등교육을 받게 되였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과학기술의 기초지식을 가진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게 되였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울데 대한 독창적인 교육방법을 내놓으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의 학령전어린이들은 훌륭한 설비를 갖춘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미래의 주인공들로, 혁명의 계승자들로 훌륭히 양육교양되고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교육사업과 함께 민족간부양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기술자, 전문가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내기 위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오랜 인테리들을 개조하는것과 함께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민족간부를 키우는데 가장 큰 관심을 돌렸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17페지)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조국 건설에 착수하신 첫시기에 벌써 혁명과 건설에서 민족간부, 인테리가 노는 중요한 역할을 밝히시고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민족간부를 대대적으로 길러내는 한편 오랜 인테리들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인입하여 그들을 교양개조하며 로동계급의 참다운 인테리로 육성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민족기술간부의 대렬을 꾸리는데서 오

랜 인테리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랜 인테리들을 새 사회 건설에 끌어들이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나라의 경제문화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특히 혁명의 첫시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오랜 인테리들이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인테리로서 대부분 반제사상과 민주주의적혁명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밝히시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인입하여 리용할뿐아니라 교양개조하여 사회주의적인테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당의 꾸준한 사상교양과 혁명과 건설의 실천투쟁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오랜 인테리들은 사회주의적근로인테리로서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가고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 충실히 복무하고있다.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개의 대학을 내오시고 로동자, 농민출신의 새로운 민족간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수 있게 하시였다.

특히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그이께서는 민족간부양성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시였을뿐아니라 전쟁이 끝나자 인차 고등교육기관들을 복구하여주시고 대학들의 교원대렬과 교수교양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여주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이 더욱 심화발전됨에 따라 대학과 고등기술학교들을 신설확장하시고 더 많은 기술자, 전문가들을 양성할수 있게 하시였다. 이리하여 해방전에 단 하나의 대학도 없었던 우리나라에 오늘은 현대과학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하여 130여개의 대학과 500여개의 고등기술학교들이 있으며 여기에서 20여만명의 학생들이 나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무료로 공부하고있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고등교육체계를 창시하시고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도록 하심으로써 생산현지에서 특히 로동계급속에서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훌륭히 키워낼수 있게 하시였다.

수령님의 독창적인 민족간부양성방침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지방에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가 튼튼히 꾸려짐으로써 간부에 대한 지방적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뿐아니라 지방들에 현대적기술문명을 보급하여 근로자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하며 높은 과학기술과 전문지식을 가진 50여만의 기사, 기수, 전문가들의 대부대가 있으며 그들의 지혜와 힘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국가경제기관들과 과학문화기관들, 현대적인 공장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이 훌륭히 관리운영되고있다.

이것은 문화혁명에 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선진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위대한 결실이다.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은 문화혁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문맹퇴치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도록 하시였으며 그 성과에 토대하시여 모든 근로자들이 초급중학교이상의 일반지식과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혁명과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로동자, 농민들간의 문화기술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며 근로자들을 기사, 기수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도록 하시였다.

수령님의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우리나라에는 성인들을 위한 정연한 교육체계가 마련되였으며 방송과 출판물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였다. 모든 가정들에 유선방송과 신문, 잡지가 들어가고 특히 온 나라의 텔레비죤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지게 되였으며 근로자들은 일정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할수 있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영재이시며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심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연구사업에서 기본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이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69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강화하고 기술혁명을 추진하며 당면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힘을 집중하면서 인민경제의 전망적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과학분야를 개척할데 대한 주체적인 과학연구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과학은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며 기술혁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가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사상혁명과 문화혁명 수행의 중요수단으로 인정하시고 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으며 문학예술창작사업을 대중화할데 대한 창조적방침을 제시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의 주체방향과 작가예술인들의 활동방향을 가리켜주시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현실속에 더 깊이 들어가 생활을 진지하게 탐구하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을 훌륭히 구현하도록 이끄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적 문학과 예술은 찬란히 꽃피고있다. 수령님의 위대한 문예사상이 훌륭히 구현됨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은 참말로 당적이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되였으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세계무대에서 《황금의 예술》, 《금강석의 예술》로 그 명성을 떨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어발전을 위한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주심으로써 우리의 말과 글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게 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널리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심으로써 체육을 생산과 국방에 훌륭히 복무할수 있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생산문화와 생활문화, 공중문화를 높이도록 하심으로써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질서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맞는 문화도덕생활의 혁명적기풍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이 모든 위대한 성과와 승리는 문화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하여 시종일관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재적으로 밝히신 문화혁명에 관한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옳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특히는 우리의 문화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그 정당성이 뚜렷이 확증된것으로 하여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의 새 문화 건설강령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며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화혁명앞에 나서는 전반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이 과업에는 사회주의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개화발전시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길이 명시되여있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문화건설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앞당길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문화건설강령을 높이 받들고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게 할것이다.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은 중요한 공산주의적교육방법

리 희 준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청소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전반적과업을 제시하시면서 모든 학령전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울데 대한 가장 옳바른 후대교육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키울데 대한 방침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적인 교육사상의 빛나는 구현으로서 새 사회 건설에 필요한 인간육성의 합법칙성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의 본질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제시된 가장 정확한 어린이교육방법이다.

우리는 모든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울데 관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깊이 파악하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보다 큰 행복을 안겨주고 그들을 혁명의 참다운 계승자로 키워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완수하게 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해야 할것이다.

*　　*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교육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울데 대한 문제의 본질을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은 중요한 공산주의적시책의 하나이며 공산주의적교육방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61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어린이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울데 관한 위대한 공산주의적시책과 공산주의적교육방법을 내놓으심으로써 사회주의하에서 학령전어린이보육교양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하에서 학령전시기의 어린이보육교양문제란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것을 의미한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고 극소수 착취계급만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착취사회에서는 국가와 사회에 의한 학령전시기의 어린이보육교양문제란 생각조차 할수 없다.

그러나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착취관계가 영원히 청산되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이 제도의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아이들을 키우는 사업이 가정적울타리를 벗어나 혁명의 후비대를 준비하기 위한 당과 국가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서 국가적, 사회적 관심속에 벌어지게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문제는 공산주의적후대육성을 위하여 혁명과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반드시 순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어린이들의 보육교양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에 대한 근본 립장과 태도를 반영한다.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도 후대

교육에 대한 원칙적립장에 서지 못한다면 혁명전어린이보육교양문제를 정확히 해결할수 없다.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어린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것은 학교교육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서 혁명의 후계자를 성과적으로 키우는가 못키우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그것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고 사회적해방을 실현한 녀성들을 혁명과 건설에 인입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녀성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와도 직접 관련된다.

따라서 혁명전시기의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은 혁명의 계승자육성에 관한 사업인 동시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전시기의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옳게 해결함으로써만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완수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혁명의 후대육성사업을 혁명위업수행을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키울데 대한 중요한 공산주의적시책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공산주의적후대육성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그리고 공산주의적교육의 본질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모든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을 중요한 공산주의적교육방법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이 공산주의적교육방법으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공산주의적 새 인간육성의 합법칙적요구를 옳게 반영하였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품격과 사상은 어려서부터 형성되며 따라서 어린 시절에 옳바른 교양을 주고 좋은 버릇을 길러주는것은 그들의 장래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우와 같은 책, 461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탁아소와 유치원 시기는 신체의 발육과정이 왕성하고 건강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인 동시에 사상의식의 형성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사람들은 이 시기에 말을 배우고 사상과 품격의 기초를 갖추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일정하게 이루어진 언어행동, 도덕품성들과 함께 사상생활은 장차 그 사람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서 큰 작용을 놀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사상도덕적풍모의 기초가 형성되는 탁아소, 유치원 시기부터 아이들에 대한 보육교양사업을 잘하는것은 미래의 공산주의적인간을 준비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원래 사람들이 태여날 때에는 다같이 좋은 사람으로 될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있다. 문제는 어려서부터 좋은 교양을 받는가 나쁜 교양을 받는가에 따라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갈라지게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탁아소와 유치원은 사람들에게 어려서부터 좋은 교양을 주는 훌륭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사회주의하에서 탁아소와 유치원은 한갖 아이들을 맡아서 보아주는 장소가 아니라 그들을 훌륭히 보육교양하는 사상문화혁명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의 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참다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시키고있다. 우리의 탁아소, 유치원은 모든 어린이들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보육교양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 우리의 어린이들은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어려서부터 수령님을 무한히 흠모하며 그이께서 마련하여

주신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는 혁명정신과 불굴의 투지를 키워나가고있다. 이리하여 우리의 어린이들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조선혁명의 참된 혁명전사로 믿음직하게 자라날수 있게 되였다.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이 공산주의적교육방법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사회의 교육의 목적을 훌륭히 실현하는 교육방법이라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 다시말하면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로동계급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는데 있습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502페지)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 교시는 공산주의적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를 육성하기 위하여서는 후대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주의적생활원칙을 확립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집단주의적생활원칙은 사람들을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만들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바로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키우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교육의 원칙적요구로서 그 목적을 실현하는 첫출발점이다.

어린이들을 집단적으로 키우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게 되는것은 아이들을 공산주의자로 만드는데서 집단적으로 키우는것이 가정에서 기르는것보다 비할바없이 우월하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가정이라고 하면 벌써 개인소유의 울타리안에 들어있는 사회의 개별적단위이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쉽게 자유주의가 생길수 있고 리기주의가 나타날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는 흔히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맡아서 기르게 되는데 낡은 사상에 누구보다 더많이 물젖은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새로운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잘 교양할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키우면 어려서부터 조직생활과 규률생활에 버릇되고 집단주의정신과 공산주의적품성이 싹트게 되며 조직적인 생활기풍에 물젖게 된다. 그것은 바로 집단생활이 온갖 개인리기주의를 반대하고 사람들에게 로동계급의 본질적특성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인 집단주의를 배양하게 하기때문이다. 사람이 나서 혁명가로 성장하는 과정은 바로 어려서부터 조직생활과 집단생활을 통하여 집단주의정신과 공산주의적품성을 끊임없이 배양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혁명가로, 공산주의자로 육성하기 위하여서는 사상도덕적풍모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인 학령전시기부터 집단생활과 조직생활을 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의 고상한 사상과 품성을 끊임없이 배양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모든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울데 관한 위대한 교육사상은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을 훌륭히 키워낼수 있게 하는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이 위대한 사상은 사람들에게 어려서부터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반대하고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고상한 사상과 품성을 키워나가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또한 그것은 어릴 때부터 낡은 생활양식과 낡은 습성을 반대하고 새세대들이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본성에 맞는 생활규범, 준칙에 따라 행동하도

록 하는 확고한 지침이다.

그러므로 모든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울데 관한 수령님의 교육사상은 맑스-레닌주의교육리론발전에 탁월한 공헌으로 되며 로동계급이 혁명위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며 자기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리론실천적 무기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모든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울데 관한 위대한 교육사상은 또한 사회주의하에서 녀성문제를 빛나게 해결할수 있게 하는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은 녀성들을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하여 그들의 사회적활동을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방침으로서 생산활동과 사회적활동을 통하여 녀성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한다. 그리하여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이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힘차게 밀고나감으로써 전반적혁명위업수행을 더욱 촉진하게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혁명의 후비대를 키우는 문제를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어린이들을 위한것이라면 모든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온갖 배려를 다 돌리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혁명활동의 전기간을 통하여 언제나 제일 좋고 훌륭한것, 가장 귀중한것은 우선 어린이들에게 돌려주시였다.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시기 그리고 해방후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에서 혁명의 후비육성문제에 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리오신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이 매우 어려웠을 때에도 모든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아키우시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유치원, 탁아소를 비롯한 모든 보육교양조건을 마련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직후에 벌써 도시와 중요산업공장들에 탁아소와 유치원이 설치되고 농촌의 계절탁아소와 포전탁아소들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지방산업공장들이 대대적으로 늘어나 녀성들의 사회적진출이 장성함에 따라 탁아소와 유치원이 더욱 조밀하게 분포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어버이사랑과 자애로운 보살피심으로하여 도시는 물론 산간벽촌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인 탁아소와 유치원이 훌륭히 마련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공장과 농촌, 어촌과 림산마을을 현지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 언제나 탁아소와 유치원을 먼저 찾으시여 어린이들의 생활을 일일이 료해하시고 보다 훌륭한 보육교양조건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또한 상점에 들리시면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식료품과 놀이감, 의복, 신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영양가 높고 맛좋은 음식을 먹이며 더좋은 놀이감과 아름다운 옷을 마련해줄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늘 심려하시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주신다.

이와 함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모든 치료예방기관들이 아동보호기관들을 책임적으로 담당지도방조하며 큰 탁아소와 유치원들에는 의사와 간호원들을 전문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국가적인 중요한 사업으로 보장됨으로써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한 몸으로 명랑하게 춤추고 노래부르며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녀성들속에서 우수한 일군들을 선발하여 탁아소와 유치원에 배치하도록 하시였으며 매개 도에 교양원대학과 시군마다 보육원양성소를 설치하시고 보육원, 교양원 대렬을 튼튼히 꾸리주심으로써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어린이들은 학령전시기에 충분한 학교전교육을 받음으로써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보다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미래의 참다운 혁명가로 훌륭히 준비되고있다.

※ ※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교육사상리론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울데 대한 위대한 공산주의적교육방법을 내놓으시였을뿐아니라 그 수행에서 나서는 구체적 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그의 직접적담당자들인 보육원, 교양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보육원, 교양원들이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 정책을 깊이 학습하여 언제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똑똑히 알고 그것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리론적으로 공산주의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하는것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 동무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사상으로 무장한 훌륭한 보육원, 교양원으로 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48페지)

어린이들을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하는 사업은 그의 직접적담당자들인 보육원, 교양원들이 정치사상적으로 어떻게 준비되는가에 따라 그 성과가 좌우된다.

어린이들을 보육교양하는 보육원, 교양원들자신이 먼저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철저히 혁명화되여야 자기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어린이들을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수 있는 수령님의 참된 아들딸로 키울수 있다.

보육원, 교양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선차적인것은 그들속에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을 더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이다.

보육원, 교양원들속에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해야 그들이 어린이보육교양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이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어린이보육교양정책을 잘 알고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어린이들을 훌륭하게 키울수 있으며 우리 당의 어린이보육교양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다. 그러므로 보육원, 교양원들은 수령님께서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하신 어린이보육교양에 대한 강령적교시들을 깊이있게 학습하며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적교육전통 특히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이룩하신 어린이보육교양 경험과 업적들을 깊이 연구하며 그것을 실지 사업에 구현하여야 한다.

보육원, 교양원들에 대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

혁명적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우리의 모든 보육원, 교양원들은 혁명적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 자신을 어린이보육교양의 참다운 일군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조직생활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는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육원, 교양원들은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뿐아니라 자기 분야의 전문지식에 정통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450페지)

보육원, 교양원들이 자신의 자질을 높이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는것은 어린이들을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키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보육원, 교양원들이 정치사상적으로 무장될뿐아니라 교육실무적으로 잘 준비되

여야 보건위생적요구에 맞게 아이들을 키울수 있으며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수 있다.

특히 유치원교양원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는 문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어린이들이 유치원교양을 통하여 학령전의무교육을 1년간 받게 되는 조건에서 유치원에서 교양원들이 어린이들에 대한 교양을 잘함으로써만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할수 있다. 그러므로 교양원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보육원강습소와 교양원대학들의 사업을 강화하며 보육원들과 교양원들 속에서 강습, 경험교환회, 시범상학, 방식상학 등을 널리 조직함으로써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정치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육원강습소와 교양원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재학기간에 철저히 혁명화되도록 하며 모든 과목교수의 당정책화수준을 더욱 높임으로써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주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린이들을 잘 보육교양하기 위하여서는 보육원, 교양원 대렬을 좋은 사람들로 꾸리고 그들이 한자리에서 오래 일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척부지어린이들을 기르고 가르치는 일은 복잡한 사업인것만큼 보육원, 교양원들을 한자리에 오래 고착시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조직들의 지도밑에 지방정권기관들은 보육원, 교양원 대렬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전문지식에 정통한 우수한 녀성들로 튼튼히 꾸려주며 그들이 한자리에서 오래 일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이미 있는 탁아소, 유치원들의 수용능력을 더 늘이며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 어린이들이 있는 모든곳에 그들을 위한 훌륭한 교육시설을 갖추어놓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61폐지)

어린이들이 있는 모든곳에 훌륭한 탁아소와 유치원을 충분히 마련하는것은 모든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모든 어린이들을 다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키울수 있도록 그 물질적조건을 보장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림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국가기관,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모든 단위에서 이미 있는 탁아소와 유치원의 수용능력을 늘이고 현대적인 탁아소와 유치원을 더많이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어린이들이 있는 모든곳에 훌륭한 탁아소와 유치원을 충분히 마련하여 줌으로써 모든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울데 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야 할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어린이들에 대한 그이의 어버이사랑과 배려 그리고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있는 이상 모든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울데 대한 공산주의적시책과 공산주의적교육방법은 멀지않아 우리 나라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해결될것이다.

우리는 모든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울데 관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철저히 관철하여 자라나는 꽃봉오리들을 미래의 참된 혁명가로 키워냄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 나아가야 할것이다.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자

로 태 석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3대기술혁명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서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처음으로 사회주의하에서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히신 독창적인 방침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수령님의 이 방침에는 이미 오래전에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우리 녀성들에게 보다 행복한 새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그이의 또하나의 크나큰 배려와 육친적인 사랑이 깃들어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할데 대한 기술혁명의 방침과 그 수행방도를 깊이 파악하고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성들의 사회정치적해방이 완전히 실현되였으며 기술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발전하게 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수행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56페지)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요구에 맞게 녀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인 혁명과업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나 이것은 녀성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되였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도 녀성들은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낡은 유물로 하여 가정생활분야에서 많은 로력적부담을 걸머지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녀성들은 이미 얻은 정치적권리와 사회적평등을 실질적으로 향유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응당한 역할을 전면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자면 반드시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녀성들이 사회생활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남자들과 꼭같은 사회적평등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실현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할데 대한 기술혁명의 과업은 녀성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녀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마음놓고 일할수 있게 하

여야 하겠습니다. …더 많은 녀성들이 사회에 나가도록 하는것은 녀성들을 로동계급화하고 혁명화하며 문명하게 하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54페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있는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사회주의하에서 녀성문제의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리는 동시에 그들이 사회와 집단생활에 적극 참가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녀성들이 가정에서 걸머지고있는 로력적부담을 없애기 위한 기술혁명을 실현함으로써만 가장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녀성들이 가정적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마음놓고 사회와 집단 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할수 있으며 많은 시간을 학습과 문화생활에 돌려 문화기술수준도 높일수 있다.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할데 대한 기술혁명과업은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이 실현된 현시기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방침이다.

오랜 세월을 두고 녀성들이 걸머지고 있던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을 없애기 위한 기술혁명과업은 아무런 물질기술적토대도 준비함이 없이 쉽게 실현할수 없다. 그것은 나라의 생산력과 기술 발전에 토대하여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여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이 창설되였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현대적기술로 장비되였다. 이리하여 녀성들을 가정일의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할수 있는 충분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였다.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할데 대한 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완전히 성숙된 혁명과업으로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절박한 요구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방침은 그이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무르익혀오신 녀성문제해결에 관한 원대한 구상의 빛나는 구현이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고있던 우리 나라 녀성들의 비참한 처지를 가슴아파하시면서 녀성문제해결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손수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남녀차별없는 인륜적평등과 부녀의 사회상대우를 높이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히 할데 대한 녀성해방의 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이 위대한 강령은 우리 나라에서 녀성해방의 불멸의 기치로 되였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녀성해방문제를 민주개혁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심으로써 수천년동안 내려오면서 온갖 수모와 학대, 착취와 압박밑에서 신음하던 우리 녀성들을 해방시켜주시고 나라의 떳떳한 주인으로 되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녀성들이 나라의 어엿한 주인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세심한 보살피심과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그 어디를 가나 우리 녀성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보람차고 행복한 일터에서 자기들의 지혜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

전국이 조밀한 탁아소와 유치원의 그물로 뒤덮인 우리 나라에서 녀성들은 어린이들을 키우는데서 아무 근심걱정

없이 마음놓고 일하고있으며 모든 녀성들이 누구나 다 77일간의 산전산후유급휴가를 받으며 어린이들을 셋이상 가진 어머니들은 하루에 6시간 일하고도 8시간 로동하였을 때와 꼭같은 로임을 받는 혜택을 누리고있다. 또한 가는곳마다에 현대적인 식료가공공장과 밥공장, 옷공장, 세탁소들이 일떠서 녀성들의 가정일을 덜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할데 대한 기술혁명과업이 실현될 때 우리 녀성들은 더욱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면서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보다 활짝 꽃피워나갈것이다.

진정 오늘 우리 녀성들이 나라의 어엿한 주인으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녀성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배려와 은덕의 결과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에 대하여서도 환히 밝혀주시였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식료가공공업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녀성들의 부엌일을 덜어주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식료가공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것입니다. 여러가지 부식물가공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주식물가공도 널리 조직하여 모든 식료품들을 공업적방법으로 가공하여 공급함으로써 녀성들이 가정에서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음식을 만들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57페지)

식료가공공업에서 혁신을 일으키는것은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녀성들이 식생활을 보장하는 일은 부엌과 가정 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따라서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서는 식료가공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여러가지 가공된 부식물과 주식물을 공급하여 녀성들이 가정에서 음식물을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만들면서도 맛있게 할수 있다.

식료가공공업에서는 무엇보다먼저 부식물 생산과 가공을 널리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근로자들의 부식물에서 압도적비중을 차지하는 남새, 물고기, 알, 고기 등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가공하는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모든 시, 군들에 랭동공장과 식료가공공장들을 꾸려야 한다. 이와 함께 식료품의 공업적가공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김치의 공업적가공을 비롯한 여러가지 부식물가공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현대적인 부식물가공공장을 합리적으로 꾸리는것과 함께 식료상점들의 가공반들에서도 부식물생산을 널리 벌려 장성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부식물가공을 널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포장용기생산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맛있게 가공된 부식물을 주민들에게 제때에 원만히 공급할수 있다. 우리는 유리병, 수지용기, 오지단지 등 여러가지 포장용기생산기지를 이르는곳마다에 꾸리고 그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부식물가공공업을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주식물의 공업적가공도 널리 조직하여야 한다.

정미공장들에서는 쌀의 1차가공사업을 발전시켜 쌀을 씻지 않고 밥을 지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큰 도시들부터 시작하여 현대적인 국수공장, 빵공장 등을 건설하여 국수와 빵 등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공급하며 점차 빵과 국수 등을 가정에서 가공함이 없이 그냥 먹을수 있게 가공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어린이식료품가공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녀성들의 가정일의 부담을 덜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그들을 튼튼히 키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매개 식료품가공공장에 어린이식료품직장 또는 작업반을 꾸며 암가루, 우유, 고기, 남새, 과일 가공품들과 당과류 등 영양가 높고 소화가 잘되는 각종 어린이식료품을 많이 만들어 공급하여야 한다.

식료공업의 발전에 식료상업을 따라세워야 한다.

식료가공품은 변질하기 쉬우며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구입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따라서 아무리 잘 가공한 식료품도 판매조건이 불비하며 주민들이 손쉽게 살수 있도록 판매조직을 잘하지 않으면 가공한 식료품이 그 은을 낼수 없다. 그러므로 식료품상업망을 늘이고 종합화하여 판매에서 위생문화성을 보장하는데 큰 관심을 돌려야 한다. 특히 모든 식료상점들에 랭동기를 설치하여 사철 신선한 가공품을 근로자들에게 공급하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는 식료가공공업을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여러가지 부엌세간들을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식료품가공공업을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가정용 랭동고와 세탁기, 전기가마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엌세간들을 많이 생산공급하여 녀성들이 시간을 얼마 들이지 않고 부엌일과 가정일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457페지)

여러가지 현대적인 부엌세간들을 많이 생산하여 공급하는것은 녀성들이 시간을 얼마 들이지 않고 부엌과 가정 일을 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우리는 지금 있는 가정용품공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새로운 공장들을 많이 꾸려 여러가지 현대적인 부엌세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편의봉사망들을 널리 조직운영하며 사회적봉사의 질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세탁소와 양복점 등 편의봉사망들은 녀성들의 가정일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의 사회적진출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봉사시설들이다. 그러므로 세탁소와 양복점 등 여러가지 형태의 편의봉사망을 널리 조직하고 봉사의 질을 개선하는것은 녀성들을 품이 많이 들고 잡다한 가정일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우리는 세탁소와 양복점을 비롯한 여러가지 편의봉사망을 적극 늘이고 현대화하며 전문화하여 녀성들의 가정적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농촌수도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농촌녀성들의 생활조건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업을 전국가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있는 녀성대중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하는 문제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우

리 근로자들자신의 생활을 보다 문명하게 만들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할데 대한 기술혁명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특히 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 녀성들의 가정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 소극성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려 기술혁신운동을 더욱 세차게 끌고나가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는 식료공업과 일용품공업을 적극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설비와 자재, 원료 등을 제때에 생산보장해주어야 한다. 특히 군의 역할을 높여 농산물수매사업을 잘함으로써 식료가공원료를 제때에 원만히 대주는것이 중요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는 폐설물을 적극 리용하여 여러가지 부엌세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공급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의 사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실천에 구현한 또하나의 빛나는 모범으로 되며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창조적사상이다.

수령님의 이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녀성들의 세기적숙망과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혁명과 건설에서 녀성들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에 관한 리론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만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우리는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특히 그이께서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와 기술혁명에 관한 교시를 깊이 연구하여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것을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할데 대한 기술혁명의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면 착취사회가 가정생활령역에 남겨놓은 낡은 유물까지 완전히 없어지게 될것이며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력사적과업이 우리 나라에서 맨 선참으로 실현되게 될것이다.

모두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께서 내놓으신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할데 대한 기술혁명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자.

철천지원쑤 일본군국주의의 교활한 남조선재침책동

김 석 형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재생재무장되였으며 또다시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공공연히 뻗치고있다.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으로 살쪄왔으며 전쟁으로 망한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부추김밑에 되살아나 또다시 천추에 씻을수 없는 죄악의 력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군국주의는 오늘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야망밑에 미제의 아세아전략에 가담하여 해외침략의 길에 적극 나서고있으며 식민지세력권을 위한 침략전쟁준비를 미친듯이 다그치고있다.

일본군국주의는 해외침략에서 우리 나라를 첫번째 대상으로 삼고있으며 이미 남조선에 기여들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날이 갈수록 더욱더 로골화되여가고있으며 이미 분별없는 모험적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날로 강화되고있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은 남조선혁명과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으며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 ※

일본군국주의는 력사적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일삼아왔으며 근 반세기동안 우리 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한 철천지원쑤이다.

아세아인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의 범죄적기록으로 엮어진 일본군국주의의 100여년의 력사에서 우리 나라는 놈들이 첫번째로 그리고 가장 검질기게 노리는 대상으로 되여왔다.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과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와 거래를 가지는 첫날부터 우리 나라를 먹으려고 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재부를 략탈하려고 책동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74페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본이 본격적으로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서는 계기로 된 부르죠아적개혁(1868년의 이른바 명치유신)을 전후한 시기부터 우선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을 획책하였다.

일본이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선 다음 일본군국주의는 날이 갈수록 더욱 강도적이며 야수적인 침략성으로 세상에 악명을 떨치였다.

그것은 첫째로 일본자본주의발전의 미숙성, 후진성과 관련되며 다음으로 《명치정부》에서 패권을 쥔자들이 호전적인 무사층이였다는 사정과 관련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본자본주의의 시초축적과정을 촉진하며 근대적인 생산력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나라 인민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한편 부족한 원료와 식량을 략탈하기 위하여 첫날부터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놈들은 여기서 일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자연부원이 풍부하고 오랜 옛날부터 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우리 나라가 당시 암둔한 봉건통치배들때문에 락후하고 무력한 형편에 처하여있었다는 사정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침략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명치유신》직후 벌써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하여 식민지로 만들려는 야욕밑에 화약내풍기는 《정한론》(조선을 정복해야 한다는 주

장)을 제창하였다. 악명높은 《정한론》자들은 오만하게도 《황국을 크게 일떠세우고 영원히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조선국과 전쟁을 하여 이를 복속》시켜야 한다고 뇌까리였다. 이것은 조선을 침략하고 그를 교두보로 하여 아세아대륙을 침략할것을 망상한 놈들의 야망을 단적으로 드러내놓은것이였다.

그러나 놈들의 주관적욕망과 당시 아직 어리고 약하였던 일본자본주의력량과의 사이에는 먼 거리가 있었다. 저들혼자의 힘으로는 조선인민의 반침략기세를 누르며 복잡하게 조성된 당시의 국제정세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것을 스스로 잘 알고있었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큰 놈을 등에 업을것을 타산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는 력사적으로 큰 제국주의세력을 등에 업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 버릇되여온 아세아인민들의 철천지원수입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지난날 미영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비호밑에 조선을 강점하고 아세아대륙에 침략의 마수를 뻗쳤으며 아세아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주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97폐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866년의 《샤만호》사건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자 일본을 내세워 침략의 길을 닦으려고 책동하던 미제와 동방침략에 피눈이 되여있었던 영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나섰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875년에 미제의 지원과 고무밑에 악명높은 《운양호》사건을 도발하고 그 이듬해에 무력적위압밑에 예속적인 《강화도조약》을 강요하였다. 이것은 놈들의 조선침략에서 첫 돌파구를 의미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 불평등조약과 그후 체결한 일련의 조약에 의하여 《치외법권》과 《최혜국대우》 등 일방적특권을 행사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갖은 략탈행위를 감행하였다.

교활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침략에서 큰놈을 등에 업을뿐만아니라 시종 무력적방법에 의거하면서도 《평화》의 간판을 휘두르는 량면술책에 매달리였다.

놈들은 조선을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감행할 때마다 조선의 《독립》과 《자주권의 존중》, 《동양의 평화》를 표방하였다. 1876년의 《강화도조약》자체가 놈들의 무력적공갈밑에서 강요된 침략적조약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놈들은 철면피하게도 이 조약 서두에 조선이 자주적국가이라는것을 밝히고 이 조약이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유익한것처럼 묘사하였다.

조약체결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영제국주의침략자들을 우리 나라에 끌어들이는 길잡이역을 하였고 놈들을 등에 업고 량면전술을 써가면서 침략의 지반을 하나하나 쌓아나갔다.

당시 우리 나라는 봉건통치가 극도로 문란약화되여 통치배들은 나라일은 돌보지 않고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수탈과 당파싸움에만 몰두하였다. 외래침략자들사이에서도 탐욕적인 대립과 알륵관계가 빚어지게 되였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전야는 《강화도조약》체결후 우리 나라의 정세가 가장 복잡한 때였다.

1882년의 임오군인폭동과 1884년의 갑신정변이 실패한 후에도 우리 인민들은 외래침략자들과 국내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여 힘찬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1885년 청, 일 두 나라는 서울에 주둔시켰던 자기들의 침략군대를 철수시켰다.

이때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자기 군대를 철수시킨것은 결코 그들이 떠든대로 《동양의 평화》나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가 아니였다. 그것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놈들의 힘으로는 아직 그 적수인 청나라를 타승하기 힘들겠다고 타산하였기때문이였다. 놈들은 우리 나라봉건통치배들내부의 알륵이 더욱 격화되고 우리 나라와 청나라의 힘이 더욱 약화되기를 기다렸으며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더욱더 큰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 력량을 축적해나갔다. 그후 10년의 세월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대체로

유리하게 흘러갔다. 1894년(갑오)에 전라도농민들은 외래침략자들과 부패타락한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벌리였다. 대중적농민봉기는 농민전쟁으로 확대되여 삼남일대를 뒤흔들어놓았다. 겁을 집어먹은 반역적봉건통치배들은 청나라군대를 불러들여 농민들을 진압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놈들은 이때에도 《동양의 평화》와 《조선의 독립》, 《거류민보호》란 간판을 들고 우리 나라에 출병하여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농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이때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조선출병과 농민전쟁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백방으로 지지하여줌으로써 놈들의 침략행위를 뒤받침해주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을 강점하고 나아가서는 대륙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위해서는 그후 10년이 지나 이번에는 짜리로씨야와의 큰 전쟁을 치러야만 하였다. 놈들은 이 큰 고비도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유리하게 넘어설수 있었다.

로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영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의 비호밑에 우리 나라에 《을사보호조약》(1905년)을 강요하였다. 《을사보호조약》은 조선농민전쟁과 관련한 일제의 출병과 무력간섭 그리고 침략전쟁들의 직접적결과였다.

이 망국조약의 체결로 일제는 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외교의 모든 권리를 가로챘으며 조선의 내정을 타고 앉아 이른바 《통감정치》, 《차관정치》로 온갖 전횡을 일삼았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사실상의 식민지강점이였으며 1910년의 《합병조약》은 그것을 확인한것이였다.

우리 나라를 병탄한 일본군국주의는 근 반세기동안 말할수 없이 악랄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 조선인민을 가혹하게 억압착취하고 학살하였으며 조선의 부원과 재부를 모조리 략탈하였다.

간악한 놈들은 《내선일체》, 《동조동근》을 부르짖으면서 우리 민족자체를 말살하려고 날뛰였다.

미제와 더불어 세상에서 가장 횡포하고 파렴치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전쟁에서 전쟁에로 일본을 이끌었으며 결국 전쟁으로 망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조직령도하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의 결정적타격에 의하여 일본군국주의는 27년전에 패망하였다. 그러나 오늘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또다시 조선과 아세아에 대한 재침의 모험을 서슴없이 감행해나서고있다.

오늘의 사태발전은 19세기말 일본군국주의가 조선에 대하여 전면적인 침략과 간섭을 감행하던 때를 방불케 하고 있다.

력사의 교훈은 일본군국주의가 벌리고있는 남조선재침책동의 위험성을 심각히 경고하고있다.

*　　*

재생재무장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력사의 교훈을 거슬러 또다시 우리 나라에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것입니다.

오늘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미제를 등에 업고 또다시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공공연히 뻗치고있으며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의 옛망상을 실현하여보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97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미제를 등에 업고 공공연히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고있다. 미제와의 공모결탁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우선 남조선에 해외침략의 첫걸음을 내디더고있으며 남조선을 《대동아공영권》의 옛망상을 실현하는 도약대로 삼으려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은 재생한 일본독점자본의 산물인 동시에 미제의 아세아전략의 산물이다. 일본군국주의를 재생재무장시켜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는것은 미제의 아세아침략계획의 중요구성부분을 이루고있다.

미제는 제놈들의 아세아침략정책이 전면적파산에 직면한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리용하는데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면서 《아세아문제에 정통》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내세움으로써 저들의 처지를 건져보려 하고있다. 미제는 또 한 날로 격화되는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남조선통치집단과 일본군국주의를 결탁시킴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부담》을 덜고 일본독점자본을 리용하여 남조선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을 강화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의 야수적인 잔인성과 교활성을 크게 자극하고있으며 남조선재침의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침략계획에 적극 복무하면서 음흉한 침략적야망을 품고 남조선에 재침의 마수를 깊숙이 뻗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은 이미 로골적인 군사적침략단계에까지 들어서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에서 미제의 조종밑에 맺어진 1965년 《한일조약》은 하나의 전환적계기로 되였다.

범죄적인 《한일조약》은 미제의 아세아침략계획의 일환으로 조작된것으로서 일본군국주의세력의 남조선침략을 《합법화》한 극악한 침략《조약》이였다. 이것은 지난날 미제의 부추김밑에 일제가 조선에 강요한 굴욕적인 《을사보호조약》의 재판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조종밑에 남조선당국자들과 《한일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처 남조선에서 본격적으로 침략적지반을 닦을수 있게 되였다.

매국적인 《한일조약》체결후 본격적으로 기여들기 시작한 일본군국주의는 우선 남조선의 경제분야에 엄중한 재난을 빚어내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경제적침투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자본수출이다.

남조선에 물밀듯이 쓸어들기 시작한 일본독점자본은 이른바 《경제협조》와 《경제원조》의 미명하에 《상업차관》, 《재정차관》, 《어업차관》 등 각종 《차관》을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자본수출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1965년부터 1971년까지 일본독점지배층은 남조선위정자들에게 7억 7천만딸라의 《차관》을 주었다. 한편 일본독점체들은 지금 《합영회사》의 설립을 구실로 남조선에 무리로 기여들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지금 남조선의 보세가공공업의 100%, 선박수리공업의 70%, 알루미니움공업의 100%를 차지하고있으며 동력, 전재, 화학 공업부문들의 원자재공급도 손아귀에 틀어쥐고있다. 놈들은 《보세가공무역》을 통하여 남조선의 중소기업을 더욱 예속시키고있으며 남조선로동자들을 무제한 착취하고있다.

이리하여 미제와 함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산업부문은 물론 상업류통, 금융, 기술 등 남조선경제의 중요명맥을 틀어쥐고있으며 그의 군사화와 예속화를 다그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의 침투로 말미암아 남조선은 일본독점자본의 채무노예로, 최고률의 리윤획득을 위한 자본수출지로 전락되고있다. 남조선에서 민족경제는 급속히 파산몰락되고있으며 인민들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생존의 위협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와 함께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여 침략과 전쟁 정책을 고취하고 합리화하며 침략을 손쉽게 이루어보려고 책동하고있다. 놈들은 《친선》, 《인사교류》, 《문화교류》의 이름밑에 남조선인민들속에 군국주의사상과 친일사상을 부식시키며 남조선천지를 왜색왜풍

으로 뒤덮이게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는 남조선에서 우리 인민의 유구한 민족문화와 고유한 미풍량속을 어지럽히며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고 일본숭배사상을 고취함으로써 침략의 사상적지반을 닦는데 복무하고있다.

제국주의의 경제문화적침투의 종국적목적은 정치군사적침략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경제문화적침투에 기초하여 정치적 및 군사적 침략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반동파의 공모결탁밑에 서울에 설치된 《주한일본대사관》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의 거점으로서 놈들의 침략기구체계에서 중심을 이루고있다. 《주한일본대사관》은 이른바 《외교대표부》의 탈을 쓰고 일본반동정객들을 비롯한 침략의 사환군들의 래왕, 일본 독점체와 상사, 사상문화종교침략기구 등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저들의 침략정책을 현지에서 직접 집행하는 도구로 되고있다.

남조선재침야망에 불타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대사관》외에도 《한일정기각료회》, 《한일국회의원간담회》, 《한일협력회》,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 등 상설적인 침략기구를 수많이 꾸며놓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남조선통치집단을 더욱 철저히 지배하며 예속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은 정치경제적지배와 예속뿐아니라 군사적침략을 로골적으로 감행하는데로 나가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남조선에 기여들기 시작하였으며 미제의 조종밑에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극히 모험적인 전쟁계획을 짜놓고 조선전선에 자기들의 침략무력을 투입할데 대한 모략을 공공연히 꾸미고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작전지역으로까지 선포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498페지)

제국주의적침략열에 들뜨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을 저들의 해외침략의 첫번째 공격대상으로 삼고 남조선에 본격적으로 기어들고있으며 미제의 조종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침략의 길에 뛰여들고있다.

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군사적침략책동은 미제의 《새 아세아정책》과 관련하여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남조선에서의 식민지통치의 위기와 웰남침략전쟁의 전면적파산에 직면한 미제국주의자들은 허물어져가는 제놈들의 아세아침략계획을 수습할 목적밑에 《미일한공동작전체계》내에서 일본군국주의세력과 남조선위정자들간의 군사적결탁을 더욱 강화하는데로 나가고있다.

미제의 침략전략에 편승하여나선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의 다음가는 지배자로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전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군사적발판으로 전락되고있다.

특히 1969년 11월에 미일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은 더욱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다.

《공동성명》은 안팎으로 더욱 곤경에 빠져들어가고있는 미제가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아세아침략의 주되는 군사적타격력으로 내세우며 그 대가로 일본군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지난날의 식민지세력권에 다시 침투할것을 허약한 흉악한 침략《협정》이였다. 당시 일본군국주의도당은 남조선이 《일본자체의 안전에 불가결》하다느니 미제의 아세아침략에서 《주도적역할》을 맡아나서겠다느니 하면서 조선과 아세아 침략에 본격적으로 뛰여든 흉모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이리하여 미제의 조종밑에 범죄적인 《한일조약》을 체결한후 남조선재침

의 길에 나선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일 《공동성명》을 계기로 이른바 미제의 《새아세아정책》에 따라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침투를 본격적으로 감행해나설수 있게 되였다. 최근년간 남조선에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전쟁사환군들이 뻔질나게 기여들어 군사분계선일대를 시찰하고 남조선당국자들과 전쟁밀담을 거듭 벌려왔다. 그들은 《교류근무》라는 이름밑에 일본 《자위대》 고급장교들로 구성된 《공간부대》를 남조선에 상주시켜 미제와 함께 군사통수권을 틀어쥐는 한편 남조선군대 《장교》들을 일본에 끌어다가 식민지고용군대의 골간으로 길들이며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른바 일본의 《안전》과 《거류민보호》의 구실밑에 일본 《자위대》의 남조선파병에 대해서까지 지껄이고있다. 《거류민보호》란 침략의 대명사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지난 시기에도 《거류민보호》를 구실로 남의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해왔던것이다.

일본군국주의는 남조선당국과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감행해왔으며 침략준비에 미쳐날뛰고있다. 심지어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도꾜를 중심으로 한 반경 1천해리의 방위권》에 대해 떠벌이면서 조선의 전지역이 저들의 작전지역에 포함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놈들은 또한 《1970년대에 본토밖의 어느 지역에서 작전하는 자위대를 상상할수 있다면 그곳은 조선》일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을 침략할 전쟁준비를 비약적으로 추진시켜왔다.

미제의 조종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과 일본을 련결하는 반항공조기경보망체계와 군사통신정보체계, 긴급수송체계를 정비완성하며 미군지휘하의 하나의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형성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강도적요구에 따라 지난날 조선침략의 교두보였던 부산—시모노세끼사이의 《관부련락선》이 다시 개설되고 그것이 부산으로부터 군사분계선에 이르는 《고속도도로》와 련결되였으며 《일한항공화물수송로》가 개설되였다. 《관부련락선》을 통하여서는 이미 군사인원과 군사장비의 수송훈련이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되였다. 제반 사실은 이것들이 우리 나라를 반대하여 침략무력과 군사장비를 대량 긴급수송하기 위한 작전준비의 일환이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미제와 공모결탁하여 조선침략전쟁준비를 미친듯이 다그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선제공격》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뛰여들 기회를 엿보고있다.

모든 사태발전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범죄적인 전쟁도발책동에 발맞추어 조선침략을 위한 이른바 《작전계획》을 실시하는 길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자기들의 침략책동을 가리울수 없으며 남북조선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남조선에 대한 놈들의 재침책동은 반드시 분쇄되고야말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의 조선은 어제날의 조선이 아니며 오늘의 아세아는 어제날의 아세아가 아닙니다. 만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력사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조선과 아세아 침략의 길에 뛰여든다면 그들은 자신이 지른 불길속에서 타버리고말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02～403폐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저지른 죄악의 력사는 되풀이될수 없다. 시대는 변하였다.

오늘의 조선은 《한일합병》 당시의 조선이 아니며 오늘의 조선사람은 남이 5련발총을 가지고다닐 때 화승대 하나 없이 다니던 그러한 때의 조선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주체적력량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았으며 강적 미제를 타승한 우리 인민은 오늘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통일단결되고 혁명기지의 물질적토대는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나라의 자위적국방력은 어떠한 원쑤들의 무력침공도 능히 물리치고 조국의 독립과 안전을 철벽으로 수호할수 있게 튼튼히 준비되였다.

특히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지금 남북조선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지지와 환희를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외세를 배제하고 나라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열의는 전례없이 비등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의 현실을 똑똑히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조선인민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근 반세기동안이나 우리 인민에게 피눈물나는 노예살이를 강요하였던 그런 쓰라린 력사를 되풀이하는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날로 격화되는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경각성을 더욱 높여야 하며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데서 일본인민의 반미, 반독점, 반군국주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인민은 미일반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광범한 일본인민들과 긴밀히 지지협조할것이며 전투적뉴대를 끊임없이 강화하여나갈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서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거족적투쟁이 요구된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재침의 마수를 깊숙이 뻗치고있는 오늘 무엇보다도 남조선인민들자신이 그것을 단호히 꺾어버려야 한다.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반미구국투쟁의 일환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사소한 환상도 단연 배격하고 놈들의 흉악한 침략적본성을 똑똑히 보아야 하며 그 재침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반일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침략적이며 매국적인 《한일협정》을 폐기하고 일본 《대사관》을 비롯한 모든 침략기구들과 침략의 척후병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 단합된 힘으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설 때 놈들의 흉책은 파탄을 면치 못할것이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력사적위업은 더욱 빨리 성취될것이다.

근로자 제7호 (루계 364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로자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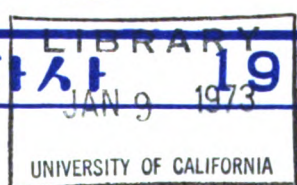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 1972년 7월 6일 발행 • 1972년 7월 11일

ㄱ—24150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8~9호

평 양 근로자사 1972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8~9호 (365)

차 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획기적 전환을 가져오게 한 력사적연설

최근 한해사이에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속에서 평화통일 기운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는 가운데 판문점에서는 해방후 26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조선적십자단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남북으로 흩어진 겨레들의 불행을 덜어주기 위한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게 되였으며 또한 남북정치협상이 이루어지고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게 되였다.

이번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남조선측이 받아들임으로써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게 된것은 우리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

이것은 수령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빛나는 승리이다. 이로써 남북의 장벽을 허물고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에는 새로운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길우에서 이룩된 이 격동적인 사변들과 빛나는 승리는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난해 8월 6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가 가져온 직접적인 결실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해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한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하신 그 유명한 연설에서 아세아와 전반적세계정세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당시 세계적관심사로 되여있던 문제들에 명철한 해답을 주시였으며 아세아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천명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연설에서 급변하는 정세를 우리 혁명에 리롭게 전변시키며 남북의 동결상태를 주동적으로 마스고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길수 있는 새로운 획기적인 구국방안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의 이 연설은 착잡하게 뒤엉킨 현국제정세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평가를 준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문헌이며 조선혁명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을 마련하고 나아가서 세계정세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준 불멸의 혁명적기치이다.

실로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8월 6일연설은 세계에 커다란 파문을 던지고 만사람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았으며 혁명발전과 정세추이에 심대한 작용을 미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연설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아세아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공동위업발전에 불멸의 기여를 한 탁월한 고전적문헌이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 큰 타격을 준 력사적선언이다.

수령님의 이 연설이 발표됨으로써 미제를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의 투쟁 특히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더욱 앙양되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의 정세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투쟁에 급격히 유리하게 발전하고

그 앞길에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8월 6일연설 한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전체 조선인민은 이 연설이 가져온 빛나는 결실을 직접 눈앞에 보며 위대하신 수령님을 모신 더없는 긍지와 영예를 안고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1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8월 6일연설은 복잡한 현국제정세에 가장 과학적인 맑스-레닌주의적분석을 가하고 탁월한 혁명전략을 새롭게 밝힌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다.

변천하는 혁명정세를 옳게 분석판단하는것은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세우기 위한 필수적전제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이 옳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자면 무엇보다도 정세를 옳게 평가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8월 6일연설에서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미제의 최후발악적인 《량면전술》을 예리하게 폭로하시였으며 그에 대처한 혁명적투쟁전략과 우리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구국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지난 1년간의 모든 사변은 수령님께서 8월 6일연설에서 내리신 정세평가와 그에 상응하는 혁명전략이 얼마나 정당하며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는 원쑤들의 최후발악적인 〈량면전술〉에 언제나 경각성을 높이며 그들의 어떠한 흉계도 제때에 짓부셔버림으로써 죽어가는 제국주의를 완전히 매장해버려야 할것입니다.》(《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13페지)

최근년간 미제국주의자들은 궁지에 빠진 저들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더욱더 교활하고 악랄한 《량면전술》에 매여달리게 되였다.

미제는 이른바 《닉슨주의》의 간판밑에 한편으로는 《힘의 정책》을 공공연히 추구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평화》니, 《협상》이니, 《교류》니 하는 갖가지 허울좋은 간판을 들고 이른바 《평화전략》에 대하여 요란하게 떠들게 되였다. 그러나 미제의 이른바 《평화전략》은 저들의 침략정체를 가리우며 세계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기 위한 상투적인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비록 그 힘이 약화되여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은 궁지에 빠질수록 한손에는 감람나무가지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칼을 쥐고 휘두르는 《량면전술》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며 《평화》의 간판밑에 침략과 전쟁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한다.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8월 6일연설에서 분석하신바와 같이 최근시기 미제가 《평화》의 간판을 들고 《량면전술》로 나오게 된것은 그들의 처지가 더욱더 어렵게 된데 기인한것이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국내외적으로 더욱 엄중한 위기에 부닥치고있다.

미국안에서 반전운동과 반정부운동이 대중적으로 앙양되고있으며 지배층내부의 모순은 매우 심각하다. 경제는 만성적인 침체상태에 빠지고 국제수지는 끊임없이 악화되고있다. 미제가 그의 침략무력을 세계곳곳에 배치하여놓은 군사전략상 약점은 갈수록 드러나고있으며 시장과 세력권 쟁탈을 위한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이 날로 더욱 첨예화되고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최근년간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집중하여 아세아 사회주의나라들을 봉쇄하고 공격하며 아세아에서 급격히 장성하는 민족해방

운동을 가로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날뛰였으나 놈들의 침략적인 《아세아전략》은 전면적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다. 미제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단호한 반격에 의하여 이 지역에서 패배를 거듭함으로써 아세아에서 더이상 버티고있을수 없게 되였다.

이러한 막다른 처지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들고나온것이 이른바 《닉슨주의》이다. 《닉슨주의》는 미제국주의의 상투적인 량면술책의 재판이며 《힘의 정책》의 파산에서 오는 미제의 세계지배체계의 붕괴를 가로막기 위하여 죽어가는자들이 꾸며낸 더욱 교활하고 모험적인 전쟁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무력을 직접 동원하여 침략을 강화하는 한편 악명높은 《닉슨주의》의 간판밑에 아세아에서는 일본군국주의를 《돌격대》로 내세우고 아세아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주로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며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흉악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정세하에서 세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앞에는 원쑤들의 더욱 교활하고 모험적인 침략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며 단합된 힘으로 미제의 최후발악적인 《량면전술》을 짓부셔버려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8월 6일연설에서 조성된 이러한 정세와 미제의 교활한 《평화전략》의 반동적본질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그에 대처하여 아세아의 혁명적나라 인민들의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며 나아가서 세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련대성을 더욱더 강화하여 놈들에게 드세찬 공격을 들이댈데 대한 혁명적이며 령활한 투쟁전략을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 8월 6일연설에서 내리신 정세평가와 그에 대처한 투쟁전략은 전반적반제투쟁의 발전과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사실상 이 시기 세계는 미제의 전쟁두목 닉슨의 중국방문과 관련하여 매우 뒤숭숭하였다. 이것을 둘러싸고 국제여론이 적지 않게 혼돈되여있었으며 이름을 타서 제국주의자들은 모략적인 선전공세를 강화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세계적관심사로 되였던 닉슨의 중국방문이 다름아닌 패배자의 행각이고 구걸외교이며 교활한 《평화》책략의 표현이라는것을 세계의 면전에 적라라하게 폭로하시고 전반적정세는 혁명에 유리하게, 반혁명에는 불리하게 진변되고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다. 참으로 이것은 정세발전의 새로운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조성되였던 혼란을 수습하고 혁명운동을 계속 줄기차게 앙양시킬수 있게 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이것은 급변하는 복잡한 정황속에서도 언제나 정세의 추이를 환히 꿰뚫어보시며 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예지와 과학적통찰력, 심오한 리론과 현명한 령도를 보여주는것이다. 수령님의 연설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수세와 피동에 빠지게 한 폭탄선언이였으며 전반적국제혁명운동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끈 고무적기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8월 6일연설에서 급변하는 정세를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시키며 남북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길수 있는 새로운 획기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며 이를 위하여 남

조선의 민주공화당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8페지)

수령님께서 8월 6일연설에서 밝히신 이 새로운 제안은 조성된 정세하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미일침략자들의 교활하고 음흉한 민족분렬책동과 침략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며 조국수호와 자주통일의 기치밑에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도를 밝힌 참으로 신축자재하고 령활무쌍한 방침이다. 이 방침은 이때까지 4분의 1세기이상이나 지속되여오던 우리 나라의 동결상태를 가시고 자주적평화통일의 대문을 열어놓을수 있는 실제적가능성을 주동적으로 마련한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구국방안이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남조선의 민주공화당도 포함한 남북의 각이한 정치세력이 광범히 접촉하고 협상할데 대한 새로운 방침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주장하여온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원칙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정당한 방침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우리 인민자신이 해결해야 할 민족내부의 문제이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장애하는 외세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하며 애국의 기치, 자주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남북의 각이한 정치세력이 접촉하고 협상하여야 한다.

남북의 광범한 접촉과 협상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원칙에서 우리 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할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되며 조국의 통일을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현실적방도로 된다.

물론 우리 나라의 남북반부사이에는 현재 사상과 리념, 제도에서 차이가 존재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견코 장애로 될수 없다. 지금 남북사이에 존재하는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제에 의한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로 인하여 산생된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어느 정치, 어느 사상, 어느 제도를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남조선인민들자신이 결정할 문제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한나라안에 각이한 정치제도가 있을수 있으며 각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나라안에서 같이 살수 있다.

그러므로 나라의 통일을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론하기전에 먼저 전민족의 립장, 애국의 립장에 서야 하며 남북이 마주앉아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문제를 진지하게 의논하여야 한다.

오직 이러한 립장만이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호상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길이며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는 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인민은 결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놈들의 노예로 될수 없으며 1910년의 수치스러운 망국의 력사를 되풀이할수 없다. 지난날 나라와 민족 앞에 죄과를 저지른 사람들도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며 자주적조국통일을 위한 전체 인민의 거족적투쟁에 용감히 합세하여나서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는 길만이 매국노의 죄악을

셋고 참다운 조선사람의 립장으로 돌아서는 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8월 6일연설에서 내놓으신 새로운 방침은 모든것을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문제해결에 복종시키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야망과 분렬책동을 결정적으로 꺾어버리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려는 그이의 폭넓은 조국통일구상과 숭고한 애국애족의 립장을 구현한 현명한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이 방침은 조국통일을 위한 의로운 길에 나서는 모든 애국적요소들을 묶어세우며 지난날에는 비록 나라와 민족앞에 죄과를 지었더라도 그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민족적립장에 돌아서려한다면 너그럽게 포섭하며 손잡고나가시려는 수령님의 한없이 넓은 포옹력과 고상한 민족애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2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8월 6일연설에서 천명하신 새로운 조국통일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력사적인 8월 6일연설이 있은 때로부터 남북공동성명이 나오기까지의 근 1년간은 수령님께서 이 연설에서 천명하신 새로운 방침을 더욱 구체화하시는 과정이였으며 그 승리를 마련하시는 과정이였다.

수령님의 8월 6일연설은 발표되자마자 내외의 한결같은 지지와 공명을 불러일으켰으며 정세를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더욱 유리하게 전변시켰다.

력사적인 8월 6일연설후 1주일만에 있은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접촉은 위대한 수령님의 새로운 조국방안의 첫 열매였다.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8월 6일연설이후 급변하는 정세추이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외국기자들과 하신 담화와 여러 기회에 하신 연설들에서 남북협상에 관한 제안을 더욱 구체화하시고 평화통일의 보다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현명한 조치들을 거듭 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기본장애로 되는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키는데 투쟁의 예봉을 돌리시고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족분렬책동을 걸음마다 폭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미제와 종속적동맹관계를 맺고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강화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범죄적책동을 더욱 전면적으로 발가놓으시였다.

이것은 동족을 등지고 외세에 극력 의존하는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으로 되였으며 그들을 더욱 고립무원하게 만들었다.

수령님께서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외세의존정책과 《반공》소동의 반동성과 부당성을 사리를 따져 밝히시였으며 미일침략세력을 공동으로 반대하여 투쟁함으로써 민족의 존엄을 지킬데 대한 공명정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남조선위정자들이 이제라도 외세의존과 민족반역의 길을 버리고 참다운 조선사람의 립장으로 돌아선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그들과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이라는 립장을 엄숙히 천명하시였으며 일본 《요미우리신붕》기자들과 하신 담화에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킨 조건에서 남북조선의 무력을 대폭 줄일데 대한 보다 구체화된 구국대책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 밖에도 남북적십자회담을 조국통일의 디딤돌로 만들며 남북사이에 보다 광범한 접촉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현실적인 대책들을 련이어 제시하시였다.

특히 수령님께서는 미국 《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하신 담화에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전면적으로 밝히시면서 이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현실적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언제나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할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또한 남북간의 제도상 차이는 있지만 호상 신뢰하고 호상 존중하는 조건에서 전민족적 단합을 이룩할것을 주장합니다.》(《미국 〈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한 담화》, 14페지)

나라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제도상 차이를 불문하고 전민족적 단합을 이룩할데 대한 수령님의 이 구국방안은 민족분렬의 비극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한없이 넓은 도량과 감화력을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대담하고 주동적인 제안이다.

수령님의 현명한 조치에 의하여 우리 당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지지하는 남조선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의 목소리는 더한층 높아지게 되였다.

이러한 사태하에서 남조선위정자들은 남북의 접촉과 협상을 실현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정당한 구국방침을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었으며 그리하여 남북공동성명이 채택되는데까지 이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8월 6일연설과 그 결실로서의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그이의 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정당성을 다시금 힘있게 확증하여준다.

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통일문제해결에서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 민족내부문제를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자신이 책임지고 민족자체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주체사상으로 철두철미 일관되여있다.

참으로 조국통일위업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우리 당 정책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모두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되였다.

최근년간 전반적국내외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급속히 변화발전하는 조건에서 우리 당은 오직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이께서 내놓으신 원칙적이며 령활한 조국통일의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동요없이 관철하여나아감으로써 오늘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현실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만이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옳은 과학적해답을 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승리적기치이며 그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등대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8월 6일연설에서 내놓으신 새로운 조국통일방침과 그 결실로서 이루어진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조선을 영구히 분렬시키고 조선사람끼리 싸우게 하려는 《닉슨주의》의 음흉하고 교활한 목적을 파탄시켰으며 미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었다는데 있다.

미제국주의반동통치배들 가운데서도 가장 교활한 닉슨놈은 《평화》의 간판밑에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하며 《조선사람들끼리 싸우게》함으로써 저들의 무너져가는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고 침략의 마수를 더욱 깊숙이 뻗치려고 피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새로운 조국통일방침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흉계를 짓부시고 놈들의 가면을 벗겨버리며 정세를 우리 인민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키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고있다.

우리를 《닉슨주의》에 말려들어가게 하려던 놈들의 기도는 파탄되였으며 그들은 조선을 분렬하고 조선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데서 더는 어떠한 구실도 찾을수 없게 되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조국통일방침의 승리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는 또한 이른바 《반공》을 《국시》로 삼고 남조선에서 파쑈폭압과 전쟁소동을 강화하고있는 친미친일세력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는데 있다.

최근시기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존경과 흠모가 더욱더 높아가고 평화통일기운이 세차게 일어나자 이에 질겁한 남조선당국자들은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에 대하여 떠들어대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파쑈적폭압소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수령님의 현명한 조치에 의하여 남북간의 대화와 접촉의 길이 열리게 되고 남반부인민들속에 수령님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이 침투됨으로써 누구도 남조선현위정자들의 허위선전에 속아넘어가지 않게 되였으며 이러한 허위를 일삼고 인민탄압에 날뛰는자들은 더욱더 궁지에 빠져들어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새로운 조국통일방침과 그것이 구현되여 이루어진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맑스-레닌주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발전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8월 6일연설에서 내리신 현국제정세에 대한 심오한 평가와 이 연설에서 내놓으신 미제의 기만적인 《평화전략》에 대처한 새로운 혁명적인 투쟁전략은 오늘의 정세하에서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앙양시키기 위한 맑스-레닌주의당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발전에서 실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수령님의 이 리론과 방침에 의하여 우리 시대의 반제혁명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과 전략전술은 더욱 발전풍부화되게 되였다.

특히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새로운 구국방침을 내놓으시고 남조선의 현집권자들과의 협상과 접촉을 도모하게 하심으로써 민족통일전선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과 전략전술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였으며 이 분야에서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시였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전략전술에서 혁명적원칙성과 전술적령활성을 능숙히 결합해나아가는 산 모범으로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오늘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물론 세계의 광범한 사회여론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그 승리로 되는 남북공동성명에 접하여 그것을 《세계사적으로 헤아릴수 없이 큰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아세아와 전세계에서의 긴장성의 완화와 평화위업 그리고 현시대 생활의 기본문제들을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게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강력한 기여》를 한 거대한 사건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열렬히 지지환영하고있다.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8월 6일연설에서 내놓으신 새로운 구국방침은 이미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 큰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 *

오늘 우리 조국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은 조국통일의 앞길에 의연히 난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에 어긋나게 행동하고있다.

그러나 온갖 반동들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유구한 력사를 한강토에서 하나의 피줄기를 이어 살아온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을수 없으며 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민족의 절절한 념원과 한결같은 지향을 가로막을수 없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반드시 민족의 숙원인 통일위업을 성취하고야말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옳바른 령도가 있고 전체 인민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확고히 지지옹호하며 그 관철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이상 우리의 혁명위업은 언제나 필승불패입니다.》(《신년사》, 1972년 1월 1일, 24페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전체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시는 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의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와 성과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오늘의 행복과 래일의 번영, 그 모든 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을 이끄심으로 하여 지난날 우리 인민은 어떠한 간악한 원쑤도 쳐물리치고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빛내일수 있었으며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감으로써 필승불패할것이다.

오늘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유일중심으로 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반석같이 다져졌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미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심장을 확고히 틀어잡고있으며 그들을 영웅적인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전체 조선인민의 확고한 통일단결은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의 가장 믿음직한 담보이다.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우리에게는 공화국북반부에 준비된 강력한 물질적력량이 있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으며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이 관철된 결과 철벽의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가 확립되였다.

우리 혁명의 국제적환경도 우리에게 더욱 유리하게 전변되여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곤경에 빠져들어가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동정자, 지지자들의 대렬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모든 정세는 날이 갈수록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편에 더욱 리롭게, 원쑤들에게는 더욱더 불리하게 전변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 그날은 멀지 않았다.

모두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아가자.

위대한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승리적기치

조선혁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인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우리 나라는 가장 락후한 식민지반봉건사회로부터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가진 강력한 공업국가에로의 위대한 비약을 이룩하였으며 오랜기간 굴욕과 천대 속에 살아오던 우리 인민은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그 영웅적기상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다.

간고한 투쟁과 영광스러운 승리로 가득찬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오직 주체사상만이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백전백승의 혁명적지도사상이라는것을 힘있게 말해주고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전체 인민은 자체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 따라,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영광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 그 어떤 원쑤도 두려울것이 없으며 그 어떤 극복 못할 난관도, 점령 못할 요새도 없다는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체득하였다.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인민은 오직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나아갈 때 보다 커다란 승리를 이룩할것이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고 세계혁명위업에 자기의 응당한 기여를 할것이다.

＊ ＊

혁명이 어떤 지도사상에 의해 향도되는가 하는것은 그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세계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력사는 위대한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옳게 반영한 혁명적지도사상은 출현하자 곧 대중의 심장을 파악하여 대중에게 신념과 힘을 안겨주고 대중을 묶어세우며 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자기의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함으로써 마침내 혁명을 승리에로 이끈다.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시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적파쑈폭압이 극도에 달하였고 민족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놓여있던 1920년대말 1930년대초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망국의 비운속에서 투쟁의 옳은 길을 찾아 모대기던 우리 인민앞에는 승리와 해방의 서광이 비끼기 시작하였다.

조선혁명은 첫걸음부터 간고하고 시련에 찬 로정을 걸어왔다. 우리 인민은 가장 포악하고 야만적인 제국주의인 일본제국주의를 상대로 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 앞에 온갖 장애와 난관을 조성한 사대주의자, 종파분자, 각종 이색분자들의 책동을 짓부시면서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참으로 사대주의와 종파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 것은 조선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이 1920년대

의 투쟁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징은 그것이 바로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진행되였다는데 있습니다.》

주체사상의 출현은 조국광복을 위한 조선인민의 반제투쟁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사변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새로운 기원을 열어놓은 영광스러운 사변이였다.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대중이며 매개 나라 혁명을 추동하는 힘도 그 나라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서만 위기에 처해있던 조선혁명을 구원할수 있었으며 그것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15성상 긴긴세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국가적후방과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정예》를 자랑하던 강도 일제의 백만대군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웠으며 마침내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였다.

영생불멸의 위훈으로 인류해방투쟁사를 장식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실증하여준 산 모범으로 된다.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간악하고 투쟁이 아무리 어렵다 한지라도 피압박 인민대중이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자체의 힘으로 원쑤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가르쳐주었다.

해방후 조선혁명은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복잡성과 간고성을 띠고 전개되였다.

우리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과 직접 맞선 상태에서 그리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조건에서 새 조국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세기적으로 뒤떨어진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로 전변시킬것인가.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알맞는 처방을 얻을수 없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한것은 우리 당이 자기의 옳바른 정책과 로선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하는데서 독창성을 발휘하였기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당은 이때까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맑스-레닌주의일반적원리를 지침으로 삼아왔으며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이 내놓았거나 실천에 옮겨놓은것을 적지 않게 참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여놓은것 가운데서 많은것들은 우리 당이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진리를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독창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15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우리 인민은 오직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야만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이를 위하여 당면하게 나서는 과업들의 해결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힘차게 조직동원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을 이끄시여 내외의 원쑤들의 끊임없는 파괴책동을 물리치는 첨예한 계급투쟁의 환경속에서 혁명의 앞길을 헤쳐나가시였으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리익에 맞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묶어세울수 있는 선진적인 정치제도를 세우며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적인 사회경제개혁을 실시하는 모든 사업을 주체적립장에서 새롭게 풀어나가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그이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방침을 높이 받들고 일제가 파괴하고 간 경제를 성과적으로 복구발전시켰으며 미제침략자들의 무력침공을 승리적으로 물리치고 조국의 영예와 민족적존엄을 견결히 고수하였다.

전후 우리 인민은 나라가 완전히 재더미로 된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

지 않으면 안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부닥치게 되였다. 미제를 비롯한 내외원쑤들은 백년이 걸려도 조선은 다시 일떠서지 못한다고 지껄여댔으며 벗들가운데서도 너무나 혹심한 파괴로 하여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실로 무엇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복구건설하여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는 정도로 할일은 많았고 처지는 어려웠다.

수령님께서는 전후 나라의 형편과 우리 혁명의 전망을 깊이 헤아리신데 기초하시여 독창적인 경제건설로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이 로선은 지난 시기 그 누구도 밝히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길이며 일부 사람들이 실현불가능하다고 한 매우 어려운 길이였다. 그러나 우리 당과 인민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로선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그것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전후경제건설사업과 함께 도시와 농촌의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주체적립장에서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전후 조성된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실시하며 협동화의 길을 통하여 도시의 자본주의적상공업과 수공업, 농촌의 부농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이 방침은 전쟁에 의하여 모든것이 파괴되고 모든 사람들이 무산자로 된 조건에서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것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적수행을 확고히 담보한 유일하게 옳은 방침이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방침들을 확고한 신념으로, 유일한 지침으로 접수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낡은 생산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사회주의혁명의 가장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아무러한 편향도 없이 성과적으로 완수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를 위한 전인미답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여나아가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온갖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으며 문화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키며 사상혁명을 수행하여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우리 당과 인민이 조선혁명발전의 전행정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모든 문제를 조선혁명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도록 간곡히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승리에서 승리에로, 한 고지에서 다른 고지에로 끊임없이 이끌어주시고 고무하여주시였다.

해방후 우리 인민이 걸어온 영웅적투쟁의 20여년, 그것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에서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짧은 력사적기간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천년동안 우리 조상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거창한 일을 하여놓았으며 일찌기 없었던 민족적번영과 륭성의 새 시대를 열어놓았다. 실로 해방후 오늘에 이르는 조선혁명의 력사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이 찬란히 개화발전되고 실생활에 빛나게 구현되여 위대한 결실을 가져온 자랑차고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의 사상생활령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에서 주체확립, 이것은 민족자주의식을 좀먹던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우리 인민을 해방한 사상혁명령역

에서의 위대한 승리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06페지)

주체사상의 승리로 하여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교조주의가 기본적으로 없어졌다. 수백년을 내려오면서 사대주의사상의 침식을 받아온 우리 인민은 민족자주의식과 민족적자부심을 높이 간직하고 모든것을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자기 결심에 따라 행동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정치적으로 가장 발전한 인민으로, 자기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위대한 인민으로, 비할바없이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갖춘 혁명적인민으로 되였다.

주체사상은 오랜기간 우리 인민들속에 잠재하고있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재능과 힘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력사의 창조자로 되게 하는 광활한 길을 열어놓았다.

주체사상은 전체 조선인민이 하나로 단결될수 있게 하는 기본사상이며 정신적기초이다. 주체사상의 승리와 더불어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루어졌다. 끝없는 당쟁과 파벌싸움으로 나라를 예속과 멸망에로 이끌어가던 지난날의 력사는 먼 옛일로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동요없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억세게 투쟁하고있다. 인민들은 당을 믿고 따르며 당에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다. 오늘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은 가장 생활력있고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였다.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은 지난 기간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이며 앞으로 어떠한 원쑤들과의 싸움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시였다.

정치에서의 자주성은 민족과 인민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고 보람있는 생활을 영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선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남의 압력과 지시에 의하여 움직이는 정권은 인민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지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라고 볼수 없으며 이러한 정권을 가진 나라는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자주적인 정권을 세우시고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오직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자체의 힘으로 확신성있게 관철하여나가고있다. 우리는 대외관계분야에서도 자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하고있으며 모든 문제를 자신의 신념과 판단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고있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함이 없이는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을 확고히 담보할수 없으며 국방력도 강화할수 없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도 향상시킬수 없다.

그러기에 수령님께서는 만난을 무릅쓰고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사회주의공업을 건설하기 위한 웅대한 강령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당과 인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전을 아껴가면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을 비롯한 경제건설로선과 정책들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는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그리고 자체의 민족간부와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과 원료, 자재에 의하여 움직일수 있는 현대적이고 자립적인 민족경제로 전변되였다.

국방에서의 자위로선은 사회주의국가의 필수적요구이다. 제국주의침략자들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자위적인 군사력을 창설하지 않고서는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인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없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방에서의 자위로선이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의 자위적인 방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으며 그 어떤 침략자들의 전쟁도발도 일격에 격파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나라는 가장 공고한 정치적자주성과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위력한 자위적인 국방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선진적이며 문명한 사회주의강국으로 동방일각에 거연히 서있다.

무슨 힘이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불사신처럼 일어나 원쑤들의 온갖 모략과 책동을 짓부시고 이 땅우에 오늘과 같은 힘있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게 하였는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이 우리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심어준 움직일수 없는 신념에서 오는 힘이였다.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작성제시하신 사회주의건설의 로선과 방침들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떨친 그 용맹, 그 기백 그대로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제기되는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심오한 과학적해답을 주시고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침들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으며 세계혁명을 발전시키고 맑스-레닌주의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탁월한 기여를 하시였다.

현대적이며 자립적인 공업체계확립을 주되는 내용으로 하는 독창적인 사회주의공업화로선과 사회주의하에서의 기술혁명 특히 3대기술혁명에 관한 새로운 리론,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을 병행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 사회주의하에서의 생산력발전의 결정적요인에 관한 리론,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에 관한 리론, 사회주의하에서의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에 관한 리론을 비롯한 모든 새로운 경제리론들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과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비롯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로작들과 우리 당의 농업정책에는 농촌문제해결의 모든 원칙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이 모든것이 구현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인 농촌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빛나게 해결되고있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점차 없어져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관리리론은 사회주의건설과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방침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를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는것으로서 경제관리문제에 관한 리론과 방법에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주체사상은 문화건설분야에서도 찬란한 성과를 가져왔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와 과학발전을 위한 독창적인 방침,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예사상과 문예정책, 보건 및 체육 발전을 위한 창조적사상 등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문화의 찬란한 개화 발전을 이룩하게 하였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관한 리론,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리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관한 사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두 요새에 관한 사상,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서의 천리마운동에 관한 리론,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 관한 사상, 자위적군사사상 그리고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사상, 반제반미투쟁에 관한 전략적방침 등 리론과 실천의 모든 분야,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해명되지 않은것이란 없다.

실로 주체사상은 철학과 정치경제학,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의 전반에 걸쳐 맑스-레닌주의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풍부화시켰으며 혁명과 건설에 관한 전체 포괄적이며 백과전서적인 사상리론체계를 이룩하였다.

주체사상은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의 실현을 담보하는 전투적 기치이다.

분렬된 나라에서의 혁명은 우리 시대에 와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이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과 직접 맞서고있으며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로골화하고있으며 제국주의앞잡이들이 남조선에서 류례없는 파쑈테로통치를 감행하고있는 조건에서 어떻게 투쟁할것인가 하는것은 그 누구한테서도, 그 어디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이 문제는 오직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인 주체사상에 확고히 기초하여 새롭게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차세계대전직후 아직도 적지않은 사람들이 미제에 대하여 환상을 품고있을 때 미제의 반동적이며 침략적인 본성을 예리하게 꿰뚫어보시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주체적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혁명이 복잡성, 간고성, 장기성을 띠게 되리라는 것을 천재적으로 예견하시고 먼저 조건이 유리한 북반부에 혁명의 튼튼한 기지를 꾸릴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으며 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킬데 대한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혁명기지로선은 조선혁명을 어디까지나 우리 당과 인민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제국주의침략자들과 끝까지 싸우려는 철저한 반제혁명정신으로 일관되여있다.

이 로선의 혁명성과 정당성은 력사발전행정에 의하여 뚜렷이 확증되였다.

두개의 정반대되는 길, 주체와 사대, 애국과 매국, 민주와 파쑈의 길을 걸어온 조선의 두 지역은 오늘 판이한 대조를 이루는 두 결과를 가져왔다.

근로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여 온갖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다 잘 살며 먹고 입고 쓰고 살데 대한 걱정, 아들딸들을 공부시킬 걱정, 병나서 치료받을 걱정을 모르고 사는 사회,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어버이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원칙에 따라 서로 돕고 이끌면서 전체 인민이 하나의 붉은 대가정으로 화목하고 단란하게 사는 사회, 민족의 기상을 내외에 널리 떨치고 혁명하는 긍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긍지높이 천리마의 기세로 오직 전진과 혁신만을 아는 사회, 이것이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오늘의 북반부사회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여 민족의 긍지와 존엄은 짓밟히고 외세에 굴종하며 매국배족의 무리들이 판을 치는 사회, 류례없는 파쑈폭압과 테로가 횡행하고 인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모든 민주주의적인것이 말살된 사회, 부자놈들은 더

욱 잘살게 되고 근로하는 인민들은 더욱 못살게 되는 사회, 돈없어 학교에 못가고 병원문전에서 숨을 거두어야 하며 귀여운 꽃봉오리들이 책가방대신 깡통을 차고다니며 집단자살의 참극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사회—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표본》인 오늘의 남조선 사회이다.

위대한 주체사상과 사대의존사상이 가져온 두 현실은 바로 이렇다.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북과 남의 차이가 하늘과 땅과 같이 되게 하며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다질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빛나게 실현되였다. 민족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편견없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남북의 이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남녘땅동포들은 체험을 통하여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달았다. 그러기에 그들은 한결같이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모시고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을 따라 자유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서고있다.

주체의 기치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지도적원칙으로 된다.

우리 당은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시종일관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기초에서 조국통일을 이룩할데 대하여 주장하여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떠한 외세에 의하여 해결될수 없는 조선인민의 내정문제입니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민족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해결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있는 슬기롭고 문명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일관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군대가 물러간 조건에서 어떠한 외부세력의 간섭도 없이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6페지)

조국통일문제는 외세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회복하려는 조선인민의 민족자결권에 관한 문제이다.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우리 조국의 통일을 외세가 해줄수는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자체가 주인이 되여 자기의 힘으로 쟁취하여야 한다. 자주통일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을 위한 근본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48년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고 구국방책을 제시하신것을 비롯하여 130여차례에 걸쳐 가장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통일방안들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남북조선인민들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최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다시 민족분렬의 비운을 끝어버리고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일념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새로운 주동적인 통일방안을 내놓으시였다. 이 방안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조국의 통일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남북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 이 방침이 구현되여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으며 남북조선의 겨레들이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던 조국통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력사의 검증을 받았다. 주체사상이 혁명과 건설의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으로, 인민대중의 모든 진보적운동의 근본지침으로 되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와 그 필연적 요구를 반영하여나온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05페지)

주체사상은 혁명의 불길이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나라를 휩쓸고있으며 대소민족들이 투쟁의 길에 나선 우리 시대, 혁명운동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각이한 력사적조건에서 서로 다른 내용과 과업을 가지고 다양하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것이다. 주체사상은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지향하는 모든 인민들의 절실한 념원에 부합되는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다. 그것은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가장 과학적인 리론과 방법을 주는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사상이다. 그것은 이미 력사적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확고부동한 진리이다.

그러므로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을 자체의것으로 접수하며 혁명투쟁에서 지침으로, 무기로 삼고있다. 주체사상은 오늘 시대적사조로 되고있다. 사회주의나라와 신생독립국가들에서는 물론 지어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까지도 사람들은 주체사상을 《우리 시대의 기본사조》,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으로 높이 받들고있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조선은 《주체의 조국》으로 그 찬연한 빛을 온 누리에 뿌리고있으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인민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그러나 우리 혁명의 전도는 의연히 멀고 간고하다. 우리는 미제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고 갈라진 국토와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는 민족적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면서 국제혁명발전에도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동반하는 장기적이고 간고한 투쟁이다.

그러나 그 어떤 난관도, 원쑤들의 그 어떤 방해책동도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기치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투쟁은 간고하지만 매우 영예로운 투쟁이다. 이 투쟁은 사랑하는 조국을 무궁토록 번영하게 하며 후손만대에 행복을 가져오게 하는 보람있는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되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끝까지 관철하기에 준비된 우리 인민은 희망과 신심에 넘쳐 앞날을 내다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기발을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 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남북통일의 대문이 열려지고 전체 조선인민들속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혁명적기세가 날로 고조되고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체 인민들이 더욱 똑똑히 알게 하며 그것이 모든 분야에서 더욱 전면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해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착취와 압박,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에서 영원히 해방되였으며 오늘과 같이 이 땅우에 행복한 새 생활을 건설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오랜 세월을 두고 그토록 념원하여온 살기좋은 세상,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두가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배우며 다같이 골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한없는 영예와 긍지를 안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　　*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그 참다운 우월성을 남김없이 나타내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사회정치제도에서 자본주의제도에 비할바 없는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우선 정권이 인민의 손에 쥐여져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에게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착취와 압박이 없고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제도를 세웠기때문에 우리 인민이 행복할수 있으며 우리 나라가 빨리 륭성발전할수 있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51페지)

인민대중에게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해당사회제도의 정권의 성격에 의하여 규정된다. 정권이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인민대중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게 된다. 반면에 주권이 극소수 착취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착취계급사회에서는 인민대중에게 오직 정치적무권리와 노예살이의 운명만이 강요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인민정권은 인민의 의사에 의하여 창건되고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있을뿐아니라 그자체가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여있다. 우리 인민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며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전체 인민의 통일되고 단결된 력량에 의거한 정권으로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혁명적인 정권

이다.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대표들로 구성되여있고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정권인것만큼 우리의 인민정권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은 자기의 리익과 혁명위업을 위하여 그 정권을 행사한다.

우리 인민정권은 자기의 계급적 및 인민적 성격으로부터 출발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전체 인민이 나라의 정치에 자유롭게 참가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국가주권을 행사하며 자기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마음껏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고있다.

사회주의하에서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진정한 정치적자유는 우리의 프로레타리아독재에 의하여 믿음직하게 담보되고있다. 어떤 국가에서나 민주주의는 정권을 잡은 계급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그것은 적대계급에 대한 독재와 결부되여있다. 우리의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을 진압하고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진정한 권리와 자유를 주는 참다운 민주주의이다. 그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가 바로 착취계급을 영원히 청산하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할뿐아니라 그들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며 그들사이의 동지적 협조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기때문이다. 따라서 프로레타리아독재하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소수를 위한 부르죠아적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사회의 절대다수를 위한 최고형태의 민주주의이다. 우리 인민에게 이러한 참다운 민주주의가 보장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은 국가관리를 비롯하여 경제, 과학, 교육, 보건, 문화 등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정권이 인민의 수중에 있고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정치적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의 하나가 있다.

우리 나라 사회정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은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유일중심으로 하는 전사회의 철통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이 확고히 이루어지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이미 착취계급과 온갖 착취제도가 청산되고 새로운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였으며 이 토대우에서 로농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66페지)

사람들간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여있는 우리 사회의 기초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유일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놓여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인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가장 공고하며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직 그이의 두리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투쟁할 때라야만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으며 자기들의 휘황한 미래가 약속되어있다는것을 깊이 깨닫고있다. 실지생활을 통하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정당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체험한 우리 인민은 오늘 그이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사활적인 사업으로 받아들이고있으며 누구나 다 일편단심 수령님을 모시고 영원히 혁명의 한길에서 투쟁할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있다.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통일단결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된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

대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하에 이루어진 전당과 전체 인민의 철통같은 정치사상적통일,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확고부동한것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정치제도에서뿐만아니라 경제제도에서도 커다란 우월성을 나타내고있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적생산관계는 생산력발전의 질곡으로 되지만 생산수단이 사회화된 사회주의적생산관계는 생산력을 무한히 발전시킬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높은 속도로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을 가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이 가능성은 더욱더 커집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300페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발전의 자연발생성, 무정부성을 면할수 없으며 과잉생산공황으로 인하여 재생산과정이 중단되고 많은 사회적로동이 랑비됨으로써 생산을 정상적으로 발전시킬수 없으며 생산의 계획적균형적발전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다.

이와는 정반대로 생산수단이 사회화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기업소들이 같은 목적과 리해관계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련결되여있음으로 하여 경제가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급속히 발전한다.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우월성은 바로 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급속히 발전시키는데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을 의식적으로 리용하여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민주주의적이며 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가 확고히 보장되고있다. 우리 국가는 나라의 경제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계획적으로 실현한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관철되고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됨으로써 경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방침이 빛나게 구현되여 인민경제의 계획성, 균형성이 확고히 보장되고 나라의 온갖 로력자원과 자연부원, 생산의 모든 잠재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동원리용되고있으며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은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의 전반적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 소극성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기술혁명의 과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고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일정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보람찬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하고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혁명,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전반적기술문화수준의 제고, 대중적인 기술혁신운동 등은 우리 나라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은 현대적인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을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7페지)

자립적민족경제는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을 의식적으로 리용하며 자기 나라의 풍부한 자원과 생산

의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는 확고한 물질적담보로 된다.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의존하여가지고서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없을뿐만아니라 경제의 편파성과 기형성을 면할수 없으며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없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경제분야에 구현하시여 현대적인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 사회주의공업화로선 등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을 그 실현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 현대적인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닦아놓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의 민족경제는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와 기술간부에 의하여 움직이는 경제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에 요구되는 각종 공업제품과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키는 경제로 발전하였다. 우리의 중공업은 강력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완비된 공업으로, 우리의 경공업은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할수 있는 현대적경공업으로 발전하였다. 우리의 농촌경리는 어떤 가물이나 장마에도 구애됨이 없이 언제나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되였다. 또한 우리 나라에는 현대적인 국방공업기지가 튼튼히 마련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현대적인 자립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 찬란한 민족문화와 위력한 자위적방위력을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커다란 우월성은 또한 모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이 계통적으로 끊임없이 높아지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착취자와 피착취자도 없으며 로동의 결과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 생산이 빨리 높아짐에 따라 인민들의 생활은 계통적으로 높아집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163페지)

생산수단이 사회화된 우리 사회에서 창조되는 모든 재부는 그것을 만들어낸 근로인민의 소유로 되며 그들의 복리증진과 리익에 전적으로 충당된다. 그러므로 생산의 증대는 나라의 재부를 증대시키는것과 함께 인민들의 생활을 유족하고 문명하게 만든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의 목적이 자본가, 지주들이 더 많은 리윤을 짜내는데 있기때문에 그놈들은 계속 부자가 되여 잘 살지만 생산자대중은 더욱더 가난해지게 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가, 지주들을 비롯한 특권계급은 호화주택에서 호의호식하고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있지만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하는 인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길가를 헤매며 생활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받지못하며 병나도 고칠길 없고 아들딸 공부시킬수도 없이 기아와 빈궁 속에서 허덕이고있다. 결과 소수특권계급과 절대다수 근로자들 사이의 빈부의 차이는 날로 심해지고있으며 《부익부, 빈익빈》현상은 첨예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된다.

이와는 정반대로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는것을 당 및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고있으며 인민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데 따라 근로자들의 생활을 다같이 골고루 높여나가고있다. 우리의 당과 국가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로임을 전면적으로 올리며 특히 낮은 로임을 받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로임을 훨씬 올리고 대중소비품의 값을 대폭 낮추는 등 련이어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국가는 거액의 자금을 교육, 문화, 보건, 사회보장 사업에 돌림으로써 근로자들은 자신이 직접 받는 수입외에 막대한 국가 및 사회적 혜택을 받고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의 주택을 국가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으며 인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부문

의 사용료들은 국가가 거의 대부분을 보상하여주고있다.

특히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다같이 골고루 높일데 대한 정확한 인민생활향상방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서의 군의 역할이 강화되고 농촌의 뻐스화, 수도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도시와 농촌 주민들간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가 점차 없어지고있다. 농민들은 국가에서 지어주는 아담한 문화주택에서 살며 로동자, 사무원들과 같이 유급휴가와 녀성들은 산전산후휴가를 받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은 아무런 근심걱정도 없이 다같이 일하며 다같이 배우며 다같이 행복하게 살고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북반부의 현실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누리는 우리 인민의 생활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경제제도뿐만아니라 교육문화보건제도에서도 커다란 우월성을 나타내고있다.

이 분야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우선 누구나 다 무료로 마음껏 배울수 있는 가장 선진적인 교육제도가 마련된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해방전에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였으며 더우기 대학에서 공부한다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무료로 공부하고있으며 누구나 다 대학에 가서 공부할수 있게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51페지)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시고 그것을 다른 사업에 앞세울데 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교육사상이 철저히 관철되여 우리 나라에서는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로 키우며 기술혁명의 빠른 속도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들을 많이 길러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성과에 기초하시여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제도를 마련하여주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올해부터 시작하여 가까운 몇해안으로 새로운 의무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 의무교육은 후대교육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의 빛나는 구현으로서 우리 나라 인민교육제도의 가일층의 완성이다. 우리 나라의 모든 새세대들은 어버이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선진적인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제도와 수령님의 극진한 배려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행복하게 자라날수 있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새세대들은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통하여 완성된 중등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당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을 튼튼히 세울수 있게 되였으며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우리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믿음직하게 자라날수 있게 되였다.

또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인테리대군을 양성할데 대한 방침에 의하여 모든 지방에 종합적인 간부양성기지가 튼튼히 꾸려졌으며 특히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고등교육체계가 발전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과 기술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더 많은 기술자, 전문가들을 길러내고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울데 관한 위대한 후대교육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됨으로써 우리의 학령전 어린이들은 훌륭한 설비를 갖춘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미래의 참다운 혁명가로 믿음직하게 보육교양되고있다.

실로 오늘 우리 나라는 수령님의 탁월한 교육사상과 교육방침이 빛나게 구현되여 어린이들로부터 늙은이들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로 되였다.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에 세워진 교육제도가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커다란 우월성은 문학예술이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복무하는 혁명적문학예술로 찬란히 개화발전하는데서도 나다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과 예술은 인민대중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양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언제나 진정으로 인민적인 문학과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커다란 배려를 돌려왔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357페지)

우리 나라에서는 착취사회의 낡은 문화와 자본주의적반동문화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방침이 철저히 구현된 결과 문학예술은 당적이며 혁명적인것으로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다. 또한 수령님의 대중적문화건설방침에 의하여 문학예술창조사업이 대중적운동으로 벌어짐으로써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전적으로 인민의것으로 되였으며 군중적지반우에 확고히 뿌리박고있다. 대중적토대우에서 발전하고있는 우리의 문학예술은 모든 창작사업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방법을 옳게 구현하여 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림으로써 그들을 혁명화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으며 외국의 수많은 벗들로부터 《황금의 예술》, 《금강석의 예술》이라는 높은 찬사를 받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누구나 병나면 무상으로 치료받을수 있는 가장 훌륭한 보건제도가 마련되여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우월성의 하나이다.

사람들에게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모든 지역에는 병원과 진료소가 훌륭히 마련되였으며 사람들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돈한푼 들이지 않고 병치료를 받고있다. 이와 함께 해마다 일반병원과 전문병원, 진료소들이 증설되고 의료일군들이 늘어나며 여러가지 의약품과 의료기구들이 더 많이 생산공급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은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더 잘 보장받고있다.

특히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군병원을 잘 꾸리고 농촌진료소들을 병원화할데 대한 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되여감으로써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가 끊임없이 개선되고있다.

우리 나라 보건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병이 나지 않도록 예방사업을 앞세우는것이다.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이 관철되여 우리 나라에서는 위생방역기관들에 의하여 미리 예방대책이 철저히 강구되고 의사구역담당제가 실시되여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고 돌보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착취사회의 유물인 고질적인 전염병과 토질병들이 근절되고 근로자들의 건강이 날로 증진되여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해방전에 비하여 26년이나 늘어났다.

실로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돈한푼 들이지 않고 병을 고치며 오래오래 살수 있는 조건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는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다.

* *

혁명의 위대한 영재이시며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키며 굳건히 보위하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신성한 혁명적임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조국통일의 돌파구가 마련된 오늘 나라의 통일위업을 가장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치 더욱 높이 발양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

시켜 그 우월성을 발양시키는데서 결정적요인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이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더욱 전면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위대한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이 땅우에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의 무궁무진한 원천인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다른 모든 사회제도와 비길수 없는 우월성을 가지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훌륭히 구현되였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위대한 주체사상을 떠나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도,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도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 교양을 일층 강화하여 모든 인민을 수령님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더욱 굳게 묶어세워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원칙을 계속 철저히 구현하여 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이 계급적원쑤들을 극도로 미워하고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한 사람은 사회주의제도와 자본주의제도의 본질적차이를 보지 못할수 있다.

우리는 인민들속에서 계급적정치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본주의제도의 부패성과 반동성을 똑똑히 알고 그것을 끝까지 반대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제도에서 살며 일하는 높은 우월감과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로동계급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보며 언제나 원쑤들의 음흉한 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썩어빠진 부르죠아적 도덕과 생활양식을 단호히 배격하고 우리 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강력히 추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닦아야만 사람들은 실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잘 느낄수 있고 그 승리를 위하여 더욱 몸바쳐 싸우게 된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운동과 절약하고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적어도 지난날의 중산계층의 생활수준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더우기 인민들에 대한 편의봉사사업과 식료품공급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림살이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알뜰하고 문화적으로 꾸려나갈수 있도록 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간고한 투쟁과 고귀한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놓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철저히 고수하게 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아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아가는 우리 인민에게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전투적기치

리 승 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대문이 열리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우리 인민은 **수령님**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간부 및 정치교원들 앞에서 하신 연설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 발표 스물아홉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수령님께서는 이 연설에서 일제의 패망이 가까와오고 조국해방이 박두하고있는 당시의 정세와 전망을 천재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조선혁명가들의 당면투쟁임무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실로 이 로작은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며 해방된 다음 새 조국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수행할수 있도록 조선혁명가들을 튼튼히 준비시킴에 있어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전투적강령이며 민족해방을 위한 전세계 피압박인민들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한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문헌이다.

수령님께서 이 력사적인 연설을 하실 당시 우리 나라의 정세는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급변하고있었다.

세계를 지배하려는 목적밑에 제2차세계대전을 도발한 일본, 독일, 이딸리아 등 파쑈국가들은 이 시기에 이르러 패전을 거듭하면서 계속 내리막길로 줄달음치고있었다.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일제놈들의 폭압이 절정에 이른 어려운 조건에서도 반일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일제식민지통치는 사실상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조성된 정세는 죽음의 나락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는 일제의 멸망을 촉진하고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길수 있는 투쟁의 지침, 전략전술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오르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길수 있는 탁월한 사상과 리론, 전략전술을 천명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실천이 요구하는 근본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1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에서 다가올 조국광복의 대사변에 대처하여 조선의 혁명가들이 주체를 확고히 세우며 조국에 대한 학습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 구체적 내용과 방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이 박두하고있는

오늘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조국에 대한 학습을 잘하는것입니다.》(《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 3페지)

조국에 대한 학습을 잘하는것은 주체확립의 본질적요구로부터 흘러나온다.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임무는 자기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잘하는데 있다. 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조선에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기본임무이다.

이 혁명임무를 옳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하여 잘 알 때만이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각오를 높일수 있으며 인민들을 그들의 비위에 맞게 옳게 교양하여 혁명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할수 있다.

뿐만아니라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하여 잘 알 때 맑스-레닌주의원칙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할수 있으며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자주적인 립장과 독자적인 주견도 세울수 있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열정을 가질수 없으며 그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울수 없다.

력사적경험은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자들은 례외없이 사대주의자이거나 조국과 인민을 팔아먹는 민족반역자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실로 조국에 대한 학습을 잘하는것은 사람들속에서 애국주의사상을 배양하며 민족자주의식을 낳게 하는 선결조건이다.

조국에 대한 학습을 잘하는것은 또한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민족적재부를 지켜내기 위하여서도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강점한 첫날부터 저들의 식민지지배를 영구화하기 위하여 모든 민족적인것을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유린하는것은 물론 《동조동근》이요, 《내선일체》요 하면서 민족동화정책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 지어 왜식 창씨개명까지 강요하면서 조선을 영영 없애버리려고 발광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국에 대한 학습을 잘하여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게 됨으로써만 일제침략자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과 재부를 지켜내기 위하여 몸과 마음 다바쳐 견결히 투쟁할수 있었다.

또한 조국에 대한 학습을 잘하는것은 장차 광복된 조국을 잘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기도 하였다.

특히 조국광복의 대사변이 가까와오는 당시의 정세는 맑스-레닌주의사상,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과 함께 경제와 문화 건설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소유시키는 문제가 절박한 요구로 나섰다.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철저히 갖추면서 동시에 조국이 광복된 다음 새 조국건설을 위한 제반 조건을 갖추는것은 계속혁명의 요구이며 민족해방혁명을 종국적승리에로 이끄는 튼튼한 담보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에 대한 학습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뿐아니라 그 구체적과업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의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조국의 강토와 부원을 잘 알고 그것을 자랑하고 열렬히 사랑하여야 하며 아름다운 조국땅우에 인민의 락원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웅대한 리상과 굳은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5페지)

우리 인민의 투쟁의 력사, 창조의 력사를 잘아는것은 사람들에게 조국에 대

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과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존심을 가질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다.

우리 인민은 용감하고 지혜로운 인민이며 근로하기를 좋아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인민이다. 특히 우리 인민은 외래침략자들과는 굴함없이 싸워 민족의 존엄을 지켜온 애국심이 강한 민족이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침략자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조국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싸움에 한사람같이 일어나서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을 영웅적으로 방위하였으며 반만년의 슬기로운 력사를 창조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력사는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영광찬란한 력사이며 국제파시즘의 돌격대의 하나였던 포악한 강도일제를 격멸하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친 가장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실로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있는 단일민족이며 옛날부터 외래침략자들과 릭대반동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싸워온 용감하고 패기있는 민족이며 인류의 과학과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재능있는 민족이다.

조선혁명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는데서 조선인민의 투쟁의 력사, 창조의 력사 특히 수령님의 령도하에 전개된 항일혁명투쟁력사를 잘 아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선조들이 이룩한 과학문화의 전통에 대하여서도 잘 알아야한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사회주의민족문화의 발생과 발전,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들과 립장을 명확히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문화는 결코 빈터우에서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조상전래의 민족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건설되게 된다고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 새롭게 천명하신 민족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사상은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자기 나라를 잘 알기 위해서는 조국의 력사뿐만아니라 지리를 잘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국의 력사뿐만아니라 지리에 대하여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혁명을 하는 최종목적은 조국을 부강하게 건설하고 인민들을 유족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하려는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은 누가 건설합니까? 그것도 우리들자신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땅우에 발전된 공업과 농업을 가진 쏘련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여 공업과 농업, 수산업 등 각 방면에 걸쳐 경제를 부흥발전시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3~14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광복된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하자면 우리 나라의 지리를 잘 알아야 한다.

경제건설과정은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는 창조적과정이다.

그러므로 지리를 잘 알아야 자기 나라 자연을 개조하는데서 필요한 지식을 가질수 있으며 주체적이며 자립적인 경제를 잘 건설할수 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울수 있는 길을 밝혀준 강령적문헌으로서 대중을 혁명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였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자체의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전민족을 일제와의 최후결전에 총동원할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당면과업들을 밝히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전국적범위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일층 강화하여 단결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결속함으로써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릴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규정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국적범위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일층 강화하여 국내의 모든 애국력량을 튼튼히 결속함으로써 강도 일제와 결전을 전개할수 있는 튼튼한 대중적지반을 닦아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21페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일제를 반대하는 조선의 모든 애국력량을 수령님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하여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키기 위한 강력한 정치운동으로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더우기 조국광복의 대사변이 박두하고있는 실정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력량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튼튼히 결속하여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준비하는것은 그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선결조건이였다.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조성된 정세와 계급관계, 각계각층의 사회경제적처지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적극 벌려 극소수의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들을 통일전선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워 최후결전에로 조직동원할수 있도록 그 준비를 다그칠것을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국적범위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유능한 정치공작원들을 더많이 국내에 파견하여 각지에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의 하부조직을 결성하고 로동자, 농민을 기본으로 하여 청년학생, 지식인, 량심적인 민족자본가, 애국적인 종교인 등 광범한 반일력량을 결속하는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정력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또한 적들의 탄압과 학살이 극심한 환경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능숙한 정치사업방법과 지하공작방법을 소유하고 각계각층 군중을 묶어세워 인민대중을 최후결전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을 밝혀주시였다.

전국적범위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을 확대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수령님께서 조성된 정세와 계급력량관계, 각계각층의 동향과 처지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제시하신 가장 현명한 방침이며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벌리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침이였다.

또한 이 방침은 일제와 야합한 극소수의 친일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친일관료배들을 제외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직결속하여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림으로써 앞으로 조국해방의 결정적시기가 도래될 때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과 이에 전인민적항전을 결합시켜 일제를 최종적으로 멸망시킬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다음으로 국내에 강력한 혁명근거지를 꾸릴데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과업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내에 강력한 조직적거점으로서

의 혁명기지를 꾸려야 합니다. 강도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벌리기 위하여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들이 의거하여 싸울수 있는 튼튼한 근거지를 가져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24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강도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벌리기 위하여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들이 의거하여 싸울수 있는 튼튼한 근거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근거지를 창설해야만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활동을 보장하며 국내청년들로 무장대오를 급속히 보충확대하고 그들을 단기간내에 훈련시켜 적들에게 결정적타격을 가할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정황이 조성되면 곧 주력부대를 진출시켜 함남, 함북, 평남, 평북, 강원도와 황해도 등 지구별로 산중을 차지하게 하고 이미 조직준비한 각 지방의 지도핵심들과의 련계밑에 광범한 애국청년들을 부대에 받아들여 그들을 무장시키고 훈련시켜 최후결전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미리 지구별로 주력부대와 예비대를 편성하고 무기도 준비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 일부 부대로써 동만과 남만에 새로운 유격근거지를 꾸리고 무장투쟁을 일층 확대하며 관동군병력을 견제하면서 국내에서 싸우는 주력부대들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단 유사시에 이미 준비된 지도핵심들을 골간으로 하여 전민족을 하나의 전투대오로 편성하고 일제와 판가리싸움을 벌린다면 능히 강도 일제를 때려부실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실로 국내깊이에 혁명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한 방침은 당시 조성된 혁명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 제기된 전략전술적임무로부터 출발한 가장 현명한 방침이였으며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광복할데 대한 철저한 주체적인 방침이였다.

또한 이 방침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결정적인 타격과 전인민적항쟁의 유기적배합으로 일제를 완전히 수세에 빠뜨리고 그를 종국적으로 패망시킬데 대한 탁월한 군사전략사상이 안받침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와 같은 천재적인 군사전략적지도가 있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 나라 혁명력량은 끊임없이 자라나고 우리 인민은 자체의 주체적힘으로 민족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수행해나갈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다음으로 조선인민혁명군 전체 지휘간부들과 대원들이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맞기 위하여 정치군사적 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출데 대한 과업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전체 지휘간부들과 전사들은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하여 정치군사적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27페지)

혁명투쟁의 승패는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정치사상적준비정도에 많이 달려있으며 무엇보다도 투쟁을 조직지도하는 지휘성원들의 정치리론수준과 령도예술에 많이 달려있다.

아무리 정세가 유리하고 조건이 성숙되였다고 하더라도 지휘성원들이 정확한 전략전술을 소유하지 못하고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한 과학적인 지도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대중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없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을 맑스-레닌주의 혁명리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옳은 전략전술과 세련된 령도예술을 소유시키는것은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다.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전체 지휘간부들과 전사들이 정규군의 공격 및 방어전술을 연구하고 충분히 습득하며 특히 상륙훈련, 항공륙전대훈련 등 현대전법을 익히

기 위한 전술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또한 수령님께서는 지휘간부들과 전사들에 정치리론학습과 군사학습을 강화하여 몇급 높은 직위에서 수천수만명의 장병들을 지휘할수 있도록 준비시킴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을 간부군대로 발전시킬것을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유격전법과 현대전법을 결합하여 원쑤들을 전략전술적으로 완전히 타승할데 대한 탁월한 군사사상으로서 맑스-레닌주의 군사과학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독창적방침이다.

또한 이 방침은 혁명군대를 간부화함으로써 그를 불패의 전투력을 가진 혁명무력으로 만들며 일단 유사시에는 군대를 량적으로 급속히 늘여 원쑤들을 결정적으로 타승할수 있는 길을 밝혀준 탁월한 전략적방침이다.

실로 수령님의 이 로작은 원쑤와의 결정적투쟁에 준비시키기 위한 전략전술의 근본문제들에 대하여 맑스-레닌주의적해명을 준 혁명의 교과서, 공산주의자들이 반드시 견지해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체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는 휘황한 길을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다.

이 로작은 그에 담겨진 사상리론적내용의 심오성과 풍부성으로 하여 오늘 세계의 수억만 혁명적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심장을 더욱더 힘있게 틀어잡고있으며 우리 혁명과 전세계 피압박민족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특히 이 로작은 오늘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혁명투쟁의 량식으로,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에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승리의 로정을 걸어왔다.

실로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에 해방후 가장 어렵고 복잡한 두개의 사회혁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날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그러나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간고하다.

우리 조국의 절반땅은 아직도 미제국주의침략자들에 의하여 강점당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오늘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는 큰 돌파구가 마련되였다.

이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도상에서 우리 인민이 거둔 큰 승리로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로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 인민에게 통일된 조국을 가장 훌륭한 선물로 안겨주시려고 항상 심려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로작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를 더욱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학습하여 그 진수와 전반사상, 수령방도와 리론실천적의의 등을 깊이 체득하며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아가자.

반제반미투쟁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준 위대한 문헌

전 영 률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다섯돐이 된다.

수령님의 이 로작은 우리 시대의 반제반미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을 위대한 투쟁과 승리에로 고무하는 불멸의 기치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에서 현시기 반제반미투쟁에서 제기되고있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가장 과학적인 해답을 주심으로써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주시였을뿐아니라 그들의 반제반미투쟁을 새로운 앙양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무엇보다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이 지구우에서 제국주의를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반제반미투쟁을 계속하여야 할 필연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반제반미투쟁을 계속하여야 할 필연성을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는 자기의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며 이미 잃어버린 진지를 도로 차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제국주의가 죽음에 가까와감에 따라 투쟁은 더욱 치렬하여지고있다. 그러므로 인민들은 반제국주의의 기발을 높이 들고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19페지)

반제반미투쟁을 계속 철저히 진행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세계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사회주의력량의 급속한 장성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전례없는 앙양으로 말미암아 세계제국주의세력은 현저히 약화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지난날의 지배권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오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죽음에 가까와감에 따라 더욱더 발악하고있다. 놈들은 로골적인 폭력에 의거하여 혁명적인 나라들과 민족적독립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감행하고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잃어버린 진지를 되찾으며 세계침략에 대한 흉악한 야망을 기어코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사변들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침략과 전쟁이 없어질수 없으며 세계인민들은 그 어떤 혁명투쟁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세계의 모든 인민들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온갖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쓸어버릴 때까지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나가는것은 세계혁명발전의 필연적요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반제반미투쟁을 끝까지 철저히 벌려나가야 할 필연성을 명백히 밝혀주심으로써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

제반미투쟁을 새로운 앙양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제2차세계대전후 아세아, 아프리카의 많은 민족국가들이 제국주의의 기반에서 벗어나 정치적독립을 이룩하였으며 새 생활 창조의 길에 들어서고있는 객관적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이 지역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종국적승리에로 이끄시기 위한 뚜렷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 특히는 새로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의 파괴책동을 반대하고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구를 분쇄하며 제국주의 및 국내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박탈하며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진보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세우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정치적독립의 달성은 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해방위업은 끝나지 않았으며 민족해방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아직도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이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다시금 제놈들의 예속밑에 넣으며 민족해방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온갖 악랄한 책동을 다하고있는 조건에서 새로 독립한 나라들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반제투쟁을 더욱 철저히 진행하여 제국주의자들이 발붙일 틈을 주지말아야 한다.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과 맺은 모든 예속적조약을 파기하여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반동세력들이 발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정치, 경제적 지반을 청산하며 혁명력량을 묶어세워 사회의 혁명적개혁을 실현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새로 독립한 나라들은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겪은 쓰라린 재난의 력사를 되풀이 하지않고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민족적번영에로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 독립한 민족국가들이 나아갈 곧바른 승리의 길을 명백히 가르쳐주심으로써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에게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실로 수령님께서 밝히신 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은 정치적독립을 달성한 나라인민들이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룩하며 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에서 특히 현시기 반제반미투쟁에서 제기되고있는 전략전술적문제들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립장과 태도를 전면적으로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이 단결하여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국주의에 공격을 집중하는것이 중요하다.**》(우와 같은 책, 521페지)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릴데 대한 수령님의 이 전략적방침은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를 현시기 반제투쟁의 주타격대상으로 선정하고 거기에 공격의 창끝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놈들의 종국적멸망을 앞당기게 하는 가장 혁명

적인 투쟁전략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흉악한 제국주의이며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온 세계를 제놈들의 예속밑에 넣으려는 흉악한 야망을 추구하면서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악랄하게 감행함으로써 세계의 모든 인민들의 공동의 원쑤로 되고있다.

실로 지구상에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의 마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미제의 침략위협을 받지 않고있는 나라가 없다. 미제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들을 반대하는 무력침공과 파괴활동을 끊임없이 감행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오늘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은 미제의 침략을 직접적으로 받고있는 나라들뿐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념원하는 모든 나라인민들의 공동의 의무로 되며 가장 선차적인 혁명과업으로 된다.

이와 함께 미제가 현대제국주의세계의 우두머리로, 국제반동의 원흉으로 되고있는 조건에서 세계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서는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이 우선 미제에 공격의 창끝을 돌려야 한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에 의하여 미제의 힘이 더욱더 약화되고 놈들이 종국적으로 멸망하게 될 때 세계제국주의의 전면적붕괴과정도 더욱 촉진될것이다.

반미투쟁은 현시기 반제투쟁의 중심문제이며 세계혁명앞에 나서고있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미제를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통해서만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있으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이 로작에서 미제에 공격의 창끝을 집중할데 대하여 밝혀주심으로써 현시기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을 과학적으로 명시하시였으며 반제투쟁과 전반적세계혁명을 새롭게 발전시켜나아가는데 탁월한 기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국제적인 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국제적인 반미통일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수령님의 전략적방침은 미제의 악랄한 침략정책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으며 세계반제력량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련합된 힘을 무엇보다 두려워하면서 세계의 반제력량을 분렬시켜 각개격파하려고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세계의 모든 반제력량은 더욱 굳게 단결하여 미제에 공동으로 타격을 가함으로써 놈들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미제의 음흉한 각개격파전략을 성과적으로 짓부셔버릴수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하려는 공통된 념원과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으며 그들의 혁명투쟁은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되고있다. 공동의 목적과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세계의 모든 반제력량이 굳게 단결하는 것은 반제투쟁과 세계혁명발전의 필수적요구로 된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전투적단결과 긴밀한 뉴대는 반제반미력량을 수십배로 강화하게 하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불패의 힘을 낳게 한다.

수령님께서는 비록 불철저하고 견고치 못한 력량이라도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을 내놓고는 모든 력량을 다 반미공동투쟁에 끌어들일데 대하여 가르치심으로써 미제의 종국적멸망을 다그치고 반제투쟁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

한 혁명력량편성문제의 전략전술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해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국제적인 반미통일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더많은 동맹자들을 쟁취하여 반제통일전선을 확대하고 반제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며 놈들에게 집단적타격을 가함으로써 반제반미투쟁의 승리를 최대한으로 앞당기게 하는 탁월한 전략적방침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반제반미투쟁을 벌려나가는데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립장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성과적으로 투쟁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에 대한 사소한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하며 특히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짖는 《평화》에 대하여 철저한 원칙적립장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기만선전을 폭로하며 그들이 식민지와 예속국들에서 자기의 지위를 스스로 내주리라는 환상을 철저히 깨뜨려버리는것이 필요하다. …

독립도 좋고 혁명도 좋지만 평화가 더 귀중하다고 하면서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회피하려는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와 같은 책, 521폐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며 그것은 죽은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제국주의가 내리막길을 걷고있고 죽음에 가까와감에 따라 놈들은 더욱더 발악한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바로 《평화》의 미명밑에 진보적인민들을 반대하는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벌려놓고있으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파괴전복활동을 감행하고있다.

수령님께서는 허울좋은 《평화》의 간판밑에 감행하고있는 미제의 음흉한 침략책동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짖고있는 《평화》는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으며 진정한 평화는 오직 평화의 파괴자들인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노예의 평화를 반대하여 억압자들의 통치를 뒤집어엎음으로써만 쟁취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모든 원칙적립장들은 세계의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이 반제반미투쟁에서 어떠한 립장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가르쳐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이미 승리한 혁명을 보위하며 현시기 반미투쟁의 치렬한 마당에서 싸우고있는 웰남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원할데 대하여서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벌리고있는 반제반미투쟁의 필연적승리를 과학적으로 론증하시였다.

실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는 현시기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며 세계혁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아가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강령적문헌으로 된다.

수령님께서는 이 로작에서 우리 시대의 반제반미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리론과 전략전술들을 가장 정확하게 해명하심으로써 반제반미투쟁에 관한 온갖 기회주의적리론들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수령님의 이 로작은 혁명적인민들에게는 투쟁과 승리의 앞길을 가리켜주는 강령적지침으로 되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에게는 패배와 죽음을 주는 선고장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는 세상에 발표된 첫날부터 세계의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 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들의 심장을 힘있게 틀어잡았다.

세계의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수령님의 이 로작을 앞을 다투어 탐독하면서 《반제반미투쟁의 리론실천적무기를 주는 위대한 문헌》, 《맑스-레닌주의보물고에 탁월한 공헌을 한 고전적문헌》으로 높이 평가하고있다. 그들은 《우리는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함에 있어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걸출한 지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를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길같이 강조하면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에서 제시하신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은 지난 5년동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속에서 그 정당성이 뚜렷이 확증되었으며 그것은 현시기 반제반미투쟁의 실천행정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반제반미투쟁은 세계의 넓은 지역에서 치렬히 벌어지고있으며 반미투쟁대렬은 날로 확대되고있다. 세계인민들의 투쟁의 창끝은 더욱더 미제에게 집중되고있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은 국제무대에서 그 어느때보다 고립되고있다. 특히 오늘 아세아에서는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전선에 굳게 결합되여 용감히 싸우고있다. 미제의 직접적인 침략을 당하고있는 조선과 중국, 웰남과 라오스, 캄보쟈 등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인민들은 반제통일전선을 강화하고 반미공동행동을 힘있게 벌려 미제에게 보다 강력한 집단적인 타격을 주고있다. 그리하여 아세아에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은 심각한 위기에 부닥치고있으며 전면적으로 파탄되고있다.

최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어가고있는 미제는 필사적인 발악으로써 악명높은《닉슨주의》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조선에서 자주적평화통일의 밝은 전망이 열리고있는 지금 미제는 한사코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으며 웰남을 비롯한 인도지나에서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미제의 침략적본성이 결코 변하지 않았으며 놈들이 죽음에 가까와감에 따라 더욱더 발악한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미제의 최후발악적인 침략책동을 주동적으로 짓부시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가장 정확한 반제반미투쟁전략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재적인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미제의 음흉한 침략정책의 본질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혁명적이며 원칙적인 반제반미투쟁전략을 내놓으심으로써 세계혁명적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시며 반제반미투쟁과 세계혁명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신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미투쟁의 모든 전략전술적방침들은 오늘 국제무대에서 빛나게 구현되고있으며 찬란한 열매를맺고있다.

이렇듯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반제반미투쟁과 세계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창조하시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심으로써 그들로부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신다.

우리는 세계의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이 한결같이 우러러받드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반제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미투쟁전략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며 지구상에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온갖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쓸어버리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힘있게 다그쳐나아가야 한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

김 창 주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와 최근 여러 차례에 걸치는 강령적교시들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새로운 현실적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사회주의건설의 강유력한 무기로서의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혁명과 건설 사업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개선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1페지)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해야 할 숭고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지도를 더욱더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는 급변하는 혁명정세와 심화발전되는 혁명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더욱 다그쳐야 할것이다.

* *

주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에서 기본문제이며 혁명의 승패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주권문제를 옳게 해결하고 그를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만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수행할수 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에 걸쳐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주권문제와 국가건설 문제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그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에 력사상 처음으로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계급관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인민정권에 관한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세워야 할 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제력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정권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와 함께 그이께서는 인민정권이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정권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혁명의 성격과 임무에 완전히 부합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로동계급의 당의 정권건설로선이다.

수령님께서는 인민정권에 관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를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근거지—해방지구들에서 그리고 해방된 조국땅에서 빛나게 구현하시였으며 이 행정에서 정권건설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는 그 국가를 창건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사상리론적기초로 하고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국가건설의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주체사상을 국가활동의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을데 대한 문제, 로동계급의 국가활동에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도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계속 강화할데 대한 문제 등 로동계급의 국가건설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유일하게 정당한 국가건설원칙과 국가활동의 지도적지침을 밝혀주시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로동계급의 국가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들은 간고하고도 복잡한 우리나라 혁명과 세계혁명 운동의 실천적경험 그리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대한 과학적분석과 철저한 계속혁명의 립장에 기초한것으로서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지도적지침이며 맑스-레닌주의와 세계혁명발전에 대한 불멸의 공헌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국가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인민의 국가를 세워주시고 인민정권으로 하여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을 제시하시고 항일혁명투쟁시기 몸소 이룩하신 인민정권건설의 력사적뿌리와 경험에 기초하시여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망라한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정권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정권기관의 특징은 인민자신이 자기의 손으로 조직하였으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정권이라는데 있습니다. 이 정권기관은 인민과 밀접한 련계를 맺고있으며 인민에게 의거하여 사업하며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고있습니다. 인민정권기관은 자기 사업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참가시키면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사업하는 정권기관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334페지)

우리 인민정권은 부르죠아정권과는 달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을 위해 복무하며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있는 새형의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다.

수령님께서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워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을 망국노의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 슬기롭고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의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인민정권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와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우리의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이후시기 인민정권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과업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인민정권을 강화하는데서 특히 각급 지방정권기관들이 차지하

는 위치와 역할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지방정권기관들을 강화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59년 3월 23일 함경북도 당위원회 확대전원회의와 1962년 1월 22일 황해남도 시, 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과 하신 담화, 1962년 8월 7~8일 지방당및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 1965년 5월 25일 당, 정권기관지도일군들 및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앞에서 하신 연설들과 인본전국혁신시장회 대표단과 하신 담화 등 여러 차례에 걸치는 강령적교시들에서 사회주의하에서의 지방정권기관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지방정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여주시였다.

또한 수령님께서는 정권기관들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제시하시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령도하시였을뿐아니라 정권기관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복무하는 일군이라는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 바쳐 싸워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2페지)

수령님께서는 인민정권을 창건하신후 정권기관일군들이 일제통치의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며 당정책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싸우도록 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일군들로 각급 인민정권기관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려주시였으며 그들이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도록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참으로 우리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육친적인 사랑과 뜨거운 배려를 받고있음으로 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일군들로 자라날수 있었다. 또한 우리 인민정권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사상리론적기초로 하고 그이의 유일적인 령도를 받음으로 하여 수없이 제기되는 복잡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의식주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마음껏 배우고 무병장수하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행복을 누리는 인민으로 되였다.

이 모든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배려에 의하여 우리의 인민정권이 더욱 공고화되고 모든 부문에서 그의 기능과 역할이 끊임없이 높아짐으로써 이루어진 빛나는 결실이다.

*　　　*

인민정권기관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오늘 심화발전하는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특히 각급 지방정권기관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지방의 경제와 문화를 급속히 발전시켜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더 향상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더우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이 구현된 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대사변의 시기가 도래한 오늘 우리 정권기관들앞에 더욱더 무거운 임무가 제기되고있다.

혁명발전의 이러한 현실적요구를 실현하는데서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며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인민들의 생활

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각급 인민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민과 지역을 단위로 하여 세워진 각급 인민위원회는 해당지역안의 모든 주민들을 망라한 대중정치조직이다. 그러므로 각급 인민위원회들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야 계층별, 성별, 년령별에 관계없이 해당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보다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다.

또한 각급 인민위원회들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임으로써 지방의 경제와 교육, 문화, 보건, 상업, 도시경영 사업들을 추켜세워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생활을 체계적으로 높일수 있다.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지방정권기관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일 때 지방의 모든 경제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유족하고 문명하게 꾸려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방정권기관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지방정권기관들의 중요한 임무는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것입니다.》(《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전국혁신시장회 대표단과 하신 담화》)

모든 생활의 주인으로 된 인민위원회들이 관할지역안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는것은 지방정권기관들의 중요한 임무이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향상시킬수 있는 튼튼한 경제토대가 마련된 오늘 해당지역내 인민들의 생활이 보다 유족하게 꾸려지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각급 인민위원회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각급 지방정권기관들은 해당지역의 인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상업, 도시경영, 교육, 보건 사업과 지방산업공장들을 틀어쥐고 이에 대한 지도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들은 무엇보다먼저 상업기관에 대한 지도사업을 강화하여 주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을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업기관은 인민들의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직접 책임지고 풀어주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러므로 각급 인민위원회들이 상업기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야 우리나라 상업제도의 요구에 맞게 인민들에게 더 많은 상품을 골고루 차례지도록 할수 있으며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에서 아무런 불편도 주지 않을수 있다.

지방정권기관들은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서의 군을 잘 꾸리고 상업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그의 역할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갖가지 질좋고 다양한 일용필수품과 가공된 식료품들을 주민들에게 더 많이 공급하며 모든면에서 도시주민들과 농촌주민들의 생활을 다같이 고르롭게 향상시켜야 한다.

도시경영사업은 근로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해주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그것은 인민위원회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지방정권기관들은 도시와 농촌의 모든 건물, 시설물들에 대한 보수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그 보수관리와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관리사업을 잘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사소한 불편도 없게 하여야 한다.

교육사업과 보건사업은 근로자들의 지식수준을 높여주며 그들을 문명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며 그들이 무병장수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인민위원회들의 주민행정사업의 중요내용을 이룬다.

각급 지방정권기관들은 학교건설을 잘하며 온갖 교육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줌으로써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각급 정권기관들은 근로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군병원을 잘 꾸리고 녀성들을 위한 산원시설을 인

만히 갖추며 농촌진료소들을 병원화하고 모든 리에 아동병동을 꾸려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지방정권기관들은 탁아소, 유치원들을 더잘 꾸리야 한다.

지방공업은 지방원료들을 기본으로 하여 생산한 상품으로 주민들의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를 더잘 풀어주는 중요한 공간이다.

지방정권기관들은 자기 지방의 자연경제적조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과일 및 남새 가공공장, 고기가공공장을 잘 꾸리고 랭동기와 랭동고를 더 많이 마련하여 농민들이 생산하는 고기, 알, 과일, 남새를 비롯한 농산물들과 수산물들을 제때에 가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들은 또한 농촌에서 뻐스화, 수도화를 실현하며 건재기지를 잘 꾸려 살림집과 여러가지 문화후생시설들의 건설사업을 군중적운동으로 벌리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탐오랑비를 반대하고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도록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들앞에 나서고있는 이 모든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정권기관일군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며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

각급 지방정권기관들은 정무원들속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강령적보고를 비롯하여 정권부문에 주신 그이의 모든 교시들을 체계적으로 깊이 침투시켜 교시가 나오게 된 력사적환경과 진수, 교시의 전반사상, 수행방도, 리론실천적의의를 옳게 체득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혁명정신과 기풍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정무원들은 당정책관철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이 발양함으로써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 정무원들은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로 되여야 하며 그의 적극적인 선전자, 철저한 집행자로 되여야 한다. 또한 일군들은 모든 사업에서 로동계급적선을 확고히 세우며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리익을 위함이라면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들이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 조직동원하자면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각급 지방정권기관일군들은 혁명적군중관점을 세우고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사업방법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에서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워 그들이 높은 정치적각오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낡은 사업방법과 틀을 결정적으로 마스고 정권기관앞에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상론하며 군중의 리익에 맞게 해결하여야 한다.

정권기관일군들이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는것은 광범한 군중을 혁명과업수행에 조직동원할뿐아니라 그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시키는데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정무원들은 인민이 선출한 일군이며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심부름군이다. 모든 정무원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국가의 법령과 결정, 지시들을 더잘 알며 그 집행에서 언제나 앞장서야 한다. 또한 정무원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당적원칙을 견지하며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고 례절이 바른 인민적품성을 소유함으로써 실지행동에서 대중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일군들이 진정한 인민의 충복답게 복무하여야 할것이다.

정무원들이 정권기관운영과 사회주의경리운영에 관한 지식을 깊이 가지도록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것은 지방정권기관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 나라의 살림살이규모가 방대하여졌을뿐아니라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련이어 제기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정무원들의 정치실무적자질과 지휘능력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정무원들은 전당, 전군, 전민. 전국이 학습하는 제도를 강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하며 정권기관운영지식과 경제리론, 기술지식을 소유하며 맡은바 혁명과업에 정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권기관들의 주권활동을 강화하는것은 지방정권기관앞에 나서고있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중요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들은 주권기관으로서의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며 법적통제를 일층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의 일체 재정활동, 경제계획, 건설등 모든 사업들이 반드시 해당 지방주권기관들의 엄격한 통제속에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각급 인민위원회들은 해당 지역안의 인민들에 의하여 선거되고 그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참다운 인민의 주권기관이다. 인민위원회들은 해당지역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들과 주민들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고있다.

지방정권기관들에서는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및 상무회의들을 잘 운영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을 위한 옳은 결정을 채택하며 그것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감독통제적기능을 높이며 당과 국가의 의도와 어긋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해당한 행정적 및 법적 추궁을 하여야 한다.

인민정권기관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는것은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정권기관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다.

모든 정권기관들이 례외없이 당적령도를 받아야 정권활동에서 통일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자기앞에 나선 혁명과업수행에서 온갖 편향을 범하지 않고 잘해나갈수 있다.

각급 지방정권기관들은 당의 령도밑에 정권기관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정무원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지방정권기관들은 또한 당의 령도밑에 당정책관철에서 능동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각급 지방정권기관들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임으로써 우리의 인민정권이 참다운 로동자, 농민의 정권으로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그들에게 철저히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정권은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인 인민정권을 사랑하며 그것을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믿음직하게 보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바쳐야 한다.

이리하여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선렬들이 피로써 쟁취한 우리의 인민정권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더 빛내여야 할것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가자.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

주 학 석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를 비롯한 일련의 불후의 로작들에서 근로자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집단주의교양은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심화됨에 따라 로동계급의 당은 근로자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혁명과업은 근로자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집단주의교양을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워야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유일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보다 앞당겨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집단주의는 로동계급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의 하나이며 그것은 근로자들이 굳게 뭉쳐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65페지)

집단주의는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공산주의사상에 기초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굳게 단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며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인 생활원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집단주의는 로동계급의 가장 본질적특성의 하나이다.

집단주의가 로동계급의 가장 본질적특성의 하나로 되는것은 로동계급이 현대산업과 련결된 계급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현대산업은 지역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집중되여있고 생산공정이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을뿐아니라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련결되여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일하는 로동계급은 집단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조직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집단적이며 조직적인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은 집단주의를 로동계급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그 본질적특성으로 되게 한다.

집단주의가 로동계급의 가장 본질적특성의 하나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로동계급의 계급적본성에서 흘러나오기때문이다. 착취사회에서 아무런 생산수단도 없으며 가장 천대받고 착취당하는 로동계급은 낡은 착취제도를 때려부시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 공통적인 리해관계를 가진다. 계급적처지와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로동계급은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될수 있다. 로동계급은 오직 전체 집단의 단결된 힘에 의해서만 반동적인 착취제도와 계급적원쑤를 때려부시고 인류의 최고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로동계급은 그 계급적본성에 있어서 개인주의, 리기주의, 자유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집단적이며 조직적인 계급이다.

집단주의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

의 가장 숭고한 혁명정신이며 생활원칙이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하였던 항일혁명선렬들은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 지상락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한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이였다. 그들은 수령님의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하여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였으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철창속에서도, 단두대에 올라서서도 혁명적 절개를 굽히지 않고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웠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항일혁명선렬들의 무한한 충실성, 사회와 집단의 리익, 조국광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한 그들의 고결한 혁명정신은 집단주의의 최고표현이다. 참으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집단주의는 수령님의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된 혁명적집단주의의 귀감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본질적특성의 하나인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더욱 공고발전하게 된다. 자본주의사회와는 반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로동계급의 본질적특성을 더욱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는 유리한 사회경제적조건이 마련된다. 다시말하여 로동계급의 집단주의는 자기의 본성에 맞는 사회경제적지반우에서 더욱 강화발전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우선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전환됨으로써 온갖 낡은 사상을 낳는 경제적바탕이 청산되며 당의 령도밑에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뿌리빼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킨다. 이리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보다 심화되고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하여나감에 따라 로동계급의 본질적특성인 집단주의는 더욱 전면적으로 발양되게 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집단주의사상에 기초한 사회입니다.》(우와 같은 책, 56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는 사회이며 사회주의경제는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이 같은 목적과 리해관계에 기초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련결되여있는 대규모집단경리로 되여있다. 대규모사회주의경제의 집단적, 사회적 성격은 사회관계와 사람들의 활동방식을 규정한다.

생산수단이 사적소유로 되여있는 착취사회에서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계급적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자,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룬다.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우리 사회에서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은 사회경제적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하여 동지적으로 결합되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밑에 서로 이끌면서 나아가는 단합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다.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정치, 경제, 문화,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생활규범, 사회주의적행동준칙에 따라 활동하며 생활하게 된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근로자들이 활동함으로써만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더욱 완성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집단주의는 이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물질적조건과 사회생활을 반영한 사상으로서 근로자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룬다.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집단주의에 관한 창조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우리 나라 현실에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이 땅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잘사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가장 선진적인 사회제도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철저히 수행한 다음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농업협동화를 완성하고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함으로써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의 현대적인 대규모사회주의경제는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급속히 발전하고있으며 조직화되고 정규화되여있을뿐아니라 광범한 근로대중의 집단적지혜와 창조적열의에 의거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운영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접근시키는 과정이 힘있게 촉진되고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경제의 사회적, 집단적 성격은 더욱더 강화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집단주의에 기초한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만드시였을뿐아니라 확립된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최대한 발양시키도록 이끄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상혁명,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가 촉진됨으로써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유일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 통일이 이룩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 사회의 내부는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꾸려졌다. 근로자들속에서 수령님과 혁명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미풍이 활짝 꽃피고있으며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는 사회주의적생활기풍이 온 사회를 확고히 지배하고있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이 더욱 공고화되고 온 사회가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단결되여 서로 돕고 이끌며 나가는 하나의 단합된 붉은 대가정으로 전변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집단주의에 관한 창조적사상은 사상혁명,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시키고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최대한 발양시키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다그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와 우리 인민의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더 빨리 전진하려는 그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시여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집단적혁신과 대중적영웅주의의 탁월한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집단주의는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에도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성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창설하심으로써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집단적영웅주의,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최대한 발양시키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창설하

신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가 그처럼 불패의 위력과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게 되는것은 그것이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을뿐아니라 생산자대중, 사회의 전체 집단의 집체적지혜와 혁명적열의,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최대한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라는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 집단주의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충성심은 더욱 전면적으로 발양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있다.

혁명투쟁과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발휘한 집단적혁신과 대중적영웅주의, 끊임없이 앙양되는 혁명적대고조는 수령님의 명도의 현명성과 그이께서 밝히신 집단주의에 관한 창조적사상의 불패의 위력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적으로 밝히신 집단주의에 관한 사상은 이와 같이 우리 나라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객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을뿐아니라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확증된 탁월한 사상이다.

*　　　*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집단주의의 본질을 독창적으로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근로자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들을 천명하시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집단주의사상교양은 부르죠아적, 소부르죠아적 사상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투쟁이 일정에 오르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시기에 더욱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나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을 집단주의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그들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466폐지)

개인주의, 리기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기초한 모든 착취사회에 고유한것으로서 집단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따라서 집단주의교양에서는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뿌리빼는데 주되는 화살을 돌려야 한다.

개인주의, 리기주의, 자유주의는 사회와 집단의 리익, 나라와 인민의 운명에는 상관하지 않고 오직 개인의 리익과 안락, 출세와 명예만을 끝없이 추구하는 착취계급의 사상이다.

개인주의, 리기주의는 오랜 세기에 걸쳐 대대로 계승되여온 뿌리깊은 사상으로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오래동안 남아있으면서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세계를 좀먹으며 우리의 전진운동을 방해한다. 낡은 사회의 유물인 가족주의, 기관본위주의, 지방주의, 종파주의 등도 바로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생겨나고 널리 퍼진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속에서 집단주의사상교양을 꾸준히 인내성있게 진행하여야만 개인주의, 리기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극복하고 그들을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울수 있다.

개인주의, 리기주의는 집단생활, 혁명적조직생활을 제일 싫어하는 낡은 사상으로서 공산주의사상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표징의 하나는 강한 혁명적조직성에 있습니다.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일관된 높은 사상성과 함께 강한 혁명적조직성을 가져야만 참다운 공산주의자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의 혁명적조직성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강화됩니다.》 (우와 같은 책, 468페지)

혁명적조직생활은 개인주의, 리기주의, 자유주의를 뿌리빼는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모든 근로자들이 조직생활에 의식적으로 참가하고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조직에서 주는 분공을 성실히 실행하고 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서 생활하며 끊임없이 혁명적교양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만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뿌리빼고 사상적으로 더욱 단련될수 있으며 견결한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다.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철저히 뿌리빼야만 집단의 화목과 원칙적단결을 강화할수 있으며 생기발랄하고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확립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을 로동을 즐기고 로동을 가장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며 로동에서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며 집단과 사회를 위한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와 같은 책, 466페지)

공동로동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여야만 근로자들은 자신을 사상적으로 더욱 단련하고 불요불굴의 혁명적의지를 키워나갈수 있으며 책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수 있을뿐아니라 로동계급의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조직성과 전투성을 배울수 있다. 모든 근로자들이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뿌리빼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일수 있으며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재부는 다 인민들의 공동소유로 되여있습니다. …공동재산들은 집단의 모든 성원들이 잘 살기 위하여 필요한 귀중한 밑천입니다. 그러므로 집단을 사랑하기 위하여서는 집단이 가지고있는 공동재산을 사랑할줄 알아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6∼47페지)

사회와 집단의 모든 재산은 우리 인민의 헌신적이며 애국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며 여기에는 매개 근로자들의 고귀한 피땀이 스며있다. 나라와 인민의 모든 재산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알뜰히 거두고 그것을 늘이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보람있고 영예로운 일인 동시에 자기자신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투쟁이다. 이미 생산된 공업제품과 농업생산물을 되는대로 거두며 원료와 자재를 잘 관리하지 않고 나라의 살림살이와 공동경리에 무관심한 모든 현상들은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꾸준히 교양하는 동시에 사회와 집단의 재산에 대한 온갖 그릇된 표현들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근로자들을 참다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역군으로 키울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집단주의교양의 중요한 과업과 함께 집단주의교양을 천리마작업반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며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배합하며 다종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데 대한 문제 등 집단주의교양의 독창적인 방침과 구체적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집단주의교양의 모든 과업들과 방침들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수령님께서 밝히신 집단주의에 관한 사상의 본질을 깊이 인식하고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집단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며 수령님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강화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공업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회의

최 창 권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펼쳐주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올해계획을 10월 10일전으로 끝내고 6개년계획의 1973년말 생산수준을 올해안으로 돌파하기 위한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지방당및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 연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 밑에 진행된 지방당및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는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인민생활 특히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는데 있어서 실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회의였다.

수령님께서는 창성련석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에서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반양시켜 인민소비품생산과 농촌경리발전에서 새로운 전변을 일으킬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성련석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행정에서 우리 인민은 실로 위대한 변혁을 이룩하였다.

오늘 창성련석회의 연돐을 맞는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군을 튼튼히 꾸리고 지방공업발전과 인민생활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를 긍지높이 돌이켜 보면서 창성련석회의에서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그이의 원대한 구상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울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창성련석회의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의 지역적 단위와 거점에 관한 사상을 새롭게 내놓으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시여 우리 나라에서 군의 역할을 강화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사업을 강화하고 군소재지를 잘 꾸리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칠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그렇기때문에 군을 잘 꾸리는 것은 결코 일시적인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계속 힘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335페지)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군의 역할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군의 역할을 강화하는것은 무엇보다 먼저 나라의 모든 지역을 전반적으로 골고루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군의 역할이 강화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당의 령도와 국가적지도가 더잘

보장될수 있으며 군안의 정치적력량이 튼튼히 꾸려지게 된다. 그리하여 당정책이 매개 지방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되여 철저히 집행된다. 또한 경제, 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군의 역할이 강화되여야 인민생활이 빨리 향상되고 근로자들의 문화수준도 더욱 높아질수 있다.

군의 역할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촉진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군은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촉진하는 거점이며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적 지원을 실현하는 거점이다.

군의 역할이 강화되면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이 촉진되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가 강화된다. 또한 군의 역할을 높여야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적지도를 강화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을 촉진할수 있다.

군의 역할을 강화하는것은 이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근본적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창성련석회의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의 군의 역할을 강화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군을 거점으로 하여 지방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은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거점이며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 됩니다.

지방공업도 군을 단위로 하여 발전하며 농촌경리의 발전도 군이 직접 조직하고 지도합니다.》(우와 같은 책, 334페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며 그에 대한 국가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나라에서 군은 지방공업에 대한 지도에서 구체성과 통일성, 종합성을 원만히 보장하고 지방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는 가장 적합한 단위이며 거점이다. 군은 또한 지방산업공장들을 원료원천지와 소비지에 접근시켜 소비품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가장 적합한 단위이다.

이와 같이 군을 단위로 하여 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은 소비품생산의 경제기술적특성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유일하게 옳은 길을 밝혀주며 지역적 단위와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방당및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또한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객관적요구와 소비품생산의 기술경제적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키는것이 합법칙적이라는것을 밝히시고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을 다같이 급속히 밀고나갈데 대한 탁월한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키는것은 합법칙적인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42페지)

경공업은 중앙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와 함께 지방원료를 동원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며 전국적수요와 함께 각지방 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대상으로 생산을 조직하게 된다.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은 생산지와 원료원천지, 생산지와 소비지를 접근시킬데 대한 공업건설의 기본요구를 보다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하며 적은 자금과 로력을 가지고 짧은 기간내에 생산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투자에 의하여 건설되는 중앙경공업공장들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전군중적운동으로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중소규모의 지

방공장들을 잘 꾸린다면 짧은 기간내에 중앙공장과 지방공장들로 이루어진 경공업기지를 더욱 튼튼히 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국가투자를 중공업건설에 더 많이 돌리게 함으로써 인민경제전반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사상은 국가적대책과 지방의 창발성,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옳게 결합시키고 인민소비품생산의 경제기술적특성에 완전히 부합되게 경공업을 [illegible]전시킴으로써 인민소비품생산을 급속히 늘일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인 사상이며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경공업부문에서 정확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방당및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에서 또한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모든 지방을 고르롭게 발전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앨데 대한 탁월한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방공업은 나라의 모든 지역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큰 의의를 가집니다.》(우와 같은 책, 342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군을 단위로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키고 공업을 농업에 접근시키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우선 생산력을 나라의 모든 지역에 골고루 배치할수 있다. 그리하여 모든 군을 사회주의공업을 가진 아담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며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킬수 있다.

지방공업의 발전은 또한 농촌에 로동계급의 선진사상과 현대적기술문명을 가진 로동계급의 큰 집단을 형성하게 한다. 이리하여 농민들에게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영향을 주고 공업의 선진적인 기계기술과 생산문화, 기업관리방법을 보급하며 농업을 공업화하기 위한 힘있는 지원을 주어 농촌에서의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다그치게 한다.

또한 지방공업이 여러가지 농부산물을 제때에 수매하여 가공함으로써 지방공업자체의 발전은 물론 농민들의 생활을 높이고 농업발전을 더욱 추동한다.

결국 지방공업의 발전은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과 전반적인민경제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모든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킬데 대한 탁월한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있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방당및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에서 지방공업이 노는 거대한 역할과 의의를 심오히 분석하시고 당중앙위원회 1958년 6월전원회의를 계기로 이미 쌓아놓은 토대에 의거하여 지방공업을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다그침으로써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술혁명을 다그쳐 생산공정을 다 기계화하고 점차 자동화해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44페지)

지방공업에서 기술혁명을 다그쳐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는것은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위한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다. 이것은 녀성로력이 많은 이 부문에서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소비품의 량과 가지수를 늘이며 그 질을 높이기 위

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절박한 과업이다.

수령님께서는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또한 이 부문 일군들의 기술기능수준과 관리운영수준을 높이며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문화를 제고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마련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 창성련석회의에서 제시하신 이 모든 방침들은 우리 나라 지방공업발전의 구체적실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한것으로서 가장 짧은 기간내에 지방공업을 한계단 더높이 끌어올릴수 있게 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성련석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은 실로 군의 역할을 높이며 농촌경리와 교육, 문화 그리고 당사업부문들과 함께 지방공업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준 강령적문헌으로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창성련석회의에서 지방공업을 더욱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를 제시하여주시었을뿐아니라 지방공업의 발전을 위한 우리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해방직후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산간마을인 은하리를 몸소 찾으시고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여 인민생활을 높일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심으로써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지방공업발전에 대하여 언제나 세심히 보살펴오신 수령님께서는 1958년에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6월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대규모의 중앙공업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에로 우리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력사적인 창성련석회의이후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2차, 제17차 전원회의들에서 중소규모 지방산업공장들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방산업공장들을 몸소 찾으시고 기술장비의 개선과 원료기지조성문제 등 지방공업을 발전시킴에 있[illegible]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으며 지방산업공장로동자들의 생활을 위하여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0년 2월 몸소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를 마련하시고 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1971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웅대한 강령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지방공업부문의 과업들과 그 실천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우리 인민을 그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참으로 지나온 기간은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정력적인 지도의 나날이였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는 수령님의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과 뜨거운 배려로 충만된 영광의 나날이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의 지방공업부문에서는 실로 거대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우리의 지방공업부문이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된 로동계급의 믿음직한 혁명대오로 튼튼히 꾸려진것이다.

오늘 우리의 지방공업부문 전체 당원

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섰으며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혁명적기풍이 확고히 수립되였다.

지방공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녀성들의 사회적진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그들의 로동계급화, 혁명화 과정이 촉진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녀성들이 노는 역할이 또한 비상히 높아지게 되였다.

창성련석회의이후 지방공업부문에서 거둔 커다란 성과의 다른 하나는 지방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된것이다. 10년전만 하여도 아직 수공업적기술이 적지않게 남아있던 지방산업공장들이 오늘은 선진적인 기술로 장비되고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 수준이 현저히 높은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로 발전하였다.

또한 지방공업의 원료생산기지가 튼튼히 꾸려졌으며 생산문화도 급격히 높아졌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의 지방공업은 우리 나라 전체 인민소비품생산의 절반이상을 담당하는 위력하고 현대적인 공업부문으로 자라났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중앙경공업공장들과 함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만들어낸 각종 일용품들과 식료품들로 자기 생활을 남부럽지 않게 꾸려나가고있다.

력사적인 창성련석회의이후 지방공업부문에서 이룩한 이 모든 성과는 오직 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언제나 심려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방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지도와 육친적배려, 우리 인민에 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뜨거운 육친적사랑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 *

오늘 력사적인 지방당및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 열돐을 맞이하는 지방공업부문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술적개건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입니다.》(우와같은 책, 391페지)

현시기 지방공업부문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지방공업의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여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여야 한다.

지방공업의 현대화수준을 높이는것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늘어나는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소비품의 량과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는 기본방도이다.

그러므로 생산공정의 이빠진 부문들을 보충완비하고 생산성이 낮은 기계설비들을 생산성이 높은 기계설비들로 교체하는 사업을 선후차를 가려가면서 섬멸전의 방법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함에 있어서는 먼저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데 필요한 식료가공과 철제일용품생산부문 그리고 품이 많이 들고 힘든 생산공정부터 먼저 하면서 점차적으로 모든 지방산업공장들을 현대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공업의 현대화수준에 맞게 자체의 원료생산기지, 부속품생산기지, 기계생산기지들을 전망성있게 튼튼히 꾸려야 한다.

공고한 자체의 원료소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일수 있는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지방공업부문에서는 이미 마련하여 놓은 부속품생산기지들과 도금 및 형타생산기지, 압연, 연신 기지들을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하며 특히 가성소다공장, 탄산소다공장, 강철공장, 단접관공장 등 지방공업에 필요한 원료와 소재

를 만들 공장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 빨리 끝내고 생산을 정상화해야 한다. 또한 각 도의 종합기계공장들을 더욱 정비보강하여 설비의 기종을 맞추고 그의 리용률을 높여 지방산업공장의 현대화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종합적으로 생산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개 도에서는 도내 인민들의 소비품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기본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방의 창발성과 책임성을 높여 지방특산물생산을 늘이고 품종구성을 다종다양하게 해야 한다.

또한 농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원만히 하기 위해 농촌상비상품생산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이 부문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먼저 이 부문 일군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직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만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로 되여야 하며 그의 적극적인 선전자, 철저한 집행자로 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2페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당과 인민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지방공업부문에 주신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이 부문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이 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여 그를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지방당조직들은 군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지방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함으로써 지방공업을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켜야 한다.

지방공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이 부문에 대한 전군중적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것이다.

인민소비품의 량과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이는것은 이 부문 일군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지방공업을 적극 지원하는것을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으로 알고 이 사업에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인민소비품생산을 지도하는 전문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지방공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공업부문의 당조직들은 이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고 생산에 대한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기술적지도와 자재보장사업을 생산에 앞세워야 한다.

또한 일군들의 사업 작풍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며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사업방법인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오늘 지방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고 언제나 심려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혁명투쟁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방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킬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교시를 심장에 아로새기고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나아가자.

사회주의상업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근로자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하자

안 승 학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2년 9월 도인민위원회 위원장협의회에서와 지난해 9월 전국상업일군대회에서 우리 나라에 확립된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상업의 본질과 우월성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그 발전방향과 방도를 명백히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후 사회주의상업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상업은 근로자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며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63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상업은 그 어떤 특권계급이나 착취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복리증진과 생활상 편의를 위하여 복무하며 그들에게 상품이 골고루 차례지게 하는 상업이다.

자본주의상업은 돈벌이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나 사회주의상업은 공급을 표준으로 하며 인민들이 골고루 먹고 골고루 입고 골고루 쓰고 사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또한 사회주의상업은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자본주의상업은 상품의 부등가교환을 통하여 농민들을 착취하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크게 하나 우리의 사회주의상업은 도시나 농촌 할것없이 어디에서나 유일가격으로 상품을 팔아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간의 간격을 없애는데 복무하고있다.

다음으로 자본주의상업은 상품에 해로운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에는 크게 관계없이 겉모양이나 곱게 하고 눈속임이나 하여 인민들을 무제한 착취하지만 사회주의상업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쓸모있는 물건, 더 질기고 더 오래입고 오래쓰는 맵시있는 상품을 넉넉히 공급하는것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상업문제해결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사회주의상업의 우월성을 독창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상업의 역할을 어떻게 높일것인가 하는데 대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명시해주시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맑스-레닌주의상업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신 또하나의 위대한 공적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상업의 본질과 우월성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의 상업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상업으로 급속히 자라날수 있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자본주의상업이 없어지고 인민의 복리와 편의를 위하여 복무하는 공급기관으로서의 사회주의상업이 확고히 수립되였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온갖 생활필수품을 믿음직하게 보장하여주고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상업의 본질적요구에 맞게 상품가격이 일원화되였고 상품류통분야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없어졌다. 이리하여 우

리 농민들이 신반 한컬레, 성냥 한갑을 사기 위하여서도 산발을 타고 먼길을 걷거나 어쩌다가 찾아오는 행상에게서 물건을 사는것과 같은 일은 벌써 아득한 옛말로 되였다.

우리는 또한 우리 나라에 마련된 현대적이며 발전한 자립적민족경제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에서 만든 질좋은 상품으로 끊임없이 늘어나는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훌륭히 충족시키고있다.

이것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 상업정책의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다.

＊ ＊

오늘 전체 상업일군들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상업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우리 당의 상업정책을 실생활에서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과 편의봉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장 중요한것은 식료품, 특히 부식물을 넉넉히 공급하는것입니다. 지금 부식물을 많이 생산하여 근로자들에게 공급하는것은 우리 당앞에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서고있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206페지)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현시기 사회주의상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방침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식료상업에 중점을 두고 그를 정규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지역과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근로자들에게 여러가지 식료품을 사철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부식물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는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것으로 되게 하시려는 수령님의 높으신 은덕과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식료상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우리 나라에는 많은 고기와 닭알을 생산보장할수 있는 공업화된 축산기지가 있으며 해마다 수십만톤의 명태를 비롯하여 수많은 물고기를 공급해주는 믿음직한 수산업이 있다. 또한 모든 도시와 로동자구마다에는 분수식관수체계가 도입된 현대적인 남새생산기지가 있으며 이르는곳마다에 과일동산이 있어 사과를 포함한 과일생산량도 지난 시기와는 비할바없이 높다. 문제는 우리의 모든 상업기관들과 일군들이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근로자들의 복리증진과 식생활개선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식료품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적, 계절적 제한성을 극복하고 그 어디에서나 남새, 과일, 물고기 등 중요부식물들을 넉넉히 공급하는것이다.

모든 식료상업기관들과 이 부문 일군들은 식료품의 공급조직을 더욱 짜고들어 남새와 과일들이 일찍나는 지대로부터 늦게 나거나 적게 나는 지역들에, 반대로 늦게 나는 지역으로부터 일찍나는 지대에 호상 계획적으로 교류하는 사업을 더 잘 조직함으로써 추운 지역과 더운 지역, 벌방지대와 산간지대 할것없이 모든 지역에서 갖가지 식료품을 사철 떨구지 않고 골고루 공급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식료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서는 식료상업의 모든 공정들에 랭동체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며 식료품의 저장가공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모든 식료품공급기관들에서는 식료품수송에서 랭동차를 더 많이 도입하고 식료상점들에는 랭장고, 랭각매대, 랭각보관장 등을 더 많이 갖추어 식료품들의 선도와 질을 보장하는 동시에 특히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계절에 대량적으로 저장가공하였다가 봄과 여름에 계획적으로 실속있게 조절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대적 남새와 과일 저장기지를 광범히

건설하며 전국도처에 있는 많은 굴과 움 등을 광범히 리용하여 각종 남새를 생것으로 저장하는 한편 말리거나 염장하여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사철 여러가지 남새를 주민들에게 원만히 공급하여야 한다.

식료상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또한 장, 기름, 고기, 닭알과 각종 젓갈품의 공급을 더 잘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변천된 생활조건에 맞게 간편하게 먹을수 있는 여러가지 가공부식물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을 튼튼히 자래우는데 필요한 사탕, 과자, 과일가루, 밥가루, 물고기가루 등 여러가지 어린이용 식료품들의 공급을 더욱 개선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기호식료품의 공급을 잘하는것은 식료상업을 다양하게 조직하고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문화적이고 흥겹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논다. 식료상업부문 일군들은 우리 나라의 유명한 특산물이며 우리 인민들이 즐기는 군밤, 군고구마 같은 기호품들을 사철 떨구지 말고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백두산 들쭉과 같은 유명한 지방특산물들을 평양을 비롯한 큰 도시에 가져다 공급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수령님의 간곡한 교시를 높이 받들고 렬차상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렬차상업기관들에서는 매개 지방특산물을 비롯한 과자, 사탕, 사이다, 약수, 과일, 단물 등을 더 원만히 공급함으로써 려행하는 손님들에 대한 봉사를 더욱 높이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여야 한다.

식료품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식료품의 수매사업과 자체가공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우리는 남새식료종합상점들의 역할을 높이며 특히 농촌상점들을 거점으로 하는 수매활동을 적극 벌려 농민들이 생산하는 여러가지 농산물의 자체수매사업을 광범히 진행함으로써 식료품의 가지수와 자원을 끊임없이 늘이고 근로자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식료품과 기호품들을 더잘 보장받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수매 절차와 방법을 더욱 개선하여 농민들이 수매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조건을 지어주며 수매사업을 통하여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부단히 높여주는것이다.

또한 모든 식료상업기관들에서는 자체 가공시설들을 더잘 꾸리고 여러가지 가공식료품들을 더많이 만들어 식료품의 가지수와 그 구성을 더 다양하게 보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식료품의 포장과 진렬을 문명한 사회주의상업의 본질적요구에 맞게 보기 좋고 깨끗하게 문화적으로 잘하여야 한다.

오늘 농촌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더욱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상업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의 공급기지를 잘 꾸리고 농촌상점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가공된 식료품과 여러가지 공업제품을 농촌에 공급하는 사업을 더 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77페지)

농촌상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은 농촌상업전반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자이며 직접적인 조직자인 군상업관리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고 농촌상업망들을 조밀하게 포치하여 농촌상업통로를 가일층 넓힘으로써 농민들의 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품을 더많이 공급해주는것이다.

우리는 농촌리들에 꾸려진 현대적인 기본상업망들과 매개 자연부락단위에 있는 위탁상점망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한편 상품배정사업을 농민들의 생활상 특성과 지역적특성들을 옳게 고려한 기초우에서 진행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일용필수품들이 정상적으로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상업을 개선하는데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농민용상품을 많이 저장하였다가 그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늦은 가을과 겨울철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팔아주는것이다.

우리는 농촌상점들에서 상비상품을 확보하며 상품예매제도를 점차적으로 도입확대하여야 한다.

이 모든것은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더욱 높이고 인민생활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데 대한 당의 방침을 더잘 관철할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도시와 농촌 근로자들의 입는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하여 옷과 신발 등을 더 좋은것으로 더 많이 공급하며 도처에 세소잡화전문상점을 놓이고 연필, 일기장, 편지지, 편지봉투 등 세소일용품의 공급을 잘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상업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도매상업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우리는 도매상업에 대한 유일적인 중앙집권적관리를 더욱 강화하며 주문에 의한 상품공급체계를 계속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도매상업기관일군들은 주관주의와 관료주의적 사업방법을 버리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립장에 튼튼히 서서 각 지방 근로자들의 상품수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생산계획에 철저히 맞물리는 동시에 상품이 제때에 생산되여 상품류통에 들어오도록 생산에 대한 작용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도매상업기관들에서는 또한 주민들의 지역별, 계절별 수요에 맞게 상품배정을 정확히 하며 모든 상품을 짝을 맞추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때에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매는 소매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상품을 상점매대에까지 날라다 공급해주는 송달공급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급속히 변화발전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상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특별히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봉사망들을 늘이며 그들 현대화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봉사성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봉사망들을 늘이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사회급양 및 편의시설들을 더 많이 늘이고 그것들을 적극 현대화, 전문화하며 높은 위생문화성을 보장하는것이다.

지방정권기관들과 이 부문 지도일군들은 우선 식당을 현대화하고 그의 위생문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야 할것이며 여러가지 청량음료점과 국수집 등 전문화된 식당들을 더 많이 늘여 근로자들이 그 어디에서나 청량음료를 마음대로 마시며 식사를 간편하게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도시와 로동자구에 조직된 밥공장, 빵공장, 반찬공장 등을 더잘 관리운영하여 녀성들의 부엌일을 덜어주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혁명사적지, 유원지, 공공장소들에 간이식당과 봉사시설들을 더 많이 늘여 근로자들의 문화휴식과 생활상 편의를 더잘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근로자들의 생활상편의를 더잘 보장하기 위하여 목욕탕과 리발소, 미용원, 세탁소, 양복점, 옷수리소, 려관 등 녀성들의 가정일을 덜어주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사회주의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명하게 조직하는데 필요한 편의봉사망들을 더 많이 내오고 보다 합리적으로 포치하는 동시에 그를 적극 현대화하여 문화위생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상업을 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은 상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어떻게 꾸리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우리는 상점, 식당, 편의 망을 하나 지어도 먼 앞날까지를 내다보면서 문화적으로 지어야 하며 문명한 사회주의상업의 면모가 잘 갖추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상업활동의 거점이며 기본물질적수단인 상업망의 규모와 구조 그리고 상업설비 등에 이르기까지 적극 표준화, 규격화, 현대화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또한 상품의 판매작업과 식당의 주방작업, 창고에서 짐을 싣고 부리우는 작업, 각종 계산작업을 적극 기계화, 자동화함으로써 일군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작업을 할수 있게 하여야 하며 우리 나라 상업을 가장 현대적이고 능률적이며 문명한 사회주의상업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모든 상업기관들과 일군들은 상업활동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봉사성을 더욱 높이는데 커다란 주의를 돌려야 한다.

특히 소매상업망들에서 질좋은 상품을 인민들에게 골고루 공급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선진적인 봉사형식과 공급방법을 널리 적용하여야 하며 상품을 사러온 손님들을 보다 친절히 대해주어야 한다.

사회주의상업부문앞에 나선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모든 상업일군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상업부문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보고를 비롯한 수령님의 모든 로작들과 그이께서 상업부문에 주신 교시들 특히 지난해 전국상업일군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와 1962년9월 도인민위원회 위원장협의회에서 하신 교시를 깊이 학습하여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며 당의 상업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유일한 행동의 지침으로, 투쟁의 무기로삼아야 한다.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지방정권기관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지방정권기관들은 해당 지역의 호주로서 상업에 대한 지도를 언제나 첫자리에 놓고, 지방경제를 옳게 조직운영하여 상품 생산과 공급에 대한 계획화사업을 잘하여야 하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상업일군들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여 제기된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며 우리 당 상업정책관철에로 그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업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영예감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더잘 봉사하도록 교양하는 동시에 상업일군들을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귀중히 여기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망이 열려지고있는 오늘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상업전선에서 일하는 우리 상업일군들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기대는 한없이 크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우리 상업일군들앞에 맡겨진 임무는 매우 무겁고도 영예롭다.

상업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굳게 뭉쳐 그이께서 주신 상업발전을 위한 강령적교시를 빛나게 관철하여 사회주의상업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한계단 더 높일데 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하며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더 빛내여야 한다.

남조선경제의 파국적위기

김 범 룡

오늘 남조선위정자들은 더는 헤여날수 없는 심각한 경제적위기에서 허덕이고있다.

경제의 군사화와 미일독점자본을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의 대대적인 침투로 말미암아 남조선경제는 예속의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다. 민족공업은 파산몰락되고 농업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으며 민생은 극도로 령락되고있다.

남조선경제의 파국적위기는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남조선위정자들의 외세의존정책의 필연적후과이다.

최근 남조선위정자들은 이러한 경제위기를 수습해보려고 이른바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여러가지 미봉책을 취하고있으나 그것은 남조선경제를 더욱 엄중한 파국에 밀어넣고있을뿐이다.

* *

오늘 남조선경제는 공업과 농업, 생산과 류통, 대외무역 등 경제부문과 경제생활 전반을 포괄하여 심각한 파국상태에 빠져들어가고있다.

미제의 조종밑에 《정권》을 잡은 남조선위정자들은 《집권》한 첫날부터 《근대화》니 《자립경제건설》이니 하는 기만적인 구호를 요란스럽게 불어댔다. 그러나 남조선의 선행위정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위정자들도 파탄된 남조선경제를 추켜세울수 없었을뿐아니라 그를 더욱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10년동안 남조선은 〈자주〉의 길이 아니라 가장 철저한 예속의 길을 걸어왔으며 〈부흥〉과 〈근대화〉의 길이 아니라 여지없는 파산과 몰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신년사》, 1972년 1월 1일, 16페지)

남조선위정자들이 요란스럽게 떠든 《부흥》이요, 《근대화》요 한것은 남조선경제를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따르는 현지조달적인 군사경제체계로 전환시키며 철저한 군사적부속물로 만들기 위한 기만책동에 지나지 않았다.

남조선위정자들은 미일반동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남조선경제를 예속과 파탄의 길에 밀어넣는 반인민적매국정책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경제는 《부흥》과 《근대화》의 길이 아니라 철저한 식민지적예속과 파산몰락의 길로 줄달음쳐왔다.

현실은 이른바 《근대화》정책이 그 어떤 《경제부흥》과 《고도성장》을 가져온것이 아니라 남조선경제를 전면적인 파산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있다는것을 론박할 여지없이 확증해주고있다.

오늘 남조선경제는 극심한 식민지적편파성, 전반적공업부문에서의 불완전조업과 중소기업의 파산몰락, 농촌경리의 황폐화, 만성적인 실업과 인민생활의 령락, 외환위기의 심화 등에서 그 파국적위기가 전면적으로 드러나고있다.

남조선에서 경제의 식민지적기형성과 편파성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남조선공업은 자립적으로 확대재생산을 보장할수 있는 필수적전제들이 완전히 결여된 극심한 식민지적편파성을 띤 절름발이경제로 되여있다.

남조선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은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간의 심한 불균형, 공업부문내부에서의 생산적련계의 파탄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남조선공업에서는 미제의 예속화정책으로 인하여 확대재생산의 기본조건을 마련하는 생산수단생산부문은 일부 군사적수요를 목적한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전이 인위적으로 억제당하고있다.

남조선위정자들은 미제의 침략적요구에 따라 통신, 도로, 철도, 항만 시설들과 군사경제적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부 공업부문만을 기형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그밖에 생산수단생산부문에 대해서는 그 발전을 전면적으로 억누르고있다.

이리하여 남조선공업에서 생산수단생산부문은 극히 부차적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잘것없는 생산수단생산마저 소비재생산부문과의 유기적인 련계를 거의 보장하지 못하고있다. 남조선공업부문구조에서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간의 구성비는 30대70으로서 확대재생산의 경제법칙의 요구와는 반대로 생산수단생산보다 소비재생산이 우위를 차지하고있다. 이것은 정상적인 확대재생산을 억제하는 근본조건으로 되고있다.

특히 생산수단생산에서 핵심적부문으로 되여야 할 기계제작공업은 가장 락후하고 령세한 부문으로 되여있으며 따라서 기계설비는 고사하고 부속품마저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있다. 오늘 남조선공업구조에서 금속공업과 기계공업은 5.9%와 8.4%밖에 차지하지 못하고있으며 그 생산은 수요의 절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다.

남조선공업의 편파성은 부문내부에서도 심하게 나타나고있는바 그것은 원료생산과 1차적가공부문이 매우 뒤떨어져있는데로부터 빈약한 가공공업이 요구하는 원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잘 나타나고있다. 실례로 금속부문에서 선철, 강철, 압연강재 생산능력은 1대4, 3대 5.8로서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있다. 선철생산능력은 20만톤에 불과하며 이것으로는 기간공업발전을 위한 원료는 고사하고 일용품생산을 위한 원자재조차 충당할수 없는것이다. 지금 남조선공업에서 중요원료자재의 대외의존도는 80~100%에 달하고있다.

남조선공업은 원료 및 설비의 대부분을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식민지예속공업으로 전락되였다. 자원개발이 극력 억제되고 공업이 미일독점체들의 원자재에 철저히 얽매여있음으로써 남조선의 공업기업체들 특히 《차관기업》들은 사실상 식민지해외시장확대를 위한 미일독점들의 목적에 종속된 분공장, 청부업에 지나지 않고있다.

따라서 남조선공업은 미일독점체들이 불경기에 빠지기만 하면 중소기업은 물론 매판기업에 이르기까지 례외없이 움직일수 없는 위기상태에 놓여있다.

남조선경제의 심각한 위기는 전반적 공업부문들에서 불완전조업이 지속되고 생산이 떨어지고있으며 민족공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체들이 꼬리를 물고 파산몰락하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남조선공업에서 기업체총수의 98%이상을 차지하며 광업 및 가공공업 생산액의 절반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끊임없이 파산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원료, 자재, 설비, 동력, 자금 등의 수급을 틀어쥐고 이를 군사경제적잠재력강화를 위한 부문들에만 공급하고있는 조건에서 남조선의 중소기업은 격심한 원료난, 동력난, 자금난에 허덕이고있으며 여기에 세금수탈, 사채의 단절까지 겹치여 혹심한 경영위기를 겪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이와 함께 미일독점체들이 남조선시장을 독차지하고있는 형편에서 판로난에 봉착하고있는 중소기업은 계속 심한 경영위기에 허덕이고있다.

현재 남조선에서는 중소기업의 30% 이상이 조업단축, 휴업 또는 페업상태에 있으며 그중 섬유부문은 지난해에 체결된 《대미섬유류수출제한협정》의 후과로 가장 심한 파산상태에 놓여있다. 남조선가공공업부문의 재산총액에서 중소기업의 몫은 지난 10년동안에 63.2%로부터 35.5%로 떨어졌다. 이것으로도 남조선민족공업의 파산상태를 충분히 짐작할수 있다.

남조선공업의 전면적파탄 특히 기업체수에 있어서나 생산액에 있어서 압도

적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파산몰락으로 남조선에서는 군수품생산의 일정한 장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생산의 장성을 가져오지 못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중요공업상품의 80%, 화학비료의 90%를 외국에 의존하고있는것은 남조선공업생산의 락후성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공업의 파산과 함께 남조선농촌경리도 여지없이 파괴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39페지)

남조선농촌은 여전히 봉건적착취관계가 지배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지주들의 략탈과 착취로 말미암아 남조선농업은 그 발전의 길이 막혔으며 심히 령락되였다.

공업이 파산되고 농촌경리가 몹시 령락한 조건에서 농업기술은 말할수 없이 뒤떨어진 형편에 놓여있다. 지금 남조선농촌에서 리용되는 농기구는 중세기적락후성을 면치 못하고있으며 비료, 농약 등은 미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또한 관개공사나 치산치수에 대하여서는 낯을 돌리지 않고있다. 그뿐만아니라 이미 있던 관개시설마저 군사시설확장에 방해된다는 구실밑에 파괴해버림으로써 남조선은 말그대로 《만년홍수》, 《만년한재》의 참담한 지대로 전락되였다.

군용지로서의 농토수탈과 홍수에 의한 토지류실, 가물 등으로 남조선에서 경지면적과 농업생산량은 계속 줄어들고있다. 1965~1971년간에 밀보리파종면적만도 21만 8천정보나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한 알곡감수량은 수십만톤을 헤아리고있다.

오늘 남조선농업은 공업원료는 물론 주민들의 식량수요조차 해결할수 없는 만성적위기에 빠져있다. 지난날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였던 남조선은 외국량곡을 대량 수입하지 않으면 안될 만성적기근지대로 전락되였다. 남조선위정자들은 1971년도에 313만톤의 외국량곡을 끌어들였으며 올해에는 309만여톤이나 끌어들일것을 예견하고있다.

농업생산의 락후성과 만성적인 식량위기는 남조선공업발전에 영향을 주어 그 예속성과 파탄을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남조선경제의 심각한 위기는 만성적인 실업과 근로대중의 생활처지의 악화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민족공업과 농업의 파산으로 실업자와 반실업자의 대렬은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실업자와 반실업자의 대렬은 로동능력있는 주민의 절반을 차지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민족공업의 파산은 기존취업로동자들을 실업자대렬로 전락시킬뿐아니라 파산된 중소기업가들도 실업자, 반실업자의 처지에 굴러떨어지게 하고있다. 그것은 또한 취업조건을 더한층 악화시킴으로써 더욱더 많은 실업을 발생시키는 기본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한편 남조선주민의 절반을 포괄하고있는 농촌경리의 심각한 위기로 말미암아 절량에 허덕이는 수십만의 농민들이 해마다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밀려나와 실업자대렬을 보충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오늘 남조선에는 《실질실업자》(완전실업자)가 300만명, 여기에 농촌실업인구, 중소기업에서의 불완전취업자 등 반실업자까지 합치면 무려 700만명이나 된다. 그리하여 남조선사회의 부패성을 보여주는 실업문제는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나서고있다.

공업과 농업 생산이 여지없이 파탄된 남조선은 오늘 국민소득생산에서도 세계최하층의 대렬에 속해있다. 1970년도에 인구 한사람당 국민소득생산은 겨우 100딸라안팎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국민소득마저 근로자들의 복리에 리용되는것이 아니라 소수지배계급들의 기생적소비에 탕진되고있다.

오늘 남조선로동자들의 실질임금은 1960년에 비하여 40%이상이나 떨어졌으며 명목임금에 의한 생계비의 충당률은 지난 10년간에 3분의 1로부터 4분의 1로 떨어졌다. 인플레의 심화에 따르는 물가등귀와 각종 료금의 인상은 실질임

금을 떨어뜨리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의 파국적경제위기는 미일독점자본에 예속된 남조선경제의 필연적산물인 외환위기에서 더욱 명백히 표현되고있다.

남조선에서의 외환위기는 외래독점체들의 《차관》에 대한 원리금상환문제와 무역에서의 수입초과에 따르는 적자의 증대와 관련되여있다. 1971년말현재 남조선위정자들이 끌어들인 《차관》의 원금만으로 본 대외채무는 35억딸라이며 1972년부터 1976년기간에 갚아야 할 원금과 리자는 18억딸라로서 년평균 3억 6천만딸라에 달하며 무역수지적자는 지난해말현재로 10억딸라이상에 달하고 있다.

지금 남조선위정자들은 《차관》에 대한 원금 및 리자 상환문제에서 심한 곤경에 빠지고있다. 더우기 닉손의 《딸라방위조치》와 관련한 일본 《원》의 평가인상은 남조선 총수입의 40%를 차지하는 일본수입물자가격을 높임으로써 물가파동은 물론 수출상품의 가격등귀와 국제시장에서의 판로난을 초래케 하고있다. 또한 딸라의 환률인상과 일본 《원》의 평가인상은 차관원리금의 부담을 크게 하고 외화사정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남조선위정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무거운 빚더미를 걸머지게 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경제전반에 커다란 파괴적영향을 미치고있다.

오늘 남조선을 휩쓸고있는 경제위기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재생산과정의 어느 한 고리에서가 아니라 생산, 분배, 교환, 소비 등 모든 환절들에서 그리고 물질적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일어나고있는 전면적인 성격을 띠고있다는데 있다.

그것은 또한 식민지예속경제에 그 근원을 두고있는 위기로서 만성적이며 파국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 위기는 일시적이며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남조선경제가 미일제국주의독점자본의 식민지예속상태에 얽매여있는 한 달리는 될수 없는 필연적이며 항구적인 현상인것이다.

오늘 남조선경제의 심각한 위기는 무엇보다먼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으로 인한 경제의 군사적부속물화, 식민지적예속성에 의하여 빚어지고있다.

남조선사회는 완전한 자본주의사회도 아니며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거나 그것을 신봉하는 사회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에서의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에 따라 산생된 위기도 아니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제를 비롯한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극도로 뒤떨어진 식민지예속경제의 위기인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이래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으면서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식민지공업에 대한 지배체계를 제놈들의 략탈과 군사침략적목적에 맞게 재편성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우선 《관영기업》과 매판기업을 통하여 남조선경제의 중요명맥을 틀어쥐였다. 놈들은 매판자본가들을 길러내는 한편 기만적인 《농지개혁》으로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를 무마하면서 남조선농촌의 봉건적생산관계를 교묘하게 유지해왔다.

남조선경제에 대한 미제의 예속화정책에서 이른바 《원조》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경제의 명맥을 틀어쥐고 그것을 자기들의 군사적목적에 복종시켰으며 남조선에서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우와 같은 책, 138페지)

미제침략자들은 군사적강점과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에서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의 실권을 틀어쥐였다.

놈들은 《원조》의 미명하에 무엇보다먼저 저들의 잉여상품을 들이밀어 남조선시장을 독점하고 원자재수급을 독차지함으로써 남조선의 물동과 생산활동 전반을 완전히 장악통제하게 되였다.

식민지에서 그 어떤 《독자적》인 공업의 발전도 허용하지 않는것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침략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공업이 자체의 원료기지를 가지지 못하도록 악랄하게 책동하였을뿐아니라 기계제작공업을 비롯한 중공업부문기업소들은 이미 있던것마저 파괴해버렸다. 놈들은 남조선에서 군사경제적잠재력을 강화하며 식민지초과리윤을 짜내는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른바 경제《발전》을 허용하였다.

남조선을 군사침략기지로, 군사적부속물로 만들려는 미제의 변함없는 침략과 략탈 정책은 남조선경제를 오늘의 파국적위기에 끌어넣게 하였다.

남조선경제의 파국적위기는 또한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떠받들고있는 남조선통치집단의 굴욕적인 외세의존정책과 매국배족적죄행의 필연적결과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를 외래제국주의에 내맡기고 자주독립을 이룩하며 외래독점자본들에 의거하여 자립경제를 건설하거나 나라를 근대화한다는것은 승냥이에게 말겨 양을 키우겠다는것과 같은것입니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369페지)

남조선위정자들은 《기간산업의 육성》, 《공업부문구조의 고도화》란 구실밑에 미일독점자본을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이른바 《근대화》책동을 감행함으로써 령락된 남조선경제를 더욱더 헤여날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었다.

《근대화》의 기만적구호밑에 감행된 남조선위정자들의 외자구걸책동에 의해 지금 남조선은 50억딸라의 외래독점자본의 빚더미에 짓눌린 《외자망국》으로 되였다.

남조선위정자들은 미제의 조종밑에 특히 일본독점자본을 적극 끌어들여 남조선경제를 예속의 구렁텅이에 더욱더 깊이 밀어넣고있다. 최근 그들은 《수출자유무역지역》의 설정놀음까지 벌리면서 일본독점자본이 마음대로 침투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고있다. 오늘 일본독점자본은 《차관》을 통해서뿐아니라 직접 및 합작 투자를 통해서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침투하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 침투한 일본의 국가자본과 사자본은 이미 10억딸라 가까이에 이르고있다.

외래독점자본에 매달리는 남조선위정자들의 이러한 매국배족적책동은 경제위기를 수습하기는커녕 남조선을 《〈원조〉의 진렬장》으로부터 《외자의 진렬장》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남조선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최근 남조선위정자들은 외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는 한편 이른바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이라는것까지 공포하여 《내자동원》책동을 벌리고있다. 이것은 민간의 사채마저 동결, 단기시키는 방법으로 《내자》를 긁어모아 자금난을 《타개》하며 중소기업을 수탈하여 매판기업을 더 육성하려는 책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채의 단절로써는 자금난과 경제위기를 수습할수 없으며 그것은 민간금융에만 의존하던 중소기업의 파산을 촉진하고 남조선경제를 더욱 파국에 몰아넣을뿐이다.

남조선경제가 오늘과 같은 파국적위기에 빠지게 된것은 또한 최근년간 딸라위기를 중심으로 한 미국경제의 심각한 위기와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세계자본주의경제에서의 미제의 패권적지위는 1960년대초부터 더욱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전패국들의 급속한 경제력장성과 자본주의세계시장에서의 렬강간의 경쟁격화로 인한 미국대외무역의 타격 그리고 2차대전후 여러차례의 과잉생산공황으로 인한 미국경제의 침체와 관련되여있으며 특히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따르는 방대한 군사비지출로 미국의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금보유량이 급격히 줄어든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경제위기, 딸라위기로부터의 출로를 《근대화》의 구호밑에 이른바 《무상원조》를 줄이고 《차관》을 기본으로 하는 신용관계에로 전환하는데서 찾고있다. 이것은 딸라위기와 관련하여 일부 재정적부담을 추종

국가들과 괴뢰들에게 넘겨씌워보려는 하나의 책동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당국자들과 결탁시키고 일본독점자본의 힘을 빌어 그리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여 제놈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하려고 피하고있다.

이리하여 미제의 《원조》정책의 파산은 불가피하게 미제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편성된 남조선경제의 위기를 더욱더 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차관》으로 전환시켜 남조선의 외환사정을 더욱 악화시켰을뿐아니라 1971년부터는 3~4%의 년리를 적용하던 《차관》금리를 6~7%로 끌어올리기까지 하였다. 또한 놈들의 《보호무역주의》는 대미수출에서 외환위기의 출로를 찾아보려던 남조선위정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있다.

남조선경제는 《차관》의 미명하에 미제에 의하여 강요되고있는 새로운 《원조》정책 즉 《외자도입》책동의 올가미에 얽매여 외환위기의 막다른 골목에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다.

* *

오늘 남조선에서 정치경제적위기, 식민지통치위기가 날로 심각화됨에 따라 미제와 그 추종자들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 파쑈적폭압을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인민들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되고 경제는 여지없이 파탄되였으며 인민들은 온갖 정치적자유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마저 빼앗기고 테로와 폭압 밑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수천년래의 민생고에서 허덕이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163페지)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추종자들의 전쟁준비와 식민지적략탈로 말미암아 민족공업은 더욱 파산몰락되고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은 도탄에 빠지고 생존의 위협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자들은 남조선경제의 군사화를 촉진시키면서 《원조》액과는 비할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군사비를 남조선인민들로부터 략탈해내고있다.

미제의 조종밑에 남조선위정자들은 해마다 예산의 압도적부분을 군사비에 지출하고있다. 금년도 남조선당국의 《예산》에서 직접적군사비는 전후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하고있으며 그것은 1960년에 비하여 무려 11배로 늘어났다. 이러한 군사비지출을 위하여 올해에 지난해보다 18%나 더많은 세금수탈을 예견하고있는데 이것은 예산수입의 84.6%를 차지하고있다.

남조선위정자들은 늘어나는 군사경찰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세금수탈을 강화하는 한편 아무런 물질적담보도 없이 지페를 마구 찍어냄으로써 악성인플레를 조성하고있다. 이리하여 남조선에서는 통화가 팽창되고 물가가 폭등하는 등 경제적혼란이 심화되고있으며 인민들은 2중3중으로 가혹하게 착취당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의 법칙 즉 극소수의 착취배들은 더욱더 부유해지는 반면에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들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국민소득분배에서 뚜렷이 볼수 있다. 1960~1970년간에 남조선공업에서 생산된 국민소득에서 자본가들이 차지한 몫은 68.2%로부터 75.2%로 늘어난 반면에 로동자들에게 차례진 몫은 31.8%로부터 24.8%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근로인민에 대한 반동계급들의 착취도가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특히 매판자본가들과 외래독점자본가들은 로동계급에 대한 가혹한 착취를 통하여 더욱 비대해지고있다. 지난 10년간 매판자본가들의 자본액은 10배이상으로 증대되었다. 매판자본가들과 외래독점자본가들은 식민지저임금정책, 《경영합리화》, 《생산성향상운동》 등 온갖 방법으로 로동자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남조선 농촌에서도 더욱 우심해가고있다.

남조선에서 지주들은 소작료에 의한 착취, 고용로동과 품팔이로동에 대한 착취, 원금의 40~50%의 금리를 짜내는 고리대착취를 통하여 더많은 재부를 축적하고있다. 남조선의 광범한 농민대중은 소작료와 고리부채, 각종 가렴잡세에 눌리여 말할수 없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있다.

오늘 날로 심각화되고있는 남조선경제의 파국적위기는 식민지적예속에 얽매인 남조선의 사유재산제도의 직접적산물로서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가 종식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극복될수 없는 사회적현상이다.

남조선경제의 파국적위기는 극소수의 착취계급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의 처지를 악화시키고 남조선에서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고있으며 그 식민지통치를 더는 헤여날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위기에 몰아넣고있다.

현실은 외세의존이 예속의 길이며 망국의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통치집단이 외세의존정책과 매국배족행위를 그만두지 않는 한 남조선경제를 제국주의의 예속에로 더욱 깊이 밀어넣게 될것이다.

남조선경제를 오늘의 파국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오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한다. 남북공동성명정신에 기초하여 남북간에 협상과 함께 무역과 경제협조, 경제교류와 경제적합작 등 제반 교류를 실현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민족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남조선경제를 공화국북반부의 위력한 경제력에 의거하여 자립의 길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을 기아와 도탄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인민들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기치밑에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식민지파쑈통치와 외세의존정책을 반대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거족적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그날은 멀지 않아 오고야말것이다.

근로자 제 8~9호 (루계 365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 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2년 8월 26일 발행 • 1972년 8월 30일

기-24171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0 호

평 양 근로자사 1972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10호 (366)

차 례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 일 성

(일본 《마이니찌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당신들이 제기한 질문을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간단히 대답하려고 합니다.

1. 주체사상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당신들은 주체사상이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말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이와 같은 사상은 결코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한것이 아닙니다. 맑스-레닌주의자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다만 나는 이와 같은 사상을 특별히 강조하였을뿐입니다.

주체를 세울 필요성을 얼마나 절실히 느끼며 그것을 얼마나 강조하는가 하는것은 사람마다 다를수 있으며 또 그 나라가 처한 사회력사적환경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나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기 운명은 자신이 개척해야 하며 또 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어렵고도 복잡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것을 다 자체로 해결하며 투쟁로선과 투쟁방법도 다 자기 머리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물론 우리는 형언할수 없는 곤난을 겪었으며 엄혹한 시련을 이겨

내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적으로 각성되기만 하면 참말로 큰 힘을 발휘할수 있으며 아무리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할수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였습니다.

해방직후에도 우리의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관리하고 경제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매우 뒤떨어진데다가 남북으로 분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조건에서 새 조국을 어떻게 건설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푸는 처방을 그 어디에 가서 얻어올수도 없는 일이였습니다.

우선 문제로 된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자본주의의 길로 나갈것인가 사회주의의 길로 나갈것인가 하는것이였습니다.

자본주의에로의 길은 착취와 압박을 그대로 두는것을 의미하는데 그래가지고서는 광범한 무산대중을 새 조국 건설에 불러일으킬수 없을뿐아니라 우리 나라가 한 제국주의의 예속으로부터 다시 다른 제국주의의 예속으로 넘어가게 될 위험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본주의의 길로 나갈수 없었다는것은 명백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당장 사회주의의 길로 나갈수도 없었습니다. 사회주의에로 나가는것이 좋기는 하지마는 그것은 주관적욕망만으로는 될수 없는것입니다. 우리앞에는 사회주의에로 넘어가기전에 해결해야 할 민주주의혁명과업이 당면하게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주의제도를 그대로 본받을수도 없었던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리익에 맞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묶어세울수 있는 정치제도가 어떤것으로 되여야 하며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적개혁들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역시 자기 머리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개혁을 하기 위하여서도 농촌에 나가서 며칠씩 농민들과 생활을 같이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토지개혁을 하는것이 우리 농촌실정에 맞겠는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남의것을 그대로 모방하는것보다 이렇게 자기 실정에 맞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것이 훨씬 더 좋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방후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주체사상은 그 정당성이 실증되였고 주체사상에 대한 우리의 신념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또한 미제국주의자들과의 3년간의 가렬한 전쟁을 겪고 나라가 완전히 재더미로 된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부닥치게 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로동자, 농민들의 집과 재산을 파괴하였을뿐아니라 중소기업들과 부농경리까지 다 파괴하여버렸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회주의혁명에서 자본가와 부농의 소유를 수탈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청산하였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해방직후부터 시종일관 중소기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중소기업가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로동자, 농민들과 같이 싸울수 있습니다. 더우기 공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우리 나라 형편에서는

민족자본을 보호하는것이 필요하였던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의하여 중소자본주의경리와 부농경리가 다 파괴된 조건에서 그것을 우리 정권이 다시 부활시킬 필요는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것이 다 파괴된 조건에서 중소기업가들이나 도시수공업자들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것없이 다 무산자로 된 셈이였습니다. 그들이 살길이란 힘을 모아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는것뿐이였습니다. 여지없이 파괴된 농촌경리를 추켜세우는 길도 역시 농민들이 힘을 모아 사회주의적으로 나가는것이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수공업적기술을 가지고서라도 협동하는것이 개인농경리에 비하여 훨씬 우월하다는 맑스-레닌주의명제와 또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공업화의 실현을 기다리지 않고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대담하게 밀고나가는 독창적인 길을 택하였습니다. 또 중소기업가들이나 부농을 수탈할 필요가 없었기때문에 그들 역시 협동조합에 망라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독특한 길을 택하였습니다.

생활은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명제에 매달리는것보다 자기 나라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우리 당의 로선이 옳다는것을 또다시 확증하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자기 힘을 믿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것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가장 옳은 립장과 태도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리 혁명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으며 또 걷고있습니다. 우리는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오직 주체사상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만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철저히 고수할수 있으며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할수 있다는 우리의 신념은 더욱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였습니다.

당신들이 주체사상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로 구현되는것으로 리해하여도 좋은가고 물었는데 바로 그렇게 리해하는것이 옳습니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입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기때문에 인민대중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하는것입니다. 주인다운 태도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표현됩니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활동이 요구됩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우리 인민의 리익, 우리 혁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

든 정책과 로선을 자신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신이 책임지고 해나가는 확고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그들자신이 모든 가능성과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리용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고수하는 문제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는 통일되여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측면을 가지고있습니다. 자주적립장이 어떻게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여있다면 창조적립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어떤 방법으로 주인인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일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여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주적립장이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가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라면 창조적립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동물과 다름없습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자주성을 잃어버린다면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혁명가들은 남의 노예가 되여 목숨을 보존하기보다는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 죽는것을 몇배나 더 영예로운것으로 생각하는것입니다.

자주성을 무시하는것은 인간자체를 무시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남에게 예속되여 사는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데 있겠습니까. 왜 지난날 사람들이 봉건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오늘 로동계급이 자본주의제도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습니까? 그것은 두말할것없이 근로자들이 봉건적인 노예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것이였으며 자본주의적인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것입니다. 우리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도 우리 민족을 제국주의의 예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고 자주권을 가진 민족으로서 자유롭게 살아나가기 위한것입니다. 모든 혁명투쟁은 한마디로 말하여 다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인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것입니다.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인 정권을 가져야 하며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이 무엇보다먼저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으로 구현되여야 하는 리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에서 확고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지도사상을 가져야 하며 자기자신의 건심에 의하여 오직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모든 정책과 로선을 결정할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압력이나 지시에 의하여 움직이는 정권은 인민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지고있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이러한 정권을 가진 나라는 자주독립국가라고 볼수 없습니다.

정치에서 자주성의 원칙은 모든 민족들사이의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반대할뿐아니라 남을 예속시키는것도 반대합니다. 남을 예속시키는 민족은 결코 자신도 자유로울수 없는 법입니다.

나라의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적자주성과 함께 경제에서의 자립성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에서의 자립성이 없이는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없으며 그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립장을 물질적으로 보장할수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남에게 예속되여가지고서는 정치적자주성도 보장할수 없으며 자립적인 경제력이 없이는 국방에서의 자위로선을 관철할수 없습니다.

자기를 옹호보위하는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라도 역시 자기를 보위하는 수단을 가져야 하는것입니다. 국방에서의 자위로선은 자주독립국가의 필수적요구입니다. 제국주의침략자들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내외의 원쑤들로부터 자기의 주권을 옹호보위할수 있는 자위적인 방위력을 가지지 못한 국가는 사실상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력사적으로 확증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신들은 당면하게 우리가 국내정책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무엇에 중점을 두고있는가 하는것을 물었는데 이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다는것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간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조선혁명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당면하게 나서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우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오랜 세월을 두고 제국주의의 기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투쟁하여왔으나 아직 조국의 절반땅에서 우리의 민족적자주권은 외래침략자들에 의하여 짓밟히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외래침략자들을 내쫓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것보다 더 절실한 문제란 있을수 없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은 근 30년간이나 외세의존정책에 매달리면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하고있습니다.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민족수난의 오랜 력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이 뼈저리게 체험한 심각한 교훈이며 또 오늘 미제강점하에 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똑똑히 보고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당면한 과업은 북반부인민들뿐아니라 전체 남조선인민들이

자주자립의 정신을 가지고 외세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것이 오늘 조선혁명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대한 사업입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당면한 중심적인 과업은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우리 인민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이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고된 로동에서 해방되는것입니다.

로동생활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로동조건에서의 본질적인 차이를 없애고 사람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은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만드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사람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하여서는 3대기술혁명을 밀고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내놓은 3대기술혁명과업은 자기의 힘으로 기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로동과 중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 이 과업들이 완전히 수행되면 도시와 농촌에서 힘든 로동은 기본적으로 없어지게 될것이며 로동생활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급적차이도 없어지게 될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저 중공업을 발전시킨다든가 경공업을 발전시킨다든가 하지 않고 사람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3대기술혁명의 목표를 내건것도 경제건설이나 기술혁명이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보람찬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되여야 한다는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을 뚜렷이 표현하고있는것입니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요구입니다.

다음으로 당신들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청소년교육문제에 대하여 말해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청소년교육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혁명을 계속하여야 할 우리 혁명의 후비대일뿐아니라 사회발전에서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때문입니다.

물론 생활수단이 없이는 사람이 살수도 없고 발전할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를 이루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수단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위한것이지 사람을 떠나서는 무의미한것입니다. 또 생활수단을 창조하고 생활조건을 개선하는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발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이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사업, 사람을 개조하는 사업을 앞세워야 합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 주체사상의 기초입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것도 사람을 위한것이며 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

은 사람을 위한것이며 그 성과여부는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교육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의 중요한 한 부문입니다.

교육이란 사람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적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입니다. 사회적인간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건전한 사회적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혁명하는 시대에 태여난 젊은 세대들이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우리 시대의 인간으로서 과학기술도 문학예술도 알지 못한다면 사회적인간이라고 말할수 없을것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적인간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사상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을 갖추어야만 모든 사회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당이 언제나 교육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리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에서 중심문제를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관철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는 사상과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키우는것입니다.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입니다. 비록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사상적으로 뒤떨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면 그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정신적불구자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언제나 사람들의 사상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있습니다.

청소년교육에서도 그들을 혁명적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에 선차성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일하기 싫어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복무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과 기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개인의 출세나 돈벌이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 인민과 자기 조국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과 혁명적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를 배워도 쓸모있는 지식을 배우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청소년들이 일하기 좋아하고 국가와 사회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혁명과 건설에 앞장서나가는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을 갖춘 새형의 인간으로 자라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요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전반적으로 실시되면 새로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이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이 서고 자연과 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진 유능한 사회주의건설자로 자라나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전진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당신들은 주체사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줄것을 요청하였지만 그에 대하여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정책과 로선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은 그 어떤 리론을 위한 리론이 아니라 복잡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우리가 내놓은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사상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된 엄연한 력사적현실입니다. 주체사상을 깊이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정책과 우리 나라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것이 필요합니다.

2.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하여

당신들이 우리의 주체사상에 의한 대외정책이 사회주의나라들간의 련대성강화와 반제투쟁, 국제적인 민주력량강화에 미치고있는 영향에 대하여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옳게 말한바와 같이 공화국정부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대외정책을 작성하며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모든 대외활동을 진행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 공화국은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의 숭고한 념원을 반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대외활동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국제주의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 원칙을 지키고있으며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큰 나라, 작은 나라를 가리지 않고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외활동에서 다른 나라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그 누가 우리 민족의 권리와 존엄을 짓밟거나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화국정부의 이러한 대외정책은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의 리익에 부합될뿐아니라 세계혁명의 리익에도 완전히 부합됩니다.

대외활동에서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자주성의 원칙은 결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자주성을 떠난 국제주의가 있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주의를 떠난 자주성도 있을수 없습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련대성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고있습니다. 우리는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으며 국제로동운동에서 나타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어디까지나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자주성에 기초한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첫째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둘째로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국제로동운동을 지지하며 셋째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 계속 나가며 넷째로 내정불간섭, 호상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 기초우에서 단결할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당들과 사회주의나라들 사이에 비록 의견상이가 있다하더라도 이 네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단결을 도모하며 공동으로 투쟁하는 립장을 견지하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반제투쟁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쑤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내세우고있을뿐아니라 대외활동에서도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미제를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을 철칙으로 삼고있으며 모든 반제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국제민주주의운동에 대하여서도 자주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견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과 민주주의운동을 힘자라는껏 지지하고 성원하지 거기에 간섭하거나 우리의 사상을 내려먹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화국정부는 또한 령토완정과 주권에 대한 존중, 불가침, 내정에 대한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적공존의 5개원칙에 기초하여 신생독립국가들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과 단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세계인민들이 우리 당의 혁명적인 주체사상에 공감을 표시하고있으며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자주성의 원칙을 적극 지지하고있습니다.

오늘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으로 살것을 원하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 누구도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의 내정에 간섭하며 민족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허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신생독립국가들도 다른 나라의 간섭과 구속을 반대하고있으며 자주, 자립의 길로 나가고있습니다. 심지어 자본주의나라들까지도 더는 큰 나라들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려 하지 않고있으며 독자적으로 행동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오늘 세계인민들이 주체사상을 요구하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신들이 웰남의 평화와 그와 관련한 미제의 아세아정책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듣고싶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웰남에서 아직 평화가 이룩되지 못하고 전쟁이 계속되는것은 당신들뿐아니라 아세아인민들을 비롯한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웰남전쟁은 특히 웰남인민들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있습니다.

웰남에서 아직 평화가 이룩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하고 악랄한 침략정책때문입니다.

당신들도 아다싶이 최근년간 미제는 웰남전쟁에서 심대한 패배를 거듭하였으며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정치, 경제, 군사적 위기를 겪게 되였습니다. 미제는 이러한 막다른골목으로부터의 출로를 찾기 위하여 이른바 《닉슨주의》라는것을 내놓

았습니다. 《닉슨주의》는 아세아에서는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보다 교활하고 음흉한 침략정책입니다.

그러나 《닉슨주의》는 옛날부터 반동통치배들이 궁지에 빠질 때마다 거기서 헤여나보려고 늘 써오던 낡은 수법이며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닉슨주의》는 웰남인민들의 영웅적항전에 부닥쳐 파탄되고있습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부웰남에서 전쟁의 《웰남화》 계획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한편 웰남민주공화국의 해안을 봉쇄하고 도시와 농촌, 경제문화시설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는 범죄적만행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지만 반미구국투쟁에 한결같이 일떠선 웰남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계속 심대한 군사정치적패배를 당하고있습니다.

웰남에서 평화가 보장되려면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당장 그만두고 전쟁의 《웰남화》정책을 걷어치우며 저들의 침략군과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들과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남부웰남에서 물러가야 합니다. 웰남문제는 반드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웰남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합니다.

아세아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지지성원을 받고있는 영웅적웰남인민은 미제의 《웰남화》정책을 파탄시키며 남부를 해방하고 북부를 수호하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것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토의와 관련한 공화국정부의 립장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적들은 올해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토의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립장을 취하고있습니다.

미제와 남조선위정자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토의를 연기시키려는 전술을 쓰고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사이에 회담이 시작되고 남북사이에 대화가 진행되고있기때문에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를 토의할 필요가 없으며 조선문제토의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미제와 남조선위정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조선인민의 의사에 전적으로 어긋나는것이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매우 그릇된 행위입니다. 미제와 남조선위정자들이 남북사이에 부분적인 접촉과 대화가 이루어지고있는것을 구실로 하여 올해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토의를 또다시 연기시키려고 하는데는 음흉한 목적이 숨어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토의를 연기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저들의 침략정책을 가리워보려 하고있으며 남조선위정자들은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 계속 주둔시키려 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제와 남조선위정자들의 유엔에 대한 전술은 철저히 침략적이며 반인민적인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적들의 이러한 전술에 대처하여 올해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를 토의하도록 하는 방침을 취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남북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사이에 회담이 진행되고있으며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민족이 단결하여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할

데 대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조건에서 유엔은 마땅히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도움을 주려면 조선문제토의를 연기할것이 아니라 올해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를 토의하여야 하며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유리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할것입니다.

유엔은 무엇보다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여야 하며 유엔의 간판을 가지고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방해로 되는 모든 결정들과 조치들을 다 취소하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결정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유엔이 이러한 조치들을 취한다면 조선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유엔에 대한 우리의 방침을 지지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정당한 방침을 지지하여나설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유엔이 조만간에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유리한 조치들을 취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 조선의 평화적통일문제에 대하여

분렬된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해방후 27년이 지나도록 통일되지 못한채 남북으로 갈라져있습니다.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인민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한결같이 바라고있습니다.

평화적조국통일의 기운은 공화국북반부인민들속에서뿐아니라 남조선인민들속에서도 급격히 높아가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평화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지고있을 때 우리는 지난해 8월6일연설에서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남조선의 민주공화당과도 접촉하겠다는 우리의 새로운 제의가 나간 다음 그 실현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압력과 세계인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남조선당국자들은 할수없이 남북적십자회담을 열고 가족찾기운동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기한것은 남조선측과 정치협상을 하자는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하게 남북의 접촉을 념원하여온것만큼 그들의 제의가 제한성을 띤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가족찾기운동이

라도 좋으니 회담은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9월 20일부터 남북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이 열리게 되였습니다.

남북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이 열리자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물론 남조선인민들도 남북사이의 접촉이 실현된것을 매우 기뻐하였으며 그것을 커다란 흥분속에서 열렬히 지지하였습니다. 남북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을 계기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평화통일기운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평화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지자 여기에 겁을 먹은 남조선집권자들은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라는 구실밑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민들에 대한 폭압소동을 벌리였습니다. 남조선집권자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한것은 순전히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급격히 높아가고있는 평화통일기운과 민주주의적지향을 억누르기 위한 기만적인 책동입니다.

남조선집권자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에도 우리는 민족분렬의 비운을 씻어버리고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일념으로부터 여러가지 적극적인 통일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의 압력과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여론에 못이겨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과는 별도로 남북고위급비밀회담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세상에 알려진바와 같이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였으며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습니다.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민족앞에 밝은 서광이 비치게 되였습니다.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고 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모든 문제가 다 간단하게 풀릴수는 없습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면 전체 조선인민이 인내성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돌아앉아서 량면전술을 쓰고있으며 공동성명에 지적된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리행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주앉아 회담할 때에는 좋은 말을 하고 뒤에 돌아가서는 우리를 비방중상하며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발언과 행동들을 일삼고있습니다.

남북공동성명에 밝혀져있는 조국통일의 첫째원칙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것입니다. 털어놓고말하여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한다는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나가도록 하며 그밖에 다른 나라 세력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쏘련, 중국과 동맹관계를 가지고있지만 쏘련이나 중국은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쏘련군대도 없고 중국인민지원군도 없

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며 조국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외세는 바로 미제와 일본의 일부 반동들입니다. 그러므로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면 우리 나라 내정에 간섭하고있는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원칙에 동의해놓고도 유엔은 외세가 아니라느니, 미군이 남조선에 오래 남아있어야 한다느니, 조선의 통일은 유엔감시하의 선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늘어놓고있습니다.

남북공동성명에는 또한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밝혀져있습니다. 이 원칙을 준수하려면 쌍방이 정세를 첨예화시키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이미 한두번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조선위정자들은 우리의 말을 믿을수 없다고 하면서 남북대결을 위하여 전후방군사시설을 보강하고 장비의 현대화를 다그쳐 《힘》을 《배양》해야 한다고 떠들고있으며 군사연습을 더욱 빈번히 벌리고있습니다. 이것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는 엄중한 행동입니다.

우리에 대한 남조선위정자들의 터무니없는 비방중상과 도발행동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분노를 자아내고있으며 결국 대화있는 긴장상태를 조성시키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통일의 분위기보다 싸움의 분위기를 북돋울뿐입니다.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는것은 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조국통일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에게 자본주의제도의 복구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무엇때문에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사회주의를 남조선에 강요하려 하지 않습니다. 남조선이 앞으로 어떤 사회로 되는가 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것입니다. 지금 남조선위정자들은 북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떠들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만한 행동은 평화통일을 파탄시키려는 책동입니다.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원칙은 사회의 민주화와 각당, 각파, 각계 인사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할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여야 사상과 정견, 신앙과 당파의 차이를 막론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원하는 모든 력량이 한데 뭉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을 개편할 리유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 민주주의적자유를 말살하며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강화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야당들의 활동마저 구속하면서 야당인사들과 우리와의 접촉을 가로막고있으며 남북의 접촉과 교류, 조국통일을 주장해나선 수많은 인민들을 《반공법》에 걸어 검거투옥하고있습니다. 심지어 남조선당국자들은 얼마전에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한 애국자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행위입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은 공동성명의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리행할것을 민족앞에 엄숙히 맹세하고서도 이와 같이 그것을 서슴없이 위반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저들의 이러한 배족적행동으로부터 발생될 후과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의 이러한 도발행위는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분노를 참고있으며 남조선위정자들의 거만하고 무뢰한적인 행동에 대하여 인내성있게 대하고있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전체 조선인민의 증오를 더욱더 불러일으킬것입니다.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중지하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의 사항들을 지키며 불신임을 제거하고 호상 리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통일문제해결을 위하여 성의있게 나온다면 우리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계속 인내성있게 투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온 민족의 기대속에서 진행되고있는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회담을 하루빨리 성사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라의 인공적분렬로 말미암아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남북조절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운영하여 남북공동성명에 지적된 사항을 추진시키며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통일문제는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와 같은 제한된 범위의 접촉과 협상만으로는 원만히 해결할수 없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는 남북적십자회담이나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으로는 풀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위한 근본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더욱 폭넓고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상을 실현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인 남북간의 불신임과 오해를 풀고 리해를 증진시키며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구체적방책들을 토의하여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들의 련석회의나 남북당국자들의 회의 또는 우리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남조선 《국회의원》들의 련합회의 같은 정치협상을 시급히 진행할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평화적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당면하게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남북련방제는 남북의 현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여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자는것입니다. 남북사이에 제도상 차이는 있지만 남북쌍방이 서로 자기의 사회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한다면 남북련방제를 실시하지 못할 조건이 없습니다.

남북련방제가 실시되면 남북사이에 보다 광범한 접촉과 래왕이 실현될것이며 경제, 문화 교류도 더욱 원만히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남북이 경제적으로 합작

하고 교류하면 공화국북반부의 발전된 중공업과 풍부한 지하자원을 리용하여 남조선의 경제형편을 빨리 개선할수 있을것이며 남북조선인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매우 유익할것입니다. 남북의 체육인들과 문화예술인들이 남북으로 서로 오고가면서 체육경기와 예술공연을 하며 국제체육경기들과 국제예술축전들에 남북단일팀과 남북단일예술단을 구성하여 보낼수도 있을것입니다. 기자들도 자유로이 래왕하면서 취재활동을 하며 평양과 서울에 기자대표부나 신문사지국을 두고 남북사이에 신문, 잡지 같은것을 교환하는 사업도 할수 있을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북련방제를 실시하고 남북사이에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광범한 교류와 래왕을 실현하게 되면 남북사이의 불신과 랭랭한 감정은 가셔지고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는 분위기가 조성될것이며 민족적단합이 쉽게 이루어지게 될것입니다. 남북간에 신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민족적단합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남북총선거를 통하여 전조선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방법으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을것입니다.

4. 조선과 일본사이의 관계문제에 대하여

당신들도 아는바와 같이 지난날 사또내각때 일본정부는 우리 나라에 대하여 매우 혹심한 적대시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나까내각은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사또내각보다 조금 완화하는 기운을 보이고있습니다. 사또는 재일조선공민들이 조국에 왔다가며 해외에 나다니는것을 극력 반대하였습니다. 지금은 재일조선공민들이 외국에 다니는것을 일부 허락하고있으며 재일조선공민들의 조국방문도 부분적으로나마 승인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다 풀렸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려면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풀려야 합니다.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정상적인 국교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한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오늘까지 조일 두 나라 사이에 우호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정부의 적대시정책때문입니다. 일본정부가 조선반도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우리 나라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대한다면 조일 두 나라 사이의 모든 문제들이 쉽게 풀릴것입니다.

조선과 일본사이의 관계문제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시종일관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 첫날부터 비록 사회제도는 서로 다르지만 일본과 선린관계를 맺을것을 희망하여왔으며 지금도 두 나라 사이의 비정상적인 사태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할것을 바라고있습니다.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와 선린관계를 가지려 한다면 마땅히 일변도정책을 쓰지

말고 조선반도의 남과 북에 대하여 어떠한 침략적성격도 없는 균등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조선의 통일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본정부가 일변도정책을 실시하면서 어느 일방으로 하여금 타방을 반대하도록 부추김으로써 조선반도에서 분화를 조성하려는것은 매우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일본정부는 자기 곁집인 조선반도가 안정되고 남북조선이 통일되여 평화롭게 잘살것을 원하여야 합니다. 자기 곁집에서 싸움질을 하고 분주하면 일본도 좋은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본정부가 자기의 린방인 우리 나라에 대하여 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하는것이 일본을 위해서도 필요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나라와 일본 두 나라 사이에는 제도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정부가 사회제도가 서로 다른 나라들과도 외교관계를 가지고있는것만큼 우리 나라와도 평등한 립장에서 대하며 평화적공존의 5개원칙에 기초하여 국교관계를 수립하는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본과 국교관계를 맺기전이라도 기자들과 기술자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래왕을 많이 하며 경제, 문화적인 교류를 널리 진행할 용의를 가지고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일방적인것으로 되여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진행되여야 합니다.

당신들도 아는바와 같이 지금 조일 두 나라 사이에 부분적으로 교류가 진행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본정부의 비우호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일방적인 성격을 면치 못하고있습니다. 기자교류문제만 놓고보아도 일본기자인 당신들은 우리 나라를 방문할수 있지만 우리 기자들은 일본에 갈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교류가 일방적인것으로 되여서는 결코 두 나라 사이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킬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든지 조일 두 나라 사이의 선린관계가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일본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인정합니다.

조일 두 나라 사이에 우호관계를 맺는데서 일본정부가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적권리를 보장해주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공민들의 민족적권리를 보장해주는것은 응당한 일이며 그것은 국제법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오늘 재일조선공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서의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정부의 비우호적인 태도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재일조선공민들에게 민족교육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여야 하며 귀국의 권리와 조국에로의 래왕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신들이 최근년간 일본이 경제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결과 국제적으로 여러가지 비판을 불러일으키고있다고 하면서 일본의 현상태와 대외정책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데 대하여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린방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것을 왜 나쁘게 여기겠습니까. 일본의 경제가 발

전하여 그것이 군국주의의 재생과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데 리용되지 않고 일본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며 다른 나라들과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면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일본반동지배층은 일본독점자본의 부활과 그 지배체제의 확립에 기초하여 나라의 군국화를 다그치며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습니다. 일본반동들이 아직 해외에 파병은 하지 않고있지만 앞으로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침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있습니다. 이런데서 일본군국주의재생의 위험성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나라의 군국화를 적극 다그치면서 《원조자》의 탈을 쓰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 길에 서슴없이 나서고있습니다. 그들은 일부 동남아세아 나라들이 처한 경제적난관을 리용하여 이 나라들에 《정부차관》, 《직접투자》, 《합영기업》과 같은 여러가지 명목으로 자본수출을 강화하여 이 나라들의 경제명맥을 틀어쥐려 하고있으며 《경제원조》에 큰 정치적부대조건을 붙여 일부 신생독립국가들을 우경화하고 반제전선에서 떼여내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특히 일본반동지배층은 범죄적인 《한일협정》의 조작을 계기로 하여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본격화하였으며 경제적침투에 정치, 군사적 침투를 따라세우면서 남조선을 또다시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려고 미쳐날뛰고있습니다.

일본당국자들은 얼마전에 서울에 가서 남조선위정자들과 《한일각료회담》이라는것을 벌려놓고 남조선반동들에게 이른바 《원조》를 주는 대가로 《공업소유권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남조선을 일본에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로골적인 침략행위입니다. 일본과 남조선사이에 《공업소유권협정》이 체결되면 일본독점체들이 남조선에서 경영활동상의 특권을 가지게 될것이며 남조선경제가 탐욕적인 일본독점자본의 손아귀에 더욱 철저히 얽매이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제국주의자들이 1894년에 일본인의 재산과 일본거류민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우리 나라를 침략하였던것처럼 다시 남조선을 침략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독점자본은 일본군국주의를 위하여 해외침략의 길을 닦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은 일본독점자본이 비대해지는데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고 있으며 일본경제의 군국화와 그의 해외침략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고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은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일본경제의 군국화와 해외침략책동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만일 일본반동들이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계속 해외침략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또다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야말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일본반동들의 해외침략책동을 반대하는 일본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재일조선공민들의 투쟁을 도와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주고있는 일본인민들과 일본의 진보적인 언론계인사들에게 인사를 보내는바입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계속 혁명적앙양을 일으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다시금 천명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오늘 우리의 영웅적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 있다.

갈라진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것은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해온 방침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민족최대의 과업인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여야 할 영예롭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마련하는것은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의 시기를 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전체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동시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조건을 충분히 갖추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44페지)

수령님께서는 이 교시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여 나라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이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가르치고계신다.

원래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한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할수 있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다.

특히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계속 혁명적앙양을 일으켜 나라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이 절박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그것이 조국통일의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마련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로 된다는데 있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여야 한다.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주체적력량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있는 경제적력량을 강화하고 정치적력량도 강화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우리 힘으로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완수할수 있다.

또한 우리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력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고 그들에게 더욱 커다란 혁명적 영향을 줄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벌려 우리의 경제적밑천을 튼튼히 마련하는것은 앞으로 남북간의 경제적교류가 실현될 때 그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는 담보로 된다.

뿐만아니라 나라의 경제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필요한 모든 물질적조건을 충분히 조성하여야만 조국이 통일된후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하루빨리 추켜세울수 있으며 도탄에 빠진 남조선인민들의 생활도 빨리 안정시키고 개선해나갈수 있다.

실로 이 모든것은 경제건설에서 계속 혁명적앙양을 일으켜 나라의 물질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마련하는것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대한 과업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지난 기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을 위한 물질적토대를 마련함에 있어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날의 락후한 경제를 가진 식민지 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오늘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더욱 튼튼히 다져져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더 잘 복무할수 있게 되였다.

특히 우리의 중공업은 갖출것을 기본적으로 다 갖춘 완비된 중공업으로 발전하였으며 나라의 경제발전과 기술혁명수행에 필요한 크고 작은 모든 기계설비들과 원료, 자재들을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는 위력한 중공업으로 자라났다.

중공업의 강력한 지원밑에 우리의 경공업도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모든 생산부문들이 다 갖추어졌으며 옷감으로부터 문화용품에 이르기까지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할수 있는 현대적경공업으로 꾸려졌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경리의 기술개건이 성과적으로 실현됨으로써 이미 수리화와 전기화가 완성되였으며 기계화와 화학화에서도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 농촌은 그 어떠한 자연적조건에도 조금도 구애됨이 없이 해마다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는 튼튼한 농업생산기지로 전변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는 강력한 중공업과 함께 경공업과 농촌경리를 포함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서로 유기적으로 련결되고 다방면적으로 발전하고있는 자립적경제체계로 확고히 전환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번영하는 사회주의 공업국가의 인민으로서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대하여서와 자녀교육과 병치료에 대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으며 그들의 생활은 날을 따라 더욱 높아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달성한 이 모든 성과들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을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된다.

* *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의 보람찬 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위업을 더 빨리 앞당겨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47페지)

6개년계획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환을 이룩하며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부강하고 위력한 자주, 자립, 자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보다 앞당기기 위한 투쟁강령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을 앞당기수행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6월 량강도와 함경북도, 함경남도에 대한 현지지도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부문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다시금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우리는 우선 사회주의공업화에서 달성한 성과에 토대하여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3대기술혁명은 현시기 당이 내세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의 하나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3대기술혁명의 력사적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계속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기계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기술혁명은 곧 기계혁명이며 3대기술혁명수행의 기본열쇠는 여러가지 현대적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는데 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공작기계와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대형기계생산기지를 더욱 확대강화하여 대형굴착기, 대형불도젤, 대형선박 등 대형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야금설비들의 기술관리를 개선하여 철생산을 더욱 늘이며 여러가지 칠강재를 질적으로 제때에 생산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채취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3대기술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광산개발을 다그치며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광물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동력생산을 모든 부문에 앞세워야 한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이미 진행중에 있는 발전소건설을 빨리 끝내여 전력생산을 더욱 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석탄공업부문에서는 탄발을 더욱 넉넉히 마련하고 탄광의 기계화를 다그쳐 채탄량을 훨씬 늘여야 한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카바이드, 가성소다, 산류 등 기초화학제품생산과 류안과 린비료 생산을 늘이며 여러가지 미량원소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는 또한 인민생활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당 제5차대회가 인민생활부문앞에 제시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전체 인민이 더욱 넉넉하고 골고루 다 잘살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475페지)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 추켜세우기 위해서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 남새와 닭알, 물고기, 고기 그리고 기름을 더 잘 공급할수 있도록 이 문제해결에 힘을 돌려야 한다.

우선 농촌경리부문에서 분수식관수체계와 선진적인 남새재배방법을 더욱 널리 도입하여 남새의 정보당 생산량을 훨씬 늘이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철 남새를 떨구지 않고 먹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콩을 비롯한 유지작물생산을 늘이며 모든 기름원천을 적극 동원하여 기름생산을 훨씬 높여야 한다.

우리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미 있는 돼지목장과 닭공장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늘이는것과 함께 협동농장들에서는 돼지와 닭 기르기를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고기와 알 생산을 늘여야 한다.

수산부문에서는 대형어업과 중소어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양식양어사업을 널리 벌려 수산물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랭동시설을 더 잘

갖추어 전국을 하나의 랭동체계로 련결시킴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부식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동시에 일용품의 가지수와 량을 더욱 늘이며 그 질을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또한 입는 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는것이다.

우리는 섬유생산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지금 있는 방직공장들에서 생산능력을 훨씬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가능한 모든곳에서 지대적 특성과 조건에 맞게 누에치기운동을 널리 벌려 고치생산을 더욱 늘여야 한다.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 추켜세우기 위해서는 또한 주택문제를 빠른 시일안에 보다 원만히 풀어야 한다.

우리는 건설력량과 건설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전군중적운동으로 주택건설을 힘있게 내밀며 지방들에 각종 건재공장들을 많이 꾸려 건재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킴으로써 건설에서 혁명을 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기계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치며 특히 중간지대들의 기계화에 힘을 집중하여 이 지대의 농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이미 마련된 발관개체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2모작할수 있는 지대들에 발관개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우고 토양의 특성에 맞게 미량원소비료와 3요소비료를 옳게 배합하여 침으로써 화학비료의 효능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농작물에 대한 생물학적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생산에 도입하여야 한다.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것, 이것이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이며 바로 여기에 생산의 장성과 인민생활향상의 거대한 예비가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59페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가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은 거대하며 그 잠재력은 매우 크다. 이 경제적토대를 더욱 정비보강하여 효과있게 리용한다면 생산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이빠진 공정들에 살을 붙이고 미진된 공사를 빨리 다그쳐 끝내며 모든 생산설비들과 기계설비들이 자기 능력을 다 낼수 있게 하여야 한다.

부속품생산기지를 잘 꾸리고 기계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와 기술관리를 잘하여 모든 기계설비들이 언제나 만부하, 만가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자재공급기관들의 역할을 일층 높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혁명적앙양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란 한마디로 말하여 경제관리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사업체계입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515페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경제관리에서 무엇보

다면저 사람과의 사업을 더 잘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기술도 사람에 의하여 발전되며 기계도 사람이 만들며 그것을 움직이는것도 사람이다. 사람이 모든것을 다 결정한다. 따라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불러일으키는것은 경제관리전반에서 나서는 가장 선차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사업이며 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기업관리에서 무엇보다먼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여 480분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8시간로동제는 로동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국가의 법이며 이것은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말해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국가의 법으로 제정된 480분로동시간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한 투쟁을 널리 벌려야 한다.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충분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동시에 엄격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온갖 랑비현상을 없애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모두가 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들과 교시 그리고 그 구현인 당정책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그를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특히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조국통일방침의 혁명적본질을 깊이 파악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그 어느때보다 다그쳐 그들로 하여금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이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키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또한 간부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소유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또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며 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계속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는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며 조국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 보람차고 영예로운 투쟁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하여 올해계획을 10월 10일전으로 끝내고 올해안으로 6개년계획의 1973년말 생산수준을 돌파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나아가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빛나는 전통

전 문 섭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고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의 주요내용의 하나를 이룬다. 이 고귀한 전통은 해방후 우리 당과 인민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여 혁명과 건설의 전행정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전통을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시킴으로써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확고히 간직하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며 이 땅우에 확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믿음직하게 지키고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겨나가야 한다.

* *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웅적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형성되고 발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이며 그것은 계급의식과 민족적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79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부르죠아적애국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부르죠아적애국주의는 지주, 자본가 등 극소수의 특권계급의 리익을 대변한것으로서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의 반동적, 반인민적 본질을 가리우며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전쟁 도발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것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반영한 애국주의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로동계급의 계급의식과 민족적자주의식을 철저히 결합시키고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밀접히 결합시킨다. 바로 이러한 애국주의만이 민족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반영한 최고형태의 애국주의로 된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은 민족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며 근로인민의 리익을 떠나서는 민족의 리익을 생각할수 없다. 자본주의의 길은 착취와 억압, 예속과 몰락의 길이며 사회주의만이 계급적착취와 함께 민족적억압을 근절하고 민족의 완전한 독립과 번영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철저한 애국자로 되는것이며 자기의 계급적해방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들만이 참다운 애국적감정을 가질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참다운 애국주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오직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

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웅적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형성되고 발전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빛나는 전통이 이룩될수 있은것은 이 투쟁이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진정한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하며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목적과 사명에 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선인민의 절실한 념원은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하루속히 타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것이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조선에서 모든 계급적압박을 청산하고 로동자, 농민을 착취의 멍에로부터 해방하며 우리 조국을 장차 착취없는 행복한 사회로 만들것을 자기의 변함없는 목적으로 삼는다.

항일유격대는 언제나 이 과업 수행을 자기의 기본사명으로 하는 맑스-레닌주의군대로 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선인민혁명군은 일제침략자들을 타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며 해방된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고 15성상을 하루와 같이 싸웠다.

조국의 해방과 독립, 장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목적한 항일무장투쟁은 바로 조국과 민족의 리익,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였을뿐아니라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가장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은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그 누구보다도 혹심하게 받던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 구성된 조선인민의 첫혁명적무장력이였다. 따라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온갖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을 끝없이 증오하고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불같은 신념을 지닌 열렬한 애국자들이였다.

이리하여 위대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확고한 로동계급의 계급의식과 민족적 자주의식이 결합된 가장 높은 형태의 애국주의인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빛나는 전통이 이룩될수 있었다.

영웅적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전통은 오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실천적모범, 대원들에 대한 그이의 끊임없는 교양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었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가장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부모님의 애국주의교양과 몸소 겪으신 시련에 찬 체험, 정열적인 학습을 통하여 원대한 뜻을 키우시면서 조선혁명의 수령으로 성장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을 지니시고 조선혁명의 승리의 길을 개척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의 개시와 더불어 조선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이 창시되고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새 기원이 열리게 되였으며 조선인민의 진정한 혁명력사가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 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조국의 광복과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몸소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을 령도하시여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오르신 때로부터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는 그날까지 단하루의 쉬임도 없이 혁명투쟁의 앞길에 가로놓인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나가시면서 조국해방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싸우시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장구한 로정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의 력사이며 준엄한 시련과 온갖 풍파를 뚫고 민족적 독립과 자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혁명력사이다. 따라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항일혁명투쟁의 승리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떠나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 전통을 포함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장구한 나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조국광복의 그날을 앞당기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심혈과 정력을 다바쳐투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지만 우리 조국처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는 드문것입니다. 산천은 아름답고 땅은 기름져 오곡백과 무르익고 땅속에 금은보화 가득찬 나라, 슬기롭고 용감하고 문명한 인민이 사는 나라,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중한 조국입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인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고있으며 반만년의 유구한 전통을 가진 우리의 찬란한 민족문화는 빛을 잃고있습니다.…원쑤 일제를 쳐부시고 로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 인민의 나라를 세우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금수강산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수 없으며 무진장한 금은보화도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할수 없습니다.》(《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 18페지)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들이 강도 일제침략자들에게 짓밟히고 빼앗기는것을 가슴아파하시면서 조국광복의 그날을 앞당기시기 위하여 항상 투쟁의 진두에 서시여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수령님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착취받고 압박받는 근로인민에 대한 가장 깊고 뜨거운 사랑과 련결되여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싸움의 나날 항상 인민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시며 인민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해결해주시였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항상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신 수령님께서는 준엄한 전투환경속에서도 언제나 먼저 인민들의 안전에 대하여 생각하셨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위해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5성상에 걸친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 걸쳐 일관하게 인민의 리익을 존중하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조선인민혁명군의 본분으로 삼으시였다.

그러기에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신뢰하고 흠모하였으며 그이를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받들고 해방될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성심성의로 도왔으며 그들을 혈육의 정으로 아끼고 사랑하였다.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셨기에 조국땅을 빼앗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들씌운 날강도 일제침략자들을 극도로 증오하시였으며 원쑤격멸에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과 인민들을 힘차게 조직동원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대원들과 인민들에게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진정한 애국자, 참된 혁명가란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보여주시였을뿐아니라 그들을 항상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그 준엄한 나날에도 대원들과 인민들을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들을 끝없이 증오하고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며 조국강토에서 놈들을 영원히 쓸어버리고 우리 인민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교양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과 민족적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며 그들로 하여금 혁명에 대한 자부심과 커다란 민족적긍지를 가지고 혁명투쟁에 헌신하도록 고무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대원들에게 늘 조선혁명의 승리는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자신이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달려있으며 따라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남의 힘을 바랄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과 투쟁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대원들과 인민들을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미래를 사랑하는 혁명적락관주의정신으로 교양하시고 그들을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시였다.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육친적인 배려, 그이의 끊임없는 교양에 의하여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불굴의 혁명투사, 열렬한 애국자로 자라날수 있었다.

실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필승불패의 주체사상과 고매한 덕성의 빛나는 구현이였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우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한다는 자부심에서 가장 높이 발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혁명한다는 자부심—이것은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이 지니였던 가장 숭고한 혁명정신이였으며 조선혁명의 승리를 달성할수 있게 한 기본요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한다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끝없는 자부심은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들을 실현하는것이 곧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달성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임을 깊이 확신한데서 온것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견결히 옹호관철하는것을 최대의 영예로,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임무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신뢰하고 흠모하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들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그이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오직 수령님의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 어디서나 수령님만을 따랐다. 그리고 그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명령지시를 집행함에 있어서 불굴의 투지와 높은 책임성, 고도의 창발성을 발휘하였으며 명령을 수행하기전에는 죽을 권리조차 없다는 견결한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또한 그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배치되는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등 온갖 반동적, 반혁명적 사상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였다.

이렇듯 조선인민혁명군대오안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 가득차있었으며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있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실하였으며 그이께서 계신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는것을 조선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존망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여기고 자나깨나 혁명의 사령부의 안전에 대하여 생각하였으며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였다.

참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혁명의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혁명한다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드높은 혁명적자부심은 그들의 모든 사업과 생활에서 비상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낳게 하였으며 적과의 싸움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게 한 강유력한 힘의 원천이였으며 사회주의적애국주의를 높이 발양할수 있게 한 근본요인이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또한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고 투쟁한데서 표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갖은 압박과 멸시를 받았으며 지주, 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민족적원쑤들과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적개심이 강했으며 우리는 원쑤들과의 싸움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64페지)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에 대한 적개심에서 발현되여야 한다.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적개심이 없이는 조국과 인민을 사랑할수 없다. 자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제국주의침략자들과 지주, 자본가등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증오심이 강하며 원쑤들과 비타협적으로 싸우는것이다.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아름다운 조국강토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들씌운 일제침략자들을 극도로 증오하였다. 그들은 항상 우리 인민의 칠천지원쑤 일제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증오심으로 가슴불태웠으며 자기들의 생명은 바칠지언정 원쑤들에게는 절대로 굴하지 않고 놈들과 끝까지 견결히 투쟁하였다.

참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언제나 인민에게는 순한 양처럼 자기들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쳤으나 원쑤들에게는 무자비하고 추호의 타협도 없었으며 놈들과는 성난 사자와 같이 용맹하게 싸워이겼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또한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혁명적락관주의 등에서 높이 발휘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들에서 조국의 광명한 미래를 내다보았으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때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굳게 믿고 싸웠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긴 그들은 어떤 곤난과 역경 속에서도, 적의 철창속에서도, 친고밀림속에 홀로 남게 되는 경우에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혁명의 최후승리를 굳게 확신하고 혁명의 지조를 지켜싸웠다. 그들은 굴욕속에서 자신의 생애를 더럽히기보다는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원쑤와 싸우며 혁명적지조를 지키는것을 더없는 행복으로 여겼던것이다. 그들은 혁명을 위하여, 조국의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후대들의 행복한 새 생활을 위하여 중첩되는 난관과 온갖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열렬한 애국자들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육친적인 사랑속에서 자라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이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찬 일상적인 생활과정에서 보여준 락천성도 바로 해방된 조국땅우에 실현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미래에 대한 그들의 굳은 신념에서 우러나온것이다.

실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수령님의 원대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해방된 조국땅우에 인민들의 힘과 지혜로 나라의 풍부한 부원과 무진장한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공장도 짓고 기계도 만들며 학교와 병원, 살림집도 일떠세우고 농사

도 지어 모두가 풍족하게 잘살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불요불굴의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밀접히 결합되여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빨찌산은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라는 맑스의 사상을 고수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71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참된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들이였을뿐아니라 진정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전사들이였다.

그들은 조선혁명의 붉은 기치와 함께 반제혁명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시 침략전쟁에 광분하던 일제침략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줌으로써 세계혁명, 반제혁명투쟁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는 구호를 들고 당시 유일한 사회주의나라였던 쏘련을 피로써 적극 옹호하였으며 중국인민과 손잡고 공동의 원쑤 일제침략자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었다.

또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배치되는 민족주의, 민족배타주의, 사대주의 등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이와 같이 항일혁명투사들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를 높이 발양함으로써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함께 국제적임무를 다같이 충실히 수행할수 있었으며 조선혁명을 힘있게 전진시켰을뿐아니라 세계혁명에도 크게 기여할수 있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처럼 높이 발양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오늘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그대로 높뛰고있으며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가면서 소중히 간직하고 영원히 빛내여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로 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빛나는 전통은 해방후 우리 당과 인민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우리 인민이 자기의 정권을 세우고 새 생활을 창조하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민족적 독립과 영예를 고수하고 부강하고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는 보람찬 투쟁행정은 그대로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개화발전하는 행정이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 그처럼 높이 발양되고있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바로 우리 나라에 수립된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에 튼튼히 뿌리박고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항일혁명선렬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발전된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일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며 그것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며 조국의 륭성발전과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투쟁하여야 한다.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특히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과 직접 맞서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과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 그리고 그 주구들과 온갖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고 놈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키며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

강 성 산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와 특히 최근에 주신 일련의 교시들에서 당사업의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이라는것을 다시금 명시하시고 당사업을 철저히 산 사람과의 창조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과 근 반세기에 걸치는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쌓으신 풍부하고도 다방면적인 경험을 당사업분야에 구현하시여 당사업의 기본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그를 가일층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당사업의 기본에 관한 사상은 당사업의 대상과 본질, 사람과의 사업의 내용과 원칙,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신것으로서 맑스-레닌주의당활동의 근본원칙을 천명한 위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의 기본을 밝히시였을뿐아니라 당사업을 사람들과의 창조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도록 끊임없는 지도를 주시여 정연한 사람과의 사업체계를 세워주시였다.

당사업이 다름아닌 바로 사람들과의 창조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됨으로써 당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되였으며 그의 령도적역할을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하신 교시를 깊이 연구하고 그를 당사업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려 우리앞에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　　　*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천재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다시말하여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무장시켜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이 바로 당사업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11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사업이란 바로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이다.

로동계급이 자기의 정치적참모부인 당을 창건하게 되는것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대중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수령이 내놓은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는데 있다.

바로 우리 당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묶어세워 조국을 통일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조직된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업의 두 측면을 이루고 있는 당내부사업이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나를 막론하고 모든 당사업이 결국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람들과의 창조적인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당사업의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현시대의 맑스-레닌주의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본질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창시하신 위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 주체사상의 기초입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것도 사람을 위한것이며 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입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3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것도 사람이고 사람자체를 개조하는것도 사람이며 주체사상의 본질적내용을 이루는 자주성과 창조성을 실현하는것도 결국은 사람이다. 사람을 떠나서는 그 어떤 사업도 진행할수 없으며 사람을 발동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 모든 사업에서 주체는 바로 사람이며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당이 당을 이루고있는 당원들과의 사업을 잘해야 그들의 당성을 높이고 정치사상의식을 높여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울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일수 있다. 또한 당이 당밖의 수많은 근로자들과의 사업을 잘해야 그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 실현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선진분자들을 당에 받아들여 당대렬을 부단히 확대하며 당의 대중적지반을 더욱 공고히 할수 있다.

이와 함께 당조직이 사람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그 사람이 당정책학습을 잘하는가 안하는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였는가, 안되였는가를 알수 있고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집행에서 당적책임성이 높은가 낮은가, 사업에서 진실한가 진실하지 못한가 하는것 등을 알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과의 사업을 진행하여야 매개 사람들을 내용적으로 정확히 파악할수 있다.

만일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본성과 사명을 망각하고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하지 않고 행정경제사업에 매여달리거나 사람들과의 사업을 기술실무적사업으로 진행한다면 당은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조직으로서의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없다.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모든 사업에서 사람이 주체이고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데로부터 당사업의 기본이 다름아닌 바로 사람과의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시였다.

당사업의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은 또한 당사업이 바로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창조적사업이라는데 기초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것이든지 다 사람을 발동시켜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과 기업소를 운영하고 기차나 배를 움직이려고 하여도 먼저 그것의 주인인 사람들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이라고 하는것입니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지 않으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옳게 조직동원하지 않고는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으며 앞으로 공산주의에로 나아갈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3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생산도 사람이 하고 력사도 인민대중이 창조한다.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직접적집행자는 당원대중이며 광범한 인민대중이다. 혁명과 건설의 어느 한 문제도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업은 오직 광범한 근로대중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 혁명투쟁의 목적과 의의, 그 수행방도를 알려주어 모든 사람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사람들과의 사업을 통해서만 이룩될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당은 또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행정경제사업을 직접 담당해서 수행하는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부문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정치적참모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당이 이러한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행정경제기관들의 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기술실무사업에 매여달린것이 아니라 이 부문에 복무하는 사람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즉 당에서는 행정기관들의 사업을 대행할것이 아니라 이 부문에 복무하는 일군들에게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침투시키고 그를 잘 집행하도록 조직동원하고 그 집행정형을 지도통제하며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바로잡아주는 등으로 사람들과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 앞에 제기된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웅대한 사회주의건설강령인 6개년계획을 기한전에 넘쳐수행하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방침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무엇보다도먼저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당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되여야만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적수행에로 모든 근로자들의 지혜와 열성을 남김없이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더많은 군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다.

실로 당사업의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리론은 력사상 처음으로 당사업의 기본을 뚜렷이 밝혀준것으로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관건적고리를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다. 또한 그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이 자기의 본성과 사명에 맞게 당사업을 진행할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길을 밝혀준 혁명적인 당건설사상이며 맑스-레닌주의당사업리론을 새롭게 발전시켜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불멸의 공헌을 한 위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의 기본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근거를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당사업을 철저히 산 사람들과의 창조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여 전당에 정연한 사람과의 사업체계를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모든 당조직들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를 세워놓았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07페지)

사람과의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야만 전당이 수령님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하나의 산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게 되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여기로부터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풍부하고도 다방면적인 당사업경험에 기초하시여 당창건초기부터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끊임없는 지도를 주시였다. 특히 당안에 잠입했던 허가이도당들이 당사업분야에 끼친 여독을 청산하는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안에는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체계가 확고히 수립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오늘 우리 당안에는 정연한 간부사업체계와 당원들의 당생활지도체계가 섰으며 군중을 교양하여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군중과의 사업체계가 수립되였다.

정연한 사람과의 사업체계가 세워짐으로써 오늘 우리 당은 전체 근로자들을 당사업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교

양하여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게 되였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분공을 주어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혁명대오가 하나의 산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고 행동하게 되였다. 또한 당사업이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우리 당은 당사업을 기술실무화하려는 온갖 그릇된 경향들을 대담하게 물리치고 맑스-레닌주의당의 혁명적원칙, 주체사상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하고 맑스-레닌주의당의 본성에 맞게 당사업을 진행하는 혁명적인 당으로 되였다.

실로 오늘 우리 당이 가장 위력하고 권위있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당으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령도하는 필승불패의 당으로 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맑스-레닌주의당건설력사상 처음으로 당사업의 기본을 밝혀주시고 그를 우리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고계시는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우리는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시하신 당건설 사상과 리론들을 깊이 체득하고 그를 당건설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적령도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할것이다.

*　　　*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와 최근에 주신 교시들에서 지난시기 당사업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들을 총화하시면서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총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511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우리 당사업의 총적방향과 당이 자기 활동의 전기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적원칙을 과학적으로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과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도록 그들을 교양하는것이다.

그것은 당을 창건한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당원들을 무장시켜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수령이 내놓은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것이 바로 당사업의 목적이며 사람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가장 본질적인 요구이기때문이다.

우리 당에 있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그것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그리고 수령님의 근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며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사소한 현상과도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그이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그이께서 제시하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심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또한 사람과의 사업체계를 바로세우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였다.

사람과의 사업체계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간부는 우리 당의 기본핵심력량이며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직접적인 조직집행자이다. 그러므로 간부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에서 선차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이와 함께 당을 이루고있는 당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예로운 혁명전사이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혁명투사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군중의 앞장에 서서 투쟁함으로써 당원의 고귀한 칭호를 더욱 빛내이게 하여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사람문제취급에서 성분과 환경을 절대화하지 말고 본인의 현재의 사상과 사업정형을 기본으로 하여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평가하며 우선 믿고 실천을 통하여 검열하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사업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기본군중은 물론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사람들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일편단심 당을 믿고 따르며 혁명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워나가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체계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또한 모든 지도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하는 체계를 바로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속에 들어가지 않고 당회의들에 참가하지 않으면 아래실정을 똑똑히 알수 없으며 주관주의를 범할수 있습니다. 정권을 잡은 당들이 흔히 관료화되고 주관주의를 범하게 되는것은 군중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며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에 의거하여 사업하지 않는데 주되는 원인이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78~79페지)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모든 지도일군들이 군중이 있고 사람들이 활동하고있는 현실에 내려가 군중과 늘 접촉하고 당회의에도 참가해야 군중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고 당조직들의 사업정형과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으며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하는 방도도 찾을수 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1968년 5월 27일교시를 심장으로 새기고 매일 오후시간은 산하 당조직들의 회의에 참가하거나 개별적 일군들을 계획적으로 만나 담화하는 지도체계와 담화체계를 바로세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 모든 간부들이 당원들과 사업하고 당원들은 군중들과 사업하며 웃사람은 아래사람을 도와주고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등 모두가 다 자기가 맡은 초소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사업할 때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한사람이 열사람을 움직이고 열사람이 백사람을 움직이며 백사람이 천사람을 움직이는 전통적인 사업방법대로 사람과의 사업을 진행할수 있으며 수령님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하나의 산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는 당, 전진하는 당, 혁명과 건설에 대중을 훌륭히 조직동원하는 전투적인 당으로 더욱 강화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한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집권당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언제나 경계할것은 당세도와 관료화되는 경향입니다. 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맑스-레닌주의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

하지 못한 일부 일군들속에서 틈을 차리며 군중로선을 어길 위험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이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옳게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여나가야 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07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도, 전체 인민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조직동원하는것도, 광범한 군중을 자주적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불러일으키는것도 간부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크게 달려있다.

특히 각이한 사회정치생활경위와 생활조건, 각이한 정치사상적준비정도와 성격, 취미, 소질 등을 가지고있는 사람들과의 사업은 매 사람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을 요구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기때문에 일군들이 옳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소유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세도,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다.

당세도,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옳게 관철할수 없게 하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약화시키고 광범한 군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울수 없게 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자기를 특수한 존재로 여기면서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릴것이 아니라 수령님의 두터운 신임에 보답하며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자, 혁명가의 참다운 풍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또한 모든 지도일군들이 어머니당일군다운 품성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참다운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당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오늘의 생활과 앞으로의 발전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돌보아주어야 하며 이와 함께 당원들이 가지고있는 결함들을 제때에 고쳐주며 당적원칙과 어긋나는 온갖 현상들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말고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모든 지도일군들은 반드시 어머니가 자기 아들딸들을 대하는 그런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하여야 한다. 그래야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진심으로 당을 따르고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투쟁하게 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사람들이 모르는것이 있으면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잘못된것은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고칠 때까지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친절하게 타일러 고쳐주는 품성을 소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람들을 원칙적으로 교양하는것과 그들을 대하는데서 친절하지 못한것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사람들을 원칙적으로 교양하는 품성을 소유하는것이 중요하다.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모든 사업에서 일군들이 이신작칙하며 정치실무수준 특히 정치성과 사상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지도일군들은 자신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께서 창조하시고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 그이의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따라배우기 위해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에 기본을 두고 진행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을 높이 받들고 당사업을 산 사람과의 창조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킴으로써 당 제5차대회에서 수령님께서 당사업부문앞에 제시하신 전투적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지방공업발전을 위한 군당 위원회의 지도

백　　윤　　봉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방공업을 빨리 추켜세워 나라의 모든 지역을 다 같이 발전시키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높이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지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여 커다란 전변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새 조국 건설의 그처럼 바쁘신 나날에도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을 심려하시여 우리 양덕군의 두메산골 온하리를 몸소 찾으시고 산중부원을 리용하여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도록 가르쳐주시였으며 《황금산》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 차례나 양덕군을 찾으시여 지방공업을 더 잘 운영해나가도록 가르쳐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구체적인 방침과 방도를 다시금 천명하여주심으로써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보다 향상시킬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중앙공업과 함께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키는 방침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중앙공업의 위력을 충분히 리용하는 한편 지방의 창발성과 대중의 지혜를 적극 조직동원하여야만 일용품공업과 식료가공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372페지)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국가의 큰 투자없이 지방의 원료, 자재, 유휴로력을 광범히 동원리용하여 식료품을 비롯한 각종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보장할수 있게 한다. 뿐만아니라 생산기지를 원료원천지와 소비지에 접근시켜 생산과 공급을 더 원만히 할수 있게 함으로써 인민생활을 보다 유족하게 만들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질적우월성에 확고히 의거하여 사회주의공업건설의 원칙적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공업기지를 믿음직하게 꾸리고 인민생활을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과학적인 방침이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끊임없는 보살핌속에 온 나라의 군마다에 일떠선 수천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은 오늘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수행하고있다.

총면적의 80%이상이 산지대로 되여있는 우리 군의 자연지리적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산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며 지방의 산중부원에 의거하여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향상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수령님의 자애로운 은덕과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해방전에는 대장간 하나 변변한것이 없었던 우리 군이 오늘은 19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여기에서는 1,700여종에 달하는 갖가지 질좋은 일용품과 식료품이 생산되여 군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오랜 세월을 두고 부대를 일구며 초근목피로 근근히 목숨을 이어오던 우리 군내 인민들은 산을 잘 리용할데 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과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수도화된 아담한 문화주택에서 갖가지 가장집물들을 갖추어놓고 무병장수를 노래하며 세상에 부러움없는 생활을 누리고있다.

지난날 궁벽한 산간마을이던 우리 군을 오늘과 같이 살기좋은 고장으로 전변시켜주신 수령님의 높으신 은덕은 우리 양덕군내 전체 인민들의 사상정치적풍모에서 또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자기들의 생활과 체험을 통하여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으신 덕성을 깊이 체득한 군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으며 그이께서 내놓으신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려는 혁명가적기풍이 철저히 서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군앞에 제기된 모든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풀어나가려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온군을 확고히 지배하게 되였다.

오늘 양덕군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산간지대 인민들 특히 우리 군에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30여차에 걸친 교시와 크나큰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지방공업부문앞에 제기된 6개년계획의 3년분과제를 3월말현재로 이미 초과완수하였으며 명년 9월말까지 6개년계획과제를 기어이 완수하기 위하여 힘찬 로력투쟁을 벌리고있다.

* *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급속히 늘이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간부들과 당원들을 당의 유일사상, 특히는 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그들이 지방공업발전이 가지는 의의와 그 중요성을 똑똑히 알고 우리 인민을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며 보다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려는 어버이 수령님의 높은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지방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데서 우선 간부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먼저 간부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간부는 당의 기본핵심력량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우리 혁명의 지휘성원입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결국 간부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모든 문제는 간부들에 의하여 해결됩니다.》(우와 같은 책, 511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간부들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간부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당정책을 정확히 관철할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군내 지방공업부문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우선 수령님의 교시연구를 간부들의 생활에서 첫째가는 사업으로 되게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책임일군들로 군내 간부들속에 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양덕군에 주신 교시와 결부하여 침투시키는 한편 간부들이 매일 사업을 수령님의 교시연구로부터 시작하도록 제도화하였으며 매주, 매월 그 실행정형을 계획적으로 총화하였다. 동시에 군당위원회간부들은 군내 간부들과의 수시로 되는 담화를 통하여 수령님의 교시내용과 당의 정책적요구들을 해설침투시켰다.

수령님의 교시연구사업은 그 내용을 리해하는데만 머물지 않고 그 실행방도와 집행대책을 찾는 방향에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은 간부들에게 수령님의 교시내용을 군내실정과 밀접히 결부시켜 실속있게 리해하게 하였을뿐아니라 그외 구체적인 집행대책까지 명백

히 인식하게 하고 실천활동의 앞장에 나설수 있게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벌려나갔다.

군당위원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지방공업부문에 주신 수령님의 교시와 그이께서 해방직후 1947년에 은하리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지방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대상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당면한 경제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은하리사적지를 잘 꾸리고 지방산업공장로동자들과 군내 주민들을 견학시켜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은덕과 두터운 배려, 높으신 덕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군내 인민들로 하여금 확고한 자신심을 가지고 교시관철에 앞을 다투어 동원되도록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군당위원회는 또한 교시침투사업을 일체 선전력량을 동원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공장과 농촌에 나간 일군들은 군중속에서 《지방원료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황금산의 새 력사를 더욱 빛내여가자》라는 제목으로 해설담화를 생활과 결부하여 널리 진행하였다.

또한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에서는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교시집행대책을 양덕군 은하리에 주신 현지교시집행정형과 결부하여 토의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교시침투사업과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크게 제고시킬수 있었다.

군내 예술소조도 수령님의 교시내용과 그 관철을 위한 군내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게 하였으며 학교, 읍 인민반까지 선동원들을 발동시켜 대상에 맞게 교시침투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의 전면적이고도 꾸준한 선전사업은 군내의 전체 인민들이 수령님의 교시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인민을 더 잘 살게 하시려는 그이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떨쳐나서게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여 공장을 새로 짓는것과 함께 지방공업을 한계단 더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지방산업공장의 물질기술적장비를 튼튼히 마련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지방공업의 물질기술적장비를 갖추는것은 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런데 지방공업의 토대가 미약한 우리 군의 실정에서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구축하는것은 아름찬 일이였으며 그 과정에는 많은 애로와 난관이 제기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신이 일어날 때에는 뒤떨어진것이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혁신 그 자체가 벌써 뒤떨어진것과의 투쟁을 동반하는것입니다. 뒤떨어진것, 보수주의적인것과 투쟁하지 않고는 혁신이 일어날수 없습니다. 이것은 생활의 법칙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40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새것을 창조하는 과정은 반드시 낡은 사상잔재와의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군당위원회는 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나타나는 소극성과 보수주의와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우선 기관기업소 지도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기술신비주의, 보수주의, 소극성, 기관본위주의와의 사상투쟁을 강하게 벌리는 한편 로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었다.

책임일군들이 로동자, 기술자들 속에 직접 들어가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알려주면서 대중의 앞장에 서서 그들을 새로 지은 공장의 물질기술적장비를 튼튼히 마련하는 사업에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기술자, 기능공들을 매개

공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실태를 료해하고 어떤 설비를 어떻게 꾸려줄것인가에 대하여 집체적으로 협의하여 해결방도를 찾아내였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파악하고 지방산업공장을 꾸림에 있어서 자기들이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가를 자각하게 된 로동자, 기술자들은 있는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 긴요한 설비와 부속들을 만들어냈고 자기가 만든 기계설비나 창의고안품을 가지고 대중적인 합평을 받으면서 호상 경험을 교환하고 기술적으로 걸린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해결하였다.

이렇게 되자 기술신비주의, 소극성에 사로잡혔던 일부 기관기업소 지도일군들도 설비를 꾸려주는 사업에 적극 달라붙게 되었다.

결과 한달동안에 50여대의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만들어냈으며 이에 힘을 얻은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어놓았다.

지방산업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닦아지고 지방원료에 의거하여 생산을 늘일수 있도록 새로운 생산기술공정이 마련된 조건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것은 원료와 자재를 중단함이 없이 계속 보장해주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원료와 자재를 보장하는 사업에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지원을 강화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지방원료는 가지수가 많고 널리 분포되여있으므로 그것을 동원하는 사업을 지방산업일군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되며 오직 전군중적운동으로 전개하여야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인민을 위한것이며 인민대중 자신의 사업입니다.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지 않고서는 혁명에서 승리할수 없으며 결국 군중을 많이 전취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와 성과를 결정하는 근본문제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18페지)

군당위원회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 지방 원료와 예비탐구 해결방도를 찾아내기 위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원료원천을 탐구동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여 군내 모든 기관기업소들이 이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원료로 쓸수 있는것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가를 알기 위해 군내 책임일군들로 《지방원료원천조사그루빠》를 조직하여 산중부원과 농업부산물 등을 조사장악하게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지방원료를 탐구동원함에 있어서 광범한 군중의 지혜와 창발성에 적극 의거하도록 하였다.

매개 리에 나간 자원조사그루빠들은 원료원천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곳 지형에 밝은 농장원들의 도움을 받아 산발을 넘나들면서 자연부원의 품종과 수량, 그의 분포상태를 남김없이 조사장악하였다.

군당위원회는 조사장악된 지방원료원천을 동원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선행하면서 군인민위원회로 하여금 조사장악된 원료원천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기관기업소, 협동농장, 인민반 등에 원료원천을 동원하기 위한 수매지표를 주고 계획적으로 수매하게 하였다.

또한 근로단체에는 원료원천을 동원하는 사업과 기지조성에 동맹원들을 적극 조직발동하기 위한 과업을 주고 그 수행정형을 동맹생활과 밀접히 결부하여 총화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매월 《지방산업공장 지원의 날》을 정하고 군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방원료를 모아 지방산업공장들에 보내주는 운동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지방원료와 자재를 동원하기 위한 사업에 군내의 모든 기관기업소들과 주민들이 떨쳐나서도록 함으로써 원료를 지방산업공장들의 수요에 맞게 동원리용할수 있었으며 원료와 자재의 부족을 느끼지 않고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

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이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높은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경공업부문에서 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먼저 이 부문 일군들속에서 인민성, 로동계급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경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이 진심으로 인민을 위하여, 로동계급을 위하여 복무하며 근로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높은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82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지방산업공장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이 부문 일군들속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것이다.

일군들속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품종을 늘이고 그 질을 개선하여 인민생활을 높이는 사업을 옳게 추진시켜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소비품생산에서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질좋고 값싼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지방산업부문일군들속에서는 금액상 높고 하기 쉬운 제품생산에만 치중하면서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립장에서 생산을 조직하지 않으며 현존상품생산에 만족하는 현상이 발로되고있었다.

군당위원회는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조건에서 인민들이 질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요구하고있다는것을 일군들에게 깨우쳐주면서 지방산업일군들이 인민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꾸려주는 립장에 확고히 서서 생산계획을 세우고 생산을 조직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였다.

한편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속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없는 현상들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 그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교시와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지 못한것을 깊이 깨닫고 나타난 사상적편향을 극복하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교시관철에서 나타나는 사상적편향을 바로잡아주는데 그치지 않고 읍종합상점을 비롯한 모든 상점들에 지방공업제품매대를 만들어놓고 군내 지방산업공장책임일군들이 매달 하루씩 직접 자기 공장의 생산제품매대 앞에서 판매를 하면서 대중의 의견을 받는 등 매대를 통해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더잘 복무하겠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군들이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립장에 철저히 서도록 하였으며 어떻게 일하는것이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하는것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하였다. 그리하여 제품의 가지수도 늘이고 그 질도 훨씬 높일수 있었다.

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과정에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이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군중의 앞장에 서서 광범한 군중을 적극 조직발동하며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통하여 혁명가적기풍을 높일 때 지방공업발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체득하게 되였다.

우리는 지난시기 얻은 경험과 교훈을 살려 지방의 원료기지를 군의 실정에 맞게 전망적으로 조성하고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제품들을 군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욱 높일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에 적극 노력할것이다.

로동계급의 혁명화를 더욱 다그쳐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밀고나가자

렴 태 준

지금 온 나라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려는 드높은 혁명적열정으로 들끓고있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조국의 통일위업을 앞당기려는 불같은 념원을 안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근로자들의 이 힘찬 기세를 더욱 앙양시켜 나라의 통일위업을 더 빨리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석같이 묶어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함으로써만 우리는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릴수 있다.

전체 인민을 교양개조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원칙에 따라 로동계급을 혁명화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그의 령도적역할과 혁명적작용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이다.

우리는 당의 령도밑에 로동계급을 더욱 혁명화하고 그의 령도적역할을 일층 높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림으로써 우리 혁명의 정치적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힘차게 앞당겨나아가야 할것이다.

*　　　*

오늘 우리 나라 로동계급앞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혁명화하는 과정이며 전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과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47페지)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 교시는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수행의 길을 명확히 밝혀주고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의 위업을 완성한 다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신을 포함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하여야 하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앞에 나서는 이 력사적과업은 로동계급의 혁

명화를 힘있게 다그처 그의 사상성과 조직성, 문화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처 다른 계급, 계층들을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만 해결된다.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의 본질적요구와 관련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과정이며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 과정이다.

로동계급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령도계급이며 본보기, 기준으로 되는 계급이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서 로동계급의 이러한 위치와 역할은 그들속에서 혁명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것을 요구한다. 로동계급이 령도계급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고 농민과 인테리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본보기가 되여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확신성있게 이끌고나가자면 로동계급 자체가 철저히 혁명화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화는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전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그러므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의 혁명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처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과 혁명적작용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다른 계층의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것은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수행해나가는데서 로동계급의 당이 확고히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이다.

당의 령도밑에 로동계급을 먼저 혁명화하고 그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농민과 인테리를 교양개조하는 원칙을 견지할 때만이 우리는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독창적인 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화는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특성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도 혁명화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마는 로동계급이라고 하여 저절로 혁명가로 되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로동자들도 지난날 자본주의제도에서 살아왔기때문에 일정한 정도로 낡은 사상 잔재를 가지고있습니다. 더우기 우리 나라의 로동계급가운데는 어제날의 농민이 많으며 지난날의 중소상인들과 중소기업가들도 적지 않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7～58페지)

로동계급은 그 어느 계급보다도 혁명적이고 조직적이며 단결력이 강한 선진적인 계급이다. 그러나 로동계급이라고 하여 저절로 혁명가로 될수 없다. 로동계급도 지난날 자본주의사회에서 살아왔기때문에 부르죠아사상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없으며 일정한 정도로 낡은 사상잔재를 가지고있다.

특히 지난날 수적으로 그리 많지 못하였던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대렬은 해방후 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따라 짧은 기간에 급격히 늘어났으며 여기에는 혁명적으로 단련되지 못한 어제날의 농민, 소상인, 수공업자들과 새세대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러한 사정은 모든 로동자들을 더욱 단련하며 그들을 다 혁명화하여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것을 요구한다. 로동계급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완전히 뿌리빼고 우리의 모든 로동자들을 다 공산주의적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열렬한 혁명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로동계급속에서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우리앞에 나선 혁명임무는 로동계급을 혁명화하여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

화를 힘있게 다그칠것을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적십자단체들의 본회담이 열리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세는 조국통일위업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의연히 남조선을 강점하고있으며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우리 조국의 통일위업을 가로막으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 역시 미제를 등에 업고 남조선에 대한 침략의 마수를 더욱 깊이 뻗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반동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한시바삐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유일중심으로 하는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을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며 우리의 정치적력량을 더욱 강화하여야만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온갖 반동세력과 끝까지 싸워이길수 있으며 조국의 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할수 있다.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며 우리 혁명의 정치적력량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우리 사회의 핵심적력량인 로동계급의 혁명화를 더욱 다그치며 그에 기초하여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촉진하여야 한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우리 혁명의 정치적력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 조국통일의 물질적담보를 튼튼히 마련해야 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조국통일의 튼튼한 물질적담보를 마련할뿐만아니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거대한 우월성을 힘있게 발양시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더욱 촉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요인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이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주력부대인 로동계급을 먼저 혁명화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높임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끊임없이 견지해나가야 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이 령도계급으로서의 자기의 력사적임무를 다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과 문화성을 더욱 높이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과 문화성을 더욱 높여 그들을 보다 더 혁명적이고 선진적이며 문화적인 계급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들이 전사회를 개조하며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자기의 력사적임무를 더 잘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48페지)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문화성은 그가 사회의 령도계급으로서 응당 지녀야 할 고유한 풍모이다.

로동계급의 사상성은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하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수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무한한 충실성, 확고한 계급적원칙성과 견결한 혁명적립장, 자기의 력사적사명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려는 높은 헌신성과 불굴의 투쟁정신에서 표현된다. 로동계급은 이러한 높은 사상성을 소유하여야만 온갖 비로동계급적사상, 온갖 낡고 불건전한 사상잔재들과 썩어빠진 도덕을 극복하고 로동계급의 사상과 도덕으로 다른 모든 근로자들을 튼

튼히 무장시킬수 있다.

로동계급은 또한 높은 조직성과 문화성을 소유할 때만이 고도로 조직화된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성과있게 운영해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한 생산력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문화성을 끊임없이 높여 우리의 모든 로동자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참다운 혁명가로 만들어야 한다.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문화성을 높여 그들을 공산주의적혁명가로 만드는데서 기본은 로동계급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그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 공산주의적세계관 확립을 위한 근본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와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 맑스-레닌주의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정신으로 일관된 공산주의적혁명사상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할 때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적관점과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끝까지 충실할수 있으며 어떤 바람이 불어도 추호의 동요없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가로 될수 있다.

우리는 로동계급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과 교시에 대한 학습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의 모든 로동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오직 수령님의 교시를 자로 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떤 환경속에서도 일편단심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길을 따라 확고히 전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로동계급속에서 《김일성동지략전》,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자료들에 대한 학습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모든 로동자들이 공산주의적혁명가의 위대한 전형이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고결한 덕성,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체득하며 자신을 혁명가로 끊임없이 완성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을 혁명화하여 공산주의적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중심적인 과업은 직총 제5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직총 제5차대회에서 우리 나라 직맹운동과 세계직맹운동의 실천적경험을 력사적으로 총화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직업동맹을 사상교양단체로 확고히 전환시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기본임무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 력사적교시에서 직맹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고전적으로 정식화하여주시였으며 특히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공산주의교양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공산주의교양에서 힘을 넣어야 할 주요 내용과 과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공산주의교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집단주의사상에 기초한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사람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6페지)

집단주의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이다. 자기 혼자만 잘살려는 개인주의, 리기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로동계급의 사상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그러므로 로동자들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반대하고 집단주의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은 그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로동계급속에서 집단주의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로동계급의 대렬을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참다운 혁명투사들의 대오로 만들어야 한다.

혁명화된 로동계급,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공산주의적인간의 기본특징의 하나는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이며 공동재산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이다.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와 공동재산을 애호하는 정신을 키우는 문제는 물질적부의 직접적생산자인 로동자대중속에서 더욱 절박한 과업으로 나선다.

우리는 모든 로동자들이 로동하기를 즐기고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일생을 공산주의를 위하여 일하겠다는 각오를 가지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모든 로동자들이 공동재산을 극력 아끼고 사랑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직맹조직들은 로동자들속에서 480분로동시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며 자기 기대와 설비, 자재를 비롯한 사회재산을 애호하고 랑비를 반대하며 낡은것을 재생해쓰고 제품과 자재의 보관관리사업을 잘하기 위한 군중적운동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

공산주의교양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혁명적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 혁명정세의 발전은 혁명적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할것을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혁명적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그들이 어떤 환경과 정황 속에서도 로동계급적관점에 확고히 서서 모든 문제를 옳게 인식하고 판단할수 있으며 조국통일위업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힘차게 앞당겨나갈수 있다.

우리는 로동계급속에서 혁명적계급교양을 강화하여 자본주의제도의 본질과 부패성을 똑똑히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계급적원쑤들을 미워하며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로동계급속에서 우리의 주되는 투쟁대상인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더욱 높이며 그들이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은 원쑤들에 대한 증오심과 함께 사회주의전취물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서 표현된다. 우리는 로동자들에게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의 혁명적본질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똑똑히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며 우리 인민이 피땀으로 쟁취하고 이루어놓은 사회주의전취물을 끝없이 사랑하고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자들속에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그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을 좀먹는 낡은 사상이 발붙일틈을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이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살며 행동하게 함으로써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자본주의적사상잔재를 뿌리 없애고 근로자들의 혁명화를 다그칠수 있게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이 모든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직업동맹을 사상교양단체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직업동맹은 무엇보다도 먼저 로동계급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학교입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광범한 로동자, 사무원들을 묶어세운 근로단체이며 당과 로동계급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32～133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하에서 직업동맹의 성격은 사상교양단체이며 그 첫째가는 임무는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교양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있다.

직업동맹조직들을 사상교양단체로 철저히 전환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대로 직업동맹조직들의 모든 활동을 언제나 당의 지도밑에 사회주의하에서 직업동맹의 성격과 임무에 맞게 진행하는것이다.

모든 직맹일군들은 직맹건설에 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특히 그이께서 직총 제3차대회에서 주신 교시를 깊이 연구하고 그 진수와 전반사상, 수행방도, 리론실천적의의 등을 정확히 체득하며 직업동맹사업을 변천된 새 환경에 맞게 해나가야 한다.

직업동맹의 사상교양체계를 정연하게 세운데 기초하여 직맹조직들은 대중적인 문예활동과 여러가지 발표모임, 노래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힘있게 벌려 교양사업체계가 실속있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직맹원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더욱 강화하여 강한 혁명적조직성을 배양하여야 하며 생산보장을 위한 직업동맹의 모든 활동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직업동맹을 사상교양단체로 확고히 전환시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혁명화를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는것은 직맹일군들이 사무실적사업방법을 없애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늘 아래에 내려가 생산현장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 혁명적사업기풍과 사업방법을 소유하는것이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혁명화를 촉진하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언제나 사상교양사업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는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우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그 불길속에서 우리의 천리마기수들과 로동계급을 더욱 혁명화함으로써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여야 한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10월 10일전으로 앞당겨끝내며 올해안으로 6개년계획의 1973년도말생산수준을 반드시 돌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로동계급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계속 높이며 온 사회를 하나의 붉은 대가정으로 전변시킴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힘차게 앞당겨나아가야 할것이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6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담보

문 정 석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지금 전체 근로자들은 금년도생산계획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완수하며 6개년계획의 1973년말 생산수준을 올해안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 힘찬 로력투쟁을 벌리고있다.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하루속히 실현하여야 할 혁명정세와 근로대중의 비상히 앙양된 혁명적기세는 그에 맞게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행정사업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업의 하나이며 그것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는 중요한 요인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92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직접적담당자는 근로대중이며 로동력은 생산의 가장 능동적이며 결정적인 요소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탁월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해서만 건설될수 있으며 따라서 그 성과여부는 근로대중의 창조력과 재능을 어떻게 발양시키는가, 사회적로동을 어떻게 조직하며 리용하는가, 로동의 생산능률을 얼마나 높이는가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사회적로동을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그의 효과적리용을 보장하며 기술혁신운동을 다그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근로자들의 창조력과 재능을 높이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로동행정사업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중심적인 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시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로동행정사업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새로운 공장들이 끊임없이 일떠서며 새로운 생산부문들이 계속 창설됨으로써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력이 모자라는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되고 있기때문이다.

특히 미일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위정자들의 침략정책과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나가야 하는 조건에서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의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6개년계획기간에 공업부문에서는 부문내부구조를 더욱 완비하며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에서는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고 간석지개간사업을 널리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수송의 긴장성을 풀기 위한 새 철도 건설도 적극 다그쳐야 하며 인민생활을 다 같이 고르롭게 높이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실로 우리앞에는 할 일이 많으며 로력만 있으면 사회주의건설을 더 빨리, 더 잘 촉진시켜나갈수 있다.

그러나 오늘 나라의 로력사정은 로력원천이 제한되여있는 관계로 그 어느때보다도 긴장하다.

그러므로 있는 로력을 바로쓰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여 로력의 긴장성을 푸는것은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현시기 로동행정사업을 강화하는것이 3대기술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로동행정사업과 기술혁명이 서로 떼여놓을수 없는 밀접한 호상관계에 놓여있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행정사업과 기술혁명은 밀접하게 련관되여있으며 이 둘은 떼놓을래야 떼놓을수 없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487페지)

기술혁명은 적은 로력으로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이 생산하며 로동의 차이를 없애나가게 함으로써 결국 로동행정사업이 해결하여야 할 과업들을 용이하게 풀수 있게 한다.

그런데 기술혁명은 로동행정사업을 잘하는 조건하에서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그것은 기술이 사람에 의하여 발전되며 기계도 사람이 만들고 그것을 움직이는것도 사람이며 따라서 기술혁명수행의 성과여부는 그의 직접적담당자인 근로자들이 그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며 자기의 재능과 창조력을 얼마나 높이 발휘하는가에 따라 좌우되기때문이다.

천리마회천공작기계공장과 천리마구성공작기계공장, 천리마만경대공작기계공장의 실천적경험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행정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받들고 로동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고 생산조직과 로동조직을 짜고들며 그이께서 몸소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불화를 높이 추켜들고 기술혁신운동에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열성을 높이 발양시키기만 한다면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으며 결국 로력의 긴장성을 풀고 전반적6개년계획수행을 힘찬 앞당겨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 문제는 로력의 긴장성을 풀기 위해서뿐아니라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이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필수적요구로 되는 근거는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 문제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중요한 방도로 되며 바로 이 문제가 로동행정사업의 핵을 이루고있다는데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로동행정사업이 노는 중요한 역할과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조직정치사업을 세밀히 짜고들어 이 사업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야만 날로 늘어나는 로동력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풀고 6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보장할수 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행정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이며 중요하게는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 사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93페지)

사회주의하에서 로동행정사업은 단순한 행정실무적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적로동의 자각적이며 계획적이며 창조적인 성격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람과의 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에서 기본은 나라의 주인으로 된 수백만 근로대중을 수령님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일하도록 하며 사회적집단로동에 계획적으로 조직동원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 빨리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정치사업을 잘하여 대중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수백만 대중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 사업은 매우 범위가 넓고 심도가 깊으며 따라서 인내성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사람들과의 창조적사업이다. 이것은 오직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림으로써만 실현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기 위하여 무엇보다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그들속에 깊이 침투시켜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혁명전통교양과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성스러운 사회주의건설에 참가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급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일층 강화하여 계급적원쑤를 증오하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며 그를 더욱 빛내이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면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사상교양과 함께 사상투쟁을 강화하고 엄격한 로동규률과 질서를 세우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혁명적인 규률과 엄격한 사업질서는 혁명투쟁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며 계획적으로 조직진행되는 사회주의적공동로동과 현대적대규모경리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사상투쟁을 강화하면서 로동규률과 로력관리질서를 엄격히 세워 누구나 다 480분 로동시간을 지키도록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관리운영을 정규화하여 모든 일군들이 제정된 규범에 따라 성실하게 일하며 생산과정을 높은 과학기술적수준에서 관리운영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또한 로동의 세부계획화를 실현하여 정확한 로력균형을 보장하며 로력배치와 그 조절사업을 잘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획은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로력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기초이며 따라서 로동계획화사업을 잘하는것은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 기본담보입니다. 더우기 오늘과 같이 로력사정이 매우 긴장되여있는 조건에서 나라의 로력원천을 적극 동원하며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일수 있도록 로동계획화사업을 잘 짜고드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우와 같은 책, 509페지)

협동생산과 분업이 발전되고 생산의 유기적련계가 밀접해졌으며 매개 부문과 단위들에서 다양한 구체적로동을 요구하고있는 조건에서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부문간 및 지역간 로력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며 지제적소배치원칙에 따라 나라의 로력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할수 있도록 로력계획을 세부적으로 맞물려야만 있는 로력으로 생산을 더 많이, 더 빨리 장성시킬수 있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고 농촌기술혁명이 빨리 추진되고있는 오늘 공업과 농업간의 로력균형을 정확히 보장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농촌기술혁명이 진척되는데 따라 절약되는 농촌로력을 공업부문에 계획적으로 조절배치하여 공업과 농업간의 정확한 로력균형을 보장함으로써 나라의 긴장한 로력사정을 원만히 풀며 생산력을 더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에 있어서 농촌경리지

도일군들과 로동행정일군들이 특히 명심해야 할것은 농촌경리가 기계화, 화학화되여 농촌에 여유로력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로력을 필요이상 많이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는 보수주의적태도를 없애는것이다. 동시에 농촌경리에 뜨락또르, 자동차 등 농기계들이 공급되기전에 무원칙하게 로력을 뽑아냄으로써 농촌핵심진지를 약화시키고 농촌로력의 긴장성을 조성하는 무책임성과 조급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적재적소에서 능력껏 일하도록 하는것은 있는 로력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필수적조건이며 당면한 로력의 긴장성을 푸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조직적로력원천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각급 학교 졸업생들을 잘 배치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탄광, 광산을 비롯한 로동자구들에 있는 가정부인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도록 로력배치사업과 함께 생산력배치사업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가는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 그리고 날로 더욱 째여져가는 경제관리사업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관리 및 비생산 로력과 간접로력을 줄여 직접생산부문에 돌리는 사업을 계속 추진시키면서 이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보조생산부문의 로력비중을 구체적실정에 맞게 낮추고 기본생산로력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이 추진되여 힘든 로동이 헐한 로동으로 바뀌여지는 대상을 체계적으로 료해장악하고 헐한 부문에 아직 남아있는 청장년로력을 보다 힘든 부문에로 조절배치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로력의 조절배치사업에서는 사소한 기관본위주의와 지방본위주의 현상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이 사업에서는 반드시 엄격한 민주주의중앙집권적규률이 철저히 준수되여야 한다. 그리고 로력대장을 정확히 작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로력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로력조직을 생산조직과 밀접히 결부시켜 그를 부단히 개선해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로동행정사업에서 주되는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01페지)

오늘 우리앞에는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3대기술혁명의 영예로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3대기술혁명에 관한 사상은 인류해방의 위업을 완성하는 길을 명시한 탁월한 사상이며 따라서 이 3대기술혁명과업은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로동과 생활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보람찬 투쟁강령이다.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중심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우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중로동과 유해로동 및 고열로동을 없애기 위한 기계화, 반자동화를 널리 실시하는것이다.

이 분야에서는 특히 힘든 로동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채취공업부문에서 기계화수준을 높이고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며 철도운수부문과 건설장들에서는 짐을 싣고 부리는 일의 기계화를 빨리 다그치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화학공업, 야금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한 일련의 부문들에서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기 위한 기술개조를 다그쳐 모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하며 점차 원격조종에로 넘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것은 3대기술혁명의 중심과업의 하나이다.

이 과업의 성과적수행을 보장하기 위

해서는 토지정리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우리 나라 지형조건에 맞는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더 많이 창안제작하며 김매는 일을 화학적방법으로 할수 있도록 효능이 높은 살초제와 농약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3대기술혁명의 중심과업의 하나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있는 녀성들을 가정적로력부담에서 해방하는것이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해서는 주식물과 부식물을 포함한 모든 식료품을 공업적방법으로 가공하여 공급해주어야 하며 랭동기, 세탁기, 전기밥가마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부엌세간들을 많이 생산공급하도록 하는데 큰힘을 돌려야 한다.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인재를 대량적으로 양성하며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가까운 앞날에 기사, 기수, 전문가를 100만명이상으로 늘일데 대한 과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나가야 한다.

기술기능학습반과 개별기능전습체계를 통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3대기술혁명과업은 영예롭고 보람찬 혁명과업이며 이 방대한 과업을 가까운 몇해 동안에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여기에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다 동원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3대기술혁명에 관한 사상에 담겨져있는 수령님의 높은 뜻을 깊이 체득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사상적으로 동원되여야 하며 기술신비주의, 소극성, 보수주의를 짓부시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특히 지도일군들은 3대기술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세밀히 짜고들어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하나하나 실속있게 풀어나가며 매개 기술자들에게 기술발전과제에 대한 분공을 똑똑히 주고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간에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도처에서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각급 계획기관들과 로동행정기관들에서는 로력계획을 정확히 세우며 로력을 보충해줄 때에는 반드시 생산계획뿐아니라 기술발전계획과 로동생산능률제고계획 수행정형을 따져보고 기술발전계획과 종업원 1인당생산액계획을 수행하고도 로력이 더 요구될 때에만 해결해주는 엄격한 규률을 세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로력의 증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로 기술혁신을 하여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6개년계획을 수행해나감으로써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장성을 보장하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관철하며 근로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의 정치사상의식을 부단히 높이면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적생산을 더욱 발전시키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우와 같은 책, 568페지)

사회주의하에서는 생산력발전수준이 아직 수요에 따라 분배할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로동에 본질적차이가 남아있으며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정확히 분배해주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를 정확히 관철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일하지 않고 남의 덕에 살아가려는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기술기능수준의 제고를 자극하고

생산력발전을 추동할수 있으며 그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한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을 제때에 회복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데 기초하여 로임조직과 로동정량사업을 세밀히 짜고들어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특히 로동정량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분배원칙을 관철함에 있어서뿐아니라 로력을 과학적인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데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이 높아지고 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 새 기적, 새 기준이 부단히 창조되고있는 오늘 선진적이며 과학적인 로동정량을 제정하고 그 기초우에 로력계획을 세우고 로력을 배치해야 있는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또한 로동정량을 체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만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는 선진적이며 과학적인 로동정량을 제정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근로자들이 로동과 생활에서 아무러한 불편도 느낌이 없이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다내여 일할수 있도록 로동보호사업과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근로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생활을 향상시키는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칙적요구이다. 이 사업이 잘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경제관리지도일군들의 혁명적군중관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모든 지도일군들은 로동보호사업과 후방공급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 일군들속에서 혁명적군중관점을 철저히 세우며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후방사업이 하나의 정치사업이며 로동행정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가슴 깊이 명심하고 지방인민정권기관파의 련계를 강화하여 남새, 고기, 기름, 닭알, 물고기 등 부식물을 충분히 대주어야 하며 주택과 합숙, 탁아소, 유치원 등도 알뜰히 꾸리고 연료도 제때에 보장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로동행정사업부문앞에는 실로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과 로동행정일군들은 이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자신을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일군들이 로동행정사업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정확히 제때에 해결해나갈수 있다.

또한 모든 일군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로동행정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열성을 높이 발양시켜 로동행정사업전반을 개선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더욱 앙양시켜 나갈수 있다.

경제일군들과 로동행정일군들은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상응하게 자신의 정치실무적수준을 한계단 더 높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여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6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보장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가야 한다.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상의 실현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의 필수적요구

강 장 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조국통일방침은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의 앞길에는 휘황한 전망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 일본 《마이니찌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남북공동성명이 채택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된 승리적로정을 총화하심과 함께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남조선통치배들의 범죄적책동을 폭로단죄하시였으며 조성된 정세에서 통일을 결정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발기로서 더욱 폭넓고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상을 마련하며 남북련방제를 실현할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남북사이에 폭넓고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상을 실현하는것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의 민족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방도이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상을 실현하며 거족적투쟁으로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장애를 타개하고 통일위업을 강력히 추진시키기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 *

폭넓고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상을 실현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 《마이니찌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통일을 위한 근본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더욱 폭넓고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상을 실현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인 남북간의 불신임과 오해를 풀고 리해를 증진시키며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구체적방책들을 토의하여야 합니다.》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근본문제를 해결하려면 더욱 폭넓고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상을 실현하여야 한다.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상을 실현하여 남북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광범하게 의견을 나누는 것은 남북간의 리해를 증진시키고 조국통일위업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남북사이의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상을 실현할데 대한 방침은 통일문제해결의 근본원칙으로부터 흘러나오는것으로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이룩해나가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침이다.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는 바로 한강토에서 살아오던 단일민족인 우리 조선민족 내부의 문제이다. 그것은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다시 합치는 문제로서 철두철미 우리 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할 문제이다. 외세를 배격하고 조선인민자신의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할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은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인 조선사람들끼리 그 해결방도와 대책을 세울것을 필연적요구로 제기하고있다.

전면적인 접촉과 협상의 실현은 남북

간의 불신임과 오해를 풀고 민족의 단합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전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선사람들끼리 마주앉으면 서로 불신임하고 오해하고있는 점들을 제거하고 공통점을 찾으며 이에 기초하여 민족적단합을 이룩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미국 〈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한 담화》, 12페지)

남북사이의 불신임과 오해는 25년이상이나 서로 격폐되여있은데로부터 생긴것이다.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상은 남북간의 불신과 오해를 풀고 민족적단합을 도모하며 통일을 앞당기는 현실적인 길이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남북간의 제도와 사상, 리념의 차이는 민족적단합을 이룩하지 못할 절대적인 근원으로 될수 없다.

문제는 쌍방이 제도와 사상, 리념의 차이를 론하기에 앞서 진정으로 애국애족의 립장에 서며 남북의 제정당, 사회단체, 각계각층 인사들이 한데 모여앉아 진지하게 통일문제를 론의하며 통일에로 가는 길을 공동으로 헤쳐나가는데 있다.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상은 통일의 길우에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조국의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인민앞에는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며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나라의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통일을 보장하는데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불신임을 풀고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는 문제로부터 남북교류와 합작을 실현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다한 문제들이 제기되고있다. 통일도상에 나서는 이 모든 복잡한 과업들은 제한된 범위의 접촉과 협상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다.

남북의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상은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해나아가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이고도 절박한 요구로 된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한 조국의 통일은 남북사이에 폭넓고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상이 이루어져야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자주적평화통일문제해결에서 초석으로 되고있는 자주성원칙의 실현은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는 조건에서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상을 통하여 불신과 오해를 가시고 단합된 민족주체적력량을 마련하여야만 가능하며 평화통일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접촉과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또한 현시대 발전의 요구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오늘 우리 시대는 민족적독립과 통일에로 지향하는 인민들의 거세찬 투쟁의 시대이며 매개 민족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해결해나가는 시대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 민족문제는 오직 외세를 결정적으로 배격하며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함으로써만 해결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 《마이니찌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남북사이의 광범한 접촉과 교류를 실현하며 평화적조국통일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당면대책으로서 남북련방제를 실시할데 대한 방안을 다시금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평화적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당면하게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가 주장하는 남북련방제는 남북의 현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여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민족적단합을 이룩하자는것이다.

남북련방제를 실시할데 대한 이 방침은 나라의 북과 남에 판이한 두 사회제도가 있고 분렬이 지속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정에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며 우리 인민자신의 손으로 나라의 통일을 앞당길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과도적대책이다.

남북련방제가 실시되면 남북사이에 광범한 접촉과 경제, 문화 교류가 더욱 원만히 실현될것이며 민족적단합이 쉽게 이루어질것이다.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상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해온 구국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가시고 접촉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미국 〈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한 담화》, 16페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조국이 분렬된 첫 시기부터 나라의 통일을 우리 인민자신의 손으로 이룩할데 대한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주요방도로서 남북의 접촉과 협상문제를 제기하시였다.

수령님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1948년 4월에 소집된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는 남북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이 단합된 힘으로 민족분렬의 위기를 타개하고 공동의 구국대책을 세우기 위한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4월련석회의를 통하여 통일문제를 조선사람들끼리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다는 첫 실천적경험이 마련되였다.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이 더욱 엄중한 단계에 이르러 정세가 매우 긴장하였던 1950년 6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 괴뢰《국회》를 단일한 전조선립법기관으로 련합하여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방안을 제기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에도 우리 당 제3차대회와 공화국창건 열돐기념경축대회를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남북사이의 자유로운 경제문화교류와 인사래왕을 실현할데 대한 제의 등을 련이어 내놓으시였다.

우리 당과 정부는 남조선의 현위정자들이 《집권》한 이후시기에도 협상과 제반교류를 실현하며 남북련방제를 통하여 조국통일의 위업을 촉진하려는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왔다. 우리 당 제4차대회와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 제11차 회의들을 비롯한 중요한 회의들에서 천명된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구국방안들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특히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1971년 8월 6일연설에서 최근년간 빨리 변화발전하는 국내외정세를 우리 혁명발전에 유리하게 전변시켜 평화적조국통일위업을 결정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이 유명한 연설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온 계기로 되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8월 6일연설을 비롯한 여러차례의 담화와 연설들에서 련이어 제시하신 탁월한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획기적전진을 이룩하였으며 마침내 남북고위급회담을 마련하고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까지 이르게 되였다.

참으로 지나온 27년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매 시기 가장 옳바른 조국통일방안들을 내놓으시고 우리 인민을 이끄시여 오늘의 새로운 국면을 마련하시는 승리적로정이였다.

* *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상을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옳게 관철하는것은 이미 열린 돌파구를 넓히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숭고한 혁명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자면 남북조선의 여러 정당들사이에 조국통일에 관한 정견들을 교환하고 평화통일의 합리적인 방도들을 모색하기 위한 쌍무적인 또는 다무적인 협상들을 활발히 진행하여야 할것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30~31페지)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남북협상과 대화의 폭을 더욱 넓히는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 남북공동성명이 채택되고 남북적십자회담이 진행되게 됨으로써 남북간에 더욱 폭넓은 접촉과 협상의 길을 열며 조국통일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수 있는 기초가 이미 마련되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온 민족의 기대속에서 진행되고있는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회담을 하루빨리 성사시킴과 함께 남북조절위원회를 시급히 구성운영하여 공동성명의 사항들을 추진시키며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나 나라의 통일문제는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와 같은 제한된 범위의 접촉과 협상만으로는 원만히 해결될수 없다. 통일을 실현하는데는 남북적십자회담이나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으로는 풀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

우리는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들의 련석회의나 남북당국자들의 회의 또는 우리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남조선 《국회의원》들의 련합회의 같은 정치협상을 시급히 가질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우리 나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은 이미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련석회의를 시급히 열것을 제기하는 련합성명을 발표하였다.

련합성명에서 천명된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들의 협상을 놓고 말하면 그것은 남북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의 거족적인 힘을 동원하여 통일위업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일념에서 출발한 주동적인 조치이다. 그것은 또한 남조선에서 온갖 파쑈악법들을 철폐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민족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통일위업을 앞당길수 있게 하는 가장 애국적이며 합리적인 발기이다.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은 남북간의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상을 실현하며 남북련방제를 실시할데 대한 우리의 주동적발기에 적극 호응해나서며 그 실현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남북사이에 폭넓고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상이 이루어지자면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기초하여 남조선에서 그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보장되여야 한다.

그러나 요즘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사태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남조선통치배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도 돌아앉아서는 량면전술을 쓰고있으며 공동성명에 지적된 합의사항들을 하나하나 뒤집어엎는것과 같은 범죄적책동들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조국통일의 근본문제해결에서뿐만아니라 당면하게 남북간의 폭넓은 접촉과 대화의 길을 마련하는데 엄중한 장애로 되고있다.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공동성명에 명시된 통일의 근본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통치배들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원칙에 동의해놓고도 《유엔은 외세가 아니》라느니, 미군이 남조선에 더 오래 남아있어야 한다느니, 조선의 통일은 《유엔감시하의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늘어놓고있다.

남조선반동통치배들은 입으로는 《대화》요, 《평화통일》이요 하고 떠들지만 실지로는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방해하고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며 외세에 의거하여 《승공통일》의 망상을 이루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적십자단체들의 본회담이 진행됨에 따라 인민들속에서 조국통일기운이 전례없이 높아지는데 당황한 남조선반동들은 남북대립을 고취하며 남북간의 접촉과 대화에 그 어떤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미쳐날뛰고있다. 그들은 어용선전수단을 동원하여 《이번에 공산주의자들과 대화가 어렵다는것을 실제로 체험했다》느니, 《환상적인 기대의식을 버리》라느니 하면서 《대화있는 대결》을 위한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고 떠들고있다.

도대체 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하려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진자라면 그렇게 행동할수는 없다. 이것은 문제해결을 전진시키려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지향을 꺾고 통일의 길을 가로막아보려는 교활한 술책이다.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짓밟으면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반대하는 남조선반동들의 교활한 정체는 남북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그 어떤 순수 《인도주의》문제에 국한시키면서 통일의 《단계론》을 떠벌이는데서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그들은 모든 일에는 무슨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다느니, 《통일은 먼 앞날에 있다》느니 하면서 조국통일문제를 외면해나서고있다.

누구에게나 명백한바와 같이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론의되는 문제는 다른 나라들사이에서 제기된 그런 인도주의적문제가 아니라 외세에 의한 조국의 분렬로 말미암아 흩어진 가족들과 겨레들에 대한 처리문제로서 나라의 통일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반동들은 우리의 정당한 립장과 성의있는 노력에 대하여 사물의 단계를 뛰여넘는 《부조리한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마치도 현단계에서 통일문제를 론의하는것이 《금물》인듯이 주장해나서고있다.

그들이 이런 황당한 《단계론》을 들고 나오는데는 그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적십자회담을 파탄시키며 조국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음흉한 목적이 숨어있다.

남조선통치집단은 또한 평화적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원칙을 란폭하게 짓밟고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기 위한 도발소동을 일삼고있다. 박정희통치집단은 우리 당과 정부가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거듭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을수 없다》느니, 《남북이 서로 대화를 시작하였다고 해서 국방의 필요성이 경감된것이 절대로 아니》라느니, 《모두다 총을 들고 일어나》야 한다느니 하는 폭언을 줴치고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과 대결하기 위하여 《총력안보》를 강화하며 《국력배양》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군사시설물구축공사를 대대적으로 벌리는 한편 륙해공군무력과 《향토예비군》을 동원하여 《도하작전》이요, 《상륙작전》이요, 《기동훈련》이요 하는 전쟁연습소동을 매일같이 벌리고있다.

제반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남조선통치배들이 겉으로는 《인도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전쟁도발소동을 벌리는 량면전술에 매달리고있다. 이것은 공동성명에 대한 로골적인 배신행위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전체 인민들에 대한 도전행위이다.

대결과 싸움의 분위기를 조장시키고있는 남조선통치배들의 도발행동들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지 않을수 없다.

남조선의 파쑈통치배들은 인민들의 지향을 가로막고 매국배족적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결코 좋은 결과가 차례질수 없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남조선의 파쑈통치배들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할데 대한 원칙도 란폭하게

위반하고있다. 그들은 북에 무슨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 《동질화》시키겠다는 소동을 일으키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남북간의 차이만을 내세우면서 민족적대단결과 통일위업을 파탄시키며 공화국북반부에 저들의 반인민적통치제도를 강요해보려는 어리석은 망상을 버려야 하며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과 배치되는 언행들을 그만두어야 한다.

남북사이의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상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필수적공정이다. 문제는 남조선당국이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리행하려는 원칙적립장에 서는가 안서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이와 함께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사들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한다.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여야 대화의 폭을 넓힐수 있고 나라의 통일을 원하는 모든 력량이 한데 뭉칠수 있다.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의사가 존중시되고 그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가 보장되여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의 파쑈통치집단은 남북공동성명이 나온 이후에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휘둘러대면서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강화하고있다. 그들은 야당들의 활동을 구속하고있으며 정치단체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남북의 접촉과 교류, 조국통일을 주장해나선 수많은 사람들을 《반공법》에 걸어 검거투옥하고있다. 심지어 그들은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의로운투쟁을 벌려온 애국자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범죄적행동까지 감행하였다. 이것은 초보적인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며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다.

지금 남조선반동들은 미제의 조종밑에 특정인의 접촉과 협상은 《통치권의 행사》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접촉》은 《법》에 위반된다고 떠벌이면서 남조선에서 파쑈통치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권리를 란폭하게 짓밟고있다.

남조선에서와 같이 남북사이의 협상과 교류를 위하여 공화국북반부로 래왕하려는 야당들과 사회계인사들의 요구가 무시되고 인민대중의 자유로운 통일론의가 억눌리며 애국자들에 대한 처형이 감행되는 조건에서는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상이 실현될수 없으며 나라의 평화통일위업도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없다.

박정희통치집단은 남북공동성명의 모든 합의사항을 성실히 리행할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약속한만큼 남북의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상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비상사태》와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을 철회하고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남조선위정자들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과 인내성을 오산하지 말아야 하며 자기들의 매국배족적책동으로 초래될 후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분별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지금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인테리를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통일론의의 자유를 보장하며 협상과 대화의 길을 넓힐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온 세계 진보적인민들도 조선문제가 조속히 공정하게 해결될것을 바라면서 남북공동성명과 그에 기초한 남북협상에 대하여 한결같은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고있다.

이것은 막을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다. 미일침략자들과 함께 남조선반동들이 제아무리 남북협상과 대화의 길을 가로막고 통일위업을 방해하려고 날뛰여도 그것은 부질없는것이며 민족의 절절한 념원과 근본리익을 담은 거세찬 흐름앞에서 반드시 밀려나고야말것이다.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은 반드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고야말것이다.

일본군국주의는 조선인민의 피맺힌 원쑤

김 중 식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생겨난 첫날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워온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이다.

근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력사에서 조선에 대한 침략과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범죄적만행은 가장 강도적이고 가장 류혈적이며 가장 야만적인것이였다.

이른바 《명치유신》을 거쳐 자본주의 발전의 길에 들어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제국주의의 고유한 강도적침략성과 더불어 사무라이적호전성 그리고 중세기적포악성으로 조선에 대한 침략과 략탈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제의 지원과 비호 밑에 1875년에 《운양호》사건을 도발하고 그 이듬해에 《강화도조약》을 강요하여 조선에 대한 침략의 첫발을 내디딘 일제는 1894년 조선에 있는 일본거류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우리 나라에 기어들었다. 그리고 1905년에는 친일매국역적들을 사촉하여 예속적인 《을사보호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사실상 제놈들의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조선의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위협과 공갈, 사기와 협잡의 방법으로 침략적《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 일제는 그것을 계기로 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그 권리를 완전히 가로챘다.

1910년 강도 일제는 조선봉건정부의 매국역적들을 매수하여 《한일합병조약》을 강압체결함으로써 형식상으로나마 남아있던 《독립》과 《자주권》마저 완전히 짓밟고 조선에 대한 제놈들의 식민지적강점을 합법화하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는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였으며 우리 인민에 대한 놈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은 더욱 포악무도한것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근 반세기에 걸쳐 우리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모든것을 짓밟고 략탈하여간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90페지)

침략적인 《한일합병조약》을 계기로 조선을 완전히 강점한 일제는 우리 나라를 제놈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우리 인민을 제놈들의 영원한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식민지통치방법을 적용하였다.

실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강점하고 36년간에 걸쳐 우리 인민앞에 저지른 범죄행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씻을수 없는 제국주의의 침략력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것으로 남아있을것이며 그것은 대를 두고 우리 인민의 저주와 규탄을 받을것이다.

* *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가장 야만적인 군사파쑈적총독통치를 실시하면서 총칼로 우리 인민을 억누르고 우리 나라의 풍요한 자원을 마음대로 략탈하여갔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모든 정치적권력을 틀어쥐고 각종 파쑈악법을 꾸며내는 한편 군대, 경찰, 헌병 등 폭압기구들을 대대적으로 늘여 우리 인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모조리 빼앗았다.

일제놈들이 무력으로 조선을 강점하고 헌병, 경찰에 의하여 실시한 《무단통치》는 그 포악성과 야만성에 있어서 실로 제국주의식민지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일제는 강점초기에 벌써 2개사단이상의 병력을 조선에 상시적으로 주둔시키고 2,000여개소의 경찰, 헌병 기관과 수십개소의 감옥을 설치하였다. 당시 일본총독 데라우찌란놈은 《조선사람은 일본법에 복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강도적인 론리로써 우리의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의 방방곡곡은 애국적 인민들의 피로 물들었으며 우리 나라는 일제날강도들의 살륙과 략탈 만행이 횡행하는 암흑의 천지로 변해갔다.

우리 나라의 모든 진보적인것은 일제의 탄압의 대상으로 되였으며 수많은 무고한 인민들이 죄없이 마구 체포투옥되였다.

일제의 헌병과 경찰에 의한 검거만행은 해마다 늘어나 1912년에는 그것이 5만 2,000여건이였다면 1918년에는 14만 2,000여건으로 증가되였다.

일제의 탄압과 학살 만행으로 인하여 일제강점초기에 벌써 조선의 도처에는 《무인촌》, 《무기촌》이 수많이 생겨났고 3천리강토는 우리 인민의 원한과 분노로 몸부림쳤다.

1919년 3.1인민봉기는 일제의 식민지적폭압통치밑에서 우리 인민의 쌓이고맺힌 울분의 폭발이었다. 전조선을 휩쓴 이 거족적인 반일투쟁에 당황한 일제는 조선에 늘여놓은 폭압수단을 다 동원하였을뿐아니라 일본본토의 무력까지 끌어들여 애국적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류혈적으로 탄압하였다.

놈들이 줄여서 발표한 수자에 의하더라도 이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3개월동안에만도 전국적으로 7,509명의 애국자들을 학살하였으며 1만 5,961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4만 6,948명을 검거투옥하였다.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폭압통치는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더 악랄성과 교활성을 띠고 감행되였다.

3.1봉기이후 일제는 형식상 《무단통치》를 페지하고 허울좋은 《문화정치》를 실시하는 기만극을 벌려놓고 조선인민에 대한 식민지노예화정책을 더욱 악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감행하였다.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이 점차 공산주의운동에로 발전되고 로동자, 농민들의 혁명적진출이 강화되자 일제는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을 그리고 1929년에는 《신치안유지법》을 조작하여 우리 인민을 더욱 혹독하게 탄압하였다.

1924년부터 1929년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애국적인민들이 검거된 건수는 놈들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무려 87만 5,522건에 달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체포된 애국자들은 실로 수백만명에 달하였다.

일제의 이와 같은 포악무도한 파쑈폭압통치로 인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적 권리와 자유는 무참히 짓밟히고 우리 인민은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 속에서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과 그에 고무되여 일떠선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반대하기 위한 일제침략자들의 책동은 더욱 악랄하였다.

놈들은 수십만명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작전을 미친듯이 벌리는 한편 유격근거지내 인민들과 국경일대의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다. 놈들은 《조선사람 백명을 죽이면 그중에는 적어도 1명의 공산당원이 아니면 공청원이 있을것이다. 조금도 사정없이 조선사람을 잡아죽이라.…》는 살인적인 구호를 웨치면서 야수적인 살인만행에 미쳐날뛰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1932년 한해동안 연길현에서만도 1만여명의 애국적인민들을 학살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제는 조선국내에서도 《사상범》이라는 딱지를 붙여 1934년에 6만 6,000여명의 애국적인민들을 검거투옥했고 1938년에는 16만 5,300여명의 애국적인민들을 검거투옥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조선에서 일제의 파쑈폭압통치는 1930년대 후반기 놈들이 대륙침략을 개시하면서 더욱 악랄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그것은 태평양전쟁시기에 절정에 달하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를 대륙침략을 위한 공고한 《후방》으로,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미쳐날뛰였다. 놈들은 1938년에 이른바 《국가총동원법》시행을 공포하고 우리 나라의 모든 인적 및 물적자원을 저들의 침략전쟁수행에 깡그리 끌어내려고 미쳐날뛰였다.

놈들은 이 악법에 의하여 《로무징용령》을 만들고 조선청장년들을 《징용》, 《보국대》라는 이름밑에 탄광, 공장, 광산에 강제로 끌어다 무보수의 강제로동을 시켰으며 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근로봉사》라는 명목밑에 고역장에 끌어다 혹사하는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당시 놈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백만명이상의 조선청장년들이 《징용》에 끌려가 혹가이도, 큐슈를 비롯한 일본각지의 탄광, 광산, 군수공장과 군사시설장 등 가장 어려운 부문에서 혹사당하였으며 해빛도 보지 못하면서 고역에 시달리다가 무참히 생매장당하였다.

특히 태평양전쟁시기에 일제는 《전시동원》이라는 구실을 걸고 조선청장년들을 태평양의 이름없는 섬에까지 끌어갔으며 《학도병제》, 《의무병제》, 《국민의용군제》 등을 조작하여 조선청년들을 제놈들의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마구 내몰았다. 초보적으로 종합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일제놈들이 《징용》, 《보국대》, 《징병》의 명목으로 조선청장년들을 끌어간수는 무려 6백만명이상에 달하였다.

이렇듯 조선에서의 일제의 군사파쑈적폭압통치는 일찌기 력사에서 그 류례가 드문 가장 포악하고 잔인하며 가장 강도적이고 야수적인것이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강점전기간에 걸쳐 총칼로써 우리 인민을 야수적으로 억누르는 한편 우리 나라의 풍만한 자원과 값싼 로동력을 마음대로 략탈하고 착취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일본놈들은 조선에 와서 자기 자본을 투하하여 조선인민의 피땀으로써 공장과 철도를 건설하고 우리 나라의 귀중한 자원들을 무제한으로 략탈하였으며 우리 조국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인민을 야수적으로 억압착취하였습니다.》(《우리의 혁명과 인민군대의 과업에 대하여》, 41페지)

일제는 조선을 제놈들의 자본투하지, 원료공급지로 만들고 우리 나라의 자원을 마음대로 략탈해갔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피땀을 짜내여 배를 불리였다.

놈들은 강점초기에 벌써 이른바 《회사령》을 공포하고 조선의 산업을 독점하였으며 1915년에는 《조선광업령》을, 1911년에는 《어업령》을 꾸며내여 우리 나라의 지하자원과 수산자원을 모조리 제놈들의 손아귀에 거머쥐였다.

일제의 이와 같은 악랄한 식민지략탈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민족자본의 발전의 길은 완전히 막혀버렸으며 나라의 풍만한 자원은 놈들에게 여지없이 략탈당하였다.

특히 일제놈들은 대륙침략을 확대하면서 증대되는 군수품과 전략물자의 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북선개척》이요, 《지하자원개발》이요 하면서 전쟁물자의 략탈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일제가 축소하여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놈들이 조선에서 실어간 금은 360여톤이라는 막대한 량에 달하며 1934~1944년에만도 1,800만톤이상의 철광석, 20여만톤의 아연, 68만톤의 마그네사이트를 비롯한 여러가지 귀중한 광물들을 략탈해갔다.

조선의 로동계급과 농민들에 대한 일제의 착취와 략탈은 더욱 혹독하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 농촌에서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지주를 제놈들의 식민지통치의 앞잡이로 내세워 착취와 략탈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농촌은 력사상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참혹한 기근지대로 변해갔으며 농민들은 무서운 기아와 빈궁 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일제는 《토지조사령》을 공포하고 《동양척식회사》를 비롯한 제놈들의 토지회사들을 통하여 1910~1918년 기간에만도 약 100만정보의 옥토를 강제로 빼앗아냈으며 해마다 근 1천만석에 달하는 식량을 략탈하여갔다.

놈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선강점기간에 1억 6천만석의 쌀(여기에 잡곡까지 합하면 2억 6천만석)을 략탈하여갔으며 1911~1942년기간에 약 10억근의 목화와 170여만두의 소를 빼앗아갔다.

일제의 야만적인 농촌수탈정책으로 하여 우리의 수많은 농민들이 조상전래의 농토에서 쫓겨나 이역땅에서 류랑걸식하게 되였으며 극도의 기아선상에서 헤매게 되였다.

일제강점직후인 1914년에만 하여도 조선농민의 60%이상이 제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면 1937년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18%이하로 줄어들었고 땅을 잃은 소작농, 고농은 70%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리하여 1932~1942년의 10년사이에만도 농토에서 쫓겨나 류랑걸식하다가 굶어죽고 얼어죽은 사람은 무려 7만 1,300여명에 달하였다.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조선로동계급의 처지는 더욱 비참하였다. 조선의 로동자들은 일제의 탐욕적인 략탈정책에 의하여 비인간적인 노예로동과 기아생활을 강요당하였다. 놈들은 우리 로동자들의 피땀을 더 많이 짜내기 위하여 하루에 12~18시간의 긴 로동시간과 살인적인 로동강도를 강요하였으며 식민지초과리윤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하여 소년로동과 부녀로동을 대량적으로 채용하였다.

이와 함께 일제는 조선인로동자들에게 참을수 없는 민족적차별대우를 실시하면서 그들을 혹독하게 착취하였다. 놈들은 같은 일을 시키면서도 조선인로동자들에게는 일본인 로동자들이 받는 것의 절반도 못되는 적은 임금을 주고는 그것마저 《국방헌금》, 《공채》, 《벌금》 등의 명목으로 빼앗아내였다.

특히 놈들은 중일전쟁이 개시된 이후에는 조선로동자들을 군사시설장에 끌어다가 몇푼 안되는 기아임금마저 제대로 주지 않고 노예로동을 강요하였으며 나중에는 《비밀》을 보장한다는 구실로 그들을 참혹하게 학살하였다.

또한 놈들은 여러가지 명목으로 150만명이상에 달하는 조선로동자들을 일본으로 끌어다가 채찍으로 혹사하였다.

이처럼 조선의 로동자들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초과리윤의 희생물로 되였으며 무서운 고통과 참을수 없는 빈궁 속에서 시달리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식민지적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인민을 제놈들에게 《순종》하는 식민지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악랄한 책동을 다 감행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여러분도 잘 아는바와 같이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얼마나 악독한 정치를 하였습니까? 놈들은 조선인민을 억누를대로 억누르고 조선인민의 모든것을 빼앗을대로 빼앗았으며 우리 나라의 력사와 우리 문화와 우리 말을 없애버리려 하였고 나중에는 우리 조상들을 모독하여 조선사람들의 성까지 갈게 하였던것입니다. 그리고 놈들은 조선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길을 가로막았으며 과학과 기술을 배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146페지)

일제는 조선인민의 민족적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말살하며 우리 인민에게 무지와 몽매를 강요하기 위하여 《우민화》정책과 《황민화》정책에 매달리였다.

이러한 흉악한 목적밑에 일제는 우선 강점초기에 근 3천여개에 달했던 사립학교를 페쇄해버렸으며 우리 글로 출판되던 신문, 잡지들의 대부분을 페간시켜버렸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외곡말살하고 《황국신민》의 《무사도》를 대대적으로 전파하면서 민족적인 모든것을 없애버리려고 하였다. 심지어 놈들은 조선이 다시 소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말과 글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왜놈의 말과 왜놈의 글을 쓸것을 강요해나섰다.

일제경찰놈들은 조선로인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왜말로 외우지 못하면 《비국민》이라고 하면서 함부로 구타하였으며 조선말을 했다는 《죄》로 나어린 소년들을 엄벌에 처하는 횡포무도한 파쑈적만행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한편 놈들은 《내선일체》, 《동조동근》을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우리 인민을 《동화》시켜보려고 꾀하였다.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사람이 성명까지도 쓰지 못하게 하면서 《소일랑》이요, 《말삼랑》이요 하는 따위의 왜식 창씨개명까지 강요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놈들은 우리 민족을 말살하고 우리 나라를 지도우에서 영영 없애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제의 이러한 민족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은 놈들에게 여지없이 짓밟히고 조상전래의 고귀한 문화적재부들은 모조리 파괴략탈당하였다.

실로 36년간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로 이름높던 우리 조국은 빛을 잃었으며 조선의 전지역은 무서운 인간생지옥으로 되었다.

이 모든 사실은 일제야말로 조선을 강점하고 천추에 용서못할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준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쑤이라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조선에서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야수적인 살인만행과 강도적략탈의 전 과정은 결국 놈들이 자멸에로 나아가는 과정이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다. 피압박인민들이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불가피하다. 제국주의가 폭력으로써 약소민족들을 략탈하고 압박하는 이상 피압박민족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침략자들에 항거하여 투쟁하는것은 빼앗을수 없는 그들의 권리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21페지)

일제의 조선강점과 조선에서의 놈들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 일제와 조선인민간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은 날로 첨예화되여갔다.

우리 인민은 결코 일제의 강도적인 식민지노예화정책을 순순히 감수하려 하지 않았으며 강점초기부터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적반일투쟁을 힘차게 벌려 놈들의 식민지통치에 련속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무장투쟁의 길에 나서심으로써 새로운 단계에 이르게 되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폭압이 절정에 이르고 우리 인민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놓인 준엄한 시기에 몸소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령도하시여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15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무장투쟁을 벌리심으로써 일제의 100만대군을 물리치시고 마침내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을 이룩하시였다. 그리하여 그처럼 기승을 부리며 침략과 략탈에 미쳐날뛰던 일제는 우리 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결국 수치스러운 패망을 당하고말았던것이다.

일본제국주의의 패망의 력사는 제국주의자들의 다른 나라에 대한 무모한 침략과 략탈 정책이 결코 놈들의 강대성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며 침략과 략탈을 일삼는 제국주의자들은 구경에 가서는 패배와 파산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　　*

자난날 조선을 비롯한 아세아나라들

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일삼다가 패망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 또다시 되살아나 해외침략의 길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미제를 등에 업고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공공연히 뻗치고있으며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의 옛망상을 실현하여보려고 분별없이 미쳐날뛰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무엇보다 조선을 또다시 침략하여 옛식민지지배자의 지위를 되찾으며 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다시금 아세아대륙에로 침략을 확대하려는 흉악한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으면서 남조선에 깊이 기여들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이미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부문에 걸쳐 침략의 발판을 튼튼히 닦아놓았으며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새로운 침략야욕으로 말미암아 지난날 놈들이 우리 인민앞에 저지른 죄악의 력사가 또다시 되풀이될수 있는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과 우리 인민에 대한 적대시정책으로 우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앞길에는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고있으며 아세아의 평화는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결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의 노예로 될수 없으며 1910년의 수치스러운 망국의 력사를 되풀이할수 없습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불문하고 조국수호와 자주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꺾어버리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신년사》, 1972년 1월 1일, 22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와 결탁하여 또다시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려고 무모하게 책동하고있으나 이것은 허황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무력으로 조선을 강점하고 주인행세를 하면서 활개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오늘 시대는 달라졌으며 정세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여가고있다.

지금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에 기초하여 외세를 배격하고 온 겨레의 힘을 합쳐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우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조선인민은 우리 인민에게 또다시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하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범죄적행위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행동해야 한다.

만약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조선에 대한 제놈들의 침략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무모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멸을 초래하는것으로 될것이다.

근로자 제10호(루계 366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2년 10월 1일 발 행 • 1972년 10월 5일

ㄱ—24235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1 호

평 양 근 로 자 1972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1 호(367)

차 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 하신 담화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2년 10월 6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일본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 야스에 료스께를 만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와 담화하시고 그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담화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당신이 우리 나라를 방문해준데 대하여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네 사장께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돌아가시면 그에게 인사를 전해주기 바랍니다.

당신이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주체사상이 언제 창시되였으며 언제 확립되였는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이니찌신붕》 기자들에게 이야기한것처럼 당신에게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주체사상의 력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력사 그자체라고 말하여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였는데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된것은 인민이 주권을 잡은 이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나라에서 주체사상을 각 방면에 걸쳐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진행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나오게 된 근원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장기간의 혁명투쟁을 하는 과정에 주체사상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주체사상을 가지게 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 부닥친 두가지 문제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내가 성장하는 기간 특히 학생시절에 보고 느낀데서 가장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 두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조선민족해방운동을 한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대중을 떠나서 상층부의 몇몇 사람끼리 모여앉아 말공부만 하고 싸움질만 하며 실지 혁명운동에 대중을 불러일으키지 않고있었던 사실입니다. 전체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야만 혁명운동이 성공하겠는데 그 사람들은 대중과 리탈되여 자기들끼리 모여앉아 권력싸움만 하였으며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리론》싸움만 하였습니다. 그 《리론》이라는것은 혁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리론인것이 아니라 혁명사

업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궤변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처럼 밤낮 마주 앉아서 론쟁만 하고 대중운동을 전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혁명을 성공시킬수 있겠는가고 생각하게 되였으며 그런 현상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혁명투쟁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 일떠서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층부의 몇몇 사람들이 인민대중과 리탈되여 헛소리만 치고있으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대중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각성시킴으로써 대중자신이 주인이 되여 혁명투쟁을 하도록 해야지 상층부의 몇사람이 모여앉아서 말공부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될수 없는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주체에 대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은 인민대중자신에게 있다는데 대하여 강조하게 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부닥치게 된 또 하나의 문제는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신비성에서 나온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권력쟁탈전에서 나온것인지 또는 사대주의에서 나온것인지 당시 조선공산주의운동안에 파벌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우리 나라에는 엠엘파, 화요파, 북풍회파를 비롯하여 파벌들이 많았습니다. 이 파벌들은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려고 저마다 국제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자기자신이 공산주의운동을 잘하면 자연히 인정받겠는데 그들은 혁명운동은 하지 않고 3인1당, 5인1파식으로 제가끔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국제당에 승인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들만이 정통파이며 진짜맑스주의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조선공산당은 1928년에 국제공산당에서 제명되었으며 구경은 당이 해산되고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선민족의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혁명운동을 잘하면 구태여 남에게 승인받으러 가지 않아도 자연히 인정받을것이 아닙니까. 남이 꼭 승인을 해야만 공산당이겠습니까. 그 누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혁명운동을 할 필요는 없는것입니다. 자기가 혁명운동을 하고싶으면 하는것입니다. 자기가 똑바로 하기만 한다면 누가 승인하든 안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혁명을 잘하기만 하면 남들이 자연히 인정하겠는데 무엇때문에 남에게 승인을 받으러 다니면서 야단을 치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조선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내에서 파벌투쟁이 심하고 또 상층부의 사람들이 인민대중과 리탈되여있었던 이 두가지 현상을 보고 혁명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자극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것, 또 자기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여야 하며 자기자신이 투쟁을 잘하면 남에게서 승인을 받고 안받는것이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였습니다.

우에서 말한 두가지 측면이 나의 혁명사상발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며 따라서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야 한다는것, 누가 승인을 하든말든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추진시켜나간다면 다른 나라들로부터 자연히 동정도 받고 인정도 받고 도움도 받을수 있다는것을 강조하게 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체사상의 출발점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전번에 《마이니찌신붕》 기자들에게 말한바와 같이 우리는 장기간에 걸쳐 혁명

투쟁을 하는 과정에 인민대중의 힘이 모든 문제해결의 기본이라는 확신을 굳게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는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혁명은 인민대중이 자기자신을 해방하는 투쟁인것만큼 인민대중자체가 단결하여 일어나야 한다는데로부터 출발하여 혁명투쟁을 벌렸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대중의 각오정도에 따라 모든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는것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1936년에 조국광복회를 조직하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내놓았습니다. 10대강령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때 전민족이 통일단결하여야 하며 전체 인민대중이 단결하여야 한다는 대중적단결을 위한 강령을 내놓았으며 제국주의자들과 민족반역자들을 반대하는 반제반봉건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강령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당한 구호였습니다. 우리는 해방후에도 역시 이 로선에 근거하여 일련의 정책들을 실시하여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대중을 혁명운동과 조국건설에 참가시키겠는가 하는것을 기본문제로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후 초기에 공산당과 공청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로동계급이 많지 않았으며 있다고 하여도 그들가운데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공산당이나 공산주의청년동맹이라는 구호를 들고나간다면 대중과 청년들을 여러 파로 분렬시킬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공산당을 조직하였다가 정세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것은 당시 군중의 각오정도에 맞지 않기때문에 인차 공산당을 로동당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산주의청년동맹을 주동적으로 개편하여 각계각층 청년들을 망라하는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하였습니다.

혁명운동과 조국건설은 몇몇 공산주의자들의 힘만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청년들과 많은 진보적인사들이 참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애한 립장을 버리고 현실의 요구에 맞게 조직들을 개편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한 이후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것을 더욱 중요하게 내세웠습니다.

우리 나라의 사정은 다른 나라들의 사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차대전직후 아세아에서 인민이 정권을 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아직 혁명투쟁을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또 구라파나라들과 대비하면 우리 나라 형편은 그 나라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동방사람으로서의 특성, 조선민족으로서의 특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라파의것을 기계적으로 따를수 없었습니다. 물론 구라파나라들의 경험을 일정하게 참고로 하기 위하여 그것을 학습할 필요는 있지만 기계적으로 따를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봉건통치배들의 부패한 정책이 오래동안 계속되고 그후에는 36년동안 식민지로 있었던 락후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나라가 락후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조선의 현실에 맞는 로선과 정책을 실시하여야만 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창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객관적인 현실이 그렇게 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시말하여 현실은 우리에게 자주성과 창조성을 발휘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우리 나라의 형편과 우리 인민의 요구에 맞게 모든 정책을 실시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습니다.

당신의 질문가운데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큰 애로로 되였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흥미있는 문제입니다. 내 생각에는 여기에도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체사상을 확립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모든 문제를 결정하기때문입니다. 사회를 개조하고 자연을 개조하는 투쟁에서 성과여부는 결국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습니다.

사람과의 사업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당사업도 사람과의 사업이며 대중단체들의 사업도 역시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경제사업도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잘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교양하고 그들에게 인내성있게 해설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대신에 왕왕 이 사업을 행정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제일 큰 곤난이였습니다.

사람과의 사업을 행정적방법으로 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행정적사업방법이란 관료주의적사업방법입니다. 혁명을 행정식방법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당내에서 계속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지만 아직도 어떤데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명령서나 결정서를 내려보내고 회의나 하는것으로 대치해버리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하여야 할 주요한 문제의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을 확립하려면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적방법으로는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할수 없습니다. 행정적방법으로 명령을 내려보내면 겉으로는 받아무는척 하지만 실제로는 받아물지 않습니다. 명령을 내려보내도 인민들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겉으로나 대답하지 진심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행정적방법을 없애자는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사업에서나 국가사업에서나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운 다음에 해당한 과업을 주도록 하고있습니다.

간부사업을 하는데서도 간부를 배치한 다음에는 그를 교양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할수 있습니다. 간부를 배치하고 아무 교양도 하지 않고있다가 그가 과오를 범한 다음에 떼버리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할줄 모르며 사람과의 사업에 무능하다는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체사상을 확립하는데서 주요한 애로의 하나는 사대주의사상입니다. 사대주의는 우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낡은 사상입니다. 사대주의자들은 자기의것은 다 나쁘고 자기에게는 좋은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며 남의것은 다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의것에 대하여 허무주의적으로 대합니다.

물론 남의것가운데 좋은것도 있고 나쁜것도 있는것만큼 좋은것을 배울수도 있

습니다. 우리가 사대주의를 반대한다고 하여 배타주의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남의것가운데서 좋은것은 배우고 나쁜것은 버려야 하며 또 좋은것도 자기의 비위에 맞도록 먹어야 합니다.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것을 억지로 먹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지난날 일부 조선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사대주의사상이 매우 깊이 박혀있었기때문에 그것을 뿌리빼기 위한 투쟁은 힘든 투쟁이였습니다.

한때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는 아주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문학예술분야에서 나타났던 사대주의에 대하여 한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아주 심하게 나타났을 때에 있은 일입니다. 전쟁시기에 나는 부상병들을 위안하기 위하여 어느 지방에 있는 군대병원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 병원의 벽에 그림을 하나 붙여놓은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큰 소나무밑에 흰눈이 깔려있고 그 우에 곰이 기어다니는것을 그린 씨비리의 풍경화였습니다. 전사들보고 그것이 어디 그림인가고 물었더니 전사들은 수림속에서 곰이 기여다니는것을 그린 그림인데 어디 그림인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우리 나라의 산림속에 곰이 많은가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 나라에 곰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 나라의 전형적인 동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전사들에게 그 그림이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라의 금강산을 멋들어지게 그린것이 좋겠는가고 물었습니다. 전사들은 우리 나라의 금강산을 그린 그림이 더 좋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 정치부장에게 전사들은 이것이 금강산그림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 나라의 금강산을 그려 붙이지 않고 이런 그림을 그려 붙였는가고 물었습니다. 정치부장은 더 한심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림을 파는데 가보니 그런 그림밖에 없기때문에 할수없이 그것을 사왔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큰 자극을 받았으며 그것이 다 사대주의에서 나온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술부문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검토해보니 그때 미술가들이 거의 다 서양화를 그리고있었습니다.

그때 음악부문에는 우리 나라 민족악기가 매우 적었습니다. 민족악기가 몇곳에 있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완전히 옛날것 그대로였습니다. 일부 예술인들은 민족음악은 고전이고 현대음악은 서양음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름자체부터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술인들을 모아놓고 어째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자기의 음악을 만들었는데 현대사람인 당신들은 자기의 음악을 만들줄 모르는가, 왜 서양음악만이 현대음악인가, 현대적인 민족음악은 없는가, 현대음악은 곧 서양음악이라고 할 리유가 어데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왜 조선민족음악은 곧 고전이 되여야 하고 현대음악은 곧 서양음악이 되여야 하는가, 왜 우리 조선사람은 자기 민족의 취미에 맞는 현대음악을 만들지 못하겠는가고 물었더니 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술인들에게 당신들이 《레알리즘》이라는 술어를 자꾸 쓰는데 그것이 무엇인가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레알리즘》의 내용을 모르고 그저 이름만 안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채로 먹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라고 하면 민족적인 형식에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는것을 말한다는 정의를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이나 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라고 하면 안된다, 조선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음악을 해서 무슨 의의가 있는가고 하였습니다. 나는 또한 예술인들에게 당신들이 무슨 이딸리아곡이요 뭐요 하면서 구라파의 노래만 부르는데 물론 나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좋아하는 조선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당신들은 인민대중을 위한 예술을 만들지 못하고있다, 예술을 위한 예술을 만들어서 무슨 의의가 있는가, 예술은 마땅히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인민들이 그것을 듣고 좋아하고 기뻐하며 리해하고 찬성하여야 되겠는데 인민들은 다 그것을 모르겠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여 민족음악을 한다고 하면서 옛날음악만 하면 지금 청년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복고주의를 해서도 안된다, 그런식으로 하면 자연히 서양숭배주의가 나온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기 민족과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겠다는것은 생각하지 않고 외국의것이 좋으니까 그것을 덮어놓고 끌어들여오면 된다는식으로 생각하니 그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는 건설분야에도 있었고 공업관리분야에도 있었고 교육분야에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는 각 부문에서 많이 나타나고있었으며 그것은 극복하기 매우 힘든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사대주의를 반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투쟁하여왔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주체사상을 확립하는데서 극복해야 할 곤난은 기본적으로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대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사람과의 사업을 행정적방법으로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장기간의 투쟁을 거쳐야만 극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것이 다 극복되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당사업이나 근로단체사업을 행정적방법으로 할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킬데 대하여 계속 강조하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모두가 자기 나라를 위하여,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것, 자기에게는 좋은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며 남의것은 다 찬성하고 숭배하는식으로 자기의것을 허무주의적으로 대해서는 안된다는것을 강조하고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남을 믿는 사상을 없애자는것입니다. 이것은 민족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매개 민족단위로 혁명과 건설이 잘 진행되면 국제적으로도 혁명과 건설이 잘 되여나갈것이 아닙니까. 맑스, 엥겔스, 레닌도 맑스주의는 교조가 아니라고 하였으며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주체사상이 민족적과업과 국제주의적련대성의 과업과의 련관에 관한 새로운 철학을 창시한것이 아닌가고 하였는데 그것은 너무 과분한 말씀입니다.

원래 진정한 맑스주의자라고 하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강조했을 따름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길게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체사상의 내용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말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본 《마이니찌신붕》과 《요미우리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도 많이 말하였기때문에 당신도 리해하고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체사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은 중점적으로 기본적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체사상문제에 대해서는 이만큼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교육문제에 대하여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육문제를 다른 문제들에 비하여 매우 중요시하고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주체사상을 확립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려면 우선 교육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교육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과 정부는 처음부터 교육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을 돌렸습니다.

우리 나라가 락후한 처지에서 벗어나 빨리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인민들을 교육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목적자체가 교육사업을 잘할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은 결국 사람들을 다 잘살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모든 사람들의 물질적생활수준을 높이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사상문화적수준을 높이는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혁명을 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다 잘살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잘살게 하려면 다 일을 잘 해야 하며 일을 잘하자고 하면 자각성이 요구됩니다.

사람들의 자각성을 키우는 사업은 교육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모두가 다 자각적으로 일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수 있는가 하는것은 명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건설사업에도 자각적으로 참가하고 혁명투쟁에도 자각적으로 참가한다면 그것은 큰 힘을 나타낼것이며 더 빨리 모든 사람들을 잘살수 있게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민들을 잘 교육하지 않으면 국가와 사회의 재산을 애호하지 않으며 그것을 파괴하고 좀먹는 사람들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많이 건설하여도 쓸데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고먹기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여서는 인민들을 다 잘살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공산주의사회로 가는 길에서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는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만약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지 않고 물질적요새만 점령하려고 한다면 잘못입니다.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지 않으면 물질적요새도 점령할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국이 학습하자, 전당이 학습하자, 전체 인민이 학습하자는 구호를 내놓았으며 이 구호밑에 모두가 다 학습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40대이상의 사람들은 근로자중학교에 다니게 하여 중학교졸업정도의 지식수준을 가지도록 하고있으며 40대이하의 사람들은 중등의무교육을 받고나오기때문에 다 중학이상의 지식수준을 소유하고있습니다.

인민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간부들자체가 이신작칙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간부들이 매일 두시간씩 공부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에 학습을 하고있으며 1년에 한달씩 공부하는 제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간부들을 재교육하기 위한것입니다. 여기에서 간부들은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자기의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교육에서 우리는 지금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조선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10년동안 교육을 잘주면 그 과정에 모든 새세대들이 혁명적세계관의 기초를 닦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의무교육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의무교육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다 무료로 공부시키고있으며 또 공부하는 기간에는 로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만 열여섯살이하의 소년들은 국가의 법령으로 로동을 시키지 않게 되여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청소년들이 로동을 한다고 하면 길가에 꽃을 심거나 산에 나무를 심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그들에게 로동을 사랑하는 습성을 키워주기 위하여 하는것이지 로동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소년들은 록화근위대, 위생근위대 같은것을 조직하여 파리잡이도 하고 창문닦기도 하며 교실청소도 합니다. 이 모든것은 청소년들이 로동을 사랑하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유치원과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고등전문학교에서 약 600만명의 새세대들이 국가의 부담으로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그러니 국가의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담이 크지만 전망은 좋습니다. 10년후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것입니다.

과거사회에서는 인테리들을 하나의 사회계층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테리계층이라는것이 없어질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인테리화되면 인테리계층이라는것이 따로 없을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50만명의 기술자, 전문가가 있는데 6개년계획기간에 50만명을 더 양성하여 100만명의 기술자, 전문가 대군을 만들자는 구호를 내세우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제기한 과업입니다.

지금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불을 걸고있습니다. 우리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들과 함께 공장대학도 많이 늘이고있습니다. 공장대학에서는 교대별로 낮에도 공부하고 밤에도 공부합니다. 이렇게 하여 인테리대군을 만들려고 합니다. 전망적으로 보아 앞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게 된다면 인테리가 특별한 사회계층으로 존재하지 않을것입니다. 과거에는 인테리가 동요하는 계층이요, 앞뒤에 붙는 계층이요 하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없어질것입니다.

우리가 실시하는 전반적10년제의무교육은 고중의무교육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완성된 중등지식을 주자는것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매해 20%씩 실시하여 5년내에 완성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어떤데서는 4년내에 완성할수 있으며 어떤데서는 3년 또는 2년내에 완성할수도 있습니다. 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5년내에 완성한다는것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한다는것입니다. 얼마전에 문덕군에 나가보았는데 군당책임비서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은 2년내에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반대없다고 하였습니다.

고중의무교육을 통하여 새세대들이 모두다 완성된 중등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후에 공부하는것은 더 헐할것입니다. 본인이 자습을 하여 대학과정을 마칠수도 있으며 대학에 더 다니면서 공부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기초교육을 받은 조건에서는 그후에 전문지식을 배우는것이 그리 힘들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수재교육 다시말하여 뛰여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하는가고 물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있습니다. 나는 원래 수재교육론을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수재가 있다 없다 하는식으로 사람들을 취급하기 곤난하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본다면 어떤 부문에 대하여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학생소년궁전에 목금을 치는 아이가 있는데 나는 그 아이가 특별한 재간을 가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열두살인가 열세살인가 되는데 목금을 아주 잘 칩니다. 이와 같이 일정한 부문에서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없지않아있습니다. 우리는 이런것을 묵과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재간있는 아이들은 따로 학교에 보내여 공부시킵니다.

례를 들면 우리 나라에 리과대학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다른 대학들에는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 공장에 가서 일하거나 군대에 가서 복무하고 돌아와서 추천을 받아 들어가지만 리과대학에는 중학교에서 직접 올라갑니다.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예술부문이나 다른 부문들에도 이런것이 있습니다. 학교교원들이 이 아이는 특별한 재능이 있기때문에 공장이나 군대에 보내지 말고 전문교육을 받게 한다면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줄수 있다고 하면서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직접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회단체들도 다 자기의 학교를 가지고있습니다. 녀맹은 농촌에 어머니학교라는것을 가지고있습니다. 어머니학교에는 공부한 녀성들도 가며 공부하지 못한 녀성들도 갑니다. 어머니학교는 녀성해방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녀성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주기 위하여 세워진것입니다. 사로청도 청년들의 학교를 가지고있습니다. 이르는곳마다에서 성인교육도 광범히 진행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국가에서는 많은 자금을 교육부문에 돌리고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돈을 거의다 교육사업에 들이밀고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교육학을 연구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교육학에서 첫째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기본적인 문제인 사람들이 일하기를 좋아하도록 교양하는것입니다. 일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공부를 하여야 하며 기술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재부가 인민의 재산이므로 전체 인민이 사회재산을 애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교양하는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와 같

이 우리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로동을 사랑하며 인민의 재산을 사랑하도록 교양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내세우고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집단의 생활을 더 귀중히 여기도록 교양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인민들을 교양합니다.

우리는 오래동안 많은 교육을 주었다고 하는 나라에서도 일하기 싫어하고 건달을 부리며 국가재산을 탐오랑비하는것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있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로동을 사랑하며 인민의 재산을 사랑하며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도록 교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문제들과 그밖의 일련의 문제들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교육학을 연구한데 대한 과업을 내놓고 점차적으로 그것을 실천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동무들로부터 이에 대한 강의를 받았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히 이만큼 말씀드립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찰제도를 없앨수 없습니다. 경찰제도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것입니다. 다시말하면 경찰은 도적을 잡으며 교통질서를 위반하는것을 단속하며 산에서 나무를 찍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각종 벌금을 받는것과 같은 일을 하는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을 없애자면 사람들의 자각이 높아져야 하며 모두다 공중도덕을 잘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산림간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무를 마음대로 찍어가는 현상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나무를 망탕 찍는 현상이 없는것은 사람들이 자각적이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늘어날수록 경찰이 늘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나라에는 경찰이라는것이 없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안전원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없어지야 합니다. 인민들스스로가 모든것을 해나가도록 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교육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사람들이 서로 타이르고 서로 잘못을 고쳐주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을 실시한 때로부터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여가고있습니다.

당신은 경제발전문제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도 아는바와 같이 우리는 전후 재더미우에서 일어서다보니 경제건설에서 많은 곤난을 겪었으며 아직도 모든것을 다 해결했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말씀드릴수 있는것은 이제는 우리가 제발로 걸어갈수 있게 되었다는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자체의 민족간부를 가지고있는것입니다. 지난날에는 우리에게 민족간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부문의 민족간부들이 많이 양성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젊은 간부들이 많이 자라났는데 그들은 건설투쟁속에서 자라났기때문에 창발성이 높습니다. 이런 민족간부들이 많기때문에 앞으로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기초가 닦아졌으며 그렇게 할수 있는 조건도 마련되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6개년계획의 기본목적이 무엇인가고 물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공업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자동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가며 인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이 헐하게 일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민들자체가 창발성을 더 많이 발휘해야 하겠지만 다른 나라의 발전된 기술을 받아들이는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은 또한 우리가 이제는 량으로부터 질에로 넘어가는 단계가 아닌가고 물었는데 우리는 량도 늘이고 질도 높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공업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물었는데 우리도 이 문제를 매우 심중한 문제로 보고있습니다. 우리는 공업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될수 있는 한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내세우고있습니다.

례를 들면 우리 나라의 묘향산에 금이 많다고 합니다. 한때 우리 나라의 일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금을 캐겠다고 하였는데 국가에서는 금을 캐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금 몇톤때문에 그 아름다운 산을 못쓰게 만들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이 전민소유로서 국가의 수중에 장악되여있고 개인독점자본이 없는 조건에서 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인민들에게 해를 주지 않으며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능히 강구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양에 큰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는 큰 공장이 얼마없습니다. 평양에 공장이 있다고 하면 방직공장, 기계공장을 비롯하여 인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공장들이 있을뿐입니다. 이런 공장들은 녀성들이 나가서 일할수 있는 공장들입니다. 그러므로 평양에서는 환경이 파괴되는 일이 없습니다.

함흥에는 공업이 좀 집중된 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장들이 집중되여있기때문에 인민들에게 일정한 해를 줄수 있으므로 인민들의 살림집을 산변두리에로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예견하고 이미 오래전에 공장들을 분산시켰습니다. 이것은 오늘에 와서 비로소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해방직후에도 그랬고 정전직후에 공업을 복구건설할 때에도 공장들이 인민들에게 유해롭지 않도록 하며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취하였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생산력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배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공장들을 분산시켰으며 일정한 지대를 선택하여 공장들을 세웠기때문에 우리 나라에는 공해가 없습니다.

경제문제는 당신이 잘 알고있다고 하니 이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지난해 아세아정세의 발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고 물었는데 아세아정세는 좋게 발전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일본인민들의 투쟁도 매우 힘차게 전개되였습니다. 일본인민들의 투쟁이 강하였기때문에 사또반동정부는 쫓겨나고 다나까정부가 나오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인민들의 투쟁의 결실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일본인민들의 투쟁을 높이 평가하며 그것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일본인민들의 투쟁은 사또내각을 물러나게 한데만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라 일본정부로 하여금 자주의 길로 나가도록 하는데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중일회담이 진행되고 중일량국간에 공동성명이 발표되였는데 이 공동성명은 좋은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중일량국이 국교정상화를 실현한것은 아세아의 평화를 위하여 커다란 기여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민들은 조선인민과의 친선우호관계를 맺기 위한 투쟁도 적극 벌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두 나라사이에는 래왕이 시작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호상리해를 더욱 깊게 하고있으며 경제교류도 더 발전할 전망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세를 인민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으며 긴장완화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웰남전쟁에 대하여서는 《마이니찌신붕》 기자들에게 이미 이야기하였으므로 지금으로서는 그이상 더 말할것이 없습니다.

총적으로 보아서 지난해에 아세아의 정세는 아세아인민들에게 유리하게 발전하였으며 미제는 아세아에서 크게 실패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미제는 일본을 제멋대로 롱락할수 없게 되였습니다. 물론 미일간에 종속적동맹관계는 남아있으나 일본은 미제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고있습니다.

미제는 또한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포기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으며 그 결과 중국의 국제적위신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것은 아세아인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것이지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에 대하여 폭격도 강화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위협도 해보았으나 웰남인민은 굴복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이것은 미제에게 더는 방법이 없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습니다.

아세아에서는 아세아사람들이 주인이 되여야지 미제국주의자들이 주인행세를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세아에 발을 붙이고있는 미제국주의세력을 다 쫓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물론 앞으로 강력한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지금 한가지 명백하게 말할수 있는것은 아세아인민들의 각성과 투쟁정신이 높으며 아세아인민들이 미제의 통치를 받기싫어한다는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앞으로 아세아의 정세는 아세아사람들끼리 평화적으로 잘 살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것이며 자유와 해방, 민족적독립과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아세아인민들의 편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물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마이니찌신붕》 기자들에게 이야기한것외에 다시 새롭게 말씀드릴것이 없습니다.

남북공동성명은 물론 우리가 주장한 3대원칙에 기초하여 발표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표되였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것은 아닙니다. 다만 닫혀있던 문을 열고 처음으로 서로 만나서 인사나 한데 지나지 않으며 앞으로의 토의를 위한 원칙을 정해놓았을뿐입니다. 지금 남조선위정자들은 남북회담을 열어놓고서도 여러가지 부당한 짓을 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남침》할 위협이 있다고 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는데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그것을 취소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들은 《비상사태》를 취소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공산당이 하는 말을 믿을수 없다느니, 두고보아야겠다느니 하며 공동성명의 사항들을 리행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보고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고 무장을 바치라는것입니까. 그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할것을 요구하지 않고있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약속했으면 《비상사태》도 취소하고 일련의 반응을 보여야 하겠는데 그들은 공산당의 말을 믿을수 없기때문에 《비상사태》도 취소할수 없다고 하며,

《반공법》도 취소할수 없다고 하며 평화통일에 관한 정치협상도 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하면서 옳지 못한 행동들을 수많이 하고있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통일을 실현하자는 공동성명을 발표해놓고는 유엔이 외세가 아니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지금 미제는 저들의 군대가 남조선으로부터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실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장애물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북회담을 환영한다고 말해놓고서는 얼마후에는 남조선에 계속 무기를 대주겠다느니, 남조선에서 물러가지 않겠다느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경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에 추종하는 반동세력들이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있습니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후 많은 사람들이 조국통일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반동들은 인민들의 이 념원이 실현되는것을 방해하면서 평화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남북이 민족적으로 단결한다는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외부세력과 그의 충복들이 남북대화를 방해하고있는데 있습니다. 외부세력이란 미제국주의자들이며 일본의 일부 반동계층도 이에 속할수 있습니다. 기본은 미제국주의자들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말로는 남북대화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방해하고있습니다.

아세아인민들과 전세계인민들이 힘을 합쳐 미제에 압력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중국과도 관계를 개선한다고 하고 쏘련과도 관계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무엇때문에 우리 나라의 절반땅인 남조선에서는 자기의 군사기지를 유지하려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가 치나갈가봐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와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겠다고 한 이상에야 무엇때문에 거기에 남아있으려고 합니까. 그들은 유엔에서도 조선문제를 토의하는것을 덮어놓고 1년동안 연기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때문에 조선문제토의를 연기하겠는가, 남북조선사람들이 대화를 시작하였는데 조선사람들끼리 잘 단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의 통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야 조선의 통일을 도와주는것으로 되지 않겠는가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제리안이 제기되었는데 미국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것은 거부당하였습니다. 이번에 유엔총회에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안제리안을 지지해나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립장을 지지하여 많은 노력을 한 여러 나라들에 감사를 드리고있습니다.

남조선대표는 유엔에 가서 마음대로 활동할수 있는데 우리 대표는 거기에 가서 활동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토의가 1년동안 연기되였는데 조선의 통일은 그만큼 더 방해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주동이 되여 방해책동을 하고있는데 있습니다. 한나라안에 외국군대가 와서 강점하고있는 조건에서 자유롭게 통일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은 언할 일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가 남조선을 침략할가봐 《보호》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자고 하는데도 그곳에 계속 남아있으려고 하는것은 무엇때문입니까. 그놈들은 침략적야심을 그대로 드러내

놓고있습니다. 침략적야심은 제국주의의 본성입니다.

우리 조선사람들이 미제국주의를 적극 반대하여나서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닙니다. 미제가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태도를 표시할수야 없지 않습니까.

만약 방해세력만 없다면 조선사람들끼리 공통점을 찾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북간에 제도상차이가 있고 그밖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한민족이기때문에 공통점을 찾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니찌신붕》 기자들에게도 이야기하였지만 우리는 당장 통일을 실현할수 없다면 지금 있는 제도를 그대로 두고 련방제를 하자고 제기하였습니다.

나는 일본인민을 포함한 아세아인민들이 단결하여 조선의 통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노력하여줄것을 희망합니다.

한민족을 억지로 둘로 갈라놓을수는 없습니다. 우리 조선인민은 언어와 문자도 같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단일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을 억지로 분렬시켜 둘로 만들수야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고통을 겪고있는데 이것은 물론 가슴아픈일입니다. 우리는 단결하여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굳세게 싸워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조선위정자들의 방침은 지연전술을 쓰는것입니다. 그들은 하루라도 더 연명해보자는것입니다. 우리가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내놓는 바람에 그들이 부당한 행동을 할수 있는 구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조선문제토의를 유엔에서 연기시키는 책동을 하고있으며 각종 궤변을 늘어놓고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금년에 유엔에서 조선문제토의를 1년동안 더 연기하기로 하였으나 그것이 오래 갈수는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민들을 오래동안 속일수는 없습니다. 력사는 인민들을 속이는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민들은 각성된것이며 투쟁은 더욱더 높아질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야당의 일부 인사들이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한다, 련방제를 접수할 필요가 있다, 남북정당사회단체들의 정치협상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통일에 대한 여론이 더욱더 높아가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탄압이 심하여 신문에 이런것을 발표하지 못합니다. 일본의 언론계에서 남조선인민들과 야당인사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반표해주는것도 좋을것입니다. 남조선에서 통일을 방해하는 반동세력들의 탄압도 심하고 그들 내부도 복잡하다나니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하고있지만 인민들은 어느것이 옳은가를 잘 알고있습니다.

남조선에 한민족이 영원히 분렬되고 한나라가 둘로 갈라지는것을 원하는 세력은 매우 적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통일을 해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희망을 가질수는 있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이 비방중상을 하지말자고 먼저 제기하고는 그것을 위반하였기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마이니찌신붕》 기자들과의 담화에서 그에 대하여 언급하였더니 최근에 리후락의 이름으로 통일에 방해되는 말을 하지말아달라는것을 남조선언론계에 부탁하는 《서한》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 요술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라고 하면 우리도 좋게 대하려고 합니다.

지난날에는 남북사이에 아무런 접촉도 못하였는데 지금은 적십자회담을 통하여서도 접촉을 하고 조절위원회를 통하여서도 접촉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날에 비하여 좋은 점입니다. 이렇게 접촉하는 가운데서 공통점을 찾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조일량국사이의 관계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번 말하였기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문제는 남북조선인민들자신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빨리 해결해나가면 더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본인민과의 관계가 최근 1년동안에 많은 전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일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관계는 좋게 발전되고있습니다.

우리는 다나까정부가 평화적공존의 5개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관계를 가지는것으로 보아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앞으로 나쁘게 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나까내각은 지금 우리 나라와의 인사래왕도 허락하고있으며 최근에는 우리 나라의 학자들도 받아들였습니다. 듣건대 우리 기자대표단을 초청한다고도 하며 앞으로 기술자들도 래왕할수 있을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다나까내각이 지난날의 사또내각때의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완화하는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이니찌신붕》, 《아사히신붕》을 비롯한 일본의 언론계에서도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문제를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고 하고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인민들의 리해가 점차 깊어가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점들로 보아 우리는 앞으로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리라는것을 예견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참말로 아세아의 평화를 위하여 노력한다면 최소한도로 우리 나라의 통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인정하며 우리는 일본정부가 그렇게 할것을 희망합니다. 일본정부가 그렇게 하자면 마땅히 조선반도의 남과 북에 대하여 일변도정책을 쓰지말고 어떠한 침략적성격도 없는 균등정책을 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일 두 나라사이에 무역관계를 발전시킨다고 하여 우리 나라가 일본의 원료공급기지나 상품시장으로 될가봐 우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는 자주적인 나라이며 자립적인 경제를 가지고있는 나라로서 자기의 공업기초를 가지고있기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라가 절대로 남의 나라의 원료공급기지나 상품시장으로는 될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는 일부 원료들을 일본에 팔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나라가 일본의 원료공급기지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는 철광석이 많은데 그것을 일본에 조금 판다고 하여 우리 나라가 일본의 원료공급기지가 된다고 할수야 없지 않습니까. 자주성과 자립성을 가지지 못한 나라라면 다른 나라의 원료공급기지로 전락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성과 자립적인 경제를 가지고있는 조건에서 그렇게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것을 우려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일본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며 유익하다고 생

각합니다. 우리는 일본당국이 무역을 하자고 하면 할 용의가 있습니다.

조일 두 나라사이의 경제교류에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무슨 큰 혜택을 받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일 두 나라사이에 호혜적인 원칙에서 경제교류를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겠는가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류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진행되여야 하며 침략적인 방법으로 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다른 자본주의나라들과도 무역을 하고있는데 그것은 호혜적인 원칙에서 진행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립성을 빼앗기게 되는 일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달리 남조선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일본의 공장을 들여다가 공동으로 경영하거나 경영권을 일본측에 넘겨주는 형식으로 경제교류를 하고있는데 이것은 예속적인 경제교류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공장을 수입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본과 평등한 립장에서 경제교류를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일본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공업경영권이나 소유권을 가지는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또 일본으로부터 장기차관같은것을 받을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무역원칙에 따라서 무역을 하자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일본과 남조선사이에 《일한조약》이 있어도 우리가 일본과 국교를 맺을수 있겠는가고 물었는데 우리는 《일한조약》을 두어두고 일본과 국교를 가지자고 말한적은 없습니다. 《일한조약》에서 제일 나쁜것은 세번째조항입니다. 거기에는 조선반도에서 합법적인 정부는 《대한민국》이라고 되여있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간섭입니다.

미노베지사가 우리 나라에 왔을 때 나는 《일한조약》을 승인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정부가 《대한민국정부》를 조선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정부라고 하는것은 일본이 미국에 대한 추종정책을 쓰는데서 나왔다고도 볼수 있고 또 일본반동정권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쓰는데서 나왔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한조약》을 그대로 두고있는 조건에서는 일본이 우리에 대하여 평등적으로 대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것을 무효화하든지 혹은 취소하든지 무슨 방책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례를 들면 《대한민국》이 조선반도에서 유일한 《정부》라는 《유엔결정》을 취소한다고 하면 《일한조약》은 저절로 취소될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한조약》이 《유엔결정》을 근거로 삼고있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일본정부와 국교를 수립하자고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걸외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와 국교를 수립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것입니다. 물론 두 나라 사이에 국교를 수립하면 더 좋습니다. 만약 일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정상화한다면 《일한조약》의 세번째조항이 무효화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아직 일본정부에 정식으로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를 검토해보면서 조일관계문제를 해결하여나갈 작정입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 나라에 온 기회에 당신과 장시간 담화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게 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3대기술혁명실현을 위한 전투적인 계획

얼마전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전원회의는 명년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우리 당의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이 올해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이룩한 성과를 분석하시고 명년도 인민경제발전의 기본방향과 부문별 중심과업,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교시는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드높은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게 하며 그들을 새로운 위대한 전투에로 불러일으키는 강령적지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이미 커다란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내다보게 되였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17페지)

올해에 우리 당과 인민은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펼쳐주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행하며 자주적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새로운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에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빛나게 수행하였다.

특히 기계공업부문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수령님께서 희천땅에서 몸소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불굴의 투쟁을 벌려 올해 4월 15일전으로 3만대의 공작기계생산고지를 점령함으로써 3대기술혁명수행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3대기술혁명과업이 적극 추진됨으로써 기간적인 중공업부문들이 빨리 발전하고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꾸려졌다. 올해에 기계공업과 함께 비날론화학섬유와 염화비닐 공업은 이미 6개년계획만수준을 돌파하였다. 우리 공업의 자립성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여러가지 중공업제품들과 소비품들이 더욱 많이 생산공급되게 되였다.

농촌경리부문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농촌기술혁명이 적극 추진되고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였으며 특히 중간지대농사에서 새로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전국의 영웅적청년돌격대원들과 철도건설자들에 의하여 올해에 또한 이천—세포사이의 청년철도가 완공되였으며 전체 조선인민의 충성이 깃든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인 조선혁명박물관이 건립되고 도시와 농촌에 새 집들이 대대적으로 건설되여 근로자들에게 차례졌다.

사회주의교육과 문화혁명수행에서 획기적인 전진으로 되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이 실시되게 됨으로써 후대교육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더욱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국방건설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루어졌다.

우리 당과 인민이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거둔 이 모든 빛나는 승리는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다질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부강한 사회주의조국건설에서 이룩한 커다란 승리와 위력한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자주적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이 분야에서 또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실현하는 길우에서 거두고있는 승리는 무엇보다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승리이며 우리 혁명기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이 낳은 열매이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성과적으로 진척됨에 따라 우리 나라의 국제적권위와 영향력은 더욱 증대되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의 대렬은 급속히 늘어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은 모두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업을 몸소 진두에서 정확히 령도하여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위대한 주체사상을 공화국북반부에서 구현하기 위한 당면한 중요한 과업으로서 3대기술혁명과업을 제시하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3대기술혁명과업을 6개년계획의 중심적인 과업으로 규정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중심고리가 공작기계생산에 있다는것을 정확히 포착하시였으며 몸소 희천의 로동계급들을 찾으시여 새기술혁신의 위대한 봉화를 지펴주시였다. 그리하여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새기술혁신의 봉화는 우리 나라에서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기 위한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였으며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과 혁명적기개를 다시금 온 세상에 떨치게 한 고무적기치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최근년간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및 제4차 전원회의들을 비롯하여 중요한 대회들을 몸소 마련하시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높은 혁명적열의밑에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앞당겨수행하며 자주적조국통일위업을 촉진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자강도,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강원도와 량강도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지방들에 몸소 나가시여 당사업과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으며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육친적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의 이렇듯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전체 인민들은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지칠줄 모르는 대중적영웅주의와 불굴의 헌신성을 발휘할수 있었으며 오늘의 위대한 승리를 거둘수 있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 여기에 올해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성과를 거둔 기본요인이 있으며 모든 승리의 담보가 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올해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더욱 확고한 전망을 가지고 승리자의 기세높이 명년도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새로운 전투를 맞이하게 되였다.

* *

1973년도 인민경제계획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에 철저히 립각하여 작성된 가장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이다. 이 계획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3대기술혁명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전투적인 계획이며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고 문명하게 만들기 위한 보람찬

계획이다.

명년에 인민경제부문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은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 계속 힘을 넣어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는데 기본을 두면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한계단 더 높이는데 있다.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것은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그것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당면한 중심과업으로서 사회주의공업화가 이루어진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요구와 근로자들의 절실한 지향을 반영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이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고된 로동에서 해방되는것입니다.…

사람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하여서는 3대기술혁명을 밀고나가야 합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1페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기술혁명과업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보다 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만들기 위한 위대한 기술혁명강령이다. 3대기술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고 있다.

수령님께서 3대기술혁명에 관한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사회주의하에서 경제건설과 기술혁명의 목적과 방향이 명백하게 밝혀지게 되였으며 모든 근로자들은 자기 위업에 대한 뚜렷한 전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수 있게 되였다. 실로 우리 나라에서 3대기술혁명과업이 완전히 수행되면 도시와 농촌에서 힘든 로동은 기본적으로 없어지게 될것이며 로동생활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급적차이도 없어지게 될것이다.

1973년은 3대기술혁명을 중심과업으로 하는 6개년계획수행에서 절반이 되는 해이며 따라서 이 해에 우리가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따라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강령적과업수행이 크게 좌우되게 된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미 거둔 성과에 기초하여 명년에 모든 분야에서 일을 더욱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만 전반적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과업을 결정적으로 앞당겨 수행할수 있으며 우리 혁명기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

1973년도인민경제계획은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이러한 현실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자면 명년에 공작기계생산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공작기계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은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중심고리이다.

공작기계생산에서 계속 앙양을 일으켜 공작기계의 량과 품종을 늘이며 그 질을 더욱 높임으로써만 기술혁명을 촉진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할수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국방력도 강화할수 있다.

공작기계생산과 함께 뜨락또르와 자동차 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이 3대기술혁명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 농촌에 보내주어야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고 농업생산을 빨리 높일수 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뜨락또르공장과 자동차공장들의 생산능력을 더 늘이고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명년에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더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도마다 련결농기계공장들과 뜨락또르, 자동차 부속품생산공장들을 빨리 더 잘 꾸려 여러가지 련결농기계와

부속품의 수요를 지방자체에서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또한 대형기계와 대상설비 생산 그리고 선박공업을 발전시키며 방직공업에 필요한 보충완비설비를 잘 만들어주고 식료가공공업과 일용품공업에 요구되는 단능기계생산을 더욱 늘이며 기계일용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명년에 기계공업의 발전에 계속 힘을 넣으면서 중공업부문에서 채취공업을 앞세우고 이미 마련한 생산토대를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중공업토대를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건설을 다그침으로써 3대기술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을 촉진하게 될것이며 중공업으로 하여금 경공업과 농촌경리 발전에 더 잘 복무하도록 할것이다.

명년에 경공업부문앞에는 방직공업, 피복공업, 신발공업, 종이공업 그리고 식료 및 일용품 공업 발전에 화력을 집중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그리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일대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농촌기술혁명을 적극 실현하며 특히 중간지대농업을 빨리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오늘 농업생산의 커다란 예비는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치는데 있으며 중간지대의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데 있다.

우리는 농촌에 뜨락또르와 자동차, 련결농기계를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주는것과 함께 화학비료의 공급량을 늘이며 토양조건과 작물의 특성에 맞게 미량원소비료와 3요소비료를 옳게 배합하여 시비함으로써 알곡생산을 증대시키며 고기와 남새, 과실과 누에고치 생산을 비롯한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인민들의 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은 명년도 인민경제앞에 나선 중심적인 과업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며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우리는 명년에 이 영예로운 과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사회주의공업국가의 위력을 한층 더 뚜렷이 나타내게 할것이다.

무엇보다먼저 명년에 농촌경리와 수산업의 빠른 발전에 의거하여 고기와 닭알, 남새, 물고기, 기름 등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부식물문제해결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게 될것이다.

또한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서의 군을 잘 꾸리며 농촌수도화와 뻐스화를 다그침으로써 농촌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을 더 빨리 덜어줄것이며 도시와 농촌에 살림집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근로자들에게 차례지도록 할것이다. 이와 함께 명년에는 방직공업과 피복공업의 빠른 발전에 의거하여 인민들의 입는 문제가 더잘 풀리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상업의 역할이 더욱 높아지고 교육, 문화, 보건 사업이 더욱 발전하게 될것이다.

실로 명년도 인민경제계획이 수행되면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더욱 높일데 대한 당 제5차대회결정은 더욱 성과적으로 관철될것이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더 한층 튼튼히 다져질것이다. 이것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고 남조선인민들을 더욱 고무하게 될것이며 자주적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위업을 가일층 촉진하게 될것이다.

* *

명년도 인민경제계획은 3대기술혁명수행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매우 높은 속도를 예견하고있는 방대한 계획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리정표인 6개년 계획의 성과적완수를 위하여 명년도 계

획을 빛나게 넘쳐수행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대회가 내세우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계속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며 모든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더욱 빨리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29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는 결코 승리한 고지에 머물러있을수 없으며 혁명적랑만에 넘쳐 계속 더 높은 고지를 향해 쉽없이 달려나가야 한다.

명년도의 방대한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3대기술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대중적인 기술혁신운동을 더욱 세차게 벌려야 한다.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포괄하고있는 3대기술혁명의 방대한 과업은 광범한 군중의 참가하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기술혁신을 위한 년차별계획에 기초하여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생산공정의 기술적개조를 실현하며 대중적인 창의고안, 합리화 운동을 널리 벌려 설비능력을 갱신하며 일군들의 기술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공학 특히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을 저애하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와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며 전군중적으로 공장이 공장을 새끼치는 운동을 힘차게 벌려 현대적인 공장들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대중적인 기술혁신운동을 벌리는것과 함께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내부예비를 동원하는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가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은 거대하며 그것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면 생산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수 있다.

모든 부문에서는 이빠진 생산공정들을 보충하고 약한 고리를 추켜세우며 부속품생산기지와 수리기지를 강화하며 기술관리를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료, 자재를 제때에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설비의 만부하, 만가동을 계속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명년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기본건설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당의 일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기본건설부문에서는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강령적과업을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건설대상들에 로력과 자재, 자금을 집중하여 조업개시를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부문에서 건설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일단 계획한 건설대상들은 섬멸전의 방법으로 하나씩 모가 나게 끝내며 시공에 건설자재를 앞세우고 자재를 규격별, 재질별로 제때에 필요한 량만큼씩 집중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는것은 명년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행정사업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업의 하나이며 그것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는 중요한 요인이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현시기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 사업을 계속 앞세우면서 로동정량을 과학적으로 설정하며 로동규률을 강화하고 로력실태를 정확히 장악하며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고 로동보호사업을 부단히 개선하는것이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하에서의 로동행정사업원칙과 그 실현방도들을 철저히 집행함으로써 긴장된 로력수요를 원만히 풀어나가며 당의 로동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애호하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명년도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오늘 나라와 사회의 재산을 애호하며 전군중적인 절약투쟁을 강화하는데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빨리 향상시킬수 있는 커다란 예비가 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국가사회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며 모든 부문에서 랑비현상을 반대하는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며 국가재산관리에 대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야 한다. 특히 석탄, 전기, 강재, 세멘트, 목재를 비롯한 물자를 최대한 절약하며 도처에서 물자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부문에서 외화벌이운동을 전군중적으로 벌려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계획규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엄격한 협동생산규률을 세우는것은 명년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계획실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생산계획을 지표별, 품종별, 날자별로 무조건 수행하는 강한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특히 협동생산을 진행하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책임성을 높여 자기의것을 생산하기전에 협동생산품을 먼저 생산보장하는것을 엄격히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재공급기관들에서는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생산현장까지 날라다주도록 하여야 한다.

명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느 부문에서나 당정책을 옳게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위원회들의 령도적역할에 결정적으로 달려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70페지)

모든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먼저 일군들과 당원들을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이며 우리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주체사상의 혁명적본질과 전반사상을 철저히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모든 사업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립장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일군들속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며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밑에 모든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일군들로 하여금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고 실속있게 도와주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정치사업을 앞세워 근로자들을 혁명과업수행에 적극 동원하며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섬멸전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명년도의 방대하고 어려운 계획을 능히 앞당겨 완수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있다.

우리 혁명과 건설을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으며 강력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있는 이상 명년도 전투의 승리는 이미 약속되여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새로운 더욱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자!

우리 나라에서 녀성문제의 빛나는 해결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녀성들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온 나라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조선민주녀성동맹창립 스물일곱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 밑에 1945년 11월 18일에 조선민주녀성동맹이 창립된것은 우리 나라 녀성들의 정치사상생활과 녀성운동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의 창립으로 우리 나라 녀성들은 처음으로 자기들의 합법적인 정치조직을 가지게 되였으며 그 기발밑에 굳게 뭉쳐 새 생활 창조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은 창립된지 비록 스물일곱해밖에 되지 않으나 조선공산주의녀성운동은 거의 반세기의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조선공산주의녀성운동은 수령님의 지도와 방조 밑에 열렬한 녀성혁명투사이시며 불굴의 공산주의자이신 강반석녀사께서 일찌기 부녀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신 때로부터 시작되였으며 조선민주녀성동맹은 그 직접적인 계승자이다.

조선녀성운동이 걸어온 거의 반세기에 걸친 영광스러운 투쟁력사, 이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녀성해방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리론의 승리의 력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언제나 녀성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고 그 해결을 위한 정확한 길을 밝히시였으며 조선녀성운동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여오시였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녀성해방에 관한 사상은 사람들을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며 녀성문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의 새로운 발전으로 된다.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그를 구현한 수령님의 녀성해방에 관한 사상은 녀성문제해결의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과학적사상이며 그 실현을 위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녀성문제해결의 독창적인 사상은 생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였으며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오늘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더욱 앞당기고있다.

수령님께서 특히 녀맹 제4차대회에서 하신 교시는 사회주의하에서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길을 전면적으로 밝힌 위대한 강령이며 녀성운동의 승리적진로를 밝힌 전투적기치이다.

녀성해방에 관한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리론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모든 녀성들은 이미 오래전에 착취와 억압에서 영원히 해방되였으며 오늘 그들은 당당한 사회주의적근로자로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성해방에 관한 위대한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그를 혁명적으로 실천하시여 녀성해방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녀성해방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우리 녀성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녀성해방에 관한 문제를 사회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인정하시고 녀성들의 사회정치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녀성문제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수행하는데서 매우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이다.

녀성문제는 착취사회가 출현한 때로부터 제기되여온 뿌리깊은 사회적문제이다.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와 압박은 사회에서 녀성들의 불평등과 녀성문제를 낳게 한 근원이다.

따라서 녀성문제는 온갖 착취제도를 청산하기 위한 사회혁명을 떠나서는 해결될수 없다. 그것은 오직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투쟁행정에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철저히 해방하지 않고서는 착취가 없고 모든 사회성원들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할수 없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이 자유롭지 못하고서는 사회전체가 자유로울수 없으며 행복할수 없다.

또한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와 사회발전의 속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력량이다. 녀성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혁명투쟁에 일떠세울 때 혁명력량을 크게 강화할수 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생활에서 녀성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가 노는 역할을 비유해서 말한다면 두바퀴를 가진 수레의 한쪽 바퀴와 같은것이다. 남자들이 수레의 오른쪽 바퀴를 맡았다고 하면 녀자들은 수레의 왼쪽 바퀴를 맡고있다고 할수 있다. 수레의 한쪽 바퀴만 돌아서는 그 수레가 제대로 굴러갈수 없듯이 사회에서 남자들만 활동하여서는 사회가 성과적으로 발전할수 없다. 착취사회에서처럼 녀성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사회는 절름발이사회이며 병신사회이다.

녀성문제란 결국 근로녀성들을 온갖 착취와 예속, 사회적불평등에서 해방하고 남성들과 똑같이 사회생활의 참다운 주인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되게 하는 문제이다.

지난날 우리 나라 녀성들의 사회적처지는 참말로 비참하였다. 우리 녀성들은 오랜 기간에 걸친 봉건통치와 일제식민지통치의 압혹속에서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받아왔으며 낡고 썩어빠진 봉건유교도덕에 얽매여 인신적으로도 예속되고 무권리한 상태에서 살아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우리 나라 녀성들이 처하였던 사회적처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녀성들의 사회정치적해방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과 결부되여야만 실현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녀성들의 진정한 사회적해방은 일제와 지주, 자본가를 때려엎고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여야 이룩할수 있다.…

식민지예속국가들에서 녀성들의 인신적예속과 사회적불평등, 그들이 당하고있는 가혹한 착취와 억압의 근원은 바로 제국주의식민지통치와 봉건적제관계에 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근로녀성들은 민족적 및 계급적 착취와 억압으로 하여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회층으로 되고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피착취대중으로서뿐아니라 피압박민족의 녀성으로서 무제한한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온갖 천대와 멸시, 롱락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녀성들이 이와 같은 참혹하고 무권리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

하여서는 우선 그 불행을 낳게 하는 화근인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여야 하며 나아가서 지주, 자본가 계급을 때려엎고 계급적해방을 실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녀성들의 사회정치적해방은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불가분리의 련계속에 놓여있으며 오직 이 투쟁이 승리하여야만 실현될수 있다.

녀성들의 사회정치적해방을 근로인민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과 밀접히 결부시킬데 대한 사상은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정식화되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정식화된 녀성들의 사회정치적해방에 관한 수령님의 사상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이 풀어야 할 녀성문제해결의 위대한 강령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은 로동계급의 지도밑에 녀성들자신의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녀성들자신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로동계급의 지도밑에 녀성들자신의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는 수령님의 사상에는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견지한 반제혁명사상이 구현되여있으며 녀성대중을 사회혁명의 중요한 력량으로 보시는 그이의 녀성들에 대한 높은 신임이 반영되여있다.

녀성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켜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고 인신적예속과 사회적굴욕 속에서 산다면 그것은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것이다.

특히 녀성들은 착취사회에서 형언할수 없는 천대와 무권리 속에서 살면서 인간으로서의 자주성과 존엄성을 가질수 없으며 사실상 사람으로서의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로 되여있다.

이러한 참을수 없는 불행과 기막힌 처지가 어디에서 오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하는것을 깨닫게 된 때 녀성들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투쟁의 길에 몸바쳐 나서게 된다.

녀성들자신이 사회적해방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는 수령님의 사상은 그이의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빛나게 구현되였다.

수령님께서는 녀성해방을 이룩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녀성들을 의식화할데 대한 문제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시고 세기적인 무지와 몽매 속에서 모대기던 우리 녀성들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투쟁의 진리를 밝혀주시였으며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의 령도밑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을 따라 우리 나라 녀성들은 특히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일제를 반대하는 조선인민혁명군에 참가하여 남자들과 함께 손에 무장을 잡고 용감히 투쟁하였으며 조국해방과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한 투쟁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성들의 사회정치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녀성들자신이 혁명조직을 가지고 단결된 힘으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일본놈들을 때려부시고 나라의 독립을 찾자면 우선 나라를 사랑하는 군중들을 묶어세워야 한다. …모든

사람이 다 힘을 합쳐 혁명투쟁에 일떠서자.…청년들은 청년조직에, 소년들은 소년조직에, 부녀자들은 부녀조직에 다 망라되여 일제와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더 견결히 싸워야 한다.…

녀성들의 대중적인 혁명조직을 건설하는것은 민족해방투쟁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데 있어서 필수적요구로 된다.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녀성자체의 혁명조직을 건설하여야 광범한 녀성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으며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투쟁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다. 가는 나무가지도 여러대 합치면 꺾을수 없는것처럼 녀성들도 자기들의 혁명조직을 뭇고 거기에 망라되여야만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자신의 사회정치적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하나의 거대한 력량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적녀성조직건설에 관한 사상을 내놓으시면서 녀성조직을 단순한 문화계몽단체로서가 아니라 혁명적조직으로 꾸리며 녀성조직내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문제, 녀성조직들을 광범한 근로녀성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게 하며 녀성조직내에서 핵심을 끊임없이 키울데 대한 문제 등 혁명적녀성조직건설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을 심오하게 밝히시였다. 이것은 혁명적녀성운동을 성과적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지도적지침으로, 위력한 무기로 된다.

녀성들의 대중적혁명조직건설에 관한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은 그이의 지도와 방조밑에 조선공산주의녀성운동의 탁월한 선구자이신 강반석녀사께서 우리나라 녀성운동을 지도하시면서부터 빛나게 구현되였다. 이 시기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공산주의운동의 요람기에 있었던 녀성운동의 본질적약점들이 극복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주체사상과 녀성운동의 과학적인 지도리론, 전략전술이 빛나게 관철되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녀성조직건설에 관한 위대한 사상과 방침을 내놓으시였을뿐아니라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몸소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나라 녀성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 각 곳에 부녀회를 조직하시고 그를 통하여 광범한 녀성들을 조직에 묶어세우고 의식화하여 반일투쟁에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시기에는 조선인민혁명군대오와 조국광복회안에 녀성조직들을 내오게 하시고 그 사업을 몸소 지도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녀성운동과 녀성문제해결의 빛나는 전통이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내놓으신 대중적녀성조직건설에 관한 사상과 몸소 쌓으신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시여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신데 뒤이어 조선녀성들의 대중적정치조직인 조선민주녀성동맹을 창건하시였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녀성해방운동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녀성해방에 관한 수령님의 사상이 더욱 전면적으로 관철되게 되였다.

녀성들의 완전한 사회정치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민족해방의 과업을 수행한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 전진시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고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녀성문제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인정하시고 우리 녀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와 압박 그리고 인신적예속과 사회적불평등에서 해방하는 길로 이끄시였다.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남녀평등권법령은 우리 녀성들이 수천년동안 받아오던 온갖 멸시와 학대,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와 압박에서 그들을 영원히 해방하는 혁명적조치였다.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됨으로써 지난날 버림받아오던 우리 녀성들은 남자들과 꼭 같은 권리를 가지고 정치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게 되였으며 그들의 사회경제적처지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였다. 또한 남녀평등권법령에 의하여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녀성들을 구속하던 중세기적신분관계가 청산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혁명과 녀성운동의 발전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커다란 정치적사변이였다.

녀성들의 완전한 사회정치적해방은 그들의 민주주의적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될뿐아니라 그들이 온갖 형태의 착취에서 영원히 해방됨으로써만 이루어질수 있다.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녀성문제의 기본은 녀성들을 온갖 착취와 예속관계에서 완전히 해방하여 그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만드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방침을 내놓으시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우리 녀성들로 하여금 사회계급적으로 완전히 해방될수 있게 하시였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함으로써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과 함께 녀성들은 온갖 형태의 착취와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였으며 어엿한 사회주의적근로자로서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미래를 앞당기는 보람찬 투쟁에 떨쳐나서게 되였다. 도시와 농촌에서 협동화의 완성과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는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의 녀성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였으며 우리 나라 녀성운동발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게 하였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사회주의혁명과 녀성문제해결의 력사적로정을 심오하게 분석하시고 사회주의하에서의 녀성문제와 그것이 남아있게 되는 근원과 그 종국적해결방도를 독창적으로 밝히시였다.

녀성들의 사회정치적, 계급적 해방은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통하여 완전히 실현된다. 이것은 녀성문제해결에서 력사적승리이다.

그러나 녀성들이 사회정치적으로, 계급적으로 완전히 해방되였다고 하여 녀성문제가 다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지고 모든 녀성들이 온갖 형태의 착취와 억압에서 영원히 벗어난 다음에도 그들의 머리속에는 착취사회로부터 물려받은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등 낡은 사상 잔재가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며 그들은 아직도 사상과 도덕, 생활양식에서 뒤떨어져있다. 또한 녀성들은 사회주의하에서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있으며 사회와 가정에서의 2중적부담을 걸머지고있다. 녀성문제는 바로 녀성들이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이 모든 유물들로 하여 당하고있는 구속에서까지 완전히 벗어나야만 종국적으로 해결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하에서의 녀성문제의 기본내용은 모든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그들을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만드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자들과 함께 녀성들이 혁명화, 로동계급화되고 혁명과 건설에 적극 참가하여야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 3페지)

녀성들을 착취사회의 온갖 유물로부터 해방하는 과정은 결국 그들을 혁명

화,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이며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되게 하는 과정이다.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만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킬수 있으며 녀성들속에서 혁명가, 공산주의자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키울수 있다.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로부터 흘러나오는 중요한 과업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모든 사회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녀성들의 사상을 뒤떨어진 상태에 남겨두고서는 사회의 전반적인 사상생활을 건전하게 발전시킬수 없으며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지 않고서는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할수 없다.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특히 가정을 혁명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녀성들은 자녀들의 양육자이고 교양자이며 가정의 주부이다. 그러므로 녀성들의 사상상태는 가족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녀성들이 혁명화, 로동계급화되는가 못되는가에 따라 가정의 혁명화 특히 자녀들을 공산주의적으로 키우는 문제가 크게 달리게 된다. 어머니가 공산주의자로 되지 않고서는 아들딸들을 공산주의자로 키울수 없으며 가정을 혁명화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사상은 녀성해방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할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임무에 끝없이 충실한 사상이며 철저한 계속혁명의 정신으로 일관된 사상이다.

만일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지고 녀성들이 사회적으로 해방되였다고 하여 녀성문제가 더는 없는것처럼 보면서 녀성운동을 포기하며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면 녀성해방위업을 완성할수 없고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하에서의 녀성문제의 기본내용에 관한 창조적사상이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 녀성운동은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확고히 들어서게 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지난 시기 녀성들을 혁명의 중요한 력량으로 보지 않으며 녀성운동을 단순한 문화계몽운동으로 여기려는 그릇된 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모든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한때 녀성운동안에 자본주의사상, 수정주의사상, 《현모량처》와 《녀필종부》 등의 썩어빠진 봉건유교사상을 끌어들이며 녀성들을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려던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녀성해방의 종국적실현을 위한 수령님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녀성문제의 기본내용을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방도를 과학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먼저 녀성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할것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그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5~6페지)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누구나 다 그러한것처럼 녀성들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만 혁명적으로 단련될

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배울수 있다. 모든 녀성들이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고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조직에서 주는 위임분공을 성실히 집행하며 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서 생활하여야만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녀성혁명가, 공산주의투사로 자라날수 있다.

녀성들에 대한 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그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잘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혁명적세계관을 소유하도록 하는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녀성조직앞에 나서는 첫째가는 임무이다. 녀성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만 모든 녀성들을 당과 혁명에 충실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붉은 녀성혁명전사로 키울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들을 사회에 진출시켜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녀성들을 사회에 진출시키는것은 그들의 조직생활, 정치생활을 강화하며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단련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야만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조직생활, 정치생활을 강화할수 있고 혁명적교양을 끊임없이 받을수 있다.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지 않고 집안에 파묻혀있어가지고는 벅찬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체험할수 없으며 안일해이해지고 자기혼자만 잘 살아보려는 리기주의사상이 자라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나라와 사회를 좀먹는 길로 굴러떨어질수 있으며 녀성해방문제도 완전히 해결할수 없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녀성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하여 그들의 사회진출을 널리 장려하여야 한다. 녀성들이 사회에 나와 일하도록 하려면 물론 그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들을 갖추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 부담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단순한 기술실무적인 문제로 될수 없으며 중요한 혁명사업, 정치사업으로 간주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당이 커다란 국가적부담을 무릅쓰면서도 녀성들의 사회진출을 적극 보장하는것은 결코 로력이 모자라서 그러는것이아니다. 우리 당이 녀성들을 사회에 진출시키는것은 사회생활을 통하여 녀성들을 로동계급화하며 혁명화하자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는것이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 녀성들은 국가와 사회의 커다란 혜택을 받으면서 아무런 불편없이 사회생활에 마음껏 참가하고있다. 온 나라가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의 그물로 뒤덮인 우리 나라에서 녀성들은 어린이들을 키우고 아들딸들을 공부시키는 부담에서 벗어났으며 국가로부터 산전산후유급휴가를 받으며 셋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애기어머니들은 하루에 6시간 일하고도 8시간 로동하였을 때와 같은 로임을 받고있다. 또한 국가에서는 근로녀성들을 위하여 가는곳마다에 여러가지 편의봉사시설들을 갖추어주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 녀성들은 수령님의 극진한 배려와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서 사회에 널리 진출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대부대로 자라나고있으며 혁명의 여러 초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수행하고있다. 실로 이것은 수령님의 녀성해방에 관한 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커다란 우월성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에 관한 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3대기술혁명에 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

을 널리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가까운 몇해동안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3대기술혁명과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53～454페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기술혁명과업은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강령일뿐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착취와 억압, 사회적불평등에서 해방된 우리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까지 영원히 해방하며 그들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보다 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기 위한 숭고한 혁명과업이다.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경로동과 중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게 하는것은 녀성해방의 종국적실현을 위하여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에서 녀성들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뿐아니라 인민경제의 로력구성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업부문에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가 남아있으며 농업로동이 계속 힘든 로동으로 되고있는 동안에는 녀성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문제도 해결할수 없다.

오직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공업부문로동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며 농업로동을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하게 할 때 녀성들도 힘든 로동에서 벗어날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3대기술혁명과업을 내놓으시면서 그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로서 녀성들을 가정과 부엌 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기술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고 모든 녀성들을 힘든 로동에서뿐아니라 가정일의 부담에서까지 해방할수 있는 뚜렷한 길을 밝힌 위대한 사상이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녀성들은 정치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히 해방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고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아직도 우리의 녀성들은 남자들과 같이 사회에 나가서 일하고도 많은 시간을 가정일에 바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그들은 사회와 가정에서의 2중적인 로력적부담을 걸머지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녀성들은 사실상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실지로 행사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없다. 또한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녀성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고 그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가로 키우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없다. 오직 녀성들이 가정적부담에서 벗어나야만 사회적평등을 실제적으로 완전히 실현하고 사회정치생활과 생산활동에 남자들과 같이 참가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참말로 수레의 한쪽 바퀴를 믿음직하게 미믿고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녀성들을 가정과 부엌 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녀성들의 세기적숙망과 지향을 반영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녀성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여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혁명적방침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녀성들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높이게 함으로써 전반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다. 이 방침에는 우리 전체 녀성들과 어머니들에게 인간의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새 생활을 마련하여주시고 그들을 친어버이의 사랑으로 끝없이 보살펴주시는 수령님의 녀성들에 대한 크나큰 배려가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탁월한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은 중요한 공산주의적시책의 하나이며 공산주의적교육방법입니다.》(우와 같은 책, 461페지)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은 문화혁명과 사회주의사회건설의 중요한 과업으로서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하여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은 우선 녀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그들의 광범한 사회진출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은 또한 혁명의 후계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하는 가장 효과적이며 우월한 방법이다. 사람들의 품격과 사상은 어려서부터 형성되며 따라서 어린시절에 옳바른 교양을 주고 좋은 버릇을 길러주는것은 그들의 장래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게 되면 어려서부터 조직생활과 규률생활에 버릇되고 집단주의정신과 공산주의적품성이 싹트게 되며 조직적인 생활기풍에 물젖게 된다.

이렇게 자라난 어린이들이 학교에 들어가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조직생활을 통하여 혁명적교양을 받는다면 그들은 커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될것은 의심할바 없다.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울데 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녀성해방의 종국적실현을 위한 또하나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힌 위대한 사상이며 공산주의자, 혁명화된 인간육성의 뚜렷한 길을 밝혀주는 혁명적사상이다.

* *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녀성문제해결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마련하시고 녀성해방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였으며 녀성운동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여오시였다.

이 과정에서 수령님께서는 녀성운동과 녀성문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고 녀성해방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녀성문제는 빛나게 해결되고있으며 우리의 모든 녀성들은 번영하는 사회주의제도의 품속에서 부럼없는 생활을 누리고있다.

일찌기 맑스-레닌주의선행고전가들이 먼 앞날의 공산주의사회에 가서 가능하다고 륜곽적으로 그려본 녀성해방의 종국적실현에 관한 리상이 우리 나라에서는 산 현실로 더욱더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와 녀맹제4차대회에서 제시하신 녀성해방의 웅대한 강령이 실현될 때 우리 나라의 녀성들은 더욱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녀성해방에 관한 위대한 사상과 리론, 그이께서 녀성해방위업에 기여하신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대를 이어 빛내이며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조선혁명의 승리와 녀성해방의 종국적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 우리 녀성들과 근로자들의 성스러운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조선인민혁명군내에서의 혁명적조직생활과 혁명화

황 승 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은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혁명의 진리로부터 출발하시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군중을 혁명화하며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을 연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를 위한 창조적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불멸의 혁명업적을 이룩하시고 고귀한 경험을 쌓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에서 이룩된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경험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혁명적재부로 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이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그것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며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그들을 보다 준비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심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항일무장투쟁을 직접 수행해나가는 혁명적무장대오일뿐만아니라 광범한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조직하여 전반적조선혁명을 확대발전시켜나가는 조직선전자들의 혁명대오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을 정치군사적으로 가일층 강화하는것은 항일무장투쟁과 그의 영향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21페지)

수령님께서는 이 교시에서 항일무장투쟁과 전반적조선혁명발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항일무장투쟁을 직접 수행하는 혁명적무장대오였을뿐아니라 인민대중을 반일투쟁에 조직동원하는 조직선전자였으며 일제침략자들을 쳐부시고 조국이 광복된후 새 사회 건설을 떠메고나가야 할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지닌 조선혁명의 핵심적인 정치군사활동가들이였다. 따라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을 끊임없이 혁명화하여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연렬한 혁명가로, 유능한 정치군사활동가로 육성하여야만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을 혁명화하여 유능한 정치군사활동가로 육성하는것은 무엇보다도먼저 항일무장투쟁의 장기성, 간고성과 관련하여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가장 포악무도한 일제침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항일무장투쟁은 세계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준엄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이였다. 그것은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극히 어려운 조건에서 간악한 일제침략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인 온갖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장기간에 걸

처 진행된 피어린 혁명투쟁이였다.

이 간고한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을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로 육성하여야 하였다. 이렇게 해야만 무장투쟁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수적으로, 기술적으로 우세한 일제침략자들을 쳐부시는 장기간의 혁명투쟁에서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유능한 정치군사활동가로 육성하는것은 또한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묶어세워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필수적요구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선인민혁명군은 단지 적과 싸우는 혁명전사였을뿐만아니라 광범한 인민대중을 교양하여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는 선전선동자였으며 능숙한 조직자였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을 끊임없이 혁명화하여 준비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육성하여야만 광범한 군중을 의식화, 조직화하고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을 마련할수 있었으며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할수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을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유능한 정치군사활동가로 준비시키는것은 또한 조국이 광복된후 승리한 혁명을 계속 발전시키고 새 조국을 건설하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도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검열되고 세련된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은 조국이 광복된후 승리한 혁명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속에서 혁명화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야만 그들을 조국이 광복된후 혁명과 건설의 모든 어려운 사업을 떠메고나갈수 있는 유능한 정치군사활동가로 육성할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그들속에서 혁명적 조직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이 방침은 수령님께서 이미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수많은 합법적 및 비합법적 혁명조직들을 무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조직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가로 키우신 실천적경험에 기초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일상적으로 수양하며 단련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사소한 경향성도 제때에 알아내여 고칠수 있을뿐만아니라 훌륭한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그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일관된 높은 사상성과 강한 혁명적조직성은 혁명가, 참된 공산주의자의 고유한 품성이다. 그런데 공산주의자의 이러한 품성은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오직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더욱 강화된다.

혁명적조직생활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 혁명적실천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로 된다. 혁명가는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해서만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난 부족점들을 고치고 혁명적으로 단련될수 있으며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열렬한 혁명가, 참된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된 혁명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몸소 이 사업을 조직령도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첫시기에 벌써 조선인민혁명군안에 당 및 공

청 조직을 체계정연하게 내오시고 정치위원제를 실시하시여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조직생활에 대한 실속있는 지도를 주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당 및 공청 조직의 기층단위를 더욱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혁명적조직생활을 몸소 지도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친히 당지부회의를 비롯한 혁명조직들의 회의에 참가하시여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조직생활에 대한 구체적지도를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언제나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의 혁명적조직생활에 대하여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으며 몸소 그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보살핌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모두가 정치군사적으로 훌륭히 준비되고 세련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자라났으며 그 행정에서 고귀한 경험이 이룩되였다.

그것은 우선 사람들의 혁명적단련을 위해서는 혁명적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기풍을 세우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대중을 조직동원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조직생활을 강화하며 엄격한 혁명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기의 조직을 사수하며 혁명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킬수 있게 준비된 사람이라야만 대중을 조직지도할수 있으며 혁명투사로 될수 있는것이다.…

혁명가들은 원래 수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싸울것을 맹세하고 혁명조직에 들어온 자각적투사들이다.

그러므로 혁명가의 조직생활은 어디까지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각적으로 하여야 하며 조직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혁명가들은 혁명적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만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혁명대오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 걸쳐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로 하여금 조직생활에서 자각성과 의식성을 높이도록 하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상 대원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혁명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끝까지 사수하며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조직의 위임분공을 제기한내에 어김없이 집행하는 열렬한 혁명가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의 구체적지도와 극진한 보살피심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속에서는 자각적인 조직생활기풍이 높이 발양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자각적인 조직생활기풍은 우선 자기의 혁명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끝까지 사수하는데서 표현되였다. 그들은 원쑤들의 철창속에서 어떤 악형을 당하거나 지어 단두대에 올라 자기의 육체적생명은 버릴지언정 결코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더럽히지 않았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또한 혁명의 규률, 조직규률을 지키는데서도 높은 자각성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혁명조직의 명령과 지시를 제시간내에 어김없이 철저히 집행하였을뿐아니라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정된 준칙과 규범들을 자각적으로 지켰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군중규률을 지키는데서도 자각성의 모범을 보여주

었다. 그들은 원쑤들에게는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인민들에게는 순한 양과 같이 항상 겸손하고 소박하였으며 례절이 밝았다. 또한 그들은 무장투쟁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의 재산이라면 한알의 낟알, 한오리의 실도 다치지 않았으며 인민들에게 손실을 주거나 페를 끼치지 않는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이와 같이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자신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고 혁명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치는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준비하고 혁명대오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이였으며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불패의 힘을 과시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을 혁명화한 경험은 또한 비판과 자기비판 사업을 강화하는것이 혁명적단련을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비판은 매개 공산당원들과 혁명군중의 계급의식을 제고하는 무기로 되며 온갖 사상적병집을 고치는 약으로 된다.…

혁명적조직규률과 혁명적원칙을 위반할 때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혁명적비판이 가해져야 한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들의 대오를 강철의 대오로 강화발전시키지 못할것이며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할수 없을것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비판과 자기비판은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사상투쟁의 위력한 무기이다.

비판과 자기비판의 무기를 높이 들고 온갖 낡은 사상 경향들과 강하게 투쟁하여야만 혁명조직이 건전하게 발전할수 있으며 혁명대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과 단결이 확고히 보장될수 있다. 또한 비판과 자기비판 사업을 일상적으로 잘해야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고 그들의 혁명화과정을 가일층 촉진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양육성하신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언제나 비판사업을 자신들의 사상을 단련하며 혁명화를 촉진하기 위한 힘있는 무기로 삼고 온갖 낡은 사상경향과 강한 투쟁을 벌렸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속에서 진행된 비판은 상하부의 구별이 없이 건전하고 건설적이였으며 원칙적이였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혁명동지를 건져주고 단결을 강화하려는 숭고한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며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우거나 복수하거나 정치적감투를 씌우기 위한것이 아니였다. 비판은 어디까지나 동일한 목적과 리상을 위하여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혁명전우들사이의 혁명적이며 동지적인 비판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비판으로 사상투쟁을 벌리고 사상투쟁을 통하여 자신을 개조하고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혁명적단련을 위한 사업에서의 경험은 또한 혁명조직에서 항상 분공을 받고 그것을 수행하는 실천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한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원들에게 구체적인 분공을 주며 실제사업을 통하여 키워주는것—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간부육성사업이고 당사업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대원들을 대담하게 믿고 과업을 주며 그들을 도와주어서 모두가 다 무슨 일이나 독자적으로 능히 감당해낼수 있게 키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제와 싸워 이겨서 조국이 해방된 그때에 그 많은 일을 해결하기가 매우 힘들게 될것이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그들의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하는 과정은 혁명투쟁의 어렵고 복잡한 실천활동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혁명가의 실천활동, 혁명투쟁은 조직생활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혁명가는 누구나 혁명조직에서 주는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실천활동을 통하여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성실성을 검열받게 된다. 또한 그들은 혁명조직의 위임분공을 수행하는 실제사업을 통하여 혁명과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가적기풍과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는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을 배양하게 된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안에서 당 및 공청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언제나 모든 대원들에게 분공을 빠짐없이 고르롭게 주도록 가르치시였으며 몸소 분공실행에서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수령님의 직접적지도와 실천적모범에 무한히 고무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혁명조직의 분공을 받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혁명조직에서 주는 위임분공에 대해서 결코 경중을 따지거나 때와 장소를 가린적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혁명의 요구라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조직의 위임분공을 무조건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는 것을 혁명가의 의무로, 혁명적조직생활의 초보적규범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임무를 받는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간주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말았다.

그들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투쟁방침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생명의 위험을 동반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서슴지 않고 혁명임무를 맡아나섰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일신의 위험보다 혁명조직의 임무를 더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이처럼 혁명조직의 위임분공을 관철하는 실제사업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하고 조국의 광복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가로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시여 수많은 공산주의자, 혁명가들을 육성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다.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을 혁명화하시여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육성하신 혁명업적과 고귀한 경험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이 경험은 오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매우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밑천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을 혁명화하신 이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오늘 우리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쑤인 미제침략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실현을 앞당기며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을 혁명화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

김　배　환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보고와 일련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우리 당의 유일사상의 혁명적본질을 밝히시고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당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더욱 강화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아가야 할 기치로, 확고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혁명적본질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에 기초하여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며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더욱 앞당겨 나아가야 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혁명적본질을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의 진수를 이루는것은 맑스-레닌주의적인 주체사상이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04페지)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의 진수를 이루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이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곧 주체의 사상체계이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주체의 사상체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주체사상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루는 근본사상이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이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우리 당의 혁명사상입니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초석으로 하는 전일적인 사상리론체계이다.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사상리론체계와 그 모든 구성부분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그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각이한 혁명단계와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다방면적이고도 풍부한 혁명리론을 내놓으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학설의 모든 구성부문을 새롭게 발전시키시였다.

맑스-레닌주의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보편적진리와 일반적원칙이 담겨져있다. 이것을 확고히 고수하고 계승하며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키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혁명승리의 필수적조건이다.

수령님께서는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고수하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의 기성리론과 명제들을 새로운 혁명실천경험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풍부화하심으로써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보다 힘있는 무기로 만드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변화된 력사적조건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발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세계혁명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실로 위대한 주체사상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모든 내용과 특징을 규정짓는 근본사상이며 그 위대성과 창조성, 혁명성과 전투성, 불패의 생활력의 원천으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이며 전당과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곧 그이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것으로 된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주체의 사상체계로 되는것은 또한 주체사상이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의 사상적기초로 되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하나의 혁명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만이 참다운 통일단결이며 이러한 단결이 보장되여야 우리 당이 강한 전투력을 가진 참다운 맑스-레닌주의당으로, 백전백승하는 혁명적당으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실현할것을 목적으로 수령님과 사상을 같이 하는 혁명투사들로 뭉쳐진 전투적조직체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안에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밖에 다른 사상이란 있을수 없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은 오직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수령님의 주체사상에 기초해서만 통일단결되여야 한다.

만일 당안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딴 사상이 조금이라도 허용된다면 당은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숨쉬고 움직이는 전일적인 산조직으로 될수 없다. 유일한 지도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지 못한다면 당안에 중앙집권적규률이 없고 무정부주의와 자유주의가 조장되여 종파와 분파가 생기게 되며 따라서 당은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없을뿐아니라 자기의 존재자체도 제대로 유지할수 없다.

이것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이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1925년에 창건되였던 조선공산당은 위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받지 못했고 하나의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지 못하였던 탓으로 하여 대중운동에 대한 옳은 령도를 보장할수 없었으며 나중에는 조직된 력량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마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이러한 경험과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에 걸쳐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으며 그를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바로 여기에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이 1920년대 투쟁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며 그처럼 류례없이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속에서도 조국광복의 대업을 성취할수 있었던 근본요인이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대오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하신 고귀하고도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장 생활력있고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였다.

이 모든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만이 우리 당과

인민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시킬수 있게 하는 유일한 사상이며 오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된 때에만 우리 당이 강한 전투력을 가진 참다운 맑스-레닌주의당으로, 백전백승하는 혁명적당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주체의 사상체계로 되는것은 주체사상이 혁명과 건설을 옳게 수행할수 있게 하는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되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으로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04페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사상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매개 나라가 혁명과 건설을 옳게 수행하여나가자면 그 나라 당과 인민 자신이 주인노릇을 똑똑히 해야 하며 그러자면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은 당과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철저히 고수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인다는것을 의미한다. 주체사상은 바로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자기 힘을 믿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게 하는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오직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견지해야 로선과 정책을 옳게 세우고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민족의 독립과 번영,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정력적인 투쟁을 통하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사상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자기의것은 덮어놓고 깔보고 남의것을 통채로 삼키려는 현상이 없어지고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이 더욱 높아졌으며 자력갱생하는 혁명가적기풍이 철저히 서게 되였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한 결과 오늘 우리 나라는 당당한 독립국가로서 자기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주적으로 규정하며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하게 되였다. 또한 우리 인민은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대하여, 아들딸들을 공부시키는데 대하여, 병을 치료하는데 대하여 근심걱정을 하지 않게 되였으며 모두가 다 마음껏 일하고 배우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어떠한 원쑤가 덤벼 든다할지라도 능히 자기의 힘으로 단매에 쳐부시고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게 되였다.

참으로 지난 기간 우리가 이룩한 이 모든 승리와 성과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한 자주, 자립, 자위 로선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의 경험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 나갈때에만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극복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할수 있으며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혁명적본질을 이룬다. 따라

서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곧 주체의 사상체계로 된다.

* *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 기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실로 위대한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 앞에는 할 일이 매우 많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당면하게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조직동원하여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에 의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벅차고도 보람찬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총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와 같은 책, 511페지)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의 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그를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반세기에 걸치는 혁명활동의 전기간에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하신 연설과 보고들을 체계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학습하며 매개 로작이 나오게 된 환경, 진수와 전반사상, 수행방도와 의의를 옳게 체득하여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또한 사상투쟁의 무기를 날카롭게 세워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반동적이며 반혁명적인 사상요소들을 제때에 극복청산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할수 있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옳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아무리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당의 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주체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투사로 될수 있다.

다음으로 주체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나가기 위하여서는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계속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을 구현한다는것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당면하게 나선 가장 절박한 문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당면하게 나서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우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것입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0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것이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당면한 가장 절박한 문제라고 하신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이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

적과업이며 민족적자주권을 완전히 확립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라는것과 이 문제는 민족주체력량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신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구상에서 가장 악독하고 교활한 미제와 일제를 때려눕히고 자기의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지켜낸 힘있는 민족이며 자기 문제는 자기자신이 스스로 해결할줄 아는 문명하고 지혜로운 인민이라는 높은 긍지를 가지고 외세를 견지히 반대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은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모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당면한 중심적인 과업은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우리 인민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1페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기술혁명과업은 자기의 힘으로 기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로동과 중로동,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것이다. 이 혁명과업이 완전히 수행되게 되면 도시와 농촌에서 힘든 로동은 기본적으로 없어지게 되고 로동생활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차이도 없어지며 모든 근로자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보람찬 생활을 더욱더 향유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3대기술혁명과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다 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만들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혁명사상을 하루빨리 이땅우에 꽃피여나아가기 위한 보람차고도 영예로운 사업으로 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발양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이 기술적진보를 이룩하고 생산적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실천활동과정을 통해서 주체사상의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준 사상이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킬수 있게 하는 사상이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가 있음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부단한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고 위대한 인민, 영웅적인민, 혁명적인민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세상에서 더없이 행복하게 살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뭉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혁명적의지를 키우는것은 혁명화의 중요한 요구

류 재 명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보고를 비롯한 여러 불후의 로작들에서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방도와 과업들을 제시하시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가진 견결한 혁명가로 키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사업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맡겨진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사상적으로 단련하며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키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68페지)

근로자들을 사상적으로 단련하며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가진 혁명가로 키울데 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새로운 인간, 공산주의적혁명가 육성의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제시하신 가장 혁명적인 방침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생산력을 발전시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닦는것과 함께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그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참다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해야 한다.

사람들을 열렬한 혁명가, 유능한 새 사회의 건설자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화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을 믿고 혁명에 충실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는것이며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당밖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런 강의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강의한 의지를 키우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백절불굴의 혁명적의지는 바로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하고있다.

의지가 강한가 약한가 하는것은 혁명적세계관을 바로 가지는가 못가지는가에 달려있다. 확고한 공산주의적세계관은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해방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혁명에 바칠 결심과 개인의 리익을 조직과 집단의 리익에 복종시킬 결심을 가지게 하며 수령님과 당을 위해 몸바쳐일하려는 혁명적각오와 굳센 혁명적의지를 가지게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강한 혁명적의지를 가진 공산주의자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혁명적세계관을 세운다는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한다는것을 말한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로동계급적관점과 태도와 립장을 밝혀주는 사상이다. 이 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맞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와 그 필연적요구를 반영한 혁명의 객관적진리임으로 하여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공산주의적세계관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 혁명적세계관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와 착취제도, 온갖 착취계급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게 하며 자연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똑똑히 알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추호의 동요없이 끝까지 혁명적지조를 굳건히 지키면서 몸바쳐 싸울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우리 인군들과 당원들이 자신들을 조선혁명의 참다운 역군으로 준비하기 위한 첫째가는 요구이며 백절불굴의 혁명적의지를 키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사상적기초로 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 혁명적세계관으로 확고히 무장해야 어떤 역경속에서도 일편단심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참다운 조선의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한 강의한 혁명적의지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혁명가의 중요한 품성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사업이란 원래 위험을 동반하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희생적으로 용감하게 투쟁하는데 바로 혁명가들의 고귀한 품성이 있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70페지)

혁명이란 간고하고도 복잡한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투쟁과정에서 적들의 파쑈적폭압과 필사적인 반항에 부닥칠수 있으며 놈들의 악랄하고 교활한 회유기만에도 부닥칠수 있다. 원쑤들의 아성을 때려부시는 치렬한 공방전에서 희생도 있을수 있으며 참기 어려운 우여곡절도 수없이 겪을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때려부시고 주권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에 못지 않게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며 그것은 또한 하루이틀에 끝나는것도 아니다.

더우기 우리 나라는 아직 통일되지 못하였으며 우리가 갈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은 많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꺾어버리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며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아직 승리하지 못한 나라들의 혁명을 도와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이 모든 혁명투쟁의 과업은 우리들에게 백절불굴의 혁명적의지를 더욱 굳게 가질것을 요구한다.

혁명적의지가 강해야만 전진도상에서 제기되는 온갖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고 혁명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용감하게 돌진할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투쟁으로 일생을 끝마친다. 그들은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위하여 일생을 바치는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비록 육체적생명은 끊어질지언정 정치적생명을 더럽히지 않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근로자들을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가진 혁명가로 키울데 대한 방침은 그이께서 창시하신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사상을 더욱 풍부히 하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침이며 온 사회의 혁명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방침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의지를 키우는것을 사람들을 혁명가로 육성하는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혁명투쟁 전과정을 통하여 언제나 그들이 강의하고 굳센 의지를 가지도록 꾸준히 교양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거의 40년동안 혁명투쟁을 하면서 많은 풍파와 시련을 겪었습니다. 지하투쟁도 해보고 빨찌산투쟁도 해보았는데 그사이에는 혁명을 계속하느냐 죽느냐 하는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넘겼습니다. 해방후에도 조국해방전쟁의 후퇴시기를 비롯하여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지난날 혁명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곤난을 이겨내고 혁명을 계속하였는가를 돌이켜보면서 난관을 반드시 뚫고나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다졌으며 이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우리의 혁명적의지가 더욱 강하여졌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18페지)

수령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진행된 항일무장투쟁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이였다. 항일혁명투쟁의 전과정은 실로 중중첩첩 앞을 가로막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굳세게 전진해야 하는 참으로 힘겨운 나날들이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악한 일제침략자를 타승하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광범한 군중을 혁명화하고 의식화하여 혁명의 편에 전취하시는 한편 그들을 어떤 난관과 애로도 마다하지 않고 용감하게 뚫고나아가는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가진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키우시기에 모든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례없이 간고하고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의 장구한 기간 일신상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오직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여 백절불굴의 강의한 혁명적의지의 탁월한 모범으로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교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꾸준한 사상교양과 혁명적 실천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시여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불굴의 공산주의자들을 수많이 길러내심으로써 위대한 조국광복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과 인민들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간직하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일편단심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그이의 가르치심이라면 물불을 가리지않고 끝까지 관철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자라났다.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완수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시기 위하여 그들의 사상개조운동의 일환으로서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키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앞에는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았으며 뚫고나가야 할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조성된 새로운 환경과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고 혁명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들을 새 조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몸바쳐나서도록 하시였다.

특히 수령님께서는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을 강의한 혁명적의지의 소유자로 교양육성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조국과 인민의 보위자로서의 고상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수십만의 혁명적골간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철석같이 뭉치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다음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혁명발전

의 필수적요구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계속혁신하고 계속 전진하는 백절불굴의 혁명투사로 육성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밑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요불굴의 혁명적의지를 가진 공산주의자로 키울데 대한 당의 방침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되였으며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철석같이 단결되였다. 또한 그들은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속에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고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게 되였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의지를 키우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도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의지를 키우는데서 근본문제로 나서는것은 그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도록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알아야만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신심이 생기고 투지와 열정이 나올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06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튼튼히 무장될 때 그들은 자본주의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명확한 방도를 찾을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이 땅우에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가지고 온갖 간고성과 복잡성을 이겨내면서 그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다.

우리는 학습을 첫째가는 임무로 내세우고 수령님의 불후의 로작과 보고, 연설들을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학습해야 한다. 매 시기 제시되는 수령님의 교시를 지체없이 집중적 방법으로 학습하여 당앞에 나서는 중심과업들을 제때에 파악하기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일편단심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영원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되여야 한다.

당정책교양과 함께 혁명전통교양은 사람들의 의식을 단련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깊이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게 하며 그들을 혁명선렬들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투지와 혁명적락관주의로 철저히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67페지)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우리 시대의 공산주의자, 혁명가의 전형이신 수령님께서 몸소 혁명적세계관을 이룩하시고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그를 빛나게 완성하심으로써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키워오신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울수 있게 한다.

또한 혁명전통교양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세계관으로 만들고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굳굳이 지키고 일편단심 수령님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그이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한 항

일혁명선렬들 처럼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 되게 한다.

우리는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거점으로 혁명전통학습을 더욱 강화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그이께서 지니신 높은 덕성과 혁명적풍모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며 수령님에 대한 항일혁명선렬들의 끝없는 충실성을 본받음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의 지도일군들은 당정책과 혁명전통 학습에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며 자기의 실천적모범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언제나 학습을 성실히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일군들과 당원들의 의지단련의 중요한 방도는 또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누구나 강한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혁명적으로 단련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한 참된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모든 사람들이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조직에서 주는 위임분공을 성실히 실행하며 언제나 조직의 통제와 지도밑에서 혁명적교양을 받도록 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특히 간부들속에서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모든 간부들은 언제나 당조직에 의거하여 일하고 생활하며 강한 사상투쟁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단련해야 한다.

일군들이 늘 군중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것은 혁명적의지를 단련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언제나 인민대중속에서 힘과 신심을 얻었으며 혁명적의지를 단련하고 혁명적세계관을 더욱 튼튼히 세워왔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20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적군중과의 일상적인 접촉은 일군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주며 그들이 투지를 가다듬고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지도일군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눈부신 투쟁을 벌리는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며 일하며 고락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혁명에 대한 굳은 신심을 가질수 있으며 그들을 위하여 헌신복무하려는 결의를 굳게 할수 있다.

현실속에 침투하며 혁명적군중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의지는 더욱 단련되며 강해진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의 혁명적실천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영광스럽고도 보람찬 투쟁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과 그 중심과업인 3대기술혁명을 철저히 관철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 방침을 실현하는 위대한 혁명투쟁속에서 혁명적의지를 부단히 단련하여야 한다.

혁명의 앞길은 간고하고도 복잡하다.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혁명적의지를 끊임없이 단련함으로써 혁명의 앞길에 있을수 있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이 혁명의 기치, 주체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수령님의 참된 전사답게 끗끗이 싸워나갈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금속공업앞에 나선 전투적과업

허 룡 익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드높은 혁명적열정으로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6개년계획과 그 중심과업인 3대기술혁명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은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으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길뿐아니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물질적담보를 마련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인민의 절실한 지향과 념원을 정확히 반영하고있음으로 하여 그리고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위력한 투쟁의 기치로 되여 그들을 창조와 혁신에로 더욱더 힘차게 고무하고있다.

금속공업은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절실한 문제의 하나는 강재를 비롯한 여러가지 금속자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하는것입니다.》(《신년사》, 1972년 1월 1일, 10페지)

수령님께서 하신 이 교시는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금속공업이 차지하고있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다.

기술혁명은 다름아닌 기계혁명이며 그것은 여러가지 현대적기계설비들을 생산보장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금속공업은 바로 현대적기계설비들을 다량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갖가지 금속자재를 대주는 중공업의 기간적부문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금속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보장하여야만 기술혁명을 더욱 전진시키고 전반적사회주의경제건설도 촉진시켜나갈수 있다.

특히 현시기 금속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3대기술혁명의 본질적요구와 관련하여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공업부문에서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고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며 반자동화, 자동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현대적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며 농촌기술혁명에 요구되는 자동차, 뜨락또르 등 여러가지 농기계들과 화학비료, 농약 등을 급격히 증대시키기 위해서도 더 많은 철강재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식료가공공업을 발전시키며 여러가지 현대적부엌세간들을 대량적으로 생산공급하여 녀성들을 가정과 부엌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기술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여러가지 금속자재가 요구된다.

실로 금속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기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각 부문에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보장해주어야만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금속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튼튼한 물질적조건을 마련

하는 중요한 고리로 될뿐아니라 통일후 남조선경제를 빨리 복구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을 추켜세우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데서 금속공업이 노는 커다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금속공업을 건설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이 땅우에 압박과 착취 없는 사회를 건설하며 자립적민족경제를 일떠세울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시고 조국에 개선하신후 20년만에 보시는 고향 만경대를 지척에 두고도 들리지 않으시고 먼저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나라일을 의논하시였으며 금속공업의 튼튼한 자립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곧바른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또한 전쟁의 포연도 채 가시지 않은 정전직후 황철과 강선땅을 찾으시여 이곳 로동계급들에게 전후복구건설의 위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공업화가 성과적으로 진척됨에 따라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 《강철은 언제나 1,211고지이다!》**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자립적인 현대적대야금기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투쟁을 직접 조직령도하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금속공업은 철강재에 대한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는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강력한 중공업으로 자라났으며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여 움직이는 주체적인 야금기지로 전변되게 되였다.

진정 오늘 우리의 금속공업이 이처럼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강력한 중공업으로 발전할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우리 강철전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금속공업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 인민을 그 실현에로 현명하게 령도하시였으며 우리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신임을 베풀어주신 결과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금속공업부문의 중요한 과업은 이 부문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흑색야금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

제철공업에서 될수록 콕스를 적게 쓰면서 더 많은 선철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나라 연료에 기초한 제철공업을 적극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47~448페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체의 원료, 연료 원천에 기초하여 야금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은 자립적금속공업발전을 위하여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전략적방침이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할데 대한 철저한 주체적립장에서 출발한 혁명적인 방침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 나라의 자연부원과 경제발전전망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자체의 자연부원에 의거한 야금공업을 건설하여야만 우리의 금속공업을 주동적으로 안전하게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금속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립철과 조강 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이 중요하며 해면철과 환원구단광 생산을 공업화하여야 한다.

립철은 그 생산공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무연탄과 분광에 기초하는 제강원료로서 선철보다 값이 눅고 제강공정에서 기술적으로 일련의 우점을 가지고있다.

립철과 조강 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해서는 회전로의 운영과 관리에서 기술수준을 높여 1회조업일수를 지금보다 배이상 늘이며 '보수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우리는 해면철과 환원구단광 생산에서 이미 얻은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그의 공업화단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여 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하며 로당 생산량을 빨리 높여야 한다. 동시에 해면철과 환원구단광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기제철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나라 금속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전기제철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가까운 기간에 그를 공업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아직 콕스용 석탄을 찾아내지 못한 조건에서 용광로에서 콕스소비기준을 극력 낮추고 콕스생산에서 국내탄배합비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콕스생산의 모든 공정에서 기술관리를 개선하며 중유취입법을 비롯한 선진기술공정을 적극 받아들여 적은 콕스탄으로 더많은 선철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6개년계획기간에 빨리 늘어나는 철강재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가까운 년간에 철강재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새로운 강철, 압연생산기지 건설을 촉진시키며 강철생산과 압연능력이 늘어나는데 따라 선철생산기지도 더 확장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새로운 금속기지건설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일군들속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 소극성을 철저히 없애고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의 자재와 설계,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여 대담하게 건설을 밀고나가는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미있는 금속공업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여기에서 제철제강소들의 원료 및 제품처리 능력을 더 늘이고 부대시설을 잘 갖추어 공정상 균형을 맞추며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공정을 줄이는것이 중요하다.

우선 제철소들에서 원료의 예비처리공정을 정비보강하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며 예비처리광의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특히 소결광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은 선철생산을 늘이는 중요조건이다. 이를 위하여 소결직장들의 설비를 잘 정비하여 소결광생산을 정상화하며 장입광석의 품위를 높여 더많은 선철을 생산해야 한다.

또한 제강로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하여 제강행정을 촉진하는 새 기술공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주부원료의 준비 및 공급과 조괴능력을 용해능력에 따라세워 여러가지 지장시간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철강재생산을 늘이는데서 쇠돌을 제때에 원만히 생산보장하는것이 특히 중요하다. 사회주의건설의 《1,211고지》, 강철고지의 옆봉우리인 쇠돌고지를 지켜선 철광산들에서는 탐사를 앞세워 확보광량을 넉넉히 마련하며 박토, 굴뚫기, 채광, 선광 등 모든 공정에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쇠돌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품위높은 쇠돌을 더 많이 보내주어야 한다.

석회석은 철생산에서 쇠돌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석회석광산들에서는 채굴장을 전망성있게 꾸리며 생산에서 파동성을 없애고 사별장을 정비보강하며 기술관리체계를 세워 균일한 질의 석회석을 정상적으로 대주어야 한다.

제철제강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야금로들의 설비관리와 기술관리를 개선하여 로의 보수주기를 늘이며 로의 보수를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질적으로 해야 한다.

여기에서 선결조건은 내화물의 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파철을 수집하여 리용하는것은 있는 자재와 원료로 더 많은 강철을 생산하게 할뿐아니라 선철에 비하여 제강행정을 단축시키고 원가도 훨씬 저하시키므로 제강공업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는 파철수집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금속공업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강종을 늘이고 강질을 높이며 압연강재의 가지수와 규격을 훨씬 늘이는것은 현대적공업발전의 전망적요구일뿐아니라 당면하게는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나서는 절실한 문제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 공업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요구이기도 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강종을 늘이고 강질을 높이며 압연강재의 품종과 규격을 훨씬 늘이고 2차금속가공제품생산을 빨리 발전시켜 인민경제발전과 기술혁명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흑색금속자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와 같은 책, 448페지)

강종을 늘이고 강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철제강소들에서 원료준비로부터 강재의 후처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공정들의 기술장비를 튼튼히 갖추고 더욱 완비하며 야금로들에서 생산과정에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특히 수정, 열처리, 교정과 같은 제품의 후처리공정을 잘 꾸려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여러가지 질좋은 강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조건에서 진공용해, 진공조괴 등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또한 불수강, 규소강 등 합금강의 질을 높이고 새롭게 생산할 강종에 대한 연구와 시험사업을 잘 조직해야 한다.

압연강재의 가지수와 규격을 훨씬 늘이고 2차가공제품생산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준비와 생산준비를 잘 하여 늘어나는 품종에 따르는 각종 로루, 유도장치, 공구, 지구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며 소재를 원만히 대주어 각종 강관류, 쇠바줄, 랭간압연판, 석도금판, 아연도금판 등 2차가공제품들과 대형형강을 더많이 생산해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강재생산의 결정적고리인 가열로들의 능력을 더욱 늘이며 이미있는 압연기들의 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새로운 압연직장들의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우리는 또한 동, 중석, 니켈을 비롯한 여러가지 유색금속자재들과 전자, 자동화 공업에 요구되는 희유금속, 순금속 소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해야 한다.

금속공업부문앞에 나선 이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령님께서 회천땅에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현시기 금속공업부문에서 수행해야 할 기술혁명의 기본방향은 근로자들을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비롯한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이다.

우선 제철부문에서는 아직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손로동을 완전히 없애고 기계화를 실현하며 점차 자동화로 넘어가야 하며 제강부문에서는 부원료투입, 슬라그작업 등 고열로동을 없애기 위한 합리적인 장비들을 창안도입하며 제강행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품이 많이 들고 힘든 부문인 조괴작업에서 련속조괴공정을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가공부문에서는 압연, 단조 공정의 완전기계화를 1~2년내에 끝내며 제품처리작업을 기계화하여야 한다. 아직도 힘든 로동으로 남아있는 강괴, 강편 수정작업에서 화염수정법을 더욱 발전시키며 성능이 높은 수정기계들을 만들어

로력을 절약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유해로동을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 제선소, 제강소, 제련소들에서 생산공정에 효과적인 제진장치, 배풍 및 환기 장치들을 설치하며 이 부문 기계설비들의 운전을 자동화하고 점차 원격조종에로 넘어가야 한다. 그리고 생산과정에 나오는 유독성 증기, 가스를 모조리 회수리용하기 위한 기술적대책을 세워야 한다.

금속공업부문에서 3대기술혁명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이 부문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해서는 이 부문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반대하는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한 기술기능학습반과 개별기능전습체계를 정상적으로 움직여 기능공대렬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간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기술혁신운동을 실속있게 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 수행을 앞당기는 중요한 예비이다.

우리는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 국가사회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원료와 자재를 절약하고 원단위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귀중한 강재를 사장시키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경제건설에서 성과달성의 기본요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사업을 앞세워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은 청산리방법의 중요한 요구이며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입니다.》(우와 같은 책, 508페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직접적담당자는 근로대중이며 그들의 높은 혁명적열의는 생산발전의 결정적추동력이다. 지도일군들은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워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발양시킴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계속 혁명적앙양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도일군들은 공산주의적당성과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 당정책관철에서 혁명가적사업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는 원칙을 관철하여 생산지도와 기술지도, 자재공급 등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지도일군들은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로동자들의 생활을 세심히 돌보며 남새, 닭알, 물고기, 고기, 기름 등 부식물을 정상적으로 보장해주며 우리의 강철전사들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육친적배려가 제때에 정확히 미치도록 하여야 한다.

금속공업부문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이 부문 일군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것은 금속공업부문앞에 나선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금속공업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와 금속공업부문에 주신 교시들을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하여 자신의 피와 살로 만들어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금속공업부문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3대기술혁명수행을 위한 금속전선에서 다시한번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킴으로써 1973년말 생산수준을 금년말까지 기어코 돌파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6개년계획수행을 앞당기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을 철거시키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선결문제

김 창 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를 계기로 오늘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는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최대의 당면과업이며 가장 성숙된 요구이다.

우리 나라에서 민족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가장 절박한 민족적념원일뿐아니라 평화와 민족적독립을 귀중히 여기는 아세아와 세계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그러나 력사와 대세의 흐름을 거역해 나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늘도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강도적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있으며 더욱 교활하게 날뛰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는것은 통일문제해결의 선결조건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87페지)

우리 인민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4분의 1세기가 지나도록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민족분렬의 쓰라린 고통을 겪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분렬이 지속되고 전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나라 내정에 간섭하며 민족분렬정책을 실시하고있기때문이다.

지난 27년간의 분렬의 력사는 미제침략자들을 나라안에 두고서는 우리 민족이 평온할수 없고 조국의 자주통일이 이룩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털어놓고말하여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한다는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나가도록 하며 그밖에 다른 나라 세력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26페지)

우리 나라의 분렬은 미제에 의하여 빚어진것이며 조국통일의 근본장애도 미제의 남조선강점에 있다.

만일 미제가 아니였더라면 애당초 우리 나라에서 분렬이요 통일이요 하는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것이며 단일민족인 우리 인민은 통일된 한 강토우에서 자주권을 가진 민족으로서 다같이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된지 이미 오랬을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은 처음부터 《해방자》, 《원조자》의 탈을 쓰고 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할 목적으로 남조선에 기여들어왔다.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은 그곳에 파쑈제도를 세우고 침략과 전쟁 정책을 실시하면서 남조선을 제놈들의 완전한 식민지군사기지로 전변시키는데 광분하였다.

미제는 저들의 남조선영구강점과 침략정책을 《합법화》하기 위한 모략책동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놈들은 《한미호상방위조약》, 《한미행정협정》을 비롯한 90여개의 《조약》과 《협정》을 꾸며내고 그것을 침략의 무기로 하여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정치, 경제, 군사적

으로 철저히 예속화하는 길로 나갔다.

남조선에서 미제는 제놈들의 침략무력과 국내반동들로써 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꾸며내고 애국적민주력량과 인민들에게 류례없는 군사파쑈통치를 강요하였으며 남조선천지를 테로와 폭압이 지배하는 인간생지옥으로 만들었다.

놈들은 《원조》를 공간으로 하여 남조선에서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막아버렸으며 남조선을 저들의 군사교두보로 전변시켰다. 미제의 군사적부속물로 굴러떨어진 남조선에서 경제는 걷잡을수 없는 파국에 놓여있으며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다.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을 방해하고 전조선을 제놈들의 식민지로 만들며 나아가서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하여 조선에서 강도적인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들씌운것도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이다.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한 조건에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인민자신의 손으로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할것을 일관하게 주장해온 우리 당의 립장은 언제나 정당하였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하여 매번 침략적인 도발행동으로 대답하였다.

미제는 조선침략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후에도 침략적야욕을 버리지 않고 계속 침략과 전쟁 정책에 매달리고있다.

력사와 생활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제는 우리 나라의 분렬을 조작하고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들씌운 장본인이며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세력을 몰아내며 그 식민지통치를 분쇄하지 않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우리 나라의 통일도 실현할수 없다.

미제를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는것은 조국통일위업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문제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하여 조선사람들자신이 해결하도록 되여야 합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한 담화》, 10～11페지)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우리 인민의 자주성과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유린하고 나라의 통일을 장애하는 주되는 요인이다.

조선의 통일문제가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되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나가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그 식민지정책을 끝장내는것은 우리 인민의 완전한 민족적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한 기본과업이다. 이 과업을 철저히 해결하는것은 조국통일의 장애물을 없애버림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기초우에서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리익과 념원에 맞게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서로 다른 민족간의 문제가 아니며 단일민족인 우리 민족내부의 문제이다. 그것은 본래 통일된 한 민족이 미제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을 청산하고 민족적통일을 회복하는 문제로서 오직 주인인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해서만 해결될수 있다.

민족내부문제는 그 성격과 내용이 어떻든지 언제나 해당민족의 자결권에 속하는것이며 어떠한 외부세력의 개입도 허용할수 없는 문제이다. 어떤 민족이든지 완전한 정치적자결을 실현하며 자기 권리를 자기 손에 틀어쥐고 행사하여야만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수 있다. 정치적자결을 떠난 민족문제의 공정한 해결이란 있을수 없다.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인민자신의 손으로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그 누구에

게도 양보할수 없는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이다. 현실적으로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외세가 회복하여줄수는 없다. 제국주의자들이란 제놈들의 침략적야욕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을 희생시키는것이 그 본성이다.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조선을 지배하려는 침략적목적을 추구하면서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말살하고 있으며 모든것을 좌지우지하고있다.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의 그 어떤 자주권의 행사란 있을수 없고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고 인민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것은 나라의 통일을 민족의 리익과 념원에 맞게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이 쫓겨가고 인민들의 자주권과 사회의 민주화가 보장되여야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가 우리 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원칙에서 순조롭게 해결될수 있다.

식민지야욕에 불타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주권을 유린하는 어떠한 모략책동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미제는 세계의 면전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제놈들의 침략기도를 은폐하고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유엔을 침략의 도구로 하여 우리 민족의 자결의 권리를 란폭하게 침해하였다.

원래 유엔은 타국의 령토와 타민족의 독립과 자유와 자주권을 존중히 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결성된것이며 또 자기 헌장에서 민족자결을 매개 민족의 신성한 권리로 선포하고있다. 그런것만큼 유엔이 자기 헌장에 충실하자면 조선문제해결에서 우리 나라 내부문제, 민족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 민족이 자결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유엔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언제나 정당하였으며 우리는 그 헌장을 위반하거나 무시한적도 없다.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짓밟고 유엔의 이름을 더럽힌것은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유엔을 본래의 사명과 배치되게 저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감행할 때마다 그 기발을 도용하였으며 특히 유엔의 탈을 쓰고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유엔으로 하여금 조선문제에 대한 부당한 결정을 비법적으로 채택케 하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요, 《유엔군사령부》요 하는것을 조작하여 놈들의 남조선강점을 분식하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고있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란 미제의 조선침략을 위해 고용된 사기협잡집단이며 《유엔군》은 유엔의 간판을 도용한 미제침략군으로서 모두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기 위한 병풍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엔을 끼고 조선에서 한 노릇이란 남조선을 저들의 침략과 략탈의 기지로 전변시키고 가장 반동적인 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였으며 통일을 가로막고 우리 인민에게 전쟁과 류혈의 참화를 들씌운 죄악뿐이다.

지난 20여년의 실생활이 이것을 명백히 실증하고있다.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엔을 리용하여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결의 권리를 유린하는것을 결코 허용할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을 가져온 장본인은 미제국주의자들이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며 조국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외세도 바로 미제침략세력이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민족분렬의 비극은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으로부터 물러가야만 가셔질수 있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물러가야 하며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떠한 외부세력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이것은 전체 남북조선인민들뿐아니라 전세계인민들도 다같이 인정하고있는바이다.

더우기 오늘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마련된 조건에서 미제침략자들이 더 이상 남조선에 머물러있을 아무런 리유와 근거도 없다.

남북이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할데 대하여 합의를 본 이상 미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과 제놈들의 남조선강점을 어떤 구실로도 정당화할수 없는것이다.

남북공동성명에서는 조국통일을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기하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것을 근본원칙으로 삼고있다. 자주적평화통일의 원칙은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여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회복하며 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사활적요구를 반영하고있다. 그러나 조선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오늘에 와서까지도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갖은 음모책동을 일삼고있다. 놈들은 겉으로는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환영하는체하면서 배후에서는 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하고있다.

조선의 통일을 반대하는 미제의 파렴치한 책동은 유엔의 기반을 도용한 제놈들을 공동성명에 지적되여있는 외세로 치부하지 않으면서 성명을 모독하는데서 로골적으로 드러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북공동성명의 의의를 훼손시키려고 책동하면서 《남북회담이 진행된다고 해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공약을 성실히 리행할것》이라느니, 《유엔에 의하여 한국이 탄생했으므로 유엔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계속 지원할것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도 유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느니 하고있으며 남조선으로부터 제놈들의 침략군대를 철거시키지 않을것이라고 떠들고있다. 한편 미제는 《남조선이 강력한 상태에 계속 있도록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은 남북간의 화해를 위한 잠정적인 첫조치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남북대결을 위하여 남조선군대의 《현대화》를 서두르고있다. 놈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후에도 신형구축함을 포함한 여러가지 현대무기와 작전장비를 계속 남조선에 끌어들이면서 각종 도상훈련과 군사연습소동을 련이어 벌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과 전조선 그리고 아세아에 대한 침략목적으로부터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계속 격화시키며 통일을 반대하기 위한 책동을 도처에서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함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였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면이 열린 새로운 정세의 요구와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하여 조선통일의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조선사람자신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룩할수 있게 하려는 전적으로 정당한 제안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처음부터 새 의정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악랄하게 방해하면서 유엔으로 하여금 자기의 헌장과 규범에 따라 이 제안에 의한 긍정적조치를 취할수 없게 하였다. 여기에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침략군대의 남조선강점을 유엔의 간판밑에 계속 유지하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조선에 대한 침략도구로 계속 리용함으로써 조선의 내정에 손쉽게 간섭하며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음흉한 목적이 숨어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미제가 감행한 책동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존엄과 자주권을 모독하며 조선에 대한 저들의 침략정책을 가리우기 위한 도발행위이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에 대한 파렴치한 도전이다.

비록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문제토의에서 자기 종복들의 거수기를 리용하여

또다시 유엔을 악용할수는 있었으나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려는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과 이에 대한 전세계인민들의 동정과 지지를 결코 약화시킬수는 없다.

미제는 조선에서의 사태발전을 똑바로 보아야 하며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앞길에 장애를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유엔은 자기의 권위를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유린당하지 말아야 하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며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겨버리고 그를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며 조선에 관한 부당한 《결정》들을 당장 취소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의 통일을 위협하는 미제의 모든 범죄적책동은 놈들의 변함없는 침략적본성에서 나온것으로서 그것은 멸망에 직면한 제국주의자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발악해나서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는 의연히 제국주의원흉으로 남아있으며 그들의 침략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제국주의자들은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어가면 〈평화〉의 간판밑에 침략과 전쟁 책동을 교활하게 감행하는 법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33페지)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비록 그 힘이 약화되여도 결코 변하지 않으며 침략자들은 옛진지에서 스스로 물러가려 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이 궁지에 빠질수록 《량면전술》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면서 《평화》의 간판밑에 침략과 전쟁 정책을 악랄하게 감행하는것은 놈들의 상투적술책이다.

최근년간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는 저들의 처지로부터 출로를 찾기 위하여 더욱더 교활한 《량면전술》에 매여달리고있다.

안팎으로 곤경에 빠진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닉슨주의》를 들고나와 아세아에서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하며 《조선사람들끼리 싸우게》할 흉악한 목적을 추구하고있으며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고 책동하고있다.

미제는 조선침략에 재생재무장된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끌어들이고있으며 남조선반동들과 결탁시키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새 아세아정책》에 편승하여 조선과 아세아에서 식민지적지배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망상하면서 우리 나라를 침략하며 통일을 방해하는데 서슴없이 나서고있다. 특히 일본반동지배층은 범죄적인 《한일협정》체결을 계기로 하여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본격화하였으며 경제적침투에 정치, 군사적 침투를 따라세우면서 남조선을 또다시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미제의 《돌격대》로서 남조선에 기여들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뛰여들 모든 준비를 갖추고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있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는 우리의 가장 위험한 외래침략세력이며 주되는 투쟁대상이다. 미일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할수 없으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도 담보할수 없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외세의 개입이 없이 단일민족이 갈라진 례가 없으며 침략자를 안에 두고 나라의 통일과 완전독립을 이룩한 력사가 없다.

미제는 우리 나라 내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조선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미일침략자들과 함께 그 침략의 발판으로 되고있는 매국세력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력사에는 언제나 혁명과 반혁명, 진보와 반동간의 투쟁이 있고 전진운동에는 반동이 따르는 법이며 혁명과 모든

전진운동은 반동과의 투쟁속에서 승리의 길을 개척하는것이다.

우리 민족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은 주체사상과 사대주의간의 투쟁이며 애국과 매국, 인민적인것과 반인민적인것간의 치렬한 투쟁이다.

남조선의 친미사대주의자들은 계속 미일침략자들에게 추종하면서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남북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그 어떤 《대결》로 묘사하고있다. 그들이 외세에 매여달리면서 이른바 《대화있는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그것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백해무익할뿐이다.

나라와 민족을 갈라놓고 우리 인민에게 분렬과 예속을 강요하는 미제가 외세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충분히 알수 있는 명백한 현실이다.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배족의 길이다. 우리 나라의 력대 사대주의자, 민족반역자들의 죄행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만일 남조선의 일부 반동들이 외세의존과 매국배족의 립장을 버리지 않고 통일을 방해하여나선다면 그들은 을사오적과 같은 영원히 씻을수 없는 치욕의 기록을 남기게 될것이다.

외세를 배격하고 북과 남이 협력하며 합작하여 나라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

주체와 자주성, 이것만이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과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실현할수 있게 한다.

우리는 주체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조선문제에 대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용허하지 않을것이며 우리 인민자신의 손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더욱 견결히 싸워나갈것이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을 비롯한 광범한 사회계와 각계층 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민족주체적힘으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반미구국의 성스러운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미제는 남조선으로부터 제놈들의 침략군대를 당장 끌어가야 하며 조선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제침략자들이 제아무리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날뛰여도 그것은 부질없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인민의 념원과 시대의 요구를 거역하고 끝끝내 남조선에 주저앉아 통일을 방해하여나선다면 놈들은 조선인민과 전세계인민들로부터 더욱더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것이며 빨리 멸망하고말것이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싸워나가는 전체 조선인민은 반드시 미제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성취하고야말것이다.

《닉슨주의》는 파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구 일 선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대외침략정책을 실현하는데서 악명높은 《닉슨주의》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미제국주의자들이 추구하고있는 이른바 《닉슨주의》의 간교성과 반동적본질을 전면적으로 꿰뚫어보시고 그것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을 명백히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닉슨주의》의 반동적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닉슨주의〉는 아세아에서는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보다 교활하고 음흉한 침략정책입니다.

그러나 〈닉슨주의〉는 옛날부터 반동통치배들이 궁지에 빠질 때마다 거기서 헤여나보려고 늘 써오던 낡은 수법이며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것입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폐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닉슨주의》는 멸망하여가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꾸며낸 침략과 전쟁의 교리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감행하는데서 언제나 교활한 《량면전술》에 매여달린다. 놈들은 로골적인 무력침략과 함께 이른바 《평화》의 간판밑에 보다 악랄하고 교활한 수법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책동을 음흉하게 감행하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매여달리고있는 《닉슨주의》도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량면전술》의 산물이며 미제의 력대두목들이 집요하게 추구하여온 《평화전략》의 재판이다.

닉슨도당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종래의 《지배》 대신에 《협동관계》로, 《대결》에서 《협상》에로 넘어갈것이라고 요란스럽게 떠벌이면서 마치도 제놈들이 더는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예속시키려 하지 않으며 침략과 전쟁 대신에 그 무슨 《평화》와 《협상》을 추구하는듯이 가장해나서고있다.

놈들은 허울좋은 《평화》의 간판을 내걸고 그 막뒤에서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의 군사적잠재력을 더욱 긁어모으고 그들을 침략정책수행에 내몲으로써 약화된 저들의 《힘》을 보충하고 제놈들자신의 피해와 손실은 될수록 적게 보면서 침략야망을 계속 추구해보려고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은 민족내부에서 서로 싸우게 하고 지역적으로는 민족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며 숨돌릴 틈을 얻어 제놈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나보려 하고있다. 따라서 《닉슨주의》는 현시기 내리막길에서 죽어가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며 놈들의 대외침략정책에서 기본전략으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전략으로부터 출발하여 《평화》의 간판을 들고 《대화의 시대》니, 《평화적대결의 시대》니 뭐니 하면서 큰 나라들에 구걸외교를 하려 돌아다니는 한편 다른 나라들을 분렬시키고 대립시켜 서로 싸우게 하여 각개격파해보려고 책동하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추구하고있는 이른바 《조선화》정책, 《아세아화》정책, 《웰남화》정책은 《닉슨주의》의 중요한 고리로 되고있으며 그것은 《닉슨주의》의 교활성과 악랄성을 전면적으로 폭로해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닉슨주의》를 표방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악랄하고 교활한 침략책동을 감행하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은 닉슨주의의 시험장》으로 된다고 떠벌이면서 남조선군대의 수를 더욱 늘이고 남조선에 각종 살인무기들을 대량적으로 끌어들여 남조선군대의 《현대화》를 다그치고있다. 나아가서 놈들은 남조선과 일본을 전략적으로 더욱 접근시켜 일본군국주의침략무력이 미제의 요구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새로운 조선침략전쟁에 투입될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닉슨주의》의 간판밑에 남조선군의 《현대화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킴으로써 남북대립을 고취하고 우리 나라를 계속 분렬시켜 《두개조선》을 만들어 남조선을 영원히 저들의 침략적군사기지로 리용하며 조선사람들끼리 계속 싸우게 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또한 놈들은 일본군국주의침략세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임으로써 남조선에서 제놈들이 하던 역할을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대신하게 하며 조선과 일본이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조선에서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실현해보려고 꾀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닉슨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시키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웰남에서 전쟁의 《웰남화》란 이름밑에 남부웰남괴뢰군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웰남에서 침략책동을 강화하고있으며 그것을 인도지나의 전지역에로 확대함으로써 인도지나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려고 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웰남과 캄보쟈, 라오스를 비롯한 인도지나의 전지역에서 미제와 그 괴뢰들에 의한 침략과 전쟁의 불길은 의연히 가셔지지 않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추구하고있는 《닉슨주의》에서 기본고리를 이루고있는것은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를 아세아침략정책의 앞장에 내세우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는 아세아에서 〈닉슨주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일본군국주의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군국주의를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는 놀음을 벌렸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에 편승하여 제 안속을 채우려고 꾀하여왔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33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지들의 무력을 직접 동원하여 침략을 강화하는 한편 악명높은 《새 아세아정책》에 따라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아세아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주로 아세아인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아세아에 대한 제놈들의 침략적야망을 손쉽게 실현하려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미제는 무엇보다먼저 일본의 전략적위치와 군사경제적잠재력과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의 침략경험과 복수주의적야망을 제놈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수행에 적극 리용하려 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전략적목적으로부터 닉슨놈은 저들의 아세아전략이 무너져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1969년 11월 전일본수상 사또도당을 워싱톤에 불러들여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침략세력을 아세아침략의 주되는 타격력으로 내세울데 대한 침략적모략을 꾸몄으며 그것을 미일 《공동성명》으로 공공연히 세상에 선포하였다. 닉슨도당은 《일본과의 협동관계가 아세아에서 닉슨주의의 성공을 위한 열쇠》라느니, 아세아침략에서 일본이 《독특한 중요한 역할과 더 큰 책임》을 걸아나서야 한다느니 하면서 일본군국주의를 적극 부추겨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아세아침략정책수행에 더욱 깊숙이 끌어들이였다.

한편 력사적으로 큰 제국주의세력을 등에 업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 이골이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미제의 《지위》가 약화된 틈을 타서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에 편승함으로써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침략적야

망을 손쉽게 이루어보려고 책동하고있으며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의 옛망상을 실현해보려고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일본군국주의의 두목이였던 사또란놈은 아세아의 그 어느 괴뢰들보다도 《닉슨주의》를 앞장서서 받아물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그처럼 발벗고나섰던것이다.

미일 《공동성명》이 발표된후 미제는 아세아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보다 강화하면서 손아래동맹자, 침략적군사기지로서의 일본의 군사적잠재력을 저들의 침략정책수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리용하는 길에 들어섰다.

《닉슨주의》의 침략적교리에 의한 《새 아세아정책》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팽창의 요구에 따라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반동적결탁이 계속 강화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충실한 집행자로서 해외침략의 길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있다.

미제의 조종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남조선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깊이 침투하였으며 《평화》와 《원조자》의 탈을 쓰고 동남아세아와 중근동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경제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 있다.

미제는 일본군국주의를 내세워 저들의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리용하는 한편 남조선, 대만, 남부웰남, 타이와 같은 아세아의 괴뢰들과 추종국가들을 끌어들여 새로운 아세아 《반공》군사동맹을 조작함으로써 이 지역에 이미 만들어놓은 군사동맹을 보강하고 그것을 저들의 침략정책에 적극 리용하려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태평양지역각료리사회》를 공공연한 군사동맹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며 《웰남참전국》들로써 이른바 《아파토》를 만들려고 책동하고있을뿐아니라 이미 유명무실한 상태에 처한 《세아토》와 《안쥬스동맹》을 정비보강하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은 바로 미제의 《새 아세아정책》의 중요한 일환으로 되고있다.

모든 사실은 《닉슨주의》에서 미제의 《새 아세아정책》이 핵을 이루고있으며 미제의 《새 아세아정책》을 실현하는데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기본공간으로 되고있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중근동과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사촉하여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도발책동을 끊임없이 벌리고있으며 아프리카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제놈들의 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닉슨주의》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면서 아세아와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침략정책을 계속 추구하고있으나 그것은 이미 기울어진 제놈들의 운명을 돌려세우기 위한 마지막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닉슨주의》는 미제의 취약성과 부패성의 집중적표현이며 놈들의 《힘의 정책》의 파산에서 오는 위기의 직접적인 반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신들도 아다싶이 최근년간 미제는 웰남전쟁에서 심대한 패배를 거듭하였으며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정치, 경제, 군사적 위기를 겪게 되였습니다. 미제는 이러한 막다른 골목으로부터의 출로를 찾기 위하여 이른바 〈닉슨주의〉라는것을 내놓았습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페지)

제2차세계대전에서 막대한 리윤을 얻어 군사경제적으로 급속히 팽창되여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된 미제국주의자들은 온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밑에 《힘의 정책》을 공공연히 추구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놈들은 제국주의렬강들이 약화된 틈을 타서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 침략적군사기지를 늘어놓고

무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공갈하는 동시에 《원조》를 미끼로 다른 나라들에 침투함으로써 세계제패의 침략적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1950년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도발한 강도적인 침략전쟁과 그에 뒤이은 꾸바에 대한 공공연한 무력침공책동, 웰남에서의 범죄적인 침략전쟁과 그리고 중근동에서의 빈번한 무력간섭책동은 바로 《힘의 정책》에 의하여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놈들의 침략적세계전략의 직접적인 산물이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힘의 정책》에 의한 로골적인 무력침략으로써는 결코 제놈들의 세계침략야망을 실현할수 없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감행한 침략과 전쟁 정책은 놈들의 취약성과 부패성 그리고 세계반동의 원흉으로서의 미제의 흉악한 면모를 온 세계에 폭로하여주었을뿐이였다.

조선전쟁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미국력사상 처음으로 참혹한 군사적패배를 당하고 내리막길에 들어서기 시작하였으며 이 전쟁에서 입은 상처도 아물리지 못한채 놈들은 꾸바와 웰남을 비롯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련속적인 타격을 받아 더욱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게 되였다.

로골적인 무력침략정책의 전면적인 파산은 미제의 대내외정책전반을 수습할수 없는 혼란과 위기 상태에 몰아넣었으며 놈들을 더욱더 막다른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안팎으로 엄중한 위기에 직면하여 패망의 일로를 걷고있는 시기에 대통령감투를 쓰고 미제의 두목으로 백악관에 들어앉은 닉슨놈은 전면적인 붕괴상태에 처한 저들의 처지를 《구원》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여나섰다.

닉슨도당은 집권후 안으로는 미국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강화하면서 밖으로는 더욱 악랄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침략과 전쟁 정책을 추진시켜보려고 미쳐날뛰였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고 정세가 변한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교활한 침략수법으로써도 제놈들을 위기에서 《구원》할수 없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과 전쟁 정책에 매여달리면 달릴수록 그 처지는 더욱 어렵게 되여가고있으며 놈들의 대내외적위기는 더욱 심화되여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그처럼 떠들어오던 핵공갈정책도 세계인민들속에서 더는 통하지 않게 되였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의 불길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있다. 놈들은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련속 얻어맞고있으며 배격당하고있다. 미국인민들속에서도 지배층에 대한 불만이 날로 커가고있으며 반전운동이 계속 앙양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경제적으로도 엄중한 위기를 겪고있다. 미국의 공업생산은 계속 떨어지고있으며 국제수지적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통화는 끊임없이 팽창되여 딸라의 시세가 폭락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심한 재정난과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쳐 해외에 널어놓고있는 군사기지를 많이 축소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으며 미제의 군사전략적약점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드러나고있다.

《닉슨주의》는 바로 미제의 이와 같은 정치, 경제, 군사적 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나온것이며 이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찾기 위하여 닉슨도당이 고안해낸 보다 교활하고 악랄한 침략정책이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닉슨주의》에 매여달리면서 필사적인 발악을 하고 있으나 놈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한 제놈들의 처지를 돌려세울수 없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가는 저들의 처지를 건져내기 위한 필사적인 발악으로서 악명높은 〈닉슨주의〉를 내

놓고 이른바 정책변경에 대하여 떠들면서 보다 교활하고 모험적인 침략책동을 감행하여나섰으나 이것 역시 실패의 운명을 면치 못하고있습니다.》(《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9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인민을 비롯하여 중국인민과 인도지나인민, 일본인민 그리고 기타 아세아나라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아세아에서 《닉슨주의》는 날이 갈수록 전면적으로 파탄되여가고있다.

《닉슨주의》는 무엇보다도 웰남인민들의 영웅적항전에 부닥쳐 파탄되고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부웰남에서 전쟁의 《웰남화》계획을 추진시키면서 웰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범죄적만행을 계속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지만 반미구국투쟁에 한결같이 일떠선 웰남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놈들은 련속 심대한 군사정치적패배를 당하고있다.

《닉슨주의》에 의한 미제의 《웰남화》정책의 전면적파탄과 함께 오늘 남조선에서도 《닉슨주의》는 파탄되여가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에 관한 3대원칙에 기초하여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에 따라 외세를 배격하고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가려는 남북조선인민들의 열의는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다.

남북공동성명에서 남조선당국자들이 남북쌍방이 무력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우리 당의 원칙적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미제는 남조선에 저들의 침략군을 주둔시킬 구실을 잃게 되였으며 남조선당국자들에게 《군사원조》를 주며 남조선을 계속 제놈들의 침략적군사기지로 리용할 그 어떤 근거도 더는 가질수 없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조선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미제의 《조선화》정책의 파탄과 나아가서는 조선에서의 《닉슨주의》의 파산을 의미하는것이다.

오늘 아세아에서 사회주의력량을 비롯한 반제혁명력량이 더욱 장성강화되고 아세아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은 급격히 앙양되고있으며 미제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서 《닉슨주의》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면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으나 그것은 오히려 아세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들을 미제를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 그 어느때보다도 굳게 결합시키고있을뿐이다.

오늘 조선과 중국, 웰남과 라오스, 캄보쟈를 비롯하여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인민들은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아세아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려는 미제의 《새 아세아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으며 그것을 철저히 짓부셔버리고있다.

이와 함께 일본인민을 비롯한 아세아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닉슨주의》를 실현하는데서 골간으로 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으며 남부웰남, 대만, 라오스, 캄보쟈의 괴뢰들이 더욱더 맥을 추지 못하고 붕괴상태에 처하여있다.

아세아에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혁명과 반혁명간의 력량관계는 사회주의와 혁명의 편에는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제국주의와 반동의 편에는 더욱더 불리하게 조성되고있다.

모든 사실은 아세아에서 《닉슨주의》가 전면적인 파산의 운명에 처하여있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이것은 날로 쇠퇴몰락하고있으며 패망의 일로를 걷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이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대내외정책의 전면적파탄으로 하여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그 처지가 극히 어려워지고있으나 침략적야망을 의연히 버리지 않고있으며 기만적인 《평화》의 간판밑에 아세아와 세계의 도처에서 계속 침략과 전쟁정책에 악랄하게 매여달리고있다.

현실은 제국주의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죽음에 가까와감에 따라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미제의 우두머리인 닉슨은 력대의 그 어느 미국통치자들보다도 더욱 악랄하고 교활한 놈이다.

웰남을 비롯한 인도지나에서의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닉슨도당은 바로 기만적인 《평화》의 간판밑에 진보적인민들을 반대하는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계속 벌려놓고있으며 또한 《평화》의 미명밑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상정치적와해책동을 강화하면서 세계혁명적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려 하고있다.

특히 오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3대원칙에 기초하여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후에도 닉슨도당은 겉으로는 《환영》하는척하면서 뒤에서는 이것을 뒤집어엎으려고 계속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놈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다고 해도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거하지 않을것이다.》, 《남조선이 힘의 립장에서 협상할수 있도록 원조를 계속 하겠다.》고 떠벌이면서 우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앞길에 여전히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이것은 닉슨도당이 우리 나라를 영구히 분렬시켜 남조선을 제놈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고있으며 남조선의 반동들을 부추겨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적도발책동을 계속 감행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승리하는 력사의 흐름을 가로막을수 없다.

사회주의와 혁명력량이 승리하고 제국주의와 반동세력이 패망하는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발악하면 할수록 그 처지가 더욱더 어렵게 되여가고있으며 놈들의 종국적멸망과정은 급속히 촉진되고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그리고 세계의 더욱 넓은 지역에서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끊임없이 앙양되고있으며 반제반미력량은 계속 장성강화되고있다.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은 미제의 최후발악적인 《량면전술》에 언제나 경각성을 높이며 놈들의 그 어떤 흉계도 철저히 짓부셔버림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매장해버리고 세계혁명을 더욱 앞당겨나아갈수 있다.

조선인민을 비롯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단합된 투쟁에 의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지역에서 반드시 쫓겨나고야말것이며 종국적으로 멸망하고야말것이다.

근로자 제11호 (루계 367호)

편집위원회

발행소•근 로 자 사　　주소•평양시 외성구역 익전동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72년 11월 1일　　발행•1972년 11월 5일

ㄱ-24250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2호

평 양 근로자사 1972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2 호(368)

차 례

위대한 주체사상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사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 《마이니찌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대하여 다시금 심오한 해명을 주심으로써 주체사상을 더욱 완성하시고 체계화하시였다.

실로 수령님의 천재적로작은 인간을 온갖 예속과 질곡에서 해방하며 사람이 사회와 자연,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 력사적문헌이다.

이 력사적문헌은 그것이 가지는 비할바없이 심오한 과학리론적내용과 위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들은 물론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맑스-레닌주의발전과 인류사상사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사상》,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발전에서 새로운 단계》의 사상이며 《우리 시대의 기본사조》라고 높이 평가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며 그것을 자기들의 투쟁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는것을 더 없는 영예로, 긍지로 여기고있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한 위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관한 심오한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리론을 가일층 발전풍부화시키시였으며 인류사상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시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맑스주의의 창시는 인류사상발전에서 하나의 근본적전환이였으며 이로써 국제로동계급은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지도적지침을 가지게 되였다.

맑스주의는 자연과 사회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리론실천적무기로서 로동계급의 오랜 혁명투쟁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되였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것을 생각하고 해결하는 주체철학을 창시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 주체사상의 기초입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것도 사람을 위한것이며 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입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3페지)

수령님께서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주체사상의 심오한 내용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은 모든것의 주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이다. 자연과 사

회의 객관적법칙을 인식하고 변혁하는것도 사람이며 사람을 위한것이다. 사람을 떠나서는 사회의 물질적생활조건자체도 사실상 무의미한것이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며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기스스로 개척할 힘을 가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기초를 과학적으로 심오히 밝히심과 함께 주체사상의 기본내용과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서 구현하기 위한 지도원칙을 전면적으로 심오히 천명하시였다.

주체의 철학사상은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사람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워 자연과 사회 및 자기자신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는 계급해방, 민족해방의 길을 밝혀주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이다.

주체사상은 그것이 도달하고있는 심오한 과학리론적내용과 그 헤아릴수 없는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로 하여 우리 시대의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혁명실천의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우리 시대는 사회발전의 객관적행정으로 보나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견지에서 보나 이전시대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력사적시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시대는 전세계적범위에서 격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며 지구상의 모든 피압박민족들과 피착취인민들이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 위대한 혁명적 폭풍우의 시대이다. 제국주의는 종국적으로 멸망하고 국제적규모에서 혁명이 승리하고있는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이다.

1920년대말 1930년대초에 자본주의세계를 휩쓴 파국적인 경제공황을 계기로 제국주의의 전반적위기는 더욱 심화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독점자본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국내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를 극도로 강화하였으며 극악한 파쑈통치를 실시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을 감행하는데로 나아갔다. 이로부터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계급적모순, 파시즘과 인민대중사이, 제국주의와 식민지예속국가들사이, 제국주의렬강사이의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였으며 혁명의 거세찬 흐름은 수많은 나라들을 휩쓸었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후 사회주의는 한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체계로 형성되였으며 식민지예속국가들에서 민족해방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고 투쟁속에서 수많은 신생독립국가들이 출현하였다.

오늘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은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일진에 오르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민족식민지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과업이 새롭게 제기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와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온 세계를 휩쓸고있다는것을 의미하며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기 위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원래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민족적 및 계급적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도 본질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투쟁이 세계의 어느 한 부분, 한 지역에서만 벌어지던 지난 시기에는 그것이 세계사의 일반적특징을 규정하는 요인으로는 되지 못하였다. 그때에는 많은 나라들에서 대중적혁명진

출이 준비되고 세계적범위에서 혁명운동이 태동하고있던 시기이다.

그러나 오늘은 혁명적폭풍우가 세계의 모든 지역을 휩쓸고있으며 혁명이 세계를 진동시키고있는 시기이다. 혁명적폭풍우가 세계를 휩쓸게 됨에 따라 자기 운명을 자기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인민들의 투쟁은 현대세계력사를 지배하는 주되는 사변으로, 인류력사발전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였다.

또한 오늘 혁명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조건과 민족적특성을 가진 민족국가들을 단위로 하여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있다.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시대의 공산주의운동은 과거와는 달리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민족국가단위로 독자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는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나 완전히 승리하고 점차 사회주의진영이 확대강화발전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178 페지)

오늘 세계에는 큰 나라의 로동계급의 당도 있고 작은 나라의 로동계급의 당도 있으며 보다 오랜 투쟁경험을 가진 당과 그렇지 못한 당은 있으나 다 같이 평등하며 자기 나라 혁명을 독자적으로 지도할 책임을 지고있다. 또한 이 당들은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이 서로 다르고 혁명발전단계도 각이한 조건에서 자기 나라 혁명을 령도해나가고있다.

매개 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나라 혁명운동을 독자적으로 지도해나갈만큼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준비되여있는 우리 시대에 와서는 그 어떤 국제적《중앙》도 필요없게 되였다. 모든 맑스-레닌주의당들은 민족국가단위에서 혁명과 건설을 독자적으로 하며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 것을 통하여 세계혁명운동을 촉진시킬 의무를 지니고있다.

제국주의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해방을 이룩하며 민족식민지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도 결국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두말한것 없다. 이것은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더욱 철저히 견지한것을 요구한다. 그전과는 달리 민족국가들을 단위로 하여 혁명투쟁이 폭넓고 다양하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시대에 와서 특히 그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되였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우리 시대 혁명운동발전의 필수적요구이며 합법칙성이다.

한편 오늘 혁명투쟁이 세계적범위에서 그리고 매개 나라들에서 더욱 심화됨에 따라 그전시기에는 제기되지도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당들과 혁명가들 앞에는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비롯하여 당면한 식민지민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전략과 전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해결을 기다리는 절박한 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 열쇠는 매개 맑스-레닌주의당들과 혁명가들이 자기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얼마나 발은 튼튼히 붙이고 혁명과 건설의 주인다운 립장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어떻게 견지하고 구현하여나가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인 그 나라 당과 인민이 주인된 립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주인된 역할을 잘하지 못한다면 결코 새 사회 건설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없으며 혁명실천에 돌이킬수 없는 해독을 주게 되리라는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주체사상은 바로 이와 관련하여 혁명의 주인인 그 나라의 로동계급의 당과 혁명가들이 어떤 립장에서 자기 나라 혁

명을 지도해야 하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높여야 하는가를 가르치준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립장을 튼튼히 견지하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똑똑히 할데 대한 시대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사상이다.

이 모든것은 주체사상이야말로 혁명적폭풍우의 시대인 우리 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위대한 사상이며 오늘날 혁명실천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는 지도적사상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주체사상은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하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인간의 자주성,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될데 대한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하고있다.

본래 인간은 그 본성자체로부터 자주성을 요구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동물과 다름없습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7페지)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누구나 자주적인 생활을 요구한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어떤 사람이나 민족을 막론하고 자주성이 없이 남에게 매여서 사는것을 원하지 않는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귀중한것은 그의 정치적자주성이다. 만일 목숨은 붙어있다고 하여도 정치적자주성이 없다면 그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사람다운 대접과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버림받는다면 거기에 무슨 사람으로서의 생활이 있겠는가. 바로 그렇기때문에 자주성을 무시하는것은 인간자체를 무시하는것이나 다름없다.

자주성이 인간자체의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낡은 사회에서 그것은 반동계급들에 의하여 수천년동안 여지없이 짓밟혀왔다.

노예사회에서는 더 말할것도 없고 봉건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절대화된 신분제도와 중세기적착취로 하여 완전히 예속된 상태에서 살아왔으며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자주성은 유린될대로 유린되였다. 봉건사회의 태내에서 나온 자본주의사회는 인간을 신분적노예대신에 자본의 노예로 전화시켰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거대한 물질적부를 창조한 대가로 더욱더 버림을 받게 되였고 그들에게는 빈궁과 기아, 무권리만이 차례지게 되였다. 자본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근로대중은 자본가들을 위한 리윤을 창조하는 《말하는 도구》로 바뀌여지고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 될데 대한 그들의 지향, 인간의 본성인 자주성을 옹호할데 대한 지향은 더욱더 짓밟히지 않을수 없었다.

특히 제국주의시기에 이르러 독점자본의 힘은 근로대중을 자기의 피땀뿐만아니라 온 몸뚱아리를 리윤창조의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몰아넣었다. 인민대중은 정치적자주성은 고사하고 하루하루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빈익빈, 부익부》가 생활의 법칙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제도하에서 근로인민의 처지가 달리는 될수 없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독점자본가들은 자국내 인민들뿐아니라 광대한 식민지인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그들의 자주성을 여지없이 짓밟아왔다.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식민주의자들의 노예로서 2중3중의 착취와 압박을 당하여왔으며 동물적인 처지에서 신음하여왔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다. 각성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수억만 인민들이 식민주의를 영원히 청산하고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서고있다.

오늘에 와서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세력은 각성된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더욱더 고립되게 되였으며 전세계적 범위에서 이미 멸망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우리 시대는 지구상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서 인민들의 각성이 전례없이 높아져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기 손으로 개척하며 인간의 자주성, 민족의 자주성을 되찾기 위한 인민들의 지향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진 시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으로 살것을 원하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 누구도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의 내정에 간섭하며 민족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허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우와 같은 책, 18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나라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신생독립국가들도 다른 나라의 간섭과 구속을 반대하고있으며 자주성을 견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지어 자본주의나라들까지도 큰 나라들에 더는 매여서 살려 하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활동할것을 지향하고있다.

자주성을 되찾으며 그것을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추세로 되고있다.

오늘 로동계급이 주권을 쥐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나라들에서도 인민들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성을 지키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되고있다.

물론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이미 착취제도가 청산되고 인간의 자주성, 민족의 자주성을 억누르는 계급들이 없다.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인민들은 이미 계급적 및 민족적 압박에서 해방되였으며 사람들의 자주성을 짓밟는 사회적질곡은 없어졌다. 이리하여 사람들이 사회와 자연의 주인으로서 참다운 생활을 누리고 꽃피워나갈수 있는 사회경제적조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회주의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국가들간의 관계의 견지에서 볼 때 정치적자주성에 관한 문제는 의연히 중요한 문제로 되지 않을수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침략세력들과 대치하여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고있다는 사정과 관련되며 그리고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에 일련의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하고있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우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인민들을 자연의 온갖 구속에서까지 영원히 해방하여 그들에게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있으며 인민들의 절실한 념원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합법칙적인것이다.

특히 수세기동안 식민주의예속밑에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고통을 겪어온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은 무엇보다도 민족의 완전한 자주성을 지향하여나서고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을 되찾고 지키는것은 사활적인 문제로 되고있다.

오늘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은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로부터 정치적독립을 달성함으로써 초보적으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이 나라들에서 민족적자주권은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적지 않게 위협당하고있다.

그러므로 이 나라들에 있어서 제국주의의 예속을 반대하며 민족적자주권을 회복하고 옹호하는것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없다.

오늘 각성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지난날의 쓰라린 식민지노예의 처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과 로골적인 침략정책을 반대하고 완전한 민족적자주성을 되찾으며 그것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서고있다.

민족의 자주성을 되찾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매장할뿐아니라 제국주의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혁명투쟁의 중요한 고리이다. 이 투쟁은 오늘 국제정세발전의 중요한 특징으로 되고있으며 현대력사발전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큰 나라들에 예속되지 않고 자주적인 길로 나가려는것은 심지어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중요한 시대적경향으로 되고있다.

오늘 적지 않은 자본주의나라들이 큰 나라들의 모험적인 침략정책의 희생물로 되는것을 원치 않고있으며 상전의 품에서 떨어져나와 자기의 독자적인 길을 따라나가려 하고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중요한 추세이다.

력사적사실은 자주성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이 하나의 세계적흐름으로 되고있으며 세계진보적인민들을 포함한 절대다수 인민들의 막을수 없는 시대적지향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의 주인으로 되려는 세계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하고있으며 그들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조선인민의 혁명실천에서 그 위대한 생활력이 검증된 불패의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으로서 조선혁명의 력사적행정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검증된 불멸의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주체사상은 그 어떤 리론을 위한 리론이 아니라 복잡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우리가 내놓은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사상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된 엄연한 력사적현실입니다.》(우와 같은 책, 15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그 어떤 리론을 위한 리론이 아니라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우리 시대의 혁명적기치이며 무엇보다도먼저 조선혁명을 위한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에서 전면적으로 구현되여 위대한 열매를 맺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수난에 찬 행로를 걸어오면서 언제나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될것을 무엇보다 열망하여왔으며 또 그것을 위하여 투쟁의 길에서 피를 흘리였다. 그러나 투쟁에 일떠선 인민대중을 정확하게 령도하는 수령과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옳은 지도사상이 없고 거기에다 민족의 넋을 좀먹는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교조주의로 하여 투쟁은 그때마다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며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인 념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혁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이 땅우에 새 생활을 마련하여주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심으로써 비로소 실현되게 되였다.

세계혁명의 한부분인 조선혁명은 류례없는 간고성과 복잡성을 띠고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의 모든 단계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있다.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세계혁명에서의 전형의 하나인 조선혁명의 수행방도를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그것을 혁명적으로 실천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을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에서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먼저 강도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식민지민족해방의 과업과 사회적해방의 과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해방후 조선혁명은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또다시 복잡한 투쟁로정을 걸어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인민은 주권의 주인으로 되기는 하였으나 투쟁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우리 인민은 나라가 분렬된 조건에서 그리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대치한 상태에서 새 생활 창조와 새 조국 건설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제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영웅적으로 물리치고 전쟁의 승리를 이룩한 우리 인민은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는 어려운 형편에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야 하였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자력갱생하는 혁명적원칙을 견지함으로써 가장 짧은 기간내에 전쟁의 혹심한 상처를 말끔히 가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심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비약을 이룩하게 하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 리론발전에 특출한 기여로 되는 새로운 귀중한 경험들을 창조하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정치에서 자주적이며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위력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하여 국토와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다시 통일하며 전국적범위에서 조선혁명을 완수함에 대한 독창적인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그 어느 기성리론에서도 처방을 찾을수 없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이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독창적으로 해결하심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력사적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시였다.

참으로 우리 인민이 수령님의 령도밑에 력사적으로 걸어온 영광스러운 투쟁로정, 그것은 주체사상이 찬란히 개화발전되고 실생활에 빛나게 구현되여 위대한 열매를 맺어온 자랑찬 력사이다.

경험은 주체사상이야말로 우리 인민과 나라의 자주성을 참답게 옹호하며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확고히 담보하는 승리적기치라는것을 보여준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오늘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우리 나라를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의 모범》의 나라로 높이 찬양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을 따르고 주체사상으로 살것을 절절히 념원하고있는것이다. 외국의 벗들은 수령님의 《주체사상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민족적긍지를 가지게 하였으며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할수 있게 하였다.》, 《주체사상은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에게 혁명투쟁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빛나는 등대이며 힘의 원천이다.》라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세계진보적인민들이 그처럼 흠모하여마지않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다함없는 긍지와 영예감을 가슴깊이 간직하면서 그이께서 펼쳐주신 주체사상의 대로를 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할것이며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할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우리 인민앞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와 그 심화발전

혁명의 영재이시며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에게 혁명의 무기를 안겨주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기 운명은 자신이 개척해야 하며 또 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였습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2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항일혁명투쟁시기 우리 나라 혁명운동과 세계혁명운동의 력사적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총화하신데 기초하시여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의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사상인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1920년대말～1930년대초에 이르러 혁명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급격히 앙양되였다.

세계의 광범한 지역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피압박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각이한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을 가지고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였다.

변천된 새로운 력사적환경에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띠고 벌어지는 혁명투쟁은 매개 나라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 력사적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조선혁명에서 이러한 요구는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식민지반봉건사회의 특수한 사회경제관계와 력사적조건에서 첨예하게 얽힌 민족적모순과 계급적모순을 해결하여야 하는 조선혁명은 아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였다.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자기 나라 현실에 튼튼히 발을 붙이지 않고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은 사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죄악적행동으로 말미암아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었다.

그러므로 조선혁명은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풀어나가며 투쟁로선과 방법도 자기 머리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렇듯 세계혁명과 조선혁명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은 새로운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시대가 절박하게 요구하는 혁명사상과 리론은 저절로 나오는것이 아니며 누구에 의해서나 다 창시되는것도 아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상과 리론은 오직 위대한 수령에 의해서만 창시되고 발전한다.

맑스주의는 국제로동계급의 최초의 수령인 맑스에 의하여 창시되였으며 레닌주의도 맑스의 위업을 계승한 로동계급의 수령인 레닌에 의하여 창시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바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인민대중의 힘을 믿으시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비로소 창시될수 있었다.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태여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랑하는 조국을 빼앗기고 가중

스러운 일제침략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의 학정밑에서 온갖 굴욕과 무권리,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겨레의 운명을 구원해야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으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독자적으로 새로운 혁명의 길을 개척하여 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성장하시는 기간 특히 학생시절에 조선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실태를 깊이 헤아려보시고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또 자기 문제는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것을 절실히 느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 하신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내에서 파벌투쟁이 심하고 또 상층부의 사람들이 인민대중과 리탈되여있었던 이 두가지 현상을 보고 혁명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자극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당시 조선민족해방운동을 한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대중을 떠나서 상층부의 몇몇 사람들이 모여앉아 말공부만 하고 싸움질만 하며 실지 혁명운동에 대중을 불러일으키지 않고있었다.

또한 당시 공산주의운동안에는 파벌들이 많았다. 이 파벌들은 자기 신념에 기초하여 인민의 힘을 믿고 혁명을 하려고 생각할 대신에 제가끔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파벌싸움만을 일삼았다.

조선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안에서 벌어진 이러한 현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발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때로부터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며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추진시켜나가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신께서 탐구하신 혁명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그 무엇에도 드놀지 않는 혁명적원칙성과 결단성을 가지시고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조선혁명의 구체적현실과 창조적으로 결부시키시는 과정을 통하여 조선혁명의 승리적길을 독자적으로 개척해나가시였으며 이 과정에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위대한 혁명의 진리, 주체철학의 원리를 발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적으로 각성되기만 하면 참말로 큰 힘을 발휘할수 있으며 아무리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할수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였습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2페지)

수령님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서시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시고 정력적인 혁명활동을 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혁명화하시고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하시는 과정에서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면 아무리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능히 혁명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에 소집하신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는 인류의 사상적재부를 비상히 풍부화하고 맑스-레닌주의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킨 세계사적사변으로 된다.

원래 공산주의운동은 누가 시켜서나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신념에 기초하여 진행되

는 자주적운동이다.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투쟁이다.

혁명투쟁의 이와 같은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맑스-레닌주의자라면 누구나 다 혁명의 주인인 로동계급을 비롯한 피착취근로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나 명백한 이 진리는 오래동안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있었다.

혁명사상과 리론은 객관적진리를 인식하고 리론적으로 일반화하여야만 비로소 혁명투쟁의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되는것이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운동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시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것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객관적진리를 리론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일반화하시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지도사상으로 전환시키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와 인류사상발전에서 영생불멸의 공적을 이룩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불멸의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은 우리 시대의 객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리론을 위한 리론이 아니며 안온한 서재속에서 고안된 리론도 아니다. 그것은 치렬한 계급투쟁의 불길속에서 태여났으며 혁명투쟁과 더불어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여가는 창조적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에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대중의 각오정도에 따라 제기하시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해결해나가시며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심으로써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그 행정에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혁명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으며 또 걷고있습니다. 우리는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오직 주체사상에 튼튼히 의거함으로써만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철저히 고수할수 있으며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할수 있다는 우리의 신념은 더욱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였습니다.》
(우와 같은 책, 5~6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류례없이 간고하고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무장투쟁로선과 혁명무력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 유격전쟁의 전략전술문제, 유격근거지창설, 당 및 정권, 혁명적군중단체 조직건설과 반제민족통일전선결성방침을 비롯한 모든 사상과 방침들은 주체사상을 반제민족해방혁명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구현한 독창적인 리론과 전략전술이다.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승리와 그 과정에서 이룩된 고귀한 경험, 불멸의 업적은 영명하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다. 그것은 해방된 조국에서 정치, 경제, 군사 등 새 사회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고귀한 밑천으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해방된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 하신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된것은 인민이 주권을 잡은 이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나라에서 주체사상을 각 방면에 걸쳐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진행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반제민족해방투쟁에서 승리하였으나 우리 혁명은 의연히 간고하고 복잡하였다. 나라는 매우 뒤떨어진데다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국토와 민족은 분렬된 상태에 있었다.

우리에게는 국가를 관리하고 경제를 운영해본 경험도 없었으며 식민지예속에서 해방된 나라에서 혁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미리 고안된 처방도 없었다. 2차대전직후 아세아에서 인민이 정권을 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었으며 구라파나라들의 경험은 우리 나라 현실에 맞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동방사람으로서의 특성, 조선민족으로서의 특성도 있었다. 또한 우리 나라는 봉건통치배들의 부패한 정책이 오래동안 계속되고 그후에는 36년동안 일제의 식민지로 있었던 락후한 나라였다. 그러므로 우리앞에 조성된 난관을 타개하고 락후한 처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며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생각하여 조선의 현실에 맞는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관철해나가야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선 문제로 된것은 우리가 어느 길로 나갈것인가 하는것이였다. 자본주의의 길은 착취와 억압, 예속과 몰락의 길이며 사회주의의 길은 계급적착취와 민족적예속을 없애고 전체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며 나라의 완전독립과 번영을 보장하는 길이다. 물론 사회주의의 길은 좋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주관적욕망으로 당장 실현할수는 없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우리 인민앞에는 사회주의에로 넘어가기전에 민주주의혁명과업이 당면하게 나서고있다는것을 천명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영명하신 수령님께서는 간고하고도 장구한 기간의 혁명투쟁의 피로도 푸실사이없이 조국에 개선하신 첫날부터 새조국 건설의 휘황한 강령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인민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결정적힘으로 깊이 확신하신 수령님께서는 모든 일에 앞서 우리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을 찾으시였으며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들어가시였다. 그이께서는 로동자, 농민 속에 들어가시여 인민의 각오정도와 지향에 맞는 정치제도는 어떤것으로 되여야 하며 근로인민의 세기적숙원을 실현할 민주주의적인 사회적개혁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깊이 연구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부합되며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반영하는 로선과 정책이 수립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사상과 리론이 현실에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우리 나라에는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새형의 인민정권과 인민민주주의제도가 세워졌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북반부는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기지로 전변되였다. 민주주의혁명에서 이룩된 모든 위대한 성과들은 남의것을 그대로 모방하는것보다 자기 실정에 맞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것이 훨씬 더 좋다는것을 사실로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 전략전술을 창조하시고 현실에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주

체사상을 더욱더 심화발전시키시고 풍부히 하시였다.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조국해방전쟁은 온 나라를 재더미로 만들었으며 우리 인민의 앞길에 헤아릴수 없는 난관을 조성하였다.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는 전후 인민경제를 복구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지난 시기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된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을 한 경험은 있었으나 락후한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나라 특히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것이 파괴된 우리 나라와 같은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을 한 일은 없었다. 그러므로 전후 사회주의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도 우리는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우리 인민자신의 힘을 믿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에서 공업화의 실현을 기다리지 않고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중소자본가와 부농의 경리를 수탈의 방법으로써가 아니라 협동화의 방법으로 개조할데 대한 전혀 새로운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이러한 방침들은 미제침략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것을 파괴하여 중소기업가들이나 수공업자들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였으며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너나할것없이 다 무산자로 된 조건에서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유일하게 옳은 로선과 방침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맑스-레닌주의경제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심으로써 독창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명제에 구애됨이 없이 인민들의 힘을 믿으시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에로 전당과 인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밝히신 주체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지난날 뒤떨어지고 가난하였던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가진 강력한 공업국가를 일떠세웠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상락원을 건설하고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전체 조선인민의 단결의 기초이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강령적기치이다. 우리 인민은 오직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감으로써만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주체사상만이 조국의 륭성발전과 우리 인민의 행복과 무궁한 번영을 보장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라는것을 우리 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심장깊이 확신하였다.

생활은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명제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주적이며 창조적립장이 혁명과 건설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가장 옳은 혁명적립장이며 태도라는것을 더욱더 실증하여주었다.

오늘 위대한 주체사상은 온 세계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으며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쥐고 그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세계인민들이 주체사상을 요구하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추세로 되고 있다.

우리는 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혁명하며 그이께서 마련하신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일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체사상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삼천리 이 강토에 주체사상을 더욱 활짝 꽃피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주체사상의 기초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시기 일련의 교시와 로작들에서 주체사상에 대하여 심오하고도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특히 수령님께서는 일본《마이니찌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시고 그 근본원리들에 대하여 고전적인 정식화를 내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새 고전적로작은 우리 인민의 사상생활과 맑스-레닌주의발전에서 중요한 사변으로 되며 우리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정식화하시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말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페지)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인민대중이며 그것을 밀고나가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밝힘으로써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에 대하여 가장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모든 일에서 주인으로 되게 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끝까지 혁명하려는 사상으로서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철저히 담보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기본문제들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서 어떤 원칙적 립장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것이 정연하게 해명되였다. 주체사상의 창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확립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인 주체사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계혁명의 력사적경험과 조선혁명의 실천적요구를 리론적으로 개괄하신데 기초하시여 내놓으신 과학적지도사상이다. 그것은 시대가 제기하는 초미의 문제에 유일하게 옳은 해답을 준 혁명의 지도사상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주체사상의 기초에 대하여 명백히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 주체사상의 기초입니다.》(우와 같은 책, 13페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사상은 주체사상이 의거하고있는 리론적초석이며 주체학설의 출발점으로 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근본지도사상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인 주체사상은 사람에 대한 유일하게 옳은 견해

를 확립하고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성과 사람과 객관세계와의 호상관계를 처음으로 과학적기초우에 올려놓았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람에 대한 과학적견해에서 사람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는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동물과 다름없습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7페지)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으로부터 명백한바와 같이 사람의 본질적특성은 그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라는데 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는것은 자주성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사람은 주위세계의 힘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며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세계를 자기의 목적과 리익에 맞게 끊임없이 개조하여나간다. 그것은 자기 생존을 위한 사람들의 필수적요구이다. 생활수단을 획득하기 위하여 자연의 법칙을 인식하고 리용하여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연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며 자연에 대한 지배를 확립하여나간다. 사회발전과정이란 사람들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가는 과정이며 사람이 주위세계를 지배하여나가는 과정이다.

자기의 목적의식적인 로동으로써 자연을 개조하며 자연에 대한 지배를 확립하여나가는 사람들의 활동과정은 일정한 사회적관계속에서 진행된다. 사람들의 생산활동이란 사회적성격을 띠며 사회와 집단을 떠난 사람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사회적존재로 되며 사회정치생활을 하게 된다. 사회적로동을 하며 사회정치생활을 하는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고유한것이며 바로 여기에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본질적차이가 있다.

사회적존재로서 사회정치생활을 하는것으로 하여 사람은 육체적생명을 가질뿐아니라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지게 된다. 사람은 사회적존재이니만큼 사회정치적생명을 잃게 되면 육체적생명은 붙어있어도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사회적로동에도 참가하지 않으며 사회정치생활에도 참가하지 않고 그저 무위도식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그것은 참다운 사람의 생활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짐승과 다른것이 없다. 더우기 자주성을 가지지 못하고 남에게 예속되여있으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가질수 없으며 인간자체가 무시되는것이다. 자주성을 무시하는것은 인간자체를 무시하는것과 같은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사람들은 막을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자주성을 지향하며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투쟁한다.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고 혁명투쟁이 있게 된다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은 주체사상의 이러한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성을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사람이 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하여 투쟁하게 되는가, 왜 로동을 하며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게 되는가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열쇠를 주고있다. 자주성은 사람의 본질적속성을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으로 된다.

인류의 해방투쟁사는 주체사상의 위대한 진리를 명백히 실증하고있다.

계급사회의 출현은 사회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근로하는 사람의 자주성을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함으로 하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계급에게 예속된 근로대중은 아무러한 정치적생명도 권리도 가지지 못하며 오직 소수 지배계급의 무제한한 착취와 압박의 대상

으로, 치부와 향락의 수단으로 되여 마소와 같이 혹사당하고있다.

자본주의제도는 근로대중을 극도의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며 그들의 정치적권리와 자주성을 야수적으로 그리고 교묘하게 탄압하고있다. 돈있는 놈이 더욱 잘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못살게 되는것이 자본주의사회의 법칙이다. 황금만능의 사회인 자본주의제도하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러한 정치적생명도 가질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국가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주인으로 참가할수 없는것은 더 말할나위도 없거니와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대우도 받지 못하며 사람으로서 응당한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있다. 래일에 대한 아무러한 희망과 기약도 없이 살아가며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와 존엄이 모욕당하고 사람의 자주성이 란폭하게 침해당하여도 어디가서 호소할데 없는것이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의 현실이다.

자본주의사회는 계급적 착취와 압박과 함께 민족적억압을 극도에 이르게 했다.

세계인구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는 인민들이 제국주의식민지체계밑에서 2중3중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받고있다. 민족적자주권이 유린당하고 나라의 모든 자원이 략탈당하며 인민들에게 온갖 사회적불행이 들씌워지고있다. 민족적인 예속은 계급적인 예속과 엉켜 사람들의 불행과 고통을 더는 참을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끌고간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력사와 미제강점하의 오늘의 남조선의 현실이 이 모든것에 대해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모든 엄연한 현실앞에서 오늘 자본주의세계에서 광범히 류포되고있는 《자유민주주의》의 넉두리가 얼마나 황당하고 가소로운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없다.

자본의 사환군들은 마치도 자본주의나라나 지어 식민지예속국가들에서까지도 인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되여있는듯이 떠들어대고있다. 이것은 철두철미 기만이며 허위이다. 만약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이 민족적자주권을 짓밟고 남의 나라를 제멋대로 침략하고 략탈하는 《자유》이며 돈있는 놈들이 인민대중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유》이며 사람의 자주성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사람의 존엄이 무시당하는 《자유》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혁명투쟁은 한마디로 말하여 다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인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8페지)

사람의 자주성을 유린하며 민족적 및 계급적 예속을 강요하는 사회제도는 오래갈수 없다. 사람들은 자체의 본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 막을수 없는 힘으로 투쟁에 떨쳐나서게 된다.

혁명투쟁은 바로 사람들에게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가지오게 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람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 근로대중과 민족의 자주적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은 정의의 투쟁이며 따라서 그것은 어떤 힘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다.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은 가장 영예스럽고 보람찬 투쟁이다.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이 청춘도 목숨도 다 바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는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인민의 자주성을 짓밟고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며 민족의 존엄을 모독하는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인민자신이 나라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며 민족의 번영을 가져오게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해 투쟁하는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보람있

는 일은 없다.

우리 시대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 아래 모든 인민들이 민족적독립과 계급적해방을 위해 떨쳐나선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이다. 혁명은 모든 대륙, 모든 지역, 모든 나라를 휩쓸고있다. 주체사상의 위대한 진리가 사람들에게 파악되자 그들은 자주성을 옹호하여 결연 투쟁에 나서게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입니다.》(우와 같은 책, 13페지)

사람을 어떤 위치에 놓고 보는가 하는 문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관점과 기타의 모든 반동적관점을 갈라놓는 분기점으로 된다.

우리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는것도 인민대중을 위해 하는것이지 결코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 수령님께서 항상 강조하고계시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인민의 리익과 배치되는 일은 어떤 사소한것이라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인민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문제를 대하는데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립장으로부터 출발하는것은 주체사상의 근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칙적문제이다.

이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이기때문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것은 사람일반에 대한 감상적인 사랑을 말하는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사회계급적내용이 담겨져있다. 주체사상이 체현하고있는 가장 숭고한 공산주의적인도주의는 사람일반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도 아니며 더우기 부르죠아적인 《박애》와는 아무러한 공통점도 없다.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귀중한 존재로 되는것은 로동에서 근로인민들이 노는 거대한 역할과 관련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은 인간사회의 부를 창조하며 우리의 모든 행복의 원천입니다. 로동은 참말로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입니다. 근로자들이 자기의 로동으로써 풍부한 물질적부를 창조하지 않고서는 인민들의 생활을 높일수 없으며 자기들의 요구대로 잘먹고 잘입고 잘살수 없습니다.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물질적부는 거저 하늘에서 떨어지는것이 아니며 오직 로동에 의해서만 창조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94페지)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는 오직 근로인민의 창조적로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과학도 기술도 문화도 사람에 의하여 발전된다. 세상에서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재부는 근로자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것이란 없다.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떠나서는 도대체 인류사회의 발전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참으로 창조적로동은 우리의 모든 행복의 원천이며 근로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된다.

근로하는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는 수령님의 사상은 근로하는 사람을 가장 천시하며 돈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부르죠아사상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로동은 가장 천한 일로 인정되며 근로자들은 가장 버림받는 존재로 되고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은 오직 자본가들에게 잉여가치를 가져다주는 한에 있어서만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게 된다. 그들은 자기 생활이 있고 리상을 가진 산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탐욕적인 리윤추구의 수단으로만 간주된다. 근로하는 사람들을 가장 멸시하며 그들을 가장 혹사하고 로동력을 가장 랑비하는 사회제도가 자본주의

제도이다.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상은 로동계급의 립장을 반영한 혁명적사상이다. 그것은 근로대중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깊은 신뢰에 기초하고있다. 사람들, 근로하는 인민들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립장만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며 력사를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은 모든것을 결정하는 가장 힘있는 존재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되는것은 사람이 객관세계의 비밀을 인식하고 그 요구를 옳게 반영하여 세계를 개조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고 지배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인류사상발전에서 오래동안 론의된 문제이다.

반동적이며 관념론적인 사상조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대답한다. 부르죠아반동리론가들은 인민대중이 몽매한 군중이며 력사와 자연의 힘앞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비활동적인 존재라고 지껄이고있다.

주체사상은 인민들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가장 힘있는 존재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민들을 믿고 그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것은 사람들이다. 자연을 개조하여 사회적생산을 늘이는 일도, 혁명투쟁을 벌려 착취없는 사회를 건설하는것도 사람들, 근로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며 그들이 어떻게 자각하고 동원되는가에 따라 그 성과여부가 규정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벌써 인민대중의 결정적역할에 대하여 깊은 확신을 가지시였으며 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대중과 리탈하여 《혁명》을 한다고 하는자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하여 신랄히 폭로단죄하시였다.

인민들속에는 무궁무진한 힘이 잠재하고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발휘되는가에 있다.

착취사회에서는 채찍과 기아의 규률에 의하여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며 사람들의 지혜와 재능은 제대로 발휘될수 없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위훈을 떨치고 기적을 낳게 하며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되게 하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그 활동을 규제하는것으로써 설명된다.

사람들이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되는것은 그가 사상의식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것과 관련된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진적인 사상과 혁명적열의를 가짐으로써만 력사에서 위대한 역할을 할수 있다. 진리는 대중에 의하여 파악되여야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전변되는것이다.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처지를 옳게 자각하지 못한 사람은 가련하고 무력한 존재로 된다. 그러나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옳게 깨닫고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은 거대한 힘을 나타낼수 있다. 착취사회에서 기아와 빈궁에 억눌리고 문명의 혜택에서 멀리 떨어져 지배계급의 학정에 순종하던 인민들도 일단 선진적인 사상으로 각성되고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게 되면 위대한 힘을 가지고 력사무대에 등장한다. 그렇기때문에 사멸하여가는 지배계급은 인민들로 하여금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동적인 사상과 기만선전으로 대중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며 그들을 타락시키려 미쳐날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에서 사람의 사상의식이 노는 결정적역할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분석과 조선혁명의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시여 착취제도를 뒤집

어없는 혁명투쟁에서나 새 생활 창조를 위한 건설사업에서나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사람이 어떠한 간고한 조건에서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힘있는 존재라는 위대한 사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에서 뚜렷한 실례를 찾아볼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시기를 회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기 운명은 자신이 개척해야 하며 또 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어렵고도 복잡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것을 다 자체로 해결하며 투쟁로선과 투쟁방법도 다 자기 머리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물론 우리는 형언할수 없는 곤난을 겪었으며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적으로 각성되기만 하면 참말로 큰 힘을 발휘할수 있으며 아무리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할수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였습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2페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15여성상 풍찬로숙하면서 형언할수 없는 곤난을 극복하여 마침내 흉악무도한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였다. 아세아와 세계를 제패하려고 미쳐날뛰던 일제의 강대한 무력을 상대로 정규군의 지원도, 국가적후방도 없이 긴긴세월 자체의 힘으로 싸워이긴다는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어려운 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이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발휘한 백절불굴의 투지와 청사에 길이 빛날 영웅적위훈은 자주성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억센것인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사람이 가장 힘있는 존재라는 사상의 정당성은 우리 나라에서의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투쟁을 통하여서도 실증된다.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과 3년간의 가렬한 전쟁을 겪고 나라가 완전히 재더미로 된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이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설수 없다고 떠벌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우리 인민은 벽돌 한장 없는 페허속에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력사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내에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웠으며 조선인민의 영웅적기개를 온 세상에 떨치였다.

선진적사상의식에 의하여 각성되고 고무되는 인민대중은 력사를 주름잡아 불가능한것을 가능하게 하며 없는데서 필요한것을 만들어낸다.

경험도 중요하고 과학도 기술도 무시할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이 어떤 사상의식을 가지고있으며 무엇을 지향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이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 의지만 강하면 어떤 곤난이라도 뚫고나갈수 있다.

참으로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하며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라고 하는 주체사상의 위대한 명제는 사람들에게 끝없는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영웅적위업에로 고무한다.

인민대중의 힘에 대한 깊은 확신, 이것은 철저하게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인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만이 지니고있는 특성이다. 인류의 미래를 상징하고 있으며 자신의 해방뿐아니라 전인류의 해방을 자기의 력사적사명으로 하고있

는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로부터 출발함으로써만 대중의 힘에 대한 이와 같은 확신이 생겨날수 있다.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사람을 가장 힘있는 존재로 보는 주체의 혁명적학설은 사람을 멸시하며 사람을 무기력한 존재로 보는 부르죠아반동사상에 대한 결정적타격으로 된다. 주체사상은 사람에 대한 견해에서 부르죠아반동리론의 허위와 위선을 철저히 발가놓았으며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고수할것을 힘있게 호소하고있다.

* *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의 기초를 천재적으로 해명하신것은 인류사상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의 근본원리를 우리 시대의 혁명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키시여 자연과 사회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변혁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인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그 철학적기초를 심오히 밝히시였다.

주체사상의 기초에 관한 학설이 확립됨으로써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 위치와 역할이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적립장에서 과학적으로 해명되였다. 인류사회발전의 근본문제인 사람에 대한 견해가 과학적기초우에 놓이게 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혀 새롭게 풀리게 되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자기 활동에서 무엇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어떠한 립장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비로소 옳은 대답을 받을수 있게 되였다.

주체사상의 기초에 관한 학설은 리론을 위한 리론이 아니며 그것은 실천투쟁속에서 체득된 진리로서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필승의 무기로 된다. 그것은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태여났으며 그 불길속에서 자기의 과학적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과시하였다.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창조성은 오직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생동한 실천적경험에 기초하고있는 리론만이 세계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주체사상과 그 기초에 관한 학설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없이 고매한 덕성과 공산주의적풍모가 깃들어 있다. 인민의 념원을 지니시고 인민속에서 탄생하시여 오직 인민의 리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는 어버이 수령님이 아니시고는 이토록 인민대중의 지향과 리익을 반영하는 리론을 창시할수 없다.

사람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견해에 리론적초석을 두고있는 주체학설의 매 구절구절에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복무의 정신이 힘있게 맥박치고있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주체사상은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으며 그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로 되는것이다.

주체사상을 따르는 인민들의 지향은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추세로 되고 있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며 근본방법이다

리 진 훈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할데 대한 문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서 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 《마이니찌신붕》 기자들에게 주신 대담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 대하여 새로운 심오한 해명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입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기때문에 인민대중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하는것입니다. 주인다운 태도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표현됩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6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혁명의 주인인 당과 인민이 주인다운 태도, 다시말하여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게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 지도사상이다.

혁명의 주인은 매개 나라 당과 인민대중인만큼 혁명과 건설을 잘하자면 무엇보다도 그 나라 당과 인민자신이 주인노릇을 똑똑히 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매개 나라 당과 인민대중은 우선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자각을 가지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똑똑히 수행하여야만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리익과 구체적실정에 맞게 처리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주인노릇을 똑똑히 할수 있는 길을 명확히 밝혀주고있다. 바로 여기에 혁명과 건설의 근본지도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의 독창성이 있으며 그 위대한 생활력의 원천이 있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마땅히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가져야 한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　　　*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과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 대하여 새로운 심오한 해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적립장이 어떻게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여있다면 창조적립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어떤 방법으로 주인인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일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여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주적립장이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가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라면 창조적립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7페지)

주체사상의 본질적요구로 되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 대하여 천명하

신 수령님의 이 탁월한 사상은 세계를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무기로서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지켜야 할 근본립장과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을 심오하게 밝혀주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어떤 립장과 방법을 가지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와 그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 주인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립장을 정확히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다.

자주적립장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어디까지나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신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기 나라의 실정과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가는 립장이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기 문제는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립장이다.

원래 인민대중이 혁명을 하는것은 그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하는것이 아니라 그들의 절박한 요구로서 온갖 예속과 압박에서 벗어나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자연과 사회에서 주인다운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것이다.

더우기 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싸우는 공산주의자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그 누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수 없으며 자기의 신념이 없이 남에게 맹종맹동할수는 없다. 공산주의자라면 남이 말하는대로 따라 말하고 남이 움직이는대로 따라 움직일수 없다. 어떤 환경에서나 자기의 신념을 확고히 고수하며 그것을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나가는것이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품성이다.

혁명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모든 문제를 자기의 판단과 신념에 따라 독자적으로 풀어나가야만 혁명과 건설의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는것으로부터 그 집행에 이르는 모든 활동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견지할수 있고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다.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은 또한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이다. 다른 나라 사람이 혁명을 대신해줄수는 없는것이다. 혁명은 수출할수도 없고 수입할수도 없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을 잘하자면 주인인 그 나라 당과 인민이 자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적립장에 튼튼히 서야 한다. 그래야만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책임, 자기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다할수 있다. 만일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남만 쳐다보고 남의 힘에 의존하려는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 외세의존사상에 사로잡힌다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할수 없고 자기의 책임을 다할수 없다.

이와 같이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의 판단과 신념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고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주적립장, 이것이 바로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시종일관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립장이다.

자주적립장으로 하여 우리 당은 대내외활동에서 아무러한 편향도 범함이 없이 우리 나라 실정과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추호의 동요없이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여왔다.

오늘 우리 나라가 그렇게도 짧은 기간에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이며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된 이 모든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의 확고한 자주적립장과 결부되

여있다.

자주적립장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밀접히 결합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주장하는 자주성은 결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을뿐만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것입니다. 자주성도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결코 그것을 약화시키는것으로 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자주성을 떠난 국제주의가 있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주의를 떠난 자주성도 있을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182～183페지)

자주적립장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 단결과 협조의 전제로 되며 기초로 된다.

모든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서로 자주성을 존중하여야만 그들사이에 단결과 협조가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하고 동지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자주적립장은 어디까지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강화하기 위한것인만큼 민족배타주의나 쇄국주의, 복고주의도 반대한다. 《자주성》과 《독자성》을 견지한다는 구실밑에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서 물러나 민족배타주의, 쇄국주의의 길로 나가며 자기의것을 내세운다고 하면서 복고주의에로 기울어지는것도 자주성과 인연이 없는 것이다.

매개 나라 혁명은 세계혁명의 뗄수 없는 한고리이며 따라서 매개 나라에서 혁명의 승리는 세계혁명의 발전과 그 전도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그친다. 그러므로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책임지고 승리에로 이끄는것은 매개 나라 당과 로동계급의 민족적임무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국제적임무로 된다. 더우기 민족국가단위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고있는 조건에서는 민족적임무를 떠나서 국제적임무를 생각할수 없으며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 세계혁명에 대해서 말할수 없다.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는 자기 나라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매개 나라 당과 공산주의자들의 높은 책임성, 주인다운 태도와 대립되는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는것이다.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확고한 승리에로 이끄는 지도사상인만큼 주체사상이 요구하는 자주적립장은 로동계급의 민족적임무에 충실할뿐아니라 그의 국제적임무에도 가장 충실한것이다.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원칙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거하는가 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근본립장과 함께 근본방법을 옳게 소유하여야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창조적립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당과 인민대중의 역할을 어떻게 높일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로서 혁명의 주인이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으로 된다.

창조적립장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일반적원칙과 다른 나라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나가며 자기 나라 인민대중의 창조적적극성과 혁명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발양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는 방법이다.

창조적립장을 견지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우선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교조주의적태도를 반대하고 그 일반적원리를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키는것이다.

맑스-레닌주의는 창조적학설이다. 그것은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다.

맑스-레닌주의는 모든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원칙을 밝혀주고있으며 따라서 혁명과 건설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일반적인

명제들을 제시하고있을뿐이다. 그것은 모든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전반적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답을 주지 않으며 또 줄수도 없다.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들과 명제들을 매개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결합시키고 그것들을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할 때에만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성과적으로 동원할수 있다.

매개 나라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를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자체의 지도리론과 독자적인 로선, 정책을 가져야만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령도할수 있다.

창조적립장은 또한 다른 나라 경험에 비판적으로 대할것을 요구한다.

다른 나라의 경험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창조적립장은 다른 나라의 경험도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도입해나갈수 있게 한다.

창조적립장에 대한 요구는 비단 맑스-레닌주의일반적원칙과 다른 나라의 경험에 대한 태도에서만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일반원칙을 적용하여 로선, 정책을 규정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전과정에 걸쳐서 관철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은 무엇보다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자기 힘을 믿고 창조적적극성과 혁명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발양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모든 정책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적극성과 혁명적열의에 의하여 실현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는 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해결되여나간다.

우리 당은 사람이 가장 힘있는 존재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고 하신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에 따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해결에서 인민대중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근본방법으로서의 창조적립장을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당은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남김없이 동원하며 그들의 열성과 창발성과 재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킴으로써 부닥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었다.

군중속에서 나오는 창발적인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종합하여 다시 군중속에 침투시켜 군중을 발동시키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적사업방법이다.

경험은 혁명과 건설에서 이러한 근본방법을 견지할 때만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주인인 인민대중의 역할을 고도로 높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실로 창조적립장을 견지할데 대한 사상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고 혁명과 건설을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의 두 측면으로서 호상 유기적으로 통일되여있다. 자주적립장이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라면 창조적립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이다. 이와 같이 두 립장은 서로 다른 측면을 가지고있지만 그것은 혁명실천에서 통일적으로 구현된다.

사람들은 자주적립장에 튼튼히 설 때에만 창조성을 발휘할수 있다. 제정신을 가지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며 자기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할 때에만 교조주의에 빠짐이 없이 창조적 지혜와 적극성을 유감없이 발휘할수 있다. 또한 인민대중은 창발성을 높이 발양하여 모든 문제를 훌륭히 풀어나갈 때 사대주의와 남에 대한 의존심을 극복하고 자주적립장을 튼튼히 지켜나갈수 있다. 이와 같이 자주성은 창조성의 전제로, 원천으로 된다.

주체를 세워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통일적으로 구현해나가야만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사람들의 자주의식

을 좀먹는 온갖 반동적인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사람들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여 자기자신과 사회를 성과적으로 개조할수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다.

이 모든것은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실정과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가며 인민대중의 창조적적극성을 높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이 혁명과 건설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가장 옳은 립장이며 방법이라는것을 말해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천명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에게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식과 혁명적개조의 새로운 무기를 안겨주시였다.

로동계급은 일찌기 맑스-레닌주의유물변증법적세계관을 가짐으로써 세계의 인식과 개조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자본의 친쇄를 끊어버리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올수 있었다.

로동계급의 세계관은 언제나 새로운 시대적조건과 혁명실천의 새로운 성과에 기초하여 발전풍부화된다.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위한 로동계급과 혁명적 인민들의 투쟁은 전세계적범위로 확대되고 그 내용이 전례없이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이러한 력사적조건에서 로동계급의 세계관을 그들의 혁명위업수행에 더욱 철저히 이바지하게 하며 시대가 제기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정확한 해답을 주는 세계관으로 발전시키는 문제가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자연과 사회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주체사상이 내놓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 관한 리론은 자연과 사회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개조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자연과 사회의 본질과 그 발전법칙을 밝혀내며 세계를 개조하는것은 어렵고 복잡한 사업으로서 인민대중의 고도의 창조성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요구한다. 남에 대한 의존심을 가지거나 남의것을 그대로 모방하려는 사대주의적, 교조주의적 태도를 가지고서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볼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의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울수 없고 혁명실천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

당과 인민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버리고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 즉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그리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기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하는 때라야만 온갖 창의창발성을 발휘할수 있으며 따라서 현실의 인식에서도 정확한 결론에 이를수 있다.

주체사상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분석판단하게 함으로써 자연과 사회의 본질과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하는 사업을 가장 곧은 길을 따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사람들이 대하고있는 현실은 무엇보다도 자기 나라의 현실이며 매개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주인인 그 나라 인민이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파악할수 있는것만큼 사물현상에 대한 인식에서 자기 나라 현실에 철저히 의거하는것은 모든 문제를 가장 정확히 분석판단할수 있는 기본방도이다.

세계의 인식과 개조에서 자기 나라의 현실에 철저히 의거할데 대한 원칙적요

구는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확고히 견지할 때에만 관철될수 있다. 혁명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높은 책임감은 인식과 리론을 자기 나라 혁명실천에 복종시키고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기초하여 풀어나가게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요구하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리론과 실천의 통일을 가장 철저히 보장하는, 과학적인식과 혁명적개조의 위력한 무기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고있는 조건에서 리론과 실천의 통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실천적경험을 일반화하는것은 모든 리론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며 이렇게 하는 경우에만 생동한 실천적경험을 기초로 하여 혁명실천의 지침으로 되는 산 리론을 얻어낼수 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투쟁이나 건설사업에서 다른 나라의 경험을 연구하고 받아들이는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어디까지나 자체의 경험이다.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에 복종시키고 모든 문제를 그 실천적경험에 의거하여 풀어야 한다는 방법론적지침을 내놓음으로써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개조하는데서 리론과 실천의 통일을 가장 철저히 보장하게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은 우리나라의 구체적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근본리익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우리 혁명에서 자연, 사회 및 사람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의 길을 밝혀주고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은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우리 혁명의 모든 문제를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수령님에 의한 주체사상의 창시는 혁명하는 모든 인민들에게 혁명과 건설에 대한 태도와 립장, 방법을 밝혀준것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발전에 위대한 공헌으로 된다.

실로 주체사상은 혁명하는 모든 인민들에게 어떤 태도와 방법으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가 하는 혁명의 진리를 과학적으로 밝혀주며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전투적기치이다.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인식하며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에 맞게 세계를 혁명적으로 변혁할수 있게 하는 가장 힘있는 무기로서 우리 시대의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다.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개조의 위력한 무기인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은 이 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아 승리해온 조선혁명발전의 전행정에 의하여 뚜렷이 확증되였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 사람을 근본적으로 개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날을 따라 더욱더 불패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살며 혁명하고있는 우리 인민은 무한히 행복하다.

우리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그를 빛나게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계속 힘있게 촉진하여나가야 할것이다.

청소년들을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기 위한 위대한 교육사상과 그 빛나는 실현

김 송 기

혁명의 영재이시며 우리 시대의 위대한 교육사상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 《마이니찌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와 최근 일본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 하신 담화에서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심오히 밝히시면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청소년교육문제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주체사상에 기초한 청소년교육에 관한 리론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공산주의적인간육성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주체적인 교육사상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우리 나라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찬란한 성과와 업적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 일본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들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교육사업의 위치와 역할, 교육의 본질과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요구 등 사회주의교육의 근본문제들을 심오히 해명하심으로써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육성의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시여 청소년교육문제는 혁명의 후계자육성에 관한 문제이며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청소년교육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혁명을 계속하여야 할 우리 혁명의 후비대일뿐아니라 사회발전에서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2페지)

로동계급이 자기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속하며 사회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워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속된다. 로동계급과 맑스-레닌주의당은 혁명의 대를 이을 후계자들을 훌륭히 키워야만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키우는것이다.

사회를 개조하고 자연을 정복하는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는 사람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 물론 생활수단이 없이는 사람이 살수도 없고 발전할수도 없다. 생활수단이 사람들의 생존조건, 사회발전의 조건으로 된다는 의미에서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를 이룬

다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떠나서 생활수단을 창조하고 생활조건을 개선한수도 없으며 사회발전도 생각할수 없다.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낡은 생산관계를 개조하는것도 인민대중이며 생산력을 발전시켜나가는 직접적담당자도 인민대중이다. 결국 사회는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발전하여왔으며 또 발전하고있다.

그러므로 사회발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교육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목적자체의 요구이라는것을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목적은 사람들을 다 잘살게 하려는데 있다. 그런데 이 목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사람들을 교육하여 그들의 자각성을 높여주고 혁명과 건설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게 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사람들의 자각성을 높여주고 그들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울데 대한 요구는 특히 혁명의 후계자들인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청소년들을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 키워야만 그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가면서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학교교육사업은 혁명의 후계자,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를 키우는 중요한 혁명사업인뿐아니라 사람과의 사업의 중요한 한 부문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교육사업의 위치와 역할을 다시금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사업은 사람을 위한것이며 그 성과여부는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교육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의 중요한 한 부문입니다.》(우와 같은 책, 13페지)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고수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서만 실현될수 있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켜 사회발전과 혁명의 법칙을 인식시키며 혁명과 건설에 자각적으로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는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더 잘 준비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은 당 및 정권기관, 근로단체조직들과 함께 학교교육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통하여 교육교양되며 사회적인간으로 준비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은 주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되며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육친적인 배려와 위대한 교육사상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모든 새세대들이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들에서 보육교양되고있으며 능력있는 새 사회의 믿음직한 주인으로 자라나고있다. 그러므로 학교를 통한 학생들과의 사업, 교육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의 중요한 한 부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육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의 중요한 한 부문으로서 사람을 힘있는 사회적인간으로 키우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이란 사람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적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입니다.》(우와 같은 책, 13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 정식화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은 다름아닌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적인간이라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건전한 사상의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 건강한 체력은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는 사회적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격이며 자질이다.

사람들을 온갖 압박과 구속을 청산하고 사회를 개조하며 자연을 정복하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적인간으로 키워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사람들이 높은 혁명의식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무장하여야만 자연과 사회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할수 있으며 그것을 혁명의 리익,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있다.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무장하지 못한 때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대하게 되며 따라서 사람들은 혁명투쟁에서 자주성과 창발성을 제대로 발휘할수 없으며 주인으로서의 제구실을 잘할수 없다.

그러므로 혁명의 후계자들인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적인간으로 키우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혁명하는 시대에 태여난 젊은 세대들이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우리 시대의 인간으로서 과학기술과 문학예술도 알지 못하며 건강한 체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사회적인간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인간은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없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적인간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사상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을 갖추어야만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우리 당이 언제나 교육사업을 사회발전과 관련되는 중요한 혁명사업으로 인정하고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청소년들을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건전한 사상과 지식과 건강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키우는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구현하는것을 교육에서 중심문제로 틀어쥐고 관철해나가고있다.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적인간으로 키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육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한것으로서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는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을 위한 유일하게 정확한 교육사상이다. 이 교육사상은 또한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말살하며 그들을 자연과 사회의 《숙명적노예》로, 지주, 자본가들의 《노복》으로, 기계의 부속물로 만들려는 반동적부르죠아교육사상에 결정적타격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청소년교육에서 사상사업을 앞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교육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할수 있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입니다.》(우와 같은 책, 14페지)

건전한 사상의식을 가지는것,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품격과 자질을 확고히 소유하고 사회적인간으로서 모든 사회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이다. 객관적인 법칙을 인식하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은 일정한 계급적 관점과 립장으로부터 출발한다.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하고 로동계급의 관점과 립장에 튼튼히 설 때라야만 자연과 사회발전의 객관적법칙을 가장 정확히 리해할수 있고 그것을 인민의 리익, 혁명의 리익에 맞게 옳게 적용할수 있으며 혁명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다.

학교교육사업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만 학생들은 과학기술지식을 옳게 습득할수 있으며 소유한 지식을 가지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히 복무하는 공산주의자로 자라날수 있다. 비록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있다하더라도 사상적으로 뒤떨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면 그런 사람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정신적불구자라고밖에 볼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관철하여 청소년들을 건전한 혁명의식을 가진 사회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혁명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에 선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로동을 사랑하고 인민의 재산을 사랑하도록 하며 집단생활을 더 귀중히 여기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청소년학생들이 개인의 출세나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자기 인민과 조국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사상과 혁명적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를 배워도 쓸모있는 지식을 배울수 있다. 또한 그들은 일하기 좋아하고 국가와 사회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혁명과 건설에 앞장서 나가는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을 갖춘 새형의 인간으로 철저히 준비되여나갈수 있다.

청소년교육에서 사상사업에 선차성을 부여한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공산주의적교육방침은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인간의 중요한 표징이 정치사상적자질에 있으며 따라서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하고 혁명할 각오를 가질 때라야만 자연과 사회의 발전법칙을 유물변증법적견지에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수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훌륭히 써먹을수 있는 지식을 습득할수 있으며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다는데 기초하고있다. 이 방침은 교육은 다만 지식의 전수로만 되여야 하며 어린이들에게는 정치사상교양이 필요없다고 설교하는 부르죠아적 및 기회주의적인 반동적교육리론에 대한 결정적타격으로 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금번 또다시 심오히 밝혀주신 탁월한 주체적인 교육사상은 대를 이어가면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혁명적립장, 주체적립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교육사상으로서 그것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인 간육성을 위한 강령적지침으로 되며 맑스-레닌주의교육사상발전에서 새로운 위대한 기여로 된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위대한 교육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청소년교육사업에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우리의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적인간으로, 가장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울수 있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활동력사는 언제나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생각하시고 그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며 특히 새 사회 건설의 직접적담당자들이며 혁명의 후비대인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더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후대교육을 언제나 혁명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새세대들을 자기 운명의 믿음직한 주인으로 키우시기에 모든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수령님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체적이고도 혁명적인 교육의 새력사가 시작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개척해나갈수 있는 믿음직한 혁명위업의 계승자를 키우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이룩하신 혁명적인 교육전통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인민교육사업이 나아갈 앞길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 건설을 위한 20개조정강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반적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국가경영인 소, 중, 전문, 대학교들을 광범히 확장할것. 국가의 민주주의적제도에 따라 인민교육제도를 개혁할것.》(《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31~32페지)

전반적무료의무교육은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을 정규적인 학교교육을 통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만들며 가장 귀중한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확고한 담보이다. 모든 후대들이 다같이 학교교육을 옳게 받아야 자연과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을 알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추진시키는데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벌릴수 있으며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다할수 있다.

그러므로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이 과거사회의 락후성을 없애고 자체의 힘으로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후대들을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우기 위한 선진적인 교육제도를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일제식민지통치에 복무하던 낡은 교육제도를 철저히 개혁하시고 새로운 인민적교육제도를 세워주심으로써 근로인민의 자녀들이 누구나 다 마음껏 배우며 부강한 조국건설의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높은 덕성과 사람을 힘있는 존재로 키워야만 혁명할수 있고 사회를 발전시킬수 있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후대교육을 위하여 온갖 배려를 다 돌리시였다. 참말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비록 현재는 좀 곤난하여도 후대들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는것을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숭고한 임무로,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신다. 그러시기에 수령님께서는 건국초기에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되였으나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첫의정에 연필문제를 상정하시였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후복구건설을 다그쳐야 했던 어려운 시기에도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와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시였다. 또한 련이어 교육부문에서 완전한 무료교육이 실시되도록 커다란 배려를 베푸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심화발전하는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교육부문에서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풍부한 일반지식과 현대적과학기술의 기초지식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적인간을 키우기 위하여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시였다.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실시는 사람의 자주적 및 창조적 활동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려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빛나는 성과에 기초하시여 금년부터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새로운 의무교육은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교육체계를 비롯하여 학교교육의 전과정이 후대들을 가장 귀중한 사회적존재로, 가장 힘있는 사회적인간으로 키울데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이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은 의무교육년한이 가장 길고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교육제도로서 후대들에게 중등일반교육을 완성시켜준다. 완성된 중등교육을 받아야 사람들은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지녀야 할 자질을 갖출수 있게 되며 따라서 학교를 마친후 어떤 초소에서도 자립적으로 일할수 있다. 새로운 의무교육은 후대들에게 만6살부터 로동할 나이에 이르는 기간에

지난날의 고급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줌으로써 후대들로 하여금 사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할수 있게 한다. 뿐만아니라 새로운 의무교육은 후대들에게 완성된 중등지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본인이 자습을 하여 대학과정을 마칠수도 있고 대학에 더 다니면서 공부할수도 있게 한다.

또한 고중의무교육은 후대들에게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을 튼튼히 세워주는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이다.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을 튼튼히 세워주는것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인간으로 만드는데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이 문제는 고중의무교육과정에서 훌륭히 해결된다. 조선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것과 같이 10년제고중의무교육에서는 의무교육기간내에 후대들을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교육교양함으로써 그들에게 혁명적세계관의 기초를 튼튼히 닦아주게 된다.

고중의무교육은 또한 완전한 무료교육에 기초한 의무교육이며 공부하는 기간에는 로동을 시키지 않고 단일한 학제에 의하여 같은 교육을 주는 가장 평등하고 인민적인 의무교육이다. 후대들에게 실제적인 의무교육의 혜택을 주자면 반드시 완전한 무료교육이 되여야 하며 누구에게나 꼭같은 교육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후대들이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충분히 갖출수 있다. 새로운 의무교육은 실제상 10년동안의 학교의무교육과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괄하는 11년동안의 무료의무교육이다. 이와 함께 이 의무교육은 단일학제에 의하여 중등교육의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의 전과정을 완성함으로써 중등교육을 누구나 다 같은 내용으로 중단없이 받게 된다.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은 또한 정연한 교육체계를 가진 의무교육이다. 학교교육에서 정연한 체계를 이루는것은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의 련계를 옳게 보장함으로써 후대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사회적인간으로 키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교육체계가 옳게 이루어져야 새세대들을 년령, 심리적 특성에 맞게 교육교양할수 있으며 전반적교육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새 의무교육의 체계는 입학나이가 한살 앞당겨지는 조건에서 학교전교육과 초등교육간의 련계를 더 긴밀히 하고 어린이들이 초등교육을 보다 원만히 받을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며 나아가서 10년제고중의무교육의 전과정을 성과적으로 마칠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의무교육은 사람을 언제나 귀중히 여기고 사람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며 사람을 혁명적으로 깨우쳐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있을수 있다.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며 근로대중을 멸시하고 증오하는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우리와 같은 새로운 의무교육을 생각조차 할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떠드는 《의무교육》은 사실상 돈있는 자들의 자식들을 위한것이고 근로자들의 자녀들에게는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절대다수의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월사금》을 비롯한 여러가지 《공납금》부담으로 인하여 학교에 가지 못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도 극단한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고취하며 불평등하게 교육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자녀들을 자본의 노예로, 기계의 부속물로 만든다.

실로 오늘 우리 나라에서 성과적으로 실시되고있는 새로운 의무교육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청소년들을 혁명의 참다운 보배로 키우시려는 수령님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후대들에 대한 그이의 뜨거운 사랑의 빛나는 열매이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인간육성의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모든 어린이들을 집단적으로 키울데 대한 공산주의적

교육방법과 시책을 내놓으심으로써 학령전어린이보육교양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집단적으로 키워야만 사람들은 나서부터 집단생활과 조직적인 생활기풍에 익숙하게 되며 학교공부를 잘하고 혁명과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육성될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님의 어린이보육교양방침에 따라 학령전어린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양육교양되고있으며 그들은 세상에 태여나자부터 배울 권리를 가지고 힘있고 존엄있는 미래의 역군으로 키워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특별한 재간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따로 내오시고 여기에서 새세대들이 어려서부터 자기의 훌륭한 소질과 기량을 마음껏 꽃피워나가도록 하시였다.

이 모든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철학이 어린이교육분야에 구현된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통신 및 야간 교육체계, 공장대학, 근로자중학교, 어머니학교, 청년학교 등 일하면서 공부하는 독창적인 교육체계를 내놓으심으로써 근로자들이 생산에서 리탈하지 않고 자기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고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일수 있게 하시였다. 이 교육방침은 지난날 배움의 길을 잃었던 성인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여 그들이 생산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역할을 훌륭히 놀수 있게 하는 우월한 방침이다.

이렇듯 지난날 현대문명으로부터 멀리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는 오늘 학교망의 조밀한 그물로 뒤덮이고 인민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을 모르며 온 가정, 온 동리가 배우고 남녀로소할것없이 전체 인민이 다 배우는 《교육의 나라》, 《사회주의교육의 모범의 나라》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장 선진적인 교육제도를 세워주시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하에서 교육기관의 성격, 교육의 목적,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과 방법 등 새세대들을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는 혁명인재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정확히 해명하심으로써 교육사업을 우리 혁명위업수행에 철저히 복무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교육기관의 성격과 교육의 목적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비롯한 교육사업 전반을 규정한다. 그러므로 교육사업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철저히 복무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하게 교육기관의 성격과 교육의 목적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교육기관의 성격과 교육의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인민학교, 중학교, 고등기술학교, 대학에 이르는 교육기관들은 사상혁명을 수행하는 기본수단의 하나입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501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 다시말하면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로동계급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02페지)

수령님께서는 이 교시들에서 사회주의하에서 교육의 목적과 사명이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데 있다는것을 밝히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학생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시고 그를 빛나게 관철하도록 이끌어주심으로써 청소년들을 로동계급의 사상과 도덕, 문화로 튼튼히 무장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워낼수 있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모든 교육기관들을 《글뒤주》를 만드는 장소가 아니라 열렬한 혁명가, 참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를 육성하는 사상문화혁명수행의 강력한 수단으로 확고히 전환시키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학교들은 로동계급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부강한 사회주의조국건설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열렬한 혁명가를 훌륭히 키워내는 강력한 수단으로서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의 원리에 기초하시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교육사업은 응당 우리 나라의 혁명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 우리의 현실에 맞게 진행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교수교양의 모든 부문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당정책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학생들을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산 지식과 기술을 가진 쓸모있는 일군으로 키우기 위하여 교수교양사업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였다. 또한 우리 학교들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목교수가 례외없이 학생들을 당정책으로 교양하며 교수에서 지식본위주의, 기술지상주의의 조그마한 경향도 철저히 배격하고 모든것을 당정책과 결부하여 가르치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학교들의 과정안구성에서 사상정치과목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시였으며 교수교양에서 정치사상교양을 앞세우고 과학기술교육을 옳게 배합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특히 기초과목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심으로써 학생들에게 현대 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습득할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닦을수 있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교육과 생산로동, 리론과 실천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데 대한 교육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우리의 모든 청소년학생들은 우리 혁명위업수행에 절실히 필요한 현대과학기술을 성과적으로 습득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생들속에서 체육의 대중화방침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심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기간내에 건전한 사상과 현대적인 과학기술지식과 함께 건강한 체력을 가질수 있게 하시였다.

학생들을 힘있는 사회적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은 결코 학교들에서 진행되는 교수나 강의만 가지고서는 성과적으로 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교수사업뿐만 아니라 학생생활 전과정을 그들이 혁명적으로 교양개조되는 과정으로 되게 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청소년학생들은 수령님의 교육방침에 따라 소년단, 사로청 조직생활과 함께 공장과 농촌, 가두와 인민반에 나가 위생근위대, 록화근위대 등 사회활동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고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을 키울뿐아니라 자신들을 미래의 열렬한 사회정치활동가로 준비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청소년학생들은 오직 수령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치려는 충성심으로 불타고있으며 일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를 좋아하는 참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새형의 인간으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의 학교교육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가장 선진적인 교육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모든 지도일군들과 교육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교육사상과 리론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그것이 우리 교육사업에서 더욱 빛나게 관철되도록 하여야 한다.

3대기술혁명로선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

김 성 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우리 혁명앞에 나서고있는 당면한 중심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당면한 중심적인 과업은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우리 인민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1페지)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3대기술혁명에 관한 방침의 본질과 그 독창성, 위대성을 깊이 파악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을 잘 알아야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인 위대한 주체사상의 진리를 더욱 심오히 인식하고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보다 깊이 파악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릴수 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3대기술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하여 불굴의 영웅성과 헌신성을 발휘함으로써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힘차게 앞당겨나가야 한다.

* *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나라의 공업화가 실현된 다음 맑스-레닌주의당이 어떤 투쟁로선, 어떤 투쟁구호를 내거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근로대중의 혁명적지향을 옳게 반영한 정확한 투쟁로선은 대중의 심장을 파악하고 대중에게 신심과 힘을 안겨주며 대중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인민대중의 절실한 념원을 정확히 반영한 독창적인 3대기술혁명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내놓은 3대기술혁명과업은 자기의 힘으로 기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로동과 중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1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로선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의 요구를 기술혁명령역에 전면적으로 구현한 독창적인 로선이다. 그것은 힘든 로동의 구속에서 벗어나 보다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우리 근로자들의 지향과 념원에 부합되는 위대한 사상이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사람들의 적극성과 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는 가장 선명한 투쟁구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저 중공업을 발전시킨다든가 경공업을 발전시킨다든가 하지 않고 사람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3대기술혁명의 목표를 내건것도 경제건설이나 기술혁명이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보람찬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되여야 한다는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을 뚜렷이 표현하고있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2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술

혁명을 사람들이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며 사람들에게 보다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투쟁과정으로 규정하시였다. 기술혁명에 대한 수령님의 이 탁월한 사상은 착취와 압박의 사회적근원이 청산된 사회주의하에서의 기술혁명의 본질과 사명을 명백히 밝힌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기술은 지배계급들의 리윤추구의 수단으로, 근로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도구로 복무하며 근로대중을 기계설비의 단순한 부속물로, 사회적불구자로 전락시키는 역할을 놀고있다. 오직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기술은 사람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그들을 나라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우는 숭고한 목적에 복무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기술혁명의 본질과 사명에 관한 사상은 사회주의하에서의 기술혁명을 단순한 기술발전문제로만 보는 관점과 립장과도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물론 기술이 발전하고 물질적토대가 강화되면 어렵고 힘든 로동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자주성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기술혁명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추진시켜나가는것과 기술혁명을 단순한 기술발전문제로 보고 처리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촉진하는데서 커다란 차이를 가져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들을 힘든 로동의 구속에서 해방하는것을 기술혁명의 기본목적으로 할데 대한 탁월한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나라의 공업화가 실현된 이후시기 사회주의하에서의 기술혁명수행의 유일하게 옳은 길을 처음으로 명백히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3대기술혁명과업의 내용과 그 수행방도에 대해서까지 가장 정확히 밝혀주시였다. 3대기술혁명과업에는 가까운 몇해동안에 공업부문들에서 자동화, 반자동화와 종합적기계화를 널리 실시하여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고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로동을 헐하고 생산성이 높으며 보다 안전한 로동으로 만들며 농업부문에서 기계화와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농민들의 로동조건을 로동계급의 로동조건에 접근시키며 식료가공공업을 발전시키고 현대적인 부엌세간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문제들이 밝혀져있다. 3대기술혁명의 중심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은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로동의 구체적형태들과 근로자들의 각이한 로동조건, 현실적가능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로선은 공업화가 끝난후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새로운 투쟁단계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 가장 과학적인 기술혁명강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로선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까지 해방하여 그들에게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보다 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영위할수 있게 하는 길을 밝혀주는 성스러운 기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래 기술혁명은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영예로운 혁명과업입니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미 근로자들을 지주와 자본가의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하는 과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이것만으로는 안됩니다. 그와 함께 높은 생산력수준을 이룩하고 힘든 로동과 헐한 로동의 차이,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없애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혁명을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01페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람들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생활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만드는 인류사적위업수행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을 청산하고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들의 생명인 자주성을 보장하는것이다. 착취제도는 사람들의 자주성을 짓밟고 온갖 예속과 질곡을 낳게 하는 주되는 사회적근원이다. 착취제도를 반대하는 계급투쟁, 혁명투쟁은 힘있게 벌려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이룩하여야만 인간해방의 숭고한 위업을 실현할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것의 주인인 사람들의 자주성이 종국적으로 이루어진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사회적예속에서뿐만아니라 자연의 구속에서까지도 벗어나 자주적인 인간으로서 참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기술혁명을 적극 추진시켜 높은 생산력수준을 이룩하고 로동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후에도 계급적차이와 함께 로동에서의 차이가 남아있다. 낡은 착취사회의 유물인 로동에서의 차이를 없애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계급적차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근로자들의 기술문화 및 생활 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앨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없다. 기술혁명을 적극 진행하여 로동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사람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은 인간해방의 위업을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3대기술혁명로선은 로동조건에서의 본질적차이를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사람들을 힘든 로동의 구속에서 해방할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3대기술혁명로선은 이렇듯 공업화이후시기 사회주의하에서의 기술혁명의 총적방향과 내용, 그 수행방도를 가장 과학적으로 밝힌 독창적인 기술혁명로선이며 사람들의 로동과 생활, 지어 가정생활에서까지 어렵고 힘든 로동을 없앨수 있게 하는 탁월한 사회주의경제건설강령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기술혁명과업의 실현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과업들이 완전히 수행되면 도시와 농촌에서 힘든 로동은 기본적으로 없어지게 될것이며 로동생활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급적차이도 없어지게 될것입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1페지)

3대기술혁명의 수행은 무엇보다도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과 생활을 개변하는데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할것이다. 3대기술혁명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수행되면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힘들고 품이 많이 들며 비능률적인 로동에서 해방되고 모두가 일을 안전하고 헐하게 하면서도 높은 로동생산능률을 낼수 있게 될것이며 그들의 생활은 더욱 넉넉하고 문명하게 될것이다.

3대기술혁명의 숭고한 목표와 그 휘황한 전망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모든 근로자들을 끝없이 고무할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양하도록 끊임없이 추동할것이다. 3대기술혁명의 위대한 설계도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의 로동이 최신기술로 장비되여 로동조건에서의 차이가 없어지고 그들이 자연에 대하여 더욱 자주적인 인간으로 되면 될수록, 녀성들이 부엌과 가정 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사람들속에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열성은 더욱더 높아질것이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오를것이다.

3대기술혁명에 관한 방침이 완전히 수행되면 또한 로동생활령역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지게 될것이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는 그들사이에 소유형태와 사상문화수준에서의 차이와 함께 로동에서의 차이가 남아있는것과 관련된다. 3대기술혁명강령은 로동계급과 농민의 로동조건에서의 차이를 훨씬 줄여 농업로동을 공업로동에로 접근시킨뿐아니라 그들사이의 사상문화수준에서의 차이도 없애는데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로동생활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급적

차이를 종국적으로 없어게 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3대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로선은 과학적공산주의리론발전에 불멸의 기여를 한 탁월한 사상이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기술혁명로선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하에서의 기술혁명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켰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기술혁명문제를 어떻게 푼것인가 하는 처방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못하고있었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기술혁명의 목표와 방향 및 그 수행방도를 정확히 규정한 3대기술혁명로선은 사회주의하에서의 기술혁명에 관한 진일적으로 체계화된 맑스-레닌주의리론의 창시로 된다. 3대기술혁명로선은 사회주의하에서의 기술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구현한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면서 이와 함께 모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여 생산활동에서의 그들의 능동적역할을 비상히 높일수 있게 하는 기술혁명강령이다.

수령님의 3대기술혁명로선은 또한 로동에서의 차이소멸에 관한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가일층 완성하였다.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로동에서의 차이를 없애려면 무엇보다도 없애야 할 대상이 어떤것이며 그 방도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로정과 순차를 거쳐야 되는가 하는것이 밝혀저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독창적인 3대기술혁명로선을 창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로동에서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유일하게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해답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는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차이만 아니라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가 있으며 가정생활령역에서도 남성과 녀성간에 로력적부담에서의 차이가 있다는것을 밝히시면서 육체로동안에서의 차이소멸을 3대기술혁명의 과업으로 제시하시고 그 해결을 위한 과학적방도를 천명하시였다. 이리하여 공업화가 끝난후 로동에서의 차이 소멸을 위하여 화력을 집중해야 될 주되는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것이 명백히 밝혀졌으며 그것을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곧바른 길이 열려졌다. 실로 수령님에 의한 3대기술혁명사상의 창시는 로동에서의 차이소멸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의 새로운 발전으로 된다.

3대기술혁명로선은 녀성문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도 더욱 발전풍부화시켰다. 녀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려면 녀성들을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에서 해방하는것만으로는 안된다. 이를 위하여서는 그와 함께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을 포함한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녀성들에게 남자와 동등한 조건이 보장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독창적인 3대기술혁명로선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녀성들을 불평등한 물질적조건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는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으며 사회주의하에서의 녀성문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가일층 발전시키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대기술혁명에 관한 사상을 창시하신것은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축성에 관한 문제, 로동조건에서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사람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문제, 농촌문제와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에 관한 문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두 요새의 점령에 관한 문제 등 과학적공산주의리론전반의 발전에 탁월한 공헌으로 된다.

※ ※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화가 끝난 다음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단계에서 독창적인 3대기술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보람찬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중심고리를 찾고 그에 힘을 집중하면서 련쇄된 고리들을 풀어나가는것은 수령님의 혁명과 건설에 대한 탁월한

령도방법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술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와 현실적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3대기술혁명수행의 중심고리를 공작기계생산에서 찾으시고 6개년계획의 첫해전투에서부터 공작기계생산에 화력을 집중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업수행의 전략적 목표와 방향을 명시하신데 뒤이어 몸소 현지에 나가시여 광범한 대중에게 당의 방침을 알려주시고 근로자들을 무한히 고무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후 재더미우에서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천리마대고조의 력사적기원을 펼쳐주신것처럼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 지난해초 생눈길을 헤치시면서 회천의 로동계급을 찾으시고 새 기술 혁신의 봉화를 지펴주심으로써 공작기계생산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의 영웅적로동계급은 대담하게 달라붙어 설비를 개조하고 생산공정을 적극 자동화하여 한해동안에 무려 1만대이상의 공작기계를 생산함으로써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구성과 만경대의 기계공장들이 또한 공작기계생산에서 인대 비약을 일으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기술혁명수행의 첫해전투를 총화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71년에 우리는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커다란 돌파구를 열어놓았습니다. 지난 한해동안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3대기술혁명과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으며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되였습니다.》(《신년사》, 1972년 1월 1일, 2~8페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3대기술혁명의 첫해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기술혁명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남김없이 확증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기술혁명의 실천투쟁을 통하여서도 심오히 체득할수 있었다. 지난 기간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거둔 빛나는 성과는 사회주의건설의 중심과업인 3대기술혁명의 높은 고지를 점령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것으로 만드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확고한 기초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거둔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시여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전원회의를 비롯하여 전국열관리원대회 등 중요한 대회들을 마련해주시고 친히 참석하시여 3대기술혁명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소극성,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짓부시고 기술개조를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도록 힘있게 고무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가운데서도 전국각지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을 찾으시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으며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육친적인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정확한 방침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 뜨거운 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모든 근로자들은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 벅찬 투쟁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할수 있었으며 오늘과 같은 빛나는 승리를 거둘수 있었다.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3대기술혁명의 찬란한 빛발아래 공업, 기본건설, 운수 등 전반적인민경제부문들에서 기계화, 자동화가 널리 실시되여 고열 및 유해로동이 줄어들고 어렵고 힘든 로동이

적지 않게 밀려났다. 실로 수령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3대기술혁명의 위대한 기치아래 전반적인민경제부문들에서 자동화의 새 시대가 바야흐로 활짝 펼쳐지고있다.

3대기술혁명과업은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분야에서도 승리적으로 진척되였다. 당 제5차대회이후 우리 농촌에는 위력한 중공업의 지원밑에 뜨락또르, 자동차를 비롯한 수많은 농기계들과 화학비료, 농약들이 공급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수령님의 현명한 방침에 따라 중간지대농촌들에서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줄이며 농업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농촌기계화와 화학화가 힘있게 진행되고있다. 이리하여 3대기술혁명의 위대한 강령에 따라 농촌기술혁명이 적극 추진되고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었으며 도시와 농촌의 로동조건에서의 차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일에서 해방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명이 또한 힘있게 추진되있다. 우리 기계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기초하여 식료가공공업과 일용품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결정적으로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의 식료가공 및 일용품 공업은 랭장고, 세탁기 등 여러가지 현대적인 살림도구들과 갖가지 부식물과 주식물을 더 많이 생산공급함으로써 녀성들의 가정일의 부담을 훨씬 덜어주었으며 그들의 가정과 부엌 일을 더욱 헐하고 간편한것으로 만들었다.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3대기술혁명과업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때로부터 2년이 지나갔다. 이 짧은 기간에 우리 인민은 그 숭고한 기치따라 멀리 전진하였고 위대한 변혁을 이룩하였다.

3대기술혁명의 방침, 그 독창적인 사상은 날과 더불어 더욱더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낼것이며 세계인민들속에서 더욱 열렬한 지지와 공명을 불러일으킬것이다. 지금 세상사람들은 조선인민이 어떻게 3대기술혁명을 실현하는가를 커다란 관심과 경탄 속에서 바라보고있다.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이며 우리 인민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한 투쟁이다. 그것은 인류사회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을 닦기 위한 투쟁이며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시위하기 위한 투쟁이다.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3대기술혁명과업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실현에서 실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수령님께서는 얼마전에 있은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다시금 3대기술혁명수행을 위한 전투를 세차게 벌릴데 대한 간곡한 교시를 주시였으며 그를 위한 구체적조치들을 취하여주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전당과 인민은 웅대한 3대기술혁명수행을 위한 투쟁을 왕성한 기세로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하며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불굴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과 애로들을 용감하게 뚫고나가면서 기술혁명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기계새끼치기운동을 힘차게 벌려야 하며 이르는곳마다에서 기계가 기계를 낳고 기계공장이 기계공장을 낳는 기술혁신의 세찬 불길이 계속 타오르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3대기술혁명의 탁월한 사상은 공산주의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으로 불타게 하고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3대기술혁명의 기치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야 할것이다.

사람과의 사업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

한 인 호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과학적으로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처음으로 밝히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할데 대한 사상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요구를 반영한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경제관리에 구현한 독창적인 사상으로서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이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을 밝혀주는 탁월한 사상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무엇에 기본을 두는가 하는것은 경제관리전반을 풀어나가는데서 근본문제로 나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이 근본문제에 유일하게 옳은 해답을 주시였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발전에서 혁명적전환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공업경영이 자본주의공업경영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본주의공업경영과는 달리 사회주의공업경영이 사람들의 의식을 발동시켜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공업경영의 기본은 사람들과의 사업입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149폐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이며 바로 여기에 자본주의경제관리와의 본질적차이가 있다는 천재적사상을 천명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를 관리할데 대한 사상은 지난날 지배의 대상, 착취의 대상으로만 되였던 생산자대중이 사회주의하에서는 경제관리의 참된 주인이며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힘도 생산자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적립장과 로동계급적관점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그것으로 관통되여있는 주체적인 경제관리사상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를 관리한다는것은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생산자대중의 책임성을 높이고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발동하여 생산을 발전시키며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를 관리할데 대한 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흘러나온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 주체사상의 기초입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것도 사람을 위한것이며 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은 사람을 위한것이며 그 성과여부는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3폐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 주체철학의 근본원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의 의식이 노는 능동적이며 결정적인 역할과 사회적인간의 본성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며 가장 힘있는 존재도 사람이라는 철저한 로동계급적관점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생산의 가장 능동적이며 결정적인 요소이다. 일정한 기술숙련과 사상의식을 가

진 사람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함에 있어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를 이루는 생활수단을 창조하는것도 사람이며 생활조건을 개선하는것도 사람이다.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힘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힘있는 존재로서 생산에서 큰 힘을 얼마나 낼수 있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수준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그들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며 그들이 생산에서 발휘하는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의 무궁무진한 원천으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은 기술수준을 높이고 생산을 발전시키며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된다. 이것은 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이며 경제관리의 주인인 근로자들의 높은 사상의식, 높은 혁명적열의가 생산리발전의 결정적요인이며 경제발전의 기본추동력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되는 과학적근거가 있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하신 수령님의 사상은 또한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완전히 부합되는 과학적인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가들은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것이 아니라 돈에다 로동자들을 얽매여놓고 공장을 관리하며 운영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일하게 하거나 규률을 세울수는 없으며 또 그렇게 하여가지고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나타낼수도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3~14페지)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합법칙적요구이다.

생산수단이 사적소유로 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이 제놈들의 리윤추구를 위하여 근로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략탈하며 근로자들은 죽지 않기 위하여 마지못해 일하게 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들은 근로자들을 돈과 채찍, 기아에 얽매여놓고 경제를 운영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근로자들의 자주성이 무시되고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질수 없으며 자각적열성이 나올수 없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근로자들이 나라와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만 근로자들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으며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질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의 결과가 전적으로 자기자신과 인민대중의 리익에 돌려짐으로써 근로자들은 온갖 열성과 창발성을 다 내여 일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하에서 생산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도는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있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를 관리한데 대한 사상은 또한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있다.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따라 고도의 계획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본질적특징이다. 그런데 사회주의경제의 이러한 계획적이며 급속한 발전은 자연발생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높은 의식성을 전제로 하고있다. 생산자대중이 높은 의식성을 가지고 생산과 경제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면 할수록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은 더욱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제는 더 잘 째이며 그리하여 사회주의경제법칙과 그 요구를 구현한 당정책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더욱 철저히 관철되게 된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주의적소유가 확대발전함에 따라 사회주의경제법칙은 보다 전면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사람들의 의식성이 가지는 의의는 더욱 커진다.

이처럼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발동시키는데 기본을 둔 경제관리사상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계획적으로 빨리 발전시키며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유일하게 옳은 길을 밝히준 과학적인 경제관리사상이다.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를 관리할데 대한 사상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칠데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필수적요구에도 완전히 부합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물질적기초를 닦는것만으로는 안되며 그와 함께 사상혁명을 하여 사람들의 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합니다.》(《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제2권, 455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착취계급이 없어지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다.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면 없앨수록 근로자들은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고 사회적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재능과 정력을 다 바쳐 일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도 다같이 빨리 점령할수 있다. 이로부터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임무는 마땅히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를 관리한다는것은 바로 사상혁명을 위주로 하여 생산을 발전시키고 경제관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것이며 그것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쳐나갈데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필수적요구에 전적으로 맞는 경제관리사상이다.

이렇듯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를 관리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근본원리를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다.

이 위대한 경제관리사상이 제시됨으로써 자본주의경제관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본질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경제관리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는 과학적기초가 마련되였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초석으로 하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경제관리사상으로서 맑스-레닌주의경제리론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탁월한 사상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관리의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이라는 천재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을뿐아니라 그 기본내용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경제관리에서의 사람과의 사업의 기본내용은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과의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331페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원칙이며 사람과의 사업의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조직적의사의 유일한 체현자이시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 교시들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과 함께 경제관리문제해결의 원칙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모든 경제관리일군들과 생산자대중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튼튼히 무장될 때 그들은 경제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할수 있으며 온갖 재능과 정력을 다바쳐 투쟁하게 된다. 그리하여 경제관리운영사업에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사람과의 사업의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경제관리에서의 사람과의 사업의 기본내용은 다음으로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과의 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로동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지식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549페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함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은 경제관리의 주인으로서의 그들의 역할을 원만히 할수 있게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은 사회적인간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갖추어야만 모든 사회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이처럼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은 생산에서 그들의 지혜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키워주는 사업으로서 사람과의 사업의 중요내용을 이룬다.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헐하게 일하며 근심걱정없이 생활하도록 세심히 돌보는것은 경제관리에서 사람과의 사업의 기본내용의 하나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지도일군들이 로동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쉬우는데 세심한 관심을 돌릴수록 당과 국가에 대한 대중의 충성심은 더욱 두터워지며 그들은 일에서 그만큼 더 큰 열성과 창발성을 내게 된다.

바로 여기에 근로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주는것이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으로 되는 근거가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관리에서 사람과의 사업의 대상에 대하여서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러면 공업에서의 사람들과의 사업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술자들과의 사업, 로동자들과의 사업, 사무원들과의 사업, 종업원가족들과의 사업입니다.》
(우와 같은 책, 549페지)

사람들과의 사업을 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기술자들과의 사업, 로동자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다.

공업이란 사람들이 자연과 투쟁하는 전선이며 생산과정은 곧 기술공정이다. 그러므로 기술자, 로동자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로동자와 기술자들간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생산과 기술 발전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는 근본담보로 된다.

이와 함께 종업원가족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종업원가족들은 종업원들의 방조자이며 기업소의 중요한 로력후비이다. 그러므로 종업원가족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가정을 혁명화하며 가정과 로동

자구를 안뜰히 꾸리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뿐아니라 생산자들이 가정에 대하여 근심걱정하지 않고 마음놓고 생산에 열중할수 있는 중요조건으로 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대로 기술자, 로동자, 사무원, 종업원가족들과 늘 접촉하면서 그들의 특성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며 정상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경제관리의 첫째가는 임무로 규정하시고 사람과의 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기본요구들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같이 경제관리에서의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하여야 한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하여야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계급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는것과 함께 군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의 혁명임무를 철저히 수행할수 있으며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할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에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모든 사람들을 언제나 계급적견지에서 평가하고 원쑤와 우리 편을 엄격히 가려내며 본인의 현재의 동향을 기본으로하여 매 사람을 평가하고 포섭할수 있는 대상들은 대담하게 믿고 꾸준히 교양개조하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사업원칙을 정확히 관철하여야 한다.

경제관리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옳게 세워진 다음에는 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직접 조직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달려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광범한 대중을 이 사업에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1페지)

사람과의 사업이란 어떤 물체를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의식의 발전정도가 서로 다른 산 사람들을 대상하여 그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인것만큼 사람과의 사업의 담당자인 지도관리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결코 성과를 거둘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사람과의 사업에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경제관리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행정식사업방법을 근절하고 설복과 교양의 방법을 철저히 적용하여야 한다.

설복과 교양의 방법은 생산자대중이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도록 그들에게 계속 해설침투하며 늘 실천활동을 살펴보고 부족점이 있으면 또 깨우쳐주고 인내성있게 가르쳐주는 방법이다. 해설과 설복의 방법은 부단한 침투와 부단한 교양을 통하여 사람들의 정치적 각성을 불러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업수행에로 적극 동원되도록 하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사업은 철두철미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수 있도록 사업작풍과 사업방법을 바로잡아나가기 위하여서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에 의거하여 한사람이 열사람, 열사람이 백사람, 백사람이 천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을 관철하여야 한다.

한사람이 열사람을, 열사람이 백사람을, 백사람이 천사람을 움직여 모든 사람들을 혁명과업수행에 적극 동원하는 방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사람과의 사업

방법이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이 방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까지나 책임지고 끝까지 교양하고 개조하는 정연한 개별교양체계를 세워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수 있도록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기 위하여서는 또한 모든 일군들이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인민적사업작풍을 가져야만 대중속에 깊이 들어갈수 있으며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옳게 교양개조할수 있다.

일군들이 가져야 할 인민적사업작풍에서 중요한것은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모든 일에서 언제나 이신작칙하며 겸손하고 소박하고 례절이 바르며 높은 문화성과 인간성을 가지는것이다. 특히 지도일군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며 자기 부문의 전문지식을 가져야 한다. 지도일군들자신이 자기의 정치리론수준과 실무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교양할수 없고 다른 사람의 옳은 의견을 받아들일수도 없는것이다.

사람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기본요구의 하나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인민경제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며 근로자들의 대중적경제관리의 훌륭한 방법일뿐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 훌륭한 대중적교양의 방법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힘있게 벌려야만 인간개조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건설의 적극분자로 만들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분야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람과의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　　＊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는 사회적생산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의 하나로서 그것은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경제건설에서 대중의 의식성과 조직성의 의의가 커질수록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생산력에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적응시키며 확립된 토대에 맞게 상부구조를 완성하고 토대에 대한 상부구조의 작용을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관리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해나가야 한다.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는 주체사상과 그 요구를 구현하고있는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이며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옳게 구현하고있으며 공산주의적요소를 많이 가지고있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게 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의 전형으로서 그것은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다.

모든 당원들과 경제관리일군들은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한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신 대안의 사업체계를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시킴으로써 수령님의 주체적인 경제관리사상을 견결히 옹호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주체사상은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위대한 기치

김 남 형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 《마이니찌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주체의 철학사상을 과학리론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시대와 민족 앞에 나선 원칙적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시면서 주체의 빛발로 통일위업의 대로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불멸의 주체사상, 이는 혁명과 건설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이며 민족이 자주권을 수호하고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는 길, 민족해방과 인류해방의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활동의 첫시기에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장구한 기간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어렵고 복잡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가장 정확히 풀어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의 민족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나라의 실정과 민족의 리익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며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함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능숙히 조직령도하시였으며 이 땅우에 《주체의 조국》을 일떠세우시고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을 위한 오늘의 새 국면을 마련하시였다.

1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전국적범위에서 우리 인민의 완전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가장 절박하게 나서는 중심문제이다.

오늘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은 자본의 지배를 뒤엎기 위한 로동계급의 계급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운동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억압받고 착취받는 인민들이 제국주의예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이룩하며 식민지제도와 그 후과를 청산하고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현시대가 제기하는 이 원칙적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고있다. 주체사상만이 민족들의 자주권확립문제와 인민들의 사회계급적해방문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그 해결을 위한 길을 명백히 밝혀주고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식민지예속밑에 있는 나라의 로동계급이 광범한 인민대중을 이끌어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리론을 체계화하시고 그를 조선혁명에 실천적으로 구현하시였으며 전국혁명에서 민족적통일문제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 절박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당면하게 나서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우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것입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0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는 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호상관계 그리고 나라의 통일문제의 혁명적본질을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인 주체사상으로 명백히 밝혀주고있다.

조선혁명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전국적범위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며 전체 조선인민이 온갖 자연의 구속과 사회적질곡에서 벗어나 다같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한 투쟁이다. 한편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갈라진 국토와 민족의 재통합을 실현함으로써 제국주의침략자들에 의하여 나라의 절반땅에서 짓밟히고있는 민족적자주권을 회복하고 인민들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전국적판도에서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이며 근본적인 과업이다. 조국의 자주통일을 떠나서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생각할수 없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주권은 미제의 강점으로 하여 조국의 절반땅에서 여지없이 유린당하고있다. 이것은 조선혁명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완전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데 기본장애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외래침략자들을 내쫓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것보다 더 절실한 문제란 있을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10페지)

민족문제의 견지에서 볼 때 주체를 세우는것은 외래침략자들로부터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그를 대내외사업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것이다. 주체사상은 사람들의 자주성,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의 길을 밝혀주는 사상이다.

오랜 세월에 걸쳐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여온 우리 인민의 줄기찬 투쟁은 나라의 독립과 인민들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15성상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벌려왔으며 마침내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여 민족적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민족사에서 영광스러운 새 기원을 열어놓았다.

해방후 조선혁명은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복잡성과 간고성을 띠게 되였다. 우리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어려운 조건에서 새 조국을 건설하게 되였으며 남조선은 또다시 민족자주의 길이 아니라 예속의 길로 굴러떨어지게 되였다.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그곳에 파쑈제도를 세우고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를 거머쥔 실제적통치자로 군림하고있다. 미제강점하의 남조선에서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는 자주적발전의 길이 가로막히고 인민들의 자주성은 유린말살되고있다.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을 두고 그토록 념원해왔고 그를 위해 줄기찬 투쟁을 벌려온 민족의 자주권은 아직 전국적범위에서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나라가 통일되지 않고서는 이 비정상적인 사태가 해소될수 없다.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야만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할데 대한 조선혁명의 절박한 요구를 구현할수 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로 인한 조국의 분렬은 또한 전조선사회의 통일적발전을 장애하고있으며 전체 조선인민이 완전한 사회적해방을 이룩하고 다같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없게 하고있다. 이것 역시 조국통일을 조선혁명의 더는 지체할수 없는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하고있는 중요한 사정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이며 우리 나라는 자연지리적으로 뗄수 없이 련결된 하나의 강토를 이루고있다.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은 민족적자주권을 굳건히 지켜왔으며 우리 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통일적발전을 이룩해왔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국토량단은 남

북간에 장벽을 쌓고 모든 련계를 끊어놓음으로써 나라의 두 부분은 서로 상반되는 길을 걷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공화국북반부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착취와 억압, 락후와 빈궁을 털어버리고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가진 강력한 공업국가에로의 세기적비약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나라가 분렬된 탓으로 북반부의 강력한 공업력과 풍부한 자원, 민족의 슬기로운 지혜와 힘은 전조선사회의 통일적발전을 위하여 활용되지 못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내외계급적원쑤들의 착취와 략탈에 시달리고있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제국주의침략자들이 나라안에 있고 분렬이 지속되는 한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보장될수 없다.

민족적예속은 사람들의 자주성,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 그들에게 온갖 사회적불행을 강요하는 기본화근이다. 인민대중은 오직 제국주의예속에서 해방되여야만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자주권을 가진 인민으로서의 자유를 누릴수 있다.

참으로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미제침략자들을 내쫓고 나라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것보다 더 절실한 문제란 있을수 없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확고한 지도적지침이다.

나라와 민족이 옳은 지도사상에 의거하여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자기 운명과 장래발전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인민대중은 옳은 지도사상을 가져야만 자기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태도, 지도원칙과 방법을 체득하고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그자체의 본질과 기본내용에 의하여 조국통일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그것은 주체사상이 우리 인민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확고한 립장에서 조국통일이라는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 길을 명확히 밝혀주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말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우와 같은 책, 1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를 추동하는 주체적력량도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야 하는것이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견지하고 자기자신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만드는 정신적기초로 된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며 혁명투쟁은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성을 견지하는데 바로 사회적존재로서의 참된 가치가 있는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쥔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되자면 민족적, 계급적 해방이 실현되여야 한다. 대중의 해방이 실현되여야 개성의 해방이 보장될수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될것을 가르치는 사상이며 자기자신의 힘으로 계급적, 민족적 해방을 이룩하는 길을 밝혀주는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천일적인 혁명적세계관이다. 여기에는 계급투쟁에 관한 사상도 내포되여있으며 외래침략세력과 매국세력을 반대할데 대한 민족해방의 사상도 들어있다.

인민대중은 계급적, 민족적 예속과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여야만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다. 계급적 압박과 착취가 있고 민족적예속과 불평등이 강요되는 한 사람들은 자유롭고 보람찬 생활을 창조해나갈수 없고 민족은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할수 없다.

주체사상은 바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사람들의 자주성과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며 나라의 자주독립을 굳건히 지킬데 대한 인간해방, 계급해방, 민족해방의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만이 사람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나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에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다른 모든 혁명투쟁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서만 승리의 앞길을 개척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우리 인민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을 밝혀주는 사상이다.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야만 외세의존과 외세의 간섭을 반대하고 자기의 권리를 지킬수 있으며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 문제를 책임지고 풀어나갈수 있다.

민족이 자주성을 지키려면 밖으로는 외세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하며 안으로는 그를 업어들이는 사대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가 미제와 사대매국세력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도 결국은 완전한 자주권을 가진 자유로운 민족으로 되기 위한것이다.

조국통일위업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은 원래 통일문제가 우리 인민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민족내부문제라는데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도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여야 하며 또 결코 달리는 될수 없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00페지)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한다는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나가도록 하며 그밖에 다른 나라 세력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완전한 민족적독립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그이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장구하고 간고한 투쟁행정에서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그로 인하여 국토와 민족이 갈라진데서 제기된 민족적재통합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그것은 본래 통일된 한 민족이 미제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을 청산하고 완전한 민족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내정에 속하는 문제이다.

민족내부문제해결에서 기본요인은 그 나라의 민족주체적력량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 인민이 어떻게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가에 달려있다.

서로 다른 민족이나 민족국가들간의 문제도 아니고 국제분쟁문제도 아닌 우리 민족내부문제는 오직 주인인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내부문제에 대하여 책임질수 없다.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외세가 회복하여줄수는

없는것이다.

자주적립장과 외세의존은 량립할수 없다. 외세가 간섭하는곳에는 자주성이 보장될수 없고 자주성이 짓밟히면 민족내부문제가 민족의 리익과 지향에 맞게 공정하게 해결될수 없다. 만일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외세의 간섭과 사대주의, 외세의존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곧 나라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잃어버리는것으로 되며 분렬을 영구화하고 나라를 망국의 비운에 처하게 하리라는것은 명백하다.

민족문제해결에서 자주적립장은 민족자결의 권리를 행사하는것으로 구현되여야 한다.

어떤 민족이든지 완전한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하며 자기 권리를 자기 손에 틀어쥐고 행사하여야 한다. 오직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여야만 나라의 진정한 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민족자결의 권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주체사상,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서만 실제적으로 보장될수 있다. 우리 인민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힘에 의거하는 자주성의 원칙을 관철하는 때라야만 통일문제해결에서 자결의 권리를 실지로 행사할수 있다.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창조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통일문제해결에서 창조적립장을 지킨다는것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통일위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며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모든 문제를 민족적리익과 지향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이러한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여야만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을 굳게 묶어세울수 있으며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게 할수 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어느 한 계급이나 계층의 리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온 민족의 사활적요구에 관한 문제이다. 통일을 위하여서는 남북 전체 인민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야 하며 전민족의 단합된 힘을 동원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에서 창조적립장은 바로 인민대중을 통일위업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모든 지혜와 힘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게 한다.

창조적립장은 또한 자기 나라 혁명을 언제나 중심에 놓고 모든 문제를 그 어떤 기존명제나 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그리고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유리하게 풀어나가는 가장 현실적인 립장이다.

조국통일위업에서 창조적립장을 지켜야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리익과 민족적지향에 맞게 해결할수 있다.

원래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 그자체는 벌써 창조적립장을 견지할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사회주의가 세계적범위에서 승리하고 제국주의가 멸망하는 시대의 력사적조건에서 새로운 형태의 민족문제로 산생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민족적재통합에 관한 문제를 전혀 새롭게 창조적으로 해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기성의 리론이나 처방도 없으며 있을수도 없다.

우리 인민은 처음부터 민족의 리익과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하여 통일의 앞길을 주동적으로 개척하여야만 하였다.

우리 나라의 현실, 우리 인민의 리익과 지향을 떠난 조국통일이란 있을수 없다.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가 외세의 간섭을 결정적으로 배격하고 북과 남사이에 광범한 협상과 교류, 합작을 실현하며 불신과 오해를 풀고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려는것도 결국은 나라의 통일을 우리 인민자신의 힘에 의하여 그리고 민족의 리익과 지향에 맞게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이 모든것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애국애족의 립장에서 주인으로서의 창조적역할을 다할 때 원만히 해결될수 있다.

참으로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있는 애국사상이며 통일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조국통일위업의 확고한 승리적기치로 되여야 하는것은 이 사상이 민족수난과 망국의 길에서 우리 인민의 운명을 구출하고 민족적번영의 새 기원을 열어놓았으며 그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력사에 의하여 검증된 사상이라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그 어떤 리론을 위한 리론이 아니라 복잡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우리가 내놓은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사상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된 엄연한 력사적현실입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5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첫시기에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민족이 생사존망의 기로에서 헤매일 때 영웅적항일혁명투쟁을 조직전개하시여 조선혁명의 승리의 로정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이 해방후 내외원쑤들의 악랄한 방해책동과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찬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놓았다.

지난날 민족의 자주성이 무참히 짓밟히고 근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졌으며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였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자기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주체가 확고히 선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으며 락후한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공업의 나라, 자주, 자립, 자위하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루어졌으며 혁명의 주체적력량은 불패의것으로 자라났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으로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엄연한 력사적현실로 구현되였다.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생활력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도 힘있게 확증되였다.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줄기찬 투쟁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통일방침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중첩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통일위업에 철저히 구현하시여 세계혁명력사상 처음으로 나라와 민족이 분렬된 조건에서 민족해방문제와 민족적재통일문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시고 그를 우리 인민의 민족적, 계급적 리익과 지향에 맞게 그리고 우리의 민족주체적력량으로 해결할수 있는 독창적인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민족내부문제로서의 통일문제의 성격으로부터 조국통일을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원칙에서 평화적으로 실현할데 대한 기본방침, 통일의 각이한 방도, 남북간의 광범한 협상과 교류, 련방제를 비롯한 공명정대한 여러 방안들, 정견, 신앙의 차이와 과거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애국력량을 최대한 결속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할데 대한 폭넓은 반제민족통일전선정책, 민족주체적력량을 강화하면서 객관적요인도 다같이 성숙시킬데 대한 3대력량강화방침 등 그 구체적방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맑스-레닌주의적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주체사상으

로 일관되여있다.

혁명발전의 매 시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공명정대한 통일방침과 구국방안들은 통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위대한 투쟁의 기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었기때문에 내외원쑤들의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진시켜 오늘의 새 국면을 마련할수 있게 되였다.

특히 수령님께서 1971년 8월 6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은 4분의 1세기이상 지속되여오던 남북간의 동결상태를 가시고 자주적평화통일의 실제적가능성을 주동적으로 마련할수 있게 한 획기적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명한 8월 6일연설과 그후 여러 차례의 담화와 연설들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구국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통일의 대문은 열리기 시작하였으며 마침내 남북고위급회담이 마련되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까지 이르게 되였다. 공동성명의 발표를 계기로 분렬의 장벽에는 돌파구가 생기고 통일의 앞길에는 밝은 서광이 비치게 되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실이다.

지나온 력사적행정은 오직 주체의 길, 민족자주의 길만이 제국주의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의 통일독립과 민족의 장래번영을 이룩하는 길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의 장구한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직접적계승으로서의 전국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은 오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서만 승리할수 있다.

이밖에 그 어떤 다른 지도사상이란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3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이것은 남조선인민을 온갖 예속과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숭고한 민족적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당면한 과업은 북반부인민들뿐아니라 전체 남조선인민들이 자주자립의 정신을 가지고 외세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0~11페지)

나라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나서는 선결조건은 외세를 결정적으로 배격하는것이다.

외세의 간섭은 조국통일의 기본장애이다. 우리 인민에게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을 강요한 장본인은 미제국주의자들이며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며 조국통일을 가로막고있는것도 바로 미제를 비롯한 외래침략자들이다. 외세의 간섭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자주권을 보전할수 없으며 나라의 자주통일을 생각할수 없다.

더우기 민족내부문제는 언제나 해당민족의 자결권에 속하는것으로서 어떠한 외부세력의 개입도 허용할수 없는 문제이다. 외세의 간섭밑에서 민족문제의 공정한 해결이란 결코 바랄수 없다.

나라의 통일문제에 외세가 간섭하는것은 그 리유여하를 막론하고 모두다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침해하며 통일을 방해하는것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지난 27년간의 분렬의 력사는 이것을 심각한 교훈으로 보여주고있다.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 민족자주의 립장에 튼튼히 서서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 눌러있을 아무런 구실도 주지 말고 결정적으로 몰아내야 하며 놈들이 유엔이나 그 어떤 제3자를 끌어들여 통일문제에 간섭하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모독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의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침략자들

과 함께 놈들을 업어들이며 그 침략의 발판으로 되고있는 사대매국세력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은 주체사상과 사대주의, 대국과 매국, 진보와 반동간의 치렬한 투쟁이다.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주체의식을 좀먹고 나라와 민족을 망국배족의 길로 이끄는 위험한 독소이다. 사대주의에 빠지게 되면 민족의 자주의식도 자부심도 없는 민족허무주의자로, 남에게 빌붙어 살아가려는 망국노밖에 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민족수난의 오랜 력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이 뼈저리게 체험한 심각한 교훈이며 또 오늘 미제강점하에 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똑똑히 보고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우와 같은 책, 10폐지)

오랜 력사적근원을 가진 사대주의는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 사대주의는 우리 나라에서 고구려가 망한 다음부터 오랜 봉건통치기간에 심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리조말엽에 와서는 그것으로 하여 나라를 망치게까지 되였다.

19세기말 20세기초에 구미렬강과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책동으로 나라와 민족이 위험에 빠졌을 때 사대주의에 물젖은 봉건통치배들은 제각기 큰 나라의 힘을 빌어 권세와 향락을 누리려고 매국배족행위를 일삼고있었다. 리조말엽의 사대매국역적들은 《을사보호조약》, 《정미칠조약》을 강요한 일제에게 아부굴종하고 나중에는 《한일합병》을 자청하는데까지 이르러 놈들에게 나라를 팔아먹음으로써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씻을수 없는 치욕의 기록을 남겨놓았다. 나라가 일제에게 강점된 후에도 끝끝내 사대주의를 하고 외세에 매달린자들은 례외없이 놈들의 주구로 전락되였다.

8.15후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미제강점하에서 남조선인민들이 갖은 불행과 고통을 겪게 된것도 미제의 침략책동과 함께 친미, 친일 사대주의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등지고 외세에 매달리며 통일을 방해하여왔기때문이다. 남조선의 력대위정자들은 근 30년간이나 외세의존정책을 감행하면서 《북진통일》, 《승공통일》을 내걸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하여왔다.

조선인민은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된다는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알게 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오늘 남조선인민들도 위대한 주체사상을 우러러 통일의 앞날을 내다보고있으며 주체사상을 그토록 신봉하고있는것이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통일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굳게 단합하는것은 자주적으로, 평화적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실제적인 담보이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통일의 확고한 기초가 마련되였으며 공동의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기는 문제가 일정에 오른 이 마당에서 당면하게 나서는 것은 북과 남사이의 합작을 실현하는것이다. 이것은 자주적원칙에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절박하고도 정당한 요구이다. 북과 남이 합작하여 서로의 오해를 풀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게 되면 끊어진 민족적뉴대를 빨리 회복하고 조국통일을 훨씬 앞당기게 될것이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진정으로 애국애족적립장에서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떨쳐나선다면 남북통일이 빨리 성취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주체사상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해발이며 고무적기치이다.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그이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남조선에서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신 응 복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인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의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서 그 승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다.

우리 시대의 진리인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날을 따라 더욱더 커다란 견인력을 가지고 남조선인민대중의 심장을 깊이 파고들고있으며 온 남녘땅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특히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를 계기로 더욱 막을수 없는 힘으로 온 남녘땅에 흘러넘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남조선인민들은 나라의 통일독립과 민족의 장래번영을 내다보고있으며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떨쳐나설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자기들의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하며 수령이 내놓은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은 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모든 경험을 일반화하고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인민대중에게 정확한 투쟁강령을 제시하고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에서 옳은 전략과 전술을 세우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아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해방혁명과 민주주의혁명단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단계 등 혁명의 매 단계마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대외사업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걸쳐 독창적이며 현명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실천이 제기한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계신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혁명리론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발전시킨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며 그 진수를 이루는것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람들의 자주성과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나 자연의 구속과 사회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인간해방, 계급해방, 민족해방에 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모든 정책과 로선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은 그

어떤 리론을 위한 리론이 아니라 복잡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우리가 내놓은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입니다.》(《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5페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해방과 나라의 통일독립, 혁명과 건설을 위한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과정에서 그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고 그 정당성이 력사에 의하여 검증된 백전백승의 혁명의 지도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주체를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을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민족의 흥망을 결정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보시고 혁명사업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기 위하여 일관하게 투쟁하여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과정에서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사람이며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신의 힘과 투쟁에 의하여 수행되여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시고 독창적인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과 조국통일을 위한 정확한 로선과 방침들을 내놓으시고 남조선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탁월한 투쟁전략이 있음으로 하여 비로소 자기들의 앞길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할수 있는 백전백승의 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게 되였다.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됨으로써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적로정을 걸어올수 있었다.

실로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조선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끄는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남조선인민들에게 무한한 용기와 불패의 힘,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는 전투적기치이다.

그러기에 오늘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이께 충성다할 한마음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을 세계혁명운동과 조선혁명의 력사적경험이 전면적으로 총화되여있는 《현시대의 최고봉의 맑스-레닌주의》로, 《투쟁의 진리를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격조높이 쓰고있다. 《주체사상의 창시는 인류사상발전사에서 최대의 봉우리를 이루어놓은 대사변으로 된다.》,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세계관을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적세계관으로 승화시키고 심화발전시킨 사상이며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혁명적개조의 가장 과학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며 맑스-레닌주의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맞는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향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은 그 어느 한세대나 몇세대, 몇세기만을 포괄한것이 아니라 인류가 자기의 미래 전기간에 걸쳐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아야 할 영구불멸의 사상이며 우리의 후세들도 만대를 이어가며 영원히 빛내여야 할 혁명적학설이다.》

남조선의 한 언론인은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지만 수상님께서 맑스와 레닌이 죽은후 혁명리론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북에서 실현하신것을 알았을 때 생각되는바가 많았다. 김일성수상님께서 현대정책뿐만아니라 공산주의를 완

전히 건설할 때까지의 전과정을 밝힌 수백권의 책을 쓰셨다니 후세에도 혼란이 없을것이다. 김일성수상님은 확실히 공산주의대가이시다.》라고 말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또한 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들이 목마르게 기다리던 투쟁의 진리를 밝혀준 위대한 사상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김일성수상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사상은 우리에게 민족적긍지를 안겨주었으며 조선민족의 힘으로 하지 못할 일이란 없다는것을 가르쳐주었다.》, 《김일성수상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사상은 우리 민족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척할수 있다는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있다.》, 《주체사상이 남조선혁명의 앞길을 해발처럼 비쳐주는 한 우리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할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신봉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앞길에 새로운 전망이 열리게 됨으로써 더욱 높아가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분렬된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우와 같은 책, 23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시기부터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가장 공명정대한 방안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지난해 8월 6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를 표명하시면서 북과 남사이의 협상을 위한 폭넓은 방안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시여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주동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방침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은 그 정당성과 생활력으로 하여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물론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과 정계, 사회계 인사들속에서도 적극적인 호응을 불러일으켰으며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유리하게 급변하는 정세하에서 남조선당국자들도 남북의 접촉과 협상을 진행할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나섰으며 그 결과로 쌍방적십자단체들간의 회담이 열리게 되고 북과 남의 고위급정치협상이 진행되게 되였으며 력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채택되게 되였다. 남북공동성명에 기초하여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북과 남이 서로 협력하며 합작하여 민족적대단결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제적으로 촉진시키는 문제가 당면한 일정에 오르고있다. 그리하여 조국통일위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촉진시켜나갈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북과 남사이에 어제날에는 서로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일들이 오늘에는 벌써 현실로 되고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정부가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조선사람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온 결과에 이루어진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굳게 닫혔던 조국통일의 대문이 열리고있는 력사적인 시각에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이 더욱 높아가고 그이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더욱 열렬히 동경하며 지지하여나서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이 실현되여 공동성명이 발표된것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통일방침의 빛나는 승리로 되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로 된다.》고 확신에 넘쳐 말하면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열광적으로 지지찬동하고있다. 그들은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표는 력사적, 획기적, 세계적인것이다.》, 《외세를 배제하고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것은 당연한 명제이다.》, 《조국의 통일은 마땅히 우리 단일민족이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실현해야 한다. 남북이 서로 하루빨리 통일의 공통된 숙원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족대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더 절실히 요망된다.》,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이 자주적으로 통일한다는것은 하늘에 머리를 둔 사람치고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있다.

또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에 대하여 남조선의 한 지식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 7월 4일 발표된 남북공동성명은 하나의 력사적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8. 15해방, 4.19 등 우리나라의 력사적사건이 많았는데 7. 4선언은 그 중요성으로 보아 이러한 혁명적사건에 지지 않는것으로 생각한다. 8. 15해방이 미완성적인 민족적독립을 가져왔고…7. 4선언은 민족적독립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리정표라고 생각한다.…이번 7. 4선언에서는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차이를 초월해서 민족적단결을 도모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제까지의 인류의 경험으로는 해결되지 못한것을 감히 우리 민족이 해보겠다는 결의를 나타낸것으로 이는 바로 민족적인 과업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실로 전인류사적인 과업을 우리 민족이 수행하겠다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열렬히 토로하고있는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며 수령님을 모시고 북반부인민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남녘겨레들의 한결같은 념원이 뚜렷이 반영되여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사상으로 한결같이 높이 칭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있다.

《김일성수상님의 주체사상은 우리에게 조국통일의 확고한 신념을 안겨주었으며 승리의 앞길을 밝혀주었다.》

《주체를 세운다면 조국통일문제를 순조로이 해결할수 있다.》, 《남조선에서 우선 당면해서 긴요하게 제기되는것은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립장에서 해결하는 문제이다. 문제가 이렇게 성립되면 이남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은 완전히 외세이며 그들의 주둔은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유린하는것으로 된다. 그리고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침투도 조국통일을 저애하는 세력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김일성수상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힘에 의하여 성취해야 한다. 이 길만이 살길이다.》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립장에서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면 외세를 배격해야 한다.》, 《조국통일은 누가 어떻게 말하든지간에 민족내부의 문제이며 남북겨레들의 힘에 의하여 즉 우리 민족의 힘에 의하여 달성해야 한다.》

이 모든 사실들은 남조선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조국통일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굴함없이 싸워나갈것을 굳게 결의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4분의 1세기가 넘도록 미제침략자들의 강점밑에서 온갖 불행과 고통을 다 겪어온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지극히 응당한것이며 자연스러운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에서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검증되였으며 날이 갈수록 그 위대한 생활력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멀리 달려나아갔으며 륭성발전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누리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45페지)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수령님의 불패의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그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 세기적락후와 빈궁을 털어버리고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 찬란한 민족문화와 불패의 방위력을 가진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나라,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문명하고 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웠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오늘처럼 륭성과 번영의 시대가 펼쳐지고 세인을 놀라게 하는 기적을 창조하여 우리 민족의 영예와 기개를 온 세상에 떨친 때는 일찌기 없었으며 우리 인민이 오늘처럼 삶의 보람을 느끼며 행복한 생활을 누린적은 없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주체사상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된 엄연한 력사적현실이다.

공화국북반부에서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룩한 이 휘황찬란한 현실은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할 때 분렬된 국토와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고 남조선인민들도 진정한 자유와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과 투지를 안겨주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공화국북반부의 찬란한 현실에 무한히 고무된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가슴불태우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혁명의 휘황한 등대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김일성수상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세상사람을 놀래우는 커다란 변혁을 이땅우에 이룩하여놓았으며 미래를 뚜렷이 내다보고 더욱 큰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일어난 세기적인 비약과 변혁들은 남조선인민들에게 끝없는 민족적자부심을 북돋아주고있으며 주체의 길, 자주자립의 길만이 민족의 륭성과 번영의 길이라는것을 진심으로 체득케 하고있다.

얼마전 일본을 방문한 남조선의 한 주민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국땅우에 완전한 자주독립국가,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를 건설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이였다. 우리 인민의 오랜 숙망이 오늘 공화국북반부에 실현되였으니 이 얼마나 휘황한 현실인가. 이것은 유구한 우리 민족청사에 길이 빛날 가장 위대한 사변이다.》

다른 한 주민은 또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님께서는 우리 민족력사에서 새 기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태양이시다.

지난날 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의 매국배족행위와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락후한 식민지반봉건사회로 남아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민족은 온갖 민족적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오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수상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가장 존엄있는 민족으로서 그 위신을 온 세상에 떨칠수 있게 되였다.》

남조선의 한 학생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륭성발전하는 공화국북반부의 장엄한 현실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의 발전모습에 대하여 들을

때마다 새 힘이 솟아나고 통일이 멀지 않다고 느껴진다. 공화국북반부는 우리들의 희망의 등대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자주, 자립, 자위의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된 공화국북반부의 비약적인 발전은 남조선인민들의 경탄과 동경심을 자아내고있으며 그들을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해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게 하고있다.

* *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것은 오늘 남조선에서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 《마이니찌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오늘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으로 살것을 원하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 누구도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의 내정에 간섭하며 민족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허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우리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8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민족수난의 오랜 력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이 뼈저리게 체험한 심각한 교훈이며 또 오늘 미제강점하에 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똑똑히 보고있는 현실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쓰라린 생활체험을 통하여 오직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고 수령님의 로작들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학습하는데 모든 정력을 쏟아붓고있다.

그들은 《김일성선집》을 비롯한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등을 통하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는것을 자기들의 첫째가는 임무로 내세우고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학습은 여러가지 형식과 명칭을 띤 《김일성수상님의 로작연구소조》, 《김일성수상님의 혁명력사연구소조》들이 활발히 조직운영됨으로써 더욱 심화되고있다.

남조선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군산부두로동자들을 비롯하여 리리철도부문, 경성고무공장, 전주운수부문 로동자들속에서 《김일성주의연구소조》들이 광범히 조직운영되고있으며 충청남도 서천군을 비롯한 전라북도 김제군 농민들과 전라남도 개야도의 령세민들속에서도 이러한 연구소조들이 널리 조직되여 활발히 움직이고있다. 보성군을 중심으로 조직된 《일신계》, 인실군에 조직된 《향심총계》, 무안군에 조직된 《친목회》, 대학출신들을 망라한 《정풍회》 등도 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학습하는 연구소조들의 한 형태들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러한 각종 연구소조를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체득하고있으며 수령님에 대한 경모의 정과 충성심을 더욱 두터이 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봉과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은 그 무엇으로도 허물수 없는 확고한것으로 되고있다.

《김일성주의연구소조》에 망라되여 수령님의 불후의 로작들과 전기를 깊이 학습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고있다.

《김일성수상님을 우리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라고 하는것은 참으로 천만번 정당하다.》, 《김일성수상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이의

리론이 가장 위대하고 천재적이라는것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투쟁하기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된다.》,《우리들은 현시대의 위대한 학설인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필승의 홰불로 추켜들고 자신의 세계관으로 무조건 접수하고있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것을 열렬히 옹호하여 싸우고있는것입니다.》

이것은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면서 고귀한 혁명의 진리를 심장으로 느끼며 그것을 자기의 세계관으로, 신념으로 만들고있다는것을 여지없이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은 자신이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한편 도시와 농촌, 공장과 어촌으로 찾아가 암중모색하는 수백만 근로대중들에게 혁명의 진리를 체득시키기 위한 대중정치사업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그들은 이르는곳마다에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심장속에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을 적극 심어주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그 기치밑에 싸워나아가려는 혁명대오가 급속히 자라나고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살며 싸워나가려는 신념을 이렇게 토로하고있다. 《맑스-레닌주의보물고에 빛나는 금자탑을 쌓아올리신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우리의 앞길을 찬란히 밝혀주고있음으로 하여, 확고한 원칙성과 비범한 령도력, 탁월한 선견지명과 혁명적전개력을 겸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를 정확히 령도하심으로 하여 휘몰아치는 파쑈의 광풍에도 겁내지 않았고 기회주의의 탁류에도 휩쓸리지 않았으며 승리에 대한 신심도 드높이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꿋꿋이 전진하여왔습니다.》

《우리는 일편단심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굳게 무장하고 그이께 모든 충성을 다바치는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가 될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난관도 불사신처럼 헤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남녘땅에 혁명의 붉은 기발을 더욱 높이 휘날릴것입니다.》

이처럼 수령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흠모와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투쟁의 지침으로 삼고있으며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충실할것을 굳게 다짐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앞길에는 오직 빛나는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여있다.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가슴속깊이 아로새기고 그이께서 밝혀주신 휘황한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거족적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통일된 조국에서 북반부인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그들의 념원은 멀지 않아 실현될것이다.

근로자 제12호 (루계 368호)

편집위원회

발행소•근 로 자 사 주소•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1972년 12월 1일 발행•1972년 12월 5일

ㄱ—24278 값 50전

1972년도 《근로자》 차례묶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헌

호페지

축 하 문

＊ ＊

편집국론설

혁명전통

당 건 설

정치사상문제

경 제 건 설

남조선문제

국 제 문 제